



수원학  
자료총서

7

수원학자료총서 7



역주  
화은시집

譯註  
華隱詩集

역주

# 화은 시집

譯註 華隱詩集

생활에 느끼는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시



화은 오득영의 시 세계에 주제로 등장되는 것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살펴본 책이다. 수원과 용인 지역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 탐방을 하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고, 유학자로서 생활품을 활용하면서 전통의 명절과 예의를 지켜 나가는 삶의 전범典範을 지탱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화은 전생의 시 세계의 특징은 한 마디로 삶 속에서 부딪치는 모든 것이 시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학자료총서 7

역주  
화은  
시집

譯註 華隱詩集

SRI 수원시정연구원  
SUI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생활에 느끼는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시



# 차례

『화은시집華隱詩集』해제	10	6촌 청탄 오건영과 같이 읊다	65	박우송 정송간과 함께 읊다	90	사은정을 중수 후 좋은 모임에서	124
		해주대에 있을 때 신평사에 가서 읊다	67	종인 태유와 이별에 주다	93	송산을 방문해 민우식을 만나다	126
영은대	32	또	69	청계산에 오르다	95	채동에서 구형 집에서 여러 벗들과 읊다	128
늦가을 손님이 찾아와서	33	영동에서 사냥 놀이로 수원역을 출발하면서		망경대	97	홍현 신성균 산방에서	130
권초은의 방문을 받고	36	재미로 짓다	70	청계사를 방문하다	99	수원군 백일장 이등상	132
박난곡과 함께 시를 읊다	37	안양을 지나면서	71	독성산 보적사	100	단양에 여러 선생을 모시고	134
해주 사람 류문암과 같이 시를 읊다	39	시흥 구읍을 지나면서 느낌이 있어	72	또 읊다	102	공주에서 고향산천으로 돌아가다가 중앙을	
장마 끝날 무렵 구성 지역 제익의 방문을		노량진	73	태고사	103	만남	136
받고	41	용산역	74	낙조대에 오르다	105	수원 문묘 중수 낙성시 운을 따라서	138
서호에서 홍화산을 만나 같이 돌아가다가		서빙고	75	군산항에 숙박하면서 부질없이 읊다	106	공주산성에 오른 느낌	140
우연히 읊다	43	청량리	76	옛 은진미륵	107	쌍수정	142
권서은의 별장에서	45	동두천	77	40세 때 잠시 금강산에 놀면서 우연히 읊다	109	웅심각	143
용호에서 칠석날	47	연천	78	또	110	철교	144
범로 이해관의 방문을 받고	48	철원	79	삼가 윤국장 수강원의 시를 차운하다	111	금강에 배 띄우고	145
이해관이 또 그날 밤에 방문	50	평강	80	고인이 된 교관 하석우를 곡하다	113	영은사	146
또	52	삼방팔경의 하나인 삼방폭포	82	공경히 단군성전을 차운	115	봉황산	148
사백 명암 하석우가 철원에서 전방	54	영천	83	삼가 권운초가 영남에서 경성 필운동으로		서석굴기	150
초가을에 교리 정해식을 만나	56	세심천	84	교거한 시를 차운하다	117	서석굴가	153
또	58	기각봉	85	동전 맹 선생의 망팔 경사스러운 잔치를		창벽가	155
정소포 조석초 조한매 등 여러 선생을		동자암	86	경하하다	119	백강매가	158
모시고 같이 읊다	59	선무대	87	재배하고 맹 선생의 만사에 곡하다	121	웅진	160
만송 조종국의 방문	61	고운산	88	또	122	갑사	162
권운초의 방문을 받고	63	청하곡	89	아석 선생 전수기 씨에게 바치다	123	성추차 보령으로 향하다	163

# 차례

분황 때에 느낌이 있어서	165	이만운이 논산 옛 거처로 돌아간 후 혼자		금룡암 아회	239	장순정택에 유희하는 이날 아침에 눈 비	
보령에서 곧장 수원으로 향하다	167	방문하여 같이 읊다	205	금룡의 별장에서 우연히 만남	240	내리고 바람 불어, 저녁에는 비소로 약속	
계룡산 강선대에 오르다	169	용인의 옛 친구 두 사람과 조소주가 방문	207	영은사 초여름	241	해 다시 읊다	276
안개바다	171	주봉의 석암	209	또	243	눈 내리는 밤에 친구 기다려도 오지	
가을에 부여 고도를 지나면서	173	첫 여름 감사에서 놀다	211	단오날 강가에서 모임	244	앉아서	278
고관사	174	영은사 아회	212	늦봄에 만송 이용원 서용 김용찬과 같이		공주에서 선달그믐 밤을 맞이해	280
공주읍에 있을 때 성재화 성주경의 방문	175	읍 뒤 수청동의 극락암	214	읊다	245	대보름	282
율정 심재찬 문병	177	또	216	봉산에 오르다	248	또	284
또	179	육불일	217	집으로 돌아가면서 읊다	250	위사 김정옥이 새로 마련한 농장의 아집에	
경천역 김금농 방문	180	돌잔치에 느낌이 있어 지술하다	218	이금오에게 주다	251	다다라	286
이만운 산장에서 함께 읊다	182	또	220	동학사에서 병 조리 중인 김정옥을 방문	253	추운 봄에 병으로 칩거하다가 놀라 일어나	
이금오 산당에 모여	183	몇 명의 손님을 맞이해 우연히 읊다	221	가을에 동굴암에 놀면서	255	친구가 와서 같이 읊다	288
제익의 방문	185	능암에서 저물어 돌아가다	222	또	257	이만운과 같이 점운하여 시를 짓다	290
이관직과 고광상 같이 읊다	187	귀로에 취옹봉을 지나다	224	7월에 다시 서굴에 놀면서	259	고요한 밤에 회포를 서술하다	292
동산 심원에게 증정한 시에 화운하다	188	창벽 금강 상류	225	호계 김국당이 방문하자 화암정에 올라 윈		청계산장이 완성되다	294
산성에서 저녁 경치 구경하며	190	산성에서 어두워지자 돌아감	226	운을 빌려 시를 짓다	262	이만운 김만취의 '산성조춘' 시를 차운	
위당 정인보가 이르자 공북루에 같이		전아석 선생이 잠시 논산에 우거하다가 고향		장마 중에 청계 성재화 방문	264	하다	296
오르다	192	으로 돌아가고자 내방하여 하루 묵다	229	서용 김용찬이 잠시 공주에 머물다가 고향		이만운의 수석을 축하하는 자리	298
웅진에서 가을 모임	194	이웃 벗의 '동산' 시에 차운하다	231	으로 돌아오자 주다	266	한노수 시하의 수연을 축하하는 자리	300
철석에 읊다	196	김금농의 경성 이사에 붙여	233	율정 심동산 초청에 참석	268	장순정 사형의 수연 축하	302
7월 16일 밤에 금강교를 산보하다	198	후봉 홍순학의 아들이 마곡국민학교 교장으로		중추에 웅진에서 배를 띄우다	270	만취 김충현의 만사	304
어제 유희를 이어 또 읊다	200	전임하자 따라가므로 시를 지어 줌	235	중양 후 창농 심재극 농장 시사에 참여	272	또 강변의 정자에 오르다	306
심동산을 방문해 지병을 위문	202	조소주를 맞이해 밤에 시 읊기를 청하다	237	눈 오는 밤에 제익을 초청	274	나중에 춘유축 중에서 읊겨 베낌	308

# 차례

지나간 중앙절에 .....	310	배 .....	342	해방초 .....	377	서상룡 선대인 영가 앞에 통곡재배하며
또 .....	312	감 .....	343	뒤이어 권중철 형의 시를 차운함 .....	380	쓴 만사 .....
늦가을 .....	313	석류 .....	344	제비 .....	381	소환에 조난당한 유민을 탄식하며 .....
남파산장에 모이다 .....	315	오동 .....	345	정원의 두견화 .....	383	출정 군인에게 주다 .....
오언 읍시 .....	316	문 앞 오래된 느티나무 .....	346	진춘 .....	385	계사년 신춘에 서울에 살고 있는 최영식
신묘년 수세에 .....	318	앵도 .....	348	상사 김성재 회방 겸 생일 .....	387	이 처음 방문하자 같이 읊다 .....
삼가 매부 이병순 수연을 축하하는 자리 .....	320	파초 .....	350	피꼬리 소리를 듣다 .....	389	이 참봉 호 송담 선생에게 재배하고 곡하며
월정에 우연히 만나서 .....	322	모란 .....	352	호수가 우아한 모임 .....	391	지은 만사 .....
상원에 달구경과 관동 .....	324	구기 .....	354	가뭄을 민망히 여겨 .....	393	임진년 그림 .....
진사 김성재의 방문 .....	326	무궁화 .....	355	단오 .....	395	계사년 정월 초하루 .....
종이를 읊다 .....	328	진등 .....	356	5월 16일 감우가 적은 것이 한스러워 .....	397	보라리 친구 김성식 수연을 축하하며 .....
붓 .....	329	비행기 .....	357	김성재, 양재한 방문 .....	399	낙화를 애석히 여겨 .....
벼루 .....	330	유성기 .....	358	난을 만난 후 벗 윤종대의 방문 .....	401	만춘에 우연히 읊다 .....
떡 .....	331	화로 .....	359	한가한 가운데 즉흥시 .....	403	전춘 .....
옥섬어 .....	332	등화 .....	361	칠석 .....	405	단오 다음 날 김성재 방문 .....
단 위의 소나무 .....	333	요강 .....	363	고기수 오기영 사촌동생 노제의 축문 .....	407	진주에 사는 하은용에게 주다 .....
의죽 .....	334	종 .....	365	8월 보름달 .....	409	복이 지난 후 성재 내방 .....
읍순 .....	335	그림 병풍 .....	367	중앙절에 .....	411	칠석에 성재 형이 또 방문 .....
고매 .....	336	담뱃대 .....	368	또 .....	413	또 .....
의란 .....	337	남초 .....	370	중앙절 후 2일 김성재를 만나서 .....	415	삼중 수연 축하 .....
황국 .....	339	입춘 .....	371	김종한의 방문 .....	417	스스로 만사를 짓다 .....
대추 .....	340	중춘에 큰 눈 .....	373	자탄 .....	419	김성재가 눈 내리는 중 찾아옴 .....
밤 .....	341	우연히 읊다 .....	375	홍재화 격조한 나머지 혼자 방문 .....	421	눈 속의 매화를 읊다 .....

## 차례

송당 업명섭의 만사	459	스스로 탄식함	497
선달 그림날 우스개로 지은 시	460	납설 후 극락암 방문	499
갑오년 상월	462	추운 봄이 싫어 다시 윤춘이 가까워 오자	
상사에 우연히 읊다	464	기뻐서	501
회제	466	봄날 아름다운 때 우아한 모임	503
또	467	전교 권중철 회식에 참석	505
또	468	용호의 저물어 가는 봄	507
늦봄 한류운 농장에 모여	470	장미꽃 필 때 소모임	509
한류운에게 주다	471	갈천에서 봄놀이	510
우중에 김성재와 같이 읊다	473	또	512
또	475	용인 친구 6명 내방	514
만음	476	기이한 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	
봄을 전별하다	478	하브로 장난 삼아 짓다	516
4월 길일에 소모임	479	이성천이 해 넘긴 후 방문	517
용호에서 모여 술잔을 기울이다	481	효도와 절조가 있는 부인 박씨 찬양	519
옛 죽산 이우의 수연대신해서 짓다	482	삼가 신고 최 군수 만사	520
용호에 모였을 때	484	추석 3~4일 전 우중에 우연히 읊다	522
4월 14일 신리 최신암 농장에서 만남	486	중추의 달을 읊다	523
용인군 포곡의 홍재화 내방	488	중양절에	525
농가에서 우연히 읊다	489	납매를 읊다	526
의관 이태진 만사	491	김성재 망구 수연에 주다	528
참봉 오희풍 축하	493	눈 가운데 만음	530
멋대로 읊음	495	또	531

상사 김학조 만사	533
김종식 만사	535
병신년 4월 용호에 놀면서	537
정유년 4월 우연히 모란을 읊다	538
사석재 윤유병의 수연을 축하함	539
집 아우 간우 회갑을 축하	541
집 아우 간우 만 칠순에 장난으로 쓰다	543
두어 명과 함께 또 간우 집에서 읊다	545
통곡의 만사 종손 직원공 영이	547
또	549
신리에 사는 최사교의 수연을 축하	550
한죽사 '송인' 시의 운을 빌려서	552
몇 명의 벗과 같이 읊다	554
최후 읊은 한구	555
영통노규기	556



# 『화은시집華隱詩集』 해제

진성규(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한동민(수원화성박물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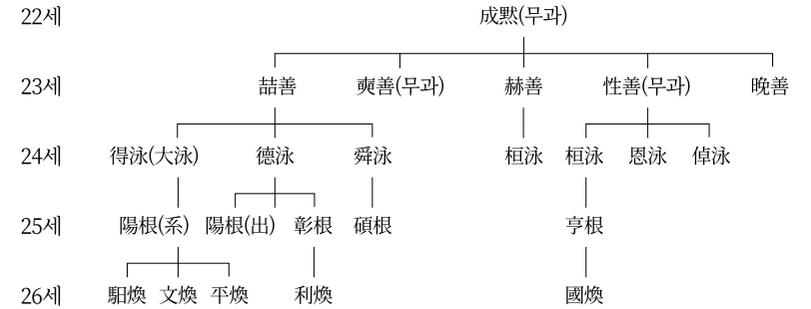
## 1. 영통 해주 오씨와 기증자료

### 1) 영통 해주 오씨의 입향과 번성

영통 해주 오씨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14세 추탄공 楸灘公 오윤겸 吳允謙(1559~1636)의 후손들이다. 오윤겸의 선대는 대대로 용인에 세거해 왔다. 8세 오희보 吳希保(1360~1426)가 벼슬에서 물러나 여생을 즐기기 위해 용인 원삼면에 정착하면서 후손들은 원삼면 죽능리와 목신리 및 학일리 일대에 세거하며 동족촌을 이루었다. 다시 그 중 일부는 용인 모현면 오산리 일대로 이거하여 동족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추탄공파 楸灘公派'라는 이름으로 분파한 오윤겸의 후손들이다.

용인에 세거하던 이들이 수원에 입향한 것은 20세 오탈의 吳泰義의 묘를 수원 청명산에 쓰면서부터이다. 그 후 이들은 수원 청명산과 원천동·영통동 등지에 묘역을 조성한 후 이거하여 수원 영통리와 옆 마을 용인 서리 일대에 정착하였다. 1930년대 해주 오씨들이 가장 많이 거주할 당시 30여 호에 달하였으나 이후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고, 1990년대 후반 영통지역이 개발되면서 동족마을이 해체되었다.

## 영통 해주 오씨 추탄공파 세계도



영통 개발로 마을이 해체되었지만 추탄공파 22세 오성묵의 후손은 수원·용인 지역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남겼다. 오성묵 吳成默(1832~1904)은 1856년 무과에 급제하여 1884년 신전관, 1887년 자인현감을 거쳐 1895년 함양군수를 역임하였다. 오성묵의 아들인 철선 喆善·석선 奭善·혁선 赫善·성선 性善·만선 晚善 등 5형제가 영통리와 서천리 일대에 세거하면서 해주 오씨의 번성을 이끌었다.

오성묵의 큰아들 오철선 吳喆善(1857~1927)은 1887년 전보국 주사, 1897년 중추원 의관을 역임하였고, 1908년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재정부장을 역임하면서 수원지역의 자강운동을 주도하였다. 둘째 오석선 吳奭善(1862~1934)은 1882년 무과에 급제하여 가문의 전통을 잇는 무관을 지냈다. 셋째 오혁선 吳赫善(1867~1935)은 1888년 3월 소현세자의 원침인 소경원 昭慶園 수봉관 守奉官을 임하였고, 1900년 서천리에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넷째 오성선 吳性善(1872~1950)은 1893년 무과에 급제하여 1900년 상의사 주사, 1902년 중추원 의관을 역임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용수농농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역의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사업에 헌신하였고, 용인지역에 보통학교가 설립되기 전 1916년 장흥의숙 章興義塾을 설립하는 등 농촌계몽운동을 펼쳤다. 다섯째 오만선은



1917년 오철선 회갑연(수원박물관 제공)  
양복을 입은 사람 중 왼쪽이 오철선의 장자 오덕영이고 오른쪽이 둘째 아들 오덕영이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1년 영통청명단오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이 느티나무는 개발로 사라진 영통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상징물이었다.

버스운송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경영하는 동시에 참전 상이군사들을 위해 경기 정양원靜養院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해주 오씨들은 당시 용인과 수원 일대의 대표적 지주로서 농촌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사업 및 사회사업에 활발하게 종사하였다.

## 2) 영통 해주 오씨 기증자료

영통지역 유력한 가문으로 해주 오씨의 존재를 파악하면서 오덕영의 손자 오이환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영통동이 개발됨에 따라 한신대학교 박물관에서 영통지역에 대한 문화유적과 민속을 조사한 것도 계기가 되었다. (조사결과는 한신대박물관, 1993,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문화유적 및 민속조사 보고서』 수록)

오이환 선생은 한신대학교 박물관에 제공한 자료 이외에 서가에 소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오이환 선생은 그동안 보관해 오던 소장자료 334점을 2007년 4월 수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는 조부 오덕영과 부친 오창근, 삼촌 오재근 관련 자료이자 영통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 생활사 자료였다.<sup>1</sup> 즉 고문서와 고서를 비롯하여 서화류, 할아버지 오덕영과 아버지 오창근 및 숙부 오재근의 각종 증명서·상장, 가족의 행사사진과 앨범, 편지 등 다양한 생활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오이환 선생의 조부 오덕영吳德泳(1887~1965)은 일본 메이지대학 법정학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인물로, 영통리와 서천리 일대 해주 오씨 집안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일본 유학을 가기 전에는 화성 궤리사關里祠의 강학講學에도 참여하며 전통 한학을 익혔던 오덕영은 전통적 한학과 일본 유학을 통한 근대적 학문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조부 오덕영의 영향으로 부친 오창근吳彰根도 일본 도호쿠제국대학東北帝國大學 경제학부에 유학하였는데 도호쿠제국대학 2학년 때 일본 센다이에서 독립운동으로 2년 구

<sup>1</sup> 한동민, 「영통 해주 오씨와 기증유물」, 『물고을』 4, 수원박물관, 2010.



오득영의 대한제국 군복(수원박물관 제공)

오득영이 사용했던 대한제국 군복과 견장 및 군모에 꽂았던 깃털장식 등 4점을 기증하였다. 군복의 단추와 소매에는 대한제국 황실문양인 이화李花 무늬가 새겨졌고, 대한제국 무관인 부위의 예복에 다는 대례견장大禮肩章에도 이화무늬와 태극무늬와 및 계급을 상징하는 별이 새겨져 있다. 이는 영통 해주 오씨의 큰집인 오득영과 오득영 집안과 관련한 자료들인 셈이다.

한편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용수흥농주식회사를 설립한 오성선吳性善(1872~1950)의 증손자인 오국환吳國煥 선생은 근대 수원과 용인 관련 자료 752점을 기증하였다. 이는 2013년 수원시사편찬위원회가 시사편찬을 위한 지역사료 조사과정에서 오국환 선생의 소장자료를 알게 된 것이다. 이후 수원박물관의 기증 요청에 오국환 선생이 흔쾌히 허락하여 성사되었다. 수원박물관은 2013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관하면서 이때 기증받은 용수흥농주식회사 관련 유물과 직조기 등 기증자료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 애국청년이었다. 오창근은 해방 후 정정보회하에서 감찰위원회 정보관으로 활동하였다.

2013년 오득영의 손자 오평환吳平煥 선생도 오성묵 교지를 비롯하여 오철선과 오득영 관련 자료 및 토지매매 증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 230점을 수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또한 2015년 오일환

吳駟煥 선생은 할아버지 오득영이 사용했던 대한제국 군복과 견장 및 군모에 꽂았던 깃털장식 등 4점을 기증하였다. 군복의 단추와 소매에는 대한제국 황실문양인 이화李花 무늬가 새겨졌고, 대한제국 무관인 부위의 예복에 다는 대례견장大禮肩章에도 이화무늬와 태극무늬와 및 계급을 상징하는 별이 새겨져 있다.

이는 영통 해주 오씨의 큰집인 오득영과 오득영 집안과 관련한 자료들인 셈이다.

일부를 상설전시하고 있다.<sup>2</sup>

오국환 기증자료는 『용수흥농주식회사龍水興農株式會社沿革』, 『저수지 조성 계획서』, 저수지 표석 등 우서 오성선의 농촌계몽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로 근대 용인과 수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sup>3</sup>

이 기증자료 가운데 한문 필사본 『화은시집華隱詩集』과 한글본 『경주이씨세계慶州李氏世系』가 눈길을 끈다. 한글본 『경주이씨세계』는 우서 오성선의 부인이 경주 이씨였기에 가장되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한글본으로 제작된 세보를 출가한 딸자식에게 준 것은 친정 집안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한 배려이다.

한문 필사본 『화은시집華隱詩集』은 전통 한지가 아닌 일제강점기부터 제작된 세로 9줄 붉은 패선이 박힌 인찰지印札紙(24×16.6cm)에 가는 붓으로 쓴 것이다. 가끔 오탃자는 만년필 또는 볼펜으로 수정한 흔적도 있고, 따로 종이를 끼워 새로 쓴 경우도 있어 작성 이후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화은시집』은 시詩 307편, 기記 2편, 축문祝文 1편 등 총 3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저자가 중국 문헌에서 추출한 잡기단구雜記短句, 별명략기, 명심주 팔급시 등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는 번역에서 제외하였다.

오이환, 오국환, 오평환, 오일환 선생 등 네 분의 자료 기증은 영통지역 해주 오씨 가문의 위상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용인과 수원지역 근대사 연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2 김경표, 「오국환 기증유물의 성격과 의의」, 『물고을』 12, 수원박물관, 2014.

3 「해주 오씨 추단공파의 수원정착과 오성선의 농촌진흥사업」,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수원시사 18, 2014.

## 2. 『화은시집』의 주인공 오득영

### 1) 대한제국의 무관

『화은시집』의 저자는 오득영吳得泳(1880~1957)이다. 오철선吳喆善의 장남으로 영통 해주 오씨 가문의 적장자인 셈이다. 해주 오씨의 족보에 실린 오득영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字는 순필舜必이고 호號는 화은華隱이다. 고종 경진(1880년) 5월 28일에 태어났다. 육군 부위로 재직하였고, 병오(1906년)에 통훈대부가 되었으며, 유고遺稿가 가장家藏되어 있다. 정유(1957년) 8월 11일 사망하였다. 묘는 보라리浦羅里의 선고先考가 묻힌 오른쪽 계좌癸坐이다.<sup>4</sup>

‘유고遺稿’가 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것은 『화은시집』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득영의 『대한제국 관원 이력서大韓帝國官員履歷書』에는 출생연도가 1881년 5월 28일생으로 되어 있지만, 해주 오씨 족보에는 1880년생으로 되어 있다. 족보의 출생연도가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득영은 1899년부터 1900년까지 내장원 소속으로 수원군 영화역둔迎華驛屯과 서원둔書院屯의 사음을 지냈다. 그러나 1900년 7월 23일 20세의 나이로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 생도로 뽑혀 보병과步兵科 수업을 받고 1903년 9월 20일 졸업하였다. 당시 육군무관학교 교장은 육군참장 중 2품 이학균李學均이었고 육군무관학교 보병과는 3년 과정이었다. 오득영의 육군무관학교 보병과 졸업증서가 수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무관학교 졸업 이전인 1902년 7월 7일 육군보병 참위參尉로 보직되었고, 1902년 8월 14일 해민원 주사가 되었다.

졸업 직전인 1903년 3월 25일 친위대親衛隊 제1연대 제1대대 견습을 마

쳤고, 졸업 후인 1904년 1월 진위대대鎭衛大隊에 배치되었다. 1904년 2월 24일 진위鎭衛 제6연대 제2대대에 배치되었다가 9월 24일 진위 제1연대 제3대대로 옮겼다. 이듬해 을사년인 1905년 4월 18일 진위보병鎭衛步兵 제6대대로 배치되었다가 곧바로 5월 1일 진위보병 제4대대로 옮겼다. 진위보병 제6대대가 해주 주둔 부대로 해주대海州隊로 불린 듯하다. 따라서 오득영은 1905년 4월 18일 해주대에 부임하여 보름도 안 되어 다시 진위보병 제4대대로 옮겼던 셈이다. 오득영은 해주대海州隊에 근무하며 신광사를 찾아가 일을 쓴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1906년 7월 20일 육군보병 부위副尉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1907년 군대해산으로 오득영은 낙향하였다. 27살의 젊은 나이였다.

한편 오득영은 근대적 학문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대적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였는데, 측량술을 배웠던 것이다. 안산 부곡동 진주 류씨晉州柳氏 모산종택帽山宗宅에는 오득영이 보낸 한문 편지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부탁한 ‘산야 약도山野略圖’ 3장을 만들어 보낸다는 것이다. ‘아우 오득영弟 吳得泳’이라 쓴 것을 보면 모산帽山 유원성柳遠聲(1851~1945)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유원성은 대한제국기 평리원 주사, 법무 주사, 개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던 관료 출신이었다. 따라서 대한제국기 군인이었던 오득영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군대해산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수원측량학교水原測量學校 교사로도 근무하였다. 당시 오득영은 수원 북부면 영화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1909년 9월에는 천도교 수원교구 교리전문강습회에 참여하였다. 제1회 천도교 수원교구 특별지도 청년강습青年講習이 수원군 청호면 당리, 즉 성호면(오산면) 원리園里 당촌(현재 오산시 원동)의 성화회당聖化會堂에서 진행되었다. 성화회당聖化會堂은 당시 천도교당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때 청년 강습생으로 참여한 15명은 오득영을 비롯하여 송재은宋在恩, 김명식金命植,

4 『해주오씨추단공파세보(海州吳氏楸灘公派世譜)』 3권, 1961, 147쪽.

박하원朴夏遠, 장인수張仁秀, 윤준구尹俊求, 김유경金有卿, 임영환林永煥, 이종환李鍾煥, 천윤근千潤根, 구영서具玲書, 장재건張載健, 박영호朴永昊, 진덕희陳德羲, 이병헌李炳憲 등이다. 이들은 이후 수원과 용인지역의 천도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활동하였다.

1909년 15명의 강습생 가운데 오득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물들은 천도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이후 천도교 포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득영의 천도교 강습 참여는 특이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천도교 교리 강습에 참여는 교류했던 인물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오득영이 새로운 시대와 사상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오득영은 이후 천도교와 관련한 활동을 하지는 않은 듯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은시집』에는 이들 천도교 강습에 참여한 사람들과 교류한 흔적이 없다. 이는 이들과 깊은 관계가 아니었거나 교류는 했지만 천도교를 수용한 인물들이 근대 지향과 더불어 한시漢詩 교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2) 지역 유지 오득영: 근대적 회사의 주주가 되다

오득영은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의 유지로서, 근대적 산업에 투자하며 선도적인 경제인으로 활동하였다. 1913년 7월 6일 수원지역 유력자들이 수원전기주식회사水原電氣株式會社를 만들 때 주주로 참여하였다. 전력 공급과 전등 및 전기 기구 판매 및 대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원전기주식회사는 자본금 6만 원으로 수원면 산루리 253번지에서 설립되었다. 수원전기(주)는 수원의 일본인 유력자들과 수원지역의 유지들이 결합된 주식회사였다. 회사 중역으로 전무이사는 일본인 곤도近藤虎之助가 맡았고, 이사는 일본인 가야마 히로시香山弘, 사카데 츠사부로坂手重三郎와 조선인으로 수원을 대표하는 지주였던 홍건섭洪健燮, 양성관梁聖寬 등이 참여하였다. 감사는 일본인 노나가 스에요시野中末吉,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

와 조선인 한상봉韓相鳳이었다.<sup>5</sup> 당시 수원지역의 최고 부자라 할 수 있는 양성관과 홍건섭 및 한상봉韓相龍의 형인 한상봉이 중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득영의 지역적 위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당시 주주로는 일본인 사도 히데미즈佐渡秀光(115주), 텐니치 쓰네히로天日常次郎(100주), 가야마 히로시香山弘(84주), 사카데 츠사부로坂手重三郎(66주), 노나가 스에요시野中末吉(60주), 마나베 키요사쿠眞鍋喜代作(57주) 등과 조선인 주주로는 한상봉韓相鳳(80주), 홍민섭洪健燮(60주), 오득영吳得泳(57주) 등이 있다.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 남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조선인 유지들과 함께 영통지역 오득영의 참여가 주목된다.

또한 1918년 5월 29일 설립된 수원인쇄주식회사水原印刷株式會社에도 주주로 참여하였다.<sup>6</sup> 수원인쇄주식회사는 전무이사를 맡은 가야마 히로시香山弘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주도한 회사였다. 이사 3명(戶田正夫, 坂手重三郎, 吳得泳) 가운데 조선인은 오득영이 유일하였다. 주식은 가야마 히로시(香山弘 342주, 도다 마사오戶田正夫 200주, 사카데 츠사부로坂手重三郎 100주, 그리고 오득영을 비롯한 4명이 각각 60주씩 출자하였다. 이들 주주 7명 가운데 조선인은 오득영이 유일하였다. 당시 오득영은 근대적 주식회사를 통한 경제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유력한 경제인으로 부상하였던 셈이다.

한편 오득영은 작은아버지 오성선吳性善이 주도하여 1928년 설립된 용수흥농주식회사龍水興農株式會社에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용수흥농주식회사는 가난한 농민들의 위하여 농업 자금을 융통하여 농촌진흥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었다. 참여한 주요한 인물은 오성선, 양성관, 오득영, 홍사훈洪思勛, 이병욱李丙旭 등이다.

한편 1937년 오득영은 군용비행기 수원호 헌납에 300원을 기부하였다.<sup>7</sup>

5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要錄』, 東洋經濟新報社, 1921, 122쪽.

6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要錄』, 東洋經濟新報社, 1921, 146쪽.

7 「水原號」에 凝集하는 郡民의 愛國丹誠, 누계 2만 4천원 돌파, 『매일신보』 1937년 10월 7일.

1937년 9월 30일까지 현금자 가운데 김광현(1,000원), 홍사헌(400원), 정영덕·오득영(300원), 근도近藤泰吉·윤태인·가모 마고시로加茂孫四郎·이경의(250원), 오다 하지메田浦(200원), 이광현·이철영(150원), 박기양(100원), 임병구(50원), 조공환(40원) 등이 참여하였다. 군용비행기 헌납은 당시 수원지역 유지들이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대표적 친일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오득영의 삶에서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다.

### 3) 공주 이주와 환고향

1937년 중일전쟁으로 더욱 군국주의적 착취와 친일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오득영은 공주로 피신하는 길을 택하였다. 오득영은 1939년(기묘) 봄 공주읍으로 이사를 하였다. 이는 군용기 수원호 헌납 등 친일적 행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낙향을 통한 은둔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주로 낙향한 결정적 이유는 병약한 외아들 오양근과 관련이 깊다. 오양근吳陽根(1910~1939)은 일본 호세이대학法政大學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영통지역 해주 오씨는 오덕영이 일본 메이지대학 법정학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래 모두 6명의 일본 유학생이 배출되었다. 즉 오득영과 오덕영보다 나이가 어린 막내 숙부 오만선吳晩善(1901~1963)이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고, 오성선의 큰아들 오환영吳桓泳(1904~1972)은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오득영의 아들 오양근吳陽根(1910~1940)이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고, 오덕영의 아들 오창근吳彰根은 일본 도호쿠제국대학東北帝國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또한 오득영의 막내 동생인 오순영吳舜泳의 아들 오석근吳碩根(1916~2005)은 일본 센슈대학專修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이들 3대에 걸친 6명의 일본 유학생들은 한결같이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인데, 실용적인 것을 숭상하는 가풍을 반영하

는 증표라 할 수 있다.

오양근은 원래 오덕영의 장남으로 아들이 없는 큰아버지 오득영의 양자가 됨으로써 영통지역 해주 오씨 적통을 이은 셈이다. 일본 호세이대(法政大)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오양근은 고향 영통리에서 논산 출신 권태정權泰正과 결혼해 살았다. 그러나 몸이 약해 공기가 좋은 곳에서 요양하고자 공주로 옮겨가 살게 되었다. 이사해 집을 구입한 곳이 공주군 남부면 봉황리로 현재 공주시 봉황동이다. 오양근은 공주에 살면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병약했던 관계로 끝내 1940년 5월 29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다.

오득영은 영통 고향에 살다가 1939년 봄 공주로 이사하여 나이 어린 손자들을 건사하며 살았다. 그가 공주로 이거하였던 시기는 1937년 만주사변과 1942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군국주의적 만행으로 고통을 받던 시절이었다. 1937년 군용기 수원호에 헌금을 강요받은 이후 이러한 군국주의적 상황을 벗어나고자 공주로 낙향한 것이기도 하다. 1939년 공주로 낙향한 이후 1945년 해방을 그곳에서 맞이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터진 민족상잔의 6·25전쟁까지 공주에서 겪어야 했다.

한편 공주 봉황리 거주하는 오대영吳大泳의 「서석굴기西石窟記」(1939)가 『화은시집』에 실려 있다. 이에 『화은시집』의 저자가 오대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추론도 틀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대영은 오득영이 개명한 또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동생 오덕영과 이름이 비슷해 사람들이 오득영과 오덕영을 착각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공주 봉황리에 거주하던 오득영은 아들 오양근의 죽음 이후 1940년 11월 9일 오대영으로 개명하였던 것이다. 1961년 족보에는 오득영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현재 인터넷 족보에는 오대영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6·25전쟁을 공주에서 맞이했던 오득영은 1950년 9·28수복이 되면서 온 가족을 이끌고 수원 영통 본가로 돌아왔다. 그러나 1951년 1·4후퇴

때 중공군이 영통리와 서천리까지 남하하는 상황을 봐야 했다.<sup>8</sup> 당시 중공군이 영통리 크고 좋은 오득영 선생의 집을 본부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서모가 돌아가셔서 만장이 집안 가득 있어서, 인근 서그내(서천리) 오성선 선생 댁으로 가서 그곳을 본부로 사용하였다.

오득영은 고향으로 돌아온 뒤 1957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시를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죽음 전날 친한 벗인 한봉교韓鳳教가 문병을 왔을 때에도 시를 지을 만큼 문학적 취향을 잃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다.

### 3. 교유 인물

#### 1) 용인지역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 학파 사람들

오득영은 수원군 태장면台長面 영통리靈通里 출신이다. 그러나 수원 인물들보다 이웃 서천리 등지의 용인 출신 인물들과 많은 교유를 하였다. 행정구역이 수원과 용인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수원 영통리와 용인 서천리는 길 하나 차이였다. 실제 이들은 먼내[遠川]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한 원천문화권이였다. 특히 해주 오씨들은 수원 영통과 용인 서그내(서천리) 일대에 분포하여 살았다. 더욱이 수원 영통의 해주 오씨들이 용인지역에 오랫동안 세거해 왔다는 점에서 수원지역 인사들보다 오히려 용인지역 인물들과 교류가 깊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에 오득영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용인지역 사대부들과 관련해 주목되는 바가 있는데 맹보순과 김학조 등이 그러하다.

맹보순孟輔淳(1862~1933)은 호가 동전東田으로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9세에 용인 신갈의 김수운에게 한학을 배우고 15세에 야우野愚 서정순徐政淳에게 배웠다. 따라서 동전 맹보순은 이이 학파의 낙론洛論계열의 홍직필

8 1951년(신묘) 여름에 영통 옛 집으로 돌아왔다고 쓰고 있다.

洪直弼 -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의 학통을 이은 야우 서정순의 제자로 경기 남부의 고산 임헌회의 학통을 이은 고산학파鼓山學派의 중심인물이었다. 맹보순은 33세 무렵인 1894년 가을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자 용인 갈천의 금화산金華山으로 이사하여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에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백련암白蓮菴·영모재永慕齋·사은정四隱亭 및 1897년 용인 신갈의 상촌桑村에서 강학을 하였다.

김학조金學祖(1875~1926)는 용인 출신으로 맹보순의 조카였다. 용인지역에서는 상당한 재력가로 통했고, 흔히 '김 진사'로 불렸다. 1897년 용인 신갈 상촌에 강사講舍를 지어 외삼촌 맹보순을 초빙했던 것이다. 동전 맹보순의 명성에 힘입어 1906년 5월 기존 학당의 규모가 협소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용인향교 명륜당으로 들어가 학당의 명칭을 '용인명륜학교龍仁明倫學校'라 개칭하였다. 이는 용인지역에서 근대식 '학교'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첫 사례였다.<sup>9</sup> 이후 맹보순은 1909년 수원향교에 수원명륜학교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자 맹보순은 김학조와 함께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안동현 구시가지에 '성신태誠信泰'라는 상점을 열고 연락기관으로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sup>10</sup> 독립운동에 나선 그의 제자로는 김혁金赫과 이영선李永善이 있다. 1919년 고종의 승하로 귀국한 후 유럽대표들이 주도한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였고, 1922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전조선유림대회를 개최하였다. 1926년 순종 서거 후 용인의 심곡서원深谷書院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 1933년 8월 별세하였다.<sup>11</sup>

한편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 →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학통을 이은 용인의 정관해鄭觀海(1873~1949)가 있다. 정관해는 1912년부터 1947년까지 세상의 변화를 『관란재일기觀瀾齋日記』로 남겼다.

9 정광순, 「용인 명륜학교일기에 관하여」, 『경기향토사학』 4,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9.  
10 서동일, 「1910년대 중국 안동 성신태 상점 설립과 독립운동 지원」, 『사람』 56, 수선사학회, 2016.  
11 박성순, 「孟輔淳의 『東田文集』 편찬과 잊혀진 獨立運動史」, 『東洋古典研究』 65, 동양고전학회, 2016.

관란재 정관해의 손녀사위가 죽사竹沙 한봉교韓鳳教이다. 오득영의 가장 절친한 벗이었던 한봉교는 오득영의 임종하기 바로 전날까지 문병을 하며 교유했던 인물이다.

## 2) 해주 오씨와 인척들

초운樵雲 오기영吳琪泳(1886~1952)은 오성묵吳成默의 3자 오혁선吳赫善의 장남으로 오득영의 사촌동생이다. 기수技手로 의약 공부를 하였는데, 1952년 7월 22일 사망함으로써 오득영의 아쉬움을 받은 바 있다. 오인영吳寅泳은 용인 수여리水餘里에 거주하는 삼종형이다.

친동생 남파南坡 오덕영吳德泳은 메이지대 법정학부 졸업하고 태장국민학교를 창설하였으며, 태장국민학교 후원회장을 20여 년 역임하였다. 오득영의 유고遺稿가 있다고 죽보에 쓰여 있는데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오득영은 1956년 9월 보름날 동생 간우良愚 7순을 기념한 한시가 있는데, 간우良愚는 친동생 오덕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오덕영은 호가 남파南坡와 노년에 간우良愚라는 호를 사용한 셈이다.

청탄聽灘 오건영吳建泳(1887~?)은 오덕영의 6촌 재종이다. 할아버지 오성묵의 둘째 형인 탄운灘雲 오창묵吳昌默의 손자로 석정石汀 오정선吳鼎善의 아들이다. 관립외국어학교와 양정의숙을 졸업하고, 탁지부 주사를 역임하였다. 동일은행 취체역을 지냈다.

한편 친가 이외에 인척으로 매부 이병순李丙順(1860년생)이 주목된다. 이병순은 우봉 이씨로 이용구李龍九의 아들이다. 이용구李龍九(1860년생)도 영양군수, 용강군수, 승녕부 시종承寧府侍從 등을 역임하였다. 이용구의 동생으로 이왕직 사무관, 학부 서기관을 역임한 이회구李會九(1873년생)는 이병순의 숙부이다. 우봉 이씨와 혼맥은 오성선의 손자이자 오국환의 부친인 이형근李亨根의 부인은 이병희李丙熙의 딸이다. 이병희는 용인군 이동면 천리 출신으로 충청도 수군절도사 이봉구李鳳九의 5남 3녀 중 3남

이다. 사학자로 이름이 높은 두계 이병도李丙燾(1896~1989)가 막내 동생이다. 이병희는 명필가로 이름 높았던 인물이다.

## 3) 기타 인물들

위당 정인보鄭寅普(1893~1950)와 관련한 한시가 주목된다. 위당 정인보는 한학자·역사학자로 양명학 연구의 대가였고 동시에 한민족이 주체가 되는 역사체계 수립에 노력한 역사학자였다. 저서로 『조선사연구』·『양명학연론』 등이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정인보는 호를 담원麓園·위당爲堂을 사용하였다. 어려서 외삼촌 서병수徐丙壽를 통해 이견방李建芳의 휘하에서 양명학을 배워 강화학파의 학맥을 이었다. 1912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박은식, 신규식, 신채호, 문일평 등과 함께 동제사를 결성, 광복운동을 펼치다 1913년 부인의 사망으로 귀국하여 충청도에 정착하였다. 1923년 연희전문학교 전임이 되어 한문학과 조선문학을 강의하였고, 1931년 『조선고전해설』, 1933년 『양명학연론』, 1935년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계기로 안재홍 등과 함께 『여유당전서』를 교열·간행하였다.

1938년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조선어 강좌가 폐지되자 연희전문을 사임하고 전북 익산군에 은거하였다. 오득영과 공주 공산성 공북루拱北樓에 함께 올라 한시를 교류한 것이 있는데, 정인보가 익산으로 낙향한 뒤의 일이다.

정인보는 해방 후 국학대학 초대 학장이 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 초대 검찰위원장을 맡았는데, 조카 오창근이 그 밑에서 검찰위원을 한 인연이 있다. 오창근에게 보낸 정인보의 편지가 있고, 오창근의 부친 오덕영의 회갑을 맞아 보낸 김규식, 윤기섭, 조소앙 등이 쓴 축수 시가 있다. 정인보는 1950년 6·25전쟁 때 납북되었고,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추서되었다.

한편 권서은權書隱은 권태동權泰東(1882~1964)이다. 권태동은 수원지 역을 대표하는 의사였다. 고향은 용인군 기곡면 서근천書斤川, 현재 서천

리 서그내 출신이다. 권태동은 1907년 대한의원 교육부 제1회 졸업으로 1910년 관립 수원자혜의원에 근무하였고, 1913년 성안 남창동에 동화의원東華醫院을 개원하였다. 이후 1963년 은퇴할 때까지 수원시의사회장 등을 역임하며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의사로 활동하였다.

#### 4. 화은 오득영의 시詩 세계

오득영의 생애를 말할 때 시詩와 분리해서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詩는 그의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면裏面에는 시작詩作을 가능케 한 유학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었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1913년 32세에 수원전기주식회사 설립에 주주로 참여할 정도로 경제력이 다대하였다. 그 경제력 위에 큰 어려움 없이 활동적인 삶을 즐기면서 시작詩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화은 오득영의 시는 한 마디로 '생활시生活詩'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한 주제에 집착해 끝까지 파고드는 고뇌의 시詩라기보다는 일상 생활에 느끼는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그런 유형의 시라 하겠다.

그의 시작始作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친구들이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깊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로 교류를 맺은 인물은 다양하다. 우선 용인지역의 사람들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용인지역 사대부로 동전 맹보순孟輔淳과 그 조카 성재 김학조金學祖 및 관란재 정관해의 손녀사위 죽사 한봉교韓鳳教를 비롯하여 용인 서천리 인근 지역의 '용인 옛 친구들'로 일컫는 용인 포곡의 화산華山 홍재화洪在華, 두암杜菴 윤순구尹順求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마을 서천리의 서은書隱 권태동權泰東, 용인 보라리甫羅里 김선식金善植 등이 용인출신 인물들이다. 해관海觀 이범노李範魯, 교관教官을

지낸 명암明庵 하석우河錫禹, 교리를 지낸 단애丹崖 정해식鄭海式 등도 용인에서 활동한 인물들로 추정된다.

오득영이 공주로 이거하는 전후에 사귄 것으로 보이는 충청도 공주 친구들로는 성재화成載華, 성주경成周慶 및 공주 경천역敬天驛에 사는 금농錦農 김교준金教駿, 공주 울정栗亭의 동산桐山 심재찬沈載謙, 또는 처가가 있는 논산에 거주하는 만송晩松 조종국趙鍾國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거주지가 파악되는 인물로는 서울 흥현紅峴의 신성균申性均, 서울 거주 최영식崔英植, 평양에 사는 해주 오씨인 굴산橋山 오태유吳泰遊, 충북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에 거주하는 참봉 오희풍吳熙豐, 경상도 진주의 국사菊史 하은용河殷燦, 수원 영통 신리 거주 신암莘庵 최사교崔士教, 송산에 거주하는 민우식閔雨植 등이 있다.

또한 우송又松 박화주朴和柱, 송간松澗 정환순鄭桓淳, 구운龜雲 김종한金鍾邯, 미당美堂 엄명섭嚴明燮, 학포鶴圃 양재한梁在漢, 충헌忠軒 김종식金宗植, 사석재奎釋齋 윤유명尹酉炳, 아석我石 전수기全秀璣, 만운晩雲 이만용李萬用, 금오錦塢 이좌李佐, 해관海鹽 이관직李觀植, 위반渭畔 고광상高光翔, 동산桐山 심원沈源, 후봉後峯 홍순학洪淳翬, 소주梳洲 조종윤趙鍾綸,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만송晩松 이용원李容遠, 서옹恕翁 김용찬金容瓚, 위사韋士 김정옥金正玉, 청계聽溪 성재화成載華, 창농蒼農 심재극沈載克 그리고 전교典校 권중철權重哲과 의관議官 이태진李泰鎭 및 윤종대尹鍾大, 서상룡徐相龍, 김종직金宗植, 한노수韓魯洙 등이 있다. 또한 정확한 이름은 아니지만 호로 불린 이로는 충청도 논산의 이만운李晚雲, 논산에서 살다 서울로 이주한 김금농金錦農, 서울 필운동 잠시 살다가 영남에 거주하는 권운초權雲樵, 호계虎溪에 사는 김국당金菊堂을 비롯한 정소포丁小圃, 조석초趙石樵, 조한매趙漢梅, 박난곡朴蘭谷, 류문암柳文庵, 장순정張尊汀, 한류운韓柳雲, 이성천李星泉, 이송담李松潭 등이 있다.

오득영이 교류한 인물은 63명이 넘는다. 친구 한 사람과 여러 번 주고받

은 것은 한 번으로 계산하고, 친척親戚 간에 준 시도 제외한 숫자이다. 그의 삶의 여정에서 시를 지어 줄 상대가 63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약 300수의 시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친구 또는 친척에게 쓴 시이다.

그다음 시의 주제로는 명승지류가 많다. 삼방폭포三訪瀑布, 영천靈泉, 세심천洗心泉, 기각봉奇角峰, 동자암童子巖, 선무대仙舞臺, 고운산高雲山, 청하곡靑霞谷, 청계산淸溪山, 망경대望京臺, 독성산禿城山, 낙조대落照塔, 은진미륵恩津彌勒, 금강산金剛山, 단군성전檀君聖殿, 공주산성公州山城, 쌍수정雙樹亭, 웅심각雄心閣, 금강錦江, 봉황산鳳凰山, 서석굴西石窟, 공북루拱北樓, 금강교錦江橋, 금릉암錦龍菴, 봉산鳳山, 청계산장淸溪山庄, 남파산장南坡山庄, 용호龍湖, 영은대靈隱臺, 서호西湖 등이 그곳이다. 오득영 인생에 있어 명승지를 찾는 것은 삶의 활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그렇지만 명승지를 탐방한다는 것은 시간과 경제력이 필수적이다. 화은 오득영에게 경제력은 이런 종류의 시를 지을 수 있는 원천적인 활력소가 되었을 것이다.

유학자 자질을 갖춘 그로서 사찰 탐방은 많지 않다. 『화은시집』에 보이는 사찰은 해주의 신광사神光寺, 오산의 보적사寶寂寺, 금산의 태고사太古寺, 공주의 영은사靈隱寺, 공주의 갑사甲寺와 동학사東鶴寺, 부여의 고란사皋蘭寺, 수청동의 극락암, 공주 서석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오득영의 다른 이름인 오대영吳大泳의 「서석굴기西石窟記」가 주목된다. 서석굴西石窟은 공주 서혈사지西穴寺址에 있는데, 현재 충남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백제시대의 절터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37호(1982년 12월 31일)로 지정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도 서혈사는 망월산에 있다는 기록이 있고, 1927년이 절터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西穴寺'라고 새겨진 기와조각과 석불石佛 3구가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통일신라시대 석불이 보물 제979호 공주 서혈사 석불좌상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오득영의 「서석굴기」는 1939년 서석굴을 방문한 기록으로

일제강점기 서석굴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듯하다.

그 밖에 시 세계 주제로 등장되는 요소로는 생활용품이 많이 보인다. 즉 생활용품으로 종이, 붓, 벼루, 옥섬여(연적), 전등, 유성기, 화로, 요강, 종, 담뱃대, 남초, 해방초, 구기梅杞 등이 그것이다. 식품류로는 대추, 밤, 배, 감, 석류, 앵도가 있고, 식물로는 오동, 파초, 모란, 무궁화, 두견화 등이 시 주제로 나타난다. 또한 명절인 단오, 중추절, 칠석, 중앙절, 설날, 상원(정월 대보름), 납설(납일에 내리는 눈) 등 세월의 흐름과 명절을 주제로 한 시가 제법 많은 편이다.

이상은 화은 오득영의 시 세계에 주제로 등장되는 것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살펴본 것이다.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수원과 용인 지역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 탐방을 하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고, 유학자로서 생활품을 활용하면서 전통의 명절과 예의를 지켜 나가는 삶의 전범典範을 지탱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화은 선생의 시 세계의 특징은 한 마디로 삶 속에서 부딪치는 모든 것이 시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다.

한 가지 의문점은 한일합방이 되던 해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경제적 수탈이 극심했던 때 일본과 관련된 시는 한 편도 없다는 점이다. 혹여 별도의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관련한 시가 한 편도 없다는 것은 오득영의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역주

화은  
시집

譯註 華隱詩集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영은대

영통집 후원에 있다



구불구불한 절벽에 층대를 쌓았으니  
 누가 이 사이 별경이 있는 줄 알리  
 물 흐르는 뜨락 중간엔 괴석도 많고  
 꽃 심은 여분의 땅엔 푸른 이끼 끼었구나  
 말술 갖고 가서 께꼬리 소리 듣고  
 돈 한 푼 필요 없는 푸른 산에 왔지  
 종일토록 고기 보면서 일 없이 앉았노라니  
 거울 같은 네모진 연못은 술잔보다 작구나

靈隱臺 在靈通第後園

逶迤絕壁築層台  
 誰識此間別境開  
 灌水中庭多怪石  
 栽花餘地又蒼苔  
 斗酒往聽黃鳥出  
 一錢不買碧山來  
 鎮日觀魚無事坐  
 方塘如鑑小於盃

## 늦가을 손님이 찾아와서



화양에서 학 타고<sup>1</sup> 맑은 가을에 돌아오니  
 토란 밤나무 깊은 동산 일마다 한가하지  
 잎 떨어진 산 모습 바윗돌만 많고  
 벼 익은 들판엔 황금 빛 번뜩이네  
 시주가 사람 괴롭혀 흥을 유발시키지만  
 연로<sup>2</sup> 성벽에 무엇을 다시 근심하랴  
 산골 주방 안주 없다 탓하지 말라  
 투할<sup>3</sup> 가동은 손님 유숙에 익숙하다네

앉아서 단풍나무 보니 가을 빛 아깝고  
 술두루미 꿰어 찬 나그네 흥도 많구나  
 신선술 강설에 사람은 속되지 않아도  
 신령한 곳에 벌려 놓으니 세상과 어긋나네  
 바람에 잣 떨어지니 누런 삼살개 달아나고  
 서리에 국화꽃 피니 흰 기러기 나르지

- 1 화양(華陽)에서 학 타고 : 육망을 채우려는 것을 비유한 말에 양주학(楊州鶴)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귀한 손님이 방문한 것을 두고서 한 말이다. 화양은 삼각산(三角山) 남쪽, 즉 서울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에서 온 귀한 손님을 뜻한다.
- 2 연로(煙露) : 연(烟)은 산천에 낀 안개 같은 것이고, 로(露)는 나무나 풀에 맺힌 이슬이다. 즉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말한다.
- 3 투할(投轄) : 서한(西漢) 때 진준(陳遵)이라는 사람이 술을 좋아해 손님이 수레타고 오면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수레바퀴 굴대를 뽑아 우물에 던진 데서 유래한 말이다. 『전한서(前漢書)』 권92, 진준전(陳遵傳).

9월의 농촌 마을은 즐거운 일도 많거니  
온갖 곡식 풍년들자 집집마다 풍성하리

제제<sup>4</sup>한 모습은 죽림칠현 같고  
말년에 우아한 모임 날마다 찾아오지  
남쪽 지역 기러기에 국화 늦게 피고  
서풍<sup>5</sup>에 낙엽지자 햇빛마저 싸늘하네  
취중에 세상사가 무슨 관심 있으랴  
시 속에서 고인의 마음 읽을 수 있나니  
가련하구나! 여인과 만날 틈도 없더니  
벽의 벌레소리 난지러운 다듬이질 소리에 실어 보내리

秋晚客至

華陽駕鶴返清秋  
芋栗深園事事幽  
木落山容多石老  
稻肥野色復金流  
詩酒惱人能惹興  
煙露爲癖更何愁  
不嫌菲薄山厨供  
投轄家僮慣客留

4 제제(濟濟) : 업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한다.  
5 서풍(西風) :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주로 가을바람을 말한다.

坐看楓樹愛秋暉  
有客當樽興不微  
仙術講來人不俗  
靈區鋪置世相違  
風松子落黃猿去  
霜菊花開白雁飛  
九月田村多樂事  
場登百穀萬家肥

濟濟七賢似竹林  
曠年雅契日相尋  
鴈來南國黃花晚  
木落西風白日陰  
醉裡何關今世事  
詩中猶見故人心  
堪憐女伴無閒隙  
一任壁虫送亂砧

## 권초은의 방문을 받고



천 리 길 그리움에 자주 꿈을 꾸고  
 잔치자리 기쁜 것은 몸이 건강한 것  
 다향은 방 안을 둘러싸고 산은 고요한데  
 매화 그림자 드리운 난간에 술은 풍족하네  
 기운은 쇠하지 않고 시율도 웅장해  
 의관은 옛날 같지만 흰머리 새로 나니  
 어떻게 금단술金丹術을 배워서  
 여생의 향락을 청춘처럼 길이 보전하리

### 權樵隱見訪

千里相思入夢頻  
 逢筵却喜康強身  
 茶香繞室山方寂  
 梅影依欄酒不貧  
 志氣未衰詩律壯  
 衣冠猶舊鬢毛新  
 如何學得金丹術  
 享樂餘生永葆春

## 박난곡과 함께 시를 읊다



해 걸러 상봉하니 갑자기 청안<sup>1</sup>이 되고  
 하루 종일 청담으로 파초 뜨락 걸었지  
 시로 맺은 인연 계속키 어려움 춘몽 같아  
 세사에 무관한 자네만이 홀로 깨어 있구나!  
 연무에 잠긴 벼들 빛에 아름다운 길 그윽하고  
 비 맞은 해나무 향기에 저녁 구름 발길 멈추었지  
 시냇가 노란 피꼬리는 짝을 찾으려고  
 나란히 앉아 조잘조잘 그 소리 듣기 좋아라

1 청안(靑眼) : 기뻐하는 눈을 의미한다. 죽림칠현의 한 사람이었던 완적(阮籍)은 속인을 보면, 백안(白眼)으로 흘겨보고,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면 청안으로 맞이했다고 한다. 즉 청안은 친밀감이 담긴 눈매, 남을 따듯이 대할 때를 말한다. 『진서(晉書)』 완적전(阮籍傳).

共唵朴蘭谷

隔歲相逢眼忽青  
清談盡日步蕉庭  
詩緣難續春如夢  
世事無關子獨醒  
柳色鎖烟芳逕邃  
槐薰釀雨暮雲停  
黃鸝渠亦能求友  
竝坐啾啾不厭聽



## 해주 사람 류문암과 같이 시를 읊다



해서<sup>1</sup>에서 놀다가 수양산<sup>2</sup> 동쪽에 도착해  
창가에 청담 나누니 세상 근심 사라지고  
종이 가득한 짚은 구름 붓 끝에서 피어오르니  
사람 놀라게 하는 가어<sup>3</sup>는 시 가운데 있구나!  
평상에서 달 만나 삼경<sup>4</sup>까지 지새우고  
석류꽃에 술잔 대하니 만 가지가 붉구나  
문노니 수양산<sup>2</sup> 아래 사당에는  
지금도 옛날 같은 청풍고절이 남아 있는가?

1 해서(海西): 황해도 지방을 가리킨다.  
2 수양산(首陽山): 황해도 해주 수양산이다. 해주의 진산(鎭山)으로 문묘(文廟)·청성묘(淸聖墓) 등 유서 깊은 사적들이 많다.  
3 가어(佳語): 찬미하는 말, 의미 깊은 말을 뜻한다.  
4 삼경(三更): 하룻밤을 5등분한 셋째의 시각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다.

與柳文庵共吟(海州人)

海西遊橐到山東  
清話軒窓世慮空  
滿紙濃雲生筆底  
驚人佳語在詩中  
相逢榻月三更白  
對的榴花万朶紅  
借問首陽山下廟  
尙今依舊有清風



## 장마 끝날 무렵 구성駒城<sup>1</sup> 지역 제익諸益<sup>2</sup>의 방문을 받고



두세 굽 높은 신 신고 구성에서 걸으니  
여러 달 긴 장마에 잠깐 개인 것도 좋아라  
대지는 가을 빛 머금어 달빛처럼 찬란하고  
숲 가득 서늘한 기운 풀벌레 소리 울리네  
이두李杜<sup>3</sup>와 같은 명성 금세에 나타나니  
지란芝蘭 같은 기운으로 옛 정을 이야기하지  
이슬 떨어지는 파초 창에 잠들 수 없나니  
명멸하던 은하수는 지붕 위에서 소생했네

1 구성(駒城) : 고구려 때 용인을 구성현(駒城縣)이라 불렀다.  
2 제익(諸益) : 제우(諸友)라고도 하며 도움을 주는 좋은 벗들을 뜻한다.  
3 이두(李杜) : 이태백과 두보를 가리킨다.

駒城諸益霖餘見訪

兩三高屐自駒城  
積月長霖善乍晴  
大地秋容多月色  
滿林涼意動虫聲  
名同李杜來今世  
氣似芝蘭話舊情  
露滴窓蕉人不寐  
星河明滅屋頭生



## 서호西湖<sup>1</sup>에서 홍화산을 만나 같이 돌아가다가 우연히 읊다



겨우 한형주를 알아<sup>2</sup> 다시 시를 논하니  
여흥은 이름난 호수 서호에서 꽃 떨어질 때  
서사西社<sup>3</sup>로 돌아오니 황혼이 가깝고  
동창에서 새벽에 일어나니 해는 길고 기네  
거문고 사람 화평게 하니 악보 해석할 수 있고  
술이 나를 병들게 해도 잔 사양할 수 없지  
선장<sup>4</sup>에서 뒷기약 가슴 속 깊이 새겨 두게나  
뒷날 서로 만남은 바로 친구일 뿐이네

1 서호(西湖) : 정조가 화성을 축조하면서 수원 화성의 서쪽에 만든 인공호수이다. 축만제(祝萬堤)로도 불린다.  
2 한형주를 알아 : 당 나라 이백(李白)이 흠모했던 한형주(韓荊州)에게 보낸 편지에 "제가 듣건대 천하의 담사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살아서 만호후(萬戶侯)에 봉해지기보다 한형주(韓荊州) 한 번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어찌 사람들의 경모를 여기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自聞天下談士相聚而言曰 生不用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 何令人之景慕 一至於此耶)"라고 하였다. 『이태백문집(李太白文集)』 권25,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  
3 서사(西社) : 토지신에게 제를 지내던 곳이다.  
4 선장(仙庄) :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하며 상대방의 집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선장(仙莊)이라고도 한다.

西湖逢洪華山同歸偶吟

纔逢識荊更話詩  
名湖餘興落花時  
歸來西社黃昏近  
眊起東窓白日遲  
琴可和人能解譜  
酒雖病我不辭卮  
仙庄後約銘心肺  
他日相逢是舊知



권서는權書隱<sup>1</sup>의 별장에서



선장이 담박하니 저녁 바람 불어오고  
빈 뜨락은 버드나무로 반이 가렸구나  
먼 길손 누각에 오르니 월궁인 듯싶고  
돌아가는 구름 나무 감싸 뉘 집 호위하려는가  
하루아침 생이별에 덧없이 꿈속에 머물고  
수없이 보아도 꽃은 싫지 않나니  
저녁 기운 잠깐 서늘해지면 문 닫히는 법  
별과 나비처럼 서로 자랑하기를 좋아하네

풍우로 가득찬 성 안은 바로 초가을  
찌든 가슴 씻어 버리려 물가에 앉았지  
운연은 특별한 곳 감싸 안기 좋아하니  
동산에서 토란과 밤을 거둘 수 있으리<sup>2</sup>  
천계의 서늘한 기운에 쌍방망이 울고  
큰 바다에 술 쏟아 누각이 떠버린 듯

1 권서는(權書隱) : 서은(書隱)은 권태동(權泰東, 1882~1964)의 호이다. 권태동은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출신으로 1907년 대한의원 교육부 제1회 졸업생이다. 수원에서 동화위원을 개설하여 수원지역을 대표한 의사로 이름이 높았다.  
2 동산에서...있으리 : 두보(杜甫)가 일찍 사천성 성도현(成都縣) 금리(錦里)에 살면서 자칭 금리선생(錦里先生)이라고 하였다. 두보의 시「남림(南隣)」에 “금리선생 오각건, 텃밭에서 토란 밤 거두니 전혀 가난하지는 않아라. (錦里先生烏角巾 園收芋栗未全貧)” 하였다.

용호의 그윽한 경치 만족하다고들 하니  
홍겨우면 뒷날에 내 배를 띄우리라

權書隱庄

仙庄淡泊晚風斜  
柳爲庭虛半面遮  
遠客登樓疑是月  
歸雲擁樹護誰家  
一朝生別空留夢  
百遍看來不厭花  
夕氣乍寒因閉戶  
故教蜂蝶好相誇  
滿城風雨際新秋  
爲滌塵襟坐水頭  
恰好雲烟藏別地  
將看芋栗有園收  
涼生大界鳴雙杵  
酒瀉長溟泛一樓  
聞說龍湖幽景足  
乘興他日放吾舟

용호龍湖에서 칠석날



풀 향기 소나무 운치 높은 누대보다 좋아  
자적하기론 긴 낚싯대로도 어림없겠지  
고목나무 가을 매미는 비 온 뒤에 뜰해지고  
고른 백사장 잠자는 해오라비 푸른 물가로세  
어느 슬픈 가을날에 사람들 시 읊고 지으면  
좋은 날 술 마련해 나그네 배 띄우리  
견우적녀 아름다운 기약 칠석날 저녁에  
아득한 오작교 그림자는 물가에 잠겨 있네

龍湖七夕

草香松韻勝高樓  
取適長竿故不收  
老樹涼蟬踈雨後  
平沙眠鷺綠波頭  
悲秋何日人吟賦  
謀酒良辰客泛舟  
牛女佳期當此夕  
鵲橋渺漠影沈洲

## 범로 이해관의 방문을 받고



단정히 앉아 향 사르니 마음이 절로 너그러워  
 우연히 고사<sup>1</sup> 만나 기쁨을 다 했지  
 이미 시율로 재능을 이루었다 하니  
 소광<sup>2</sup>해 관 쓰지 않았다 비웃지 말라  
 먼 물가 석양에 쌍다듬이 소리 떨어지고  
 옛 누대 잔설에 한 그루 싸늘한 매화  
 이별이 아쉬워 은근히 약속을 했나니  
 춘산에 새 울고 꽃 피면 다시 만나기로

매화 아래 옛 초려 청담이 전해 오고  
 옛 친구 상대하니 등불 하나 밝구나  
 눈 달 함께하니 세상 티끌 사라지고  
 운림에 기거하니 성시<sup>1</sup>를 멀리했네  
 천지는 귀먹은 듯 온 여향이 고요하고  
 강산에 먼동이 트려니 닭소리 어지럽지  
 세월은 허무하고 사람은 늙어 간다는데  
 내일 아침 나그네 보내는 정 어찌하리

1 고사(高士) : 뜻과 품행이 고결한 선비, 은거하여 속세를 멀리한 사람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이해관을 두고서 한 말이다.  
 2 소광(疏狂) : 호탕하고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 李海觀(範魯)見訪

端坐燒香意自寬  
 偶逢高士盡情歡  
 已聞詩律能成玉  
 莫笑疏狂不着冠  
 遠渚斜陽雙杵落  
 古樓殘雪一梅寒  
 慙慙惜別仍留約  
 花鳥春山好看

梅下古廬話轉清  
 故人相對一燈明  
 來同雪月空塵俗  
 居是雲林遠市城  
 天地如聾全巷遠  
 江山欲曙亂鷄鳴  
 歲華云嘆人將老  
 其奈明朝送客情

## 이해관이 또 그날 밤에 방문

집 아이<sup>1</sup>는 일본 도쿄에서 귀가



한겨울은 따뜻하고 누성<sup>2</sup>은 미미한데  
반나절 청담 나누는 두 사람 포의<sup>3</sup>  
누대 그림자 잠기고 등잔 불빛 비추거니  
매화는 피려하고 눈꽃은 날아 내리네  
덧없이 낙엽소리 듣다가 비 소리에 자주 놀라고  
청산 바라보기 좋아 사릿문 닫지 못했지  
오늘 밤 우리 집안에 즐거운 일 많거니  
바다 돛은 무양해 아이는 잘 돌아오겠지

海觀又訪其夜 家兒自日本東京歸家

大冬天暖漏聲微  
半日清談兩布衣  
樓影忽浸燈影出  
梅花將發雪花飛  
謾聽落葉頻驚雨  
愛看青山不掩扉  
今夜吾家多樂事  
海帆無恙見兒歸

1 집 아이 : 아들 오양근(吳陽根, 1910~1939)은 일본 호세이대(法政大)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2 누성(漏聲) : 물시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이다. 누각(漏刻) 소리라고도 한다.  
3 포의(布衣) : 벼슬 없는 선비를 뜻한다.

또



문 열자 대하는 명산 몇 개의 뽀족한 뿔  
 신선이 놀던 자취 보는 것처럼 또렷하네  
 쓰러진 용 같은 고목은 나루터에 걸렸고  
 엮드린 호랑이 기암은 눈으로 만든 소금인가  
 원근遠近의 밤 닭소리는 점점 커지고  
 차고 비는 산달은 그림자 고와라  
 시로 지기 만나 소리 높여 읊고 앉았으니  
 세상 눈은 사라지고 취몽<sup>1</sup>만이 더해지네

又

門對明山數角尖  
 仙靈遊跡宛如瞻  
 偃龍古木條橫渡  
 伏虎奇巖雪作鹽  
 遠近夜鷄聲漸大  
 盈虛山月影生纖  
 詩逢知己高吟坐  
 世雪纔消醉夢添

1 취몽(醉夢) : 취중인 듯 꿈속인 듯 정신이 흐리멍덩한 상태이다.

# 사백詞伯<sup>1</sup> 명암 하석우가 철원에서 전방專訪<sup>2</sup>



백발에 다시 오는 그대 보는 것이 기쁘니  
글 향기 깊숙한 서재에서 의복을 정제했지  
왕년에 식견이 오늘의 한유<sup>3</sup>라 했으니  
이 세상에서 누가 자운<sup>4</sup>의 후계인 줄 알리  
높은 발자취 몇 번인가 좇아 영약도 캐고  
청담은 몰라도 새벽 종소리는 들었다오  
가없어라 철원군이 금강산과 가깝거니  
금강산으로 같이 가서 사슴과 무리하는 것

표연<sup>5</sup>히 샷샷 나막신 신고 남쪽으로 가니  
봉필이 빛나고<sup>6</sup> 누각도 정화淨化되었지  
눈에 짓눌린 대나무 외로운 절개 빼어나고

1 사백(詞伯) : 시문의 대가를 이르는 말이다.

2 전방(專訪) : 단독으로 방문한다.

3 한유(韓愈) : 자는 퇴지(退之)이며 창리(昌黎) 출신이므로 한창리라고도 한다. 사상적으로는 도가와 불가를 배척하고 유가의 정통성을 옹호 신앙했다. 문장에서는 유종원(柳宗元)과 함께 고문운동을 주도, 산문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구당서(舊唐書)』 권160; 『신당서(新唐書)』 권176.

4 자운 : 양웅(揚雄)이라는 인물로 자가 자운(子雲)이다.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했고, 많은 책을 읽었으며, 사부(辭賦)에도 뛰어났다. 청년시절에 동향의 선배인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작품을 통해 배운 문장력을 인정받아, 성제(成帝) 때 궁정문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5 표연(飄然) : 정치 없이 떠도는 모양이나 바람처럼 빠른 모양이다.

6 봉필(蓬篚)이 빛나고 : 봉필생휘(蓬篚生輝)이라고도 한다. 누추한 집을 빛나게 한다는 뜻으로 손님이 찾아오거나 서화 따위를 걸었을 때 감사의 뜻으로 하는 말이다.

달빛 어둔 화분엔 암향<sup>7</sup>이 피어오르네  
웅혼한 문장의 선비는 여원 학 같은데  
고해에 갈피 못 잡은 난 떠도는 갈매기  
문노니! 우리네 인생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  
백 년토록 늙지 않고 고상한 놀이 이어 보세나

## 河詞伯明庵(錫禹)自鉄原專訪

皓首重來喜見君  
書香深院整衣裙  
曾年已識今韓愈  
此世誰知後子雲  
高躅幾從靈藥採  
清談未覺曉鍾聞  
堪憐鐵郡金剛近  
共向名山鹿與群

飄然笠屐下南州  
蓬葦生光淨一樓  
雪壓竹林孤節秀  
月昏梅盒暗香浮  
文章磊落癡如鶴  
苦海迷茫泛似鷁  
借問吾生何所樂  
百年不老續清遊

7 암향(暗香) : 그윽한 향기를 뜻한다.

# 초가을에 교리<sup>1</sup> 정해식(호 단애)을 만나



호방한 기운 같이하기에 처음부터 어긋나  
낙사<sup>2</sup>에 맺은 앞서 인연 이십여 년  
소식 몰라 너무도 고통스러웠는데  
어렵게 궁극<sup>3</sup>으로 산거를 찾았다오  
빗소리 반쪽 길상 가을이 가까웠는데  
벌레 소리 한밤중에 꿈조차 소원하고  
적벽<sup>4</sup>의 청유<sup>4</sup>도 가깝거늘  
소선<sup>5</sup>의 소식 묻는 것이 어떨지

秋初逢鄭校理海式(號丹崖)

雄豪志氣共違初  
洛社前緣廿載餘  
未接書音惱夢想  
辛勤筮屐訪山居  
雨聲半榻秋將近  
蟲語三更夢亦疎  
赤壁清遊知不遠  
蘇仙消息問何如



1 교리(校理) :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의 5품 관직이다.  
2 낙사(洛社) : 낙양사(洛陽社)의 준말이다. 낙양에서 조직한 시사(詩社)로 구양수(歐陽脩)·매요신(梅堯臣) 등이 중심인물이었다. 여기서 저자가 교리(校理) 정해식과 시회(詩會) 같은 것을 만들어 시작(詩作)을 한 것을 낙사에 빗대어 한 말이다.  
3 궁극(筮屐) : 대지팡이와 나막신을 뜻한다.  
4 적벽(赤壁)의 청유(淸遊) : 적벽은 송(宋)의 소식(蘇軾)이 호북성(湖北省) 황주시(黃州市) 장강 가에서 적벽대전(赤壁戰)이 벌어진 곳으로 잘못 알고 적벽부(赤壁賦) 등을 지은 곳으로 이곳에서 고상한 늙을 말한다.  
5 소선(蘇仙) : 송(宋)의 소식(蘇軾)을 신선(神仙)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또 절구



지리한 임우<sup>1</sup> 잠시 개인 것 좋은데  
가을 매미 먼 평림<sup>2</sup>에서 울어대네  
이별 없기를 원하는 친한 벗 몇 명인가?  
시주로 이름난 곳에서 삶을 즐기리



又絶  
霖雨支離善乍晴  
涼蟬嘶起遠林平  
親朋有幾願無別  
詩酒名區樂此生

1 임우(霖雨): 그치지 않고 내리는 비, 즉 장마를 뜻한다.  
2 평림(平林): 평원에 있는 숲을 의미한다.

## 정소포 조석초 조한매 등 여러 선생을 모시고 같이 읊다



봄옷을 전당 잡히자 벼옷으로 갈아입고  
좋은 때 손님 맞아 누대 높은 곳에 앉았지  
꽃 떨어진 지 얼마 안 되어 향기 아직 남았고  
술 만나자 끝없는 기운이 다시 호방해지네  
관문에서 시백<sup>1</sup>으로 지낸다 알지만  
처세에 누가 탈영<sup>2</sup> 모수<sup>3</sup> 알리  
자리 옮겨 청담에 전촉<sup>4</sup>까지 하다가  
깊숙한 절 새벽바람에 솔바람 소리 들었네

장구<sup>4</sup>로 어렵게 외진 곳 방문하였으니  
생애 담박<sup>5</sup>하기는 어초<sup>6</sup>를 닮았지  
강가에 꽃 피는 춘 3월에는 나막신을 신고  
매실 누렇게 익는 4월에는 같이 책을 읽었네  
연못의 무성한 연꽃은 가는 샘과 통하기 때문이고

1 시백(詩伯): 시인 중의 대가라는 뜻으로 여기선 저자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보인다.  
2 탈영(脫穎) 모수(毛遂): 뛰어난 재질을 가진 모수란 뜻이다. 전국시대 평원군(平原君)의 식객(食客)인 모수가 "내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송곳만 뺄지어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송곳 자루까지 튀어나왔을 것이다."라고 자신의 재주를 과시한 고사가 있다. 『사기(史記)』 권76, 평원군열전(平原君列傳).  
3 전촉(剪燭): 촛불의 심지를 자른다는 뜻으로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나눔을 의미한다.  
4 장구(杖屨): 지팡이와 가죽신이다.  
5 담박(澹泊): 청빈하고 소박하고 진실함을 뜻한다. 욕심이 없고 조출한 상태이다.  
6 어초(漁樵): 고기 잡고 나무하는 사람이다.

뜨락의 산 구경은 나무 성글게 심었기 때문이지  
 지금 표음瓢飲<sup>7</sup>한다고 비웃지 말게나  
 초심을 잃지 않은 내 마음 부끄럽지 않다네

陪丁小圃趙石樵趙漢梅諸先生共吟

典盡春衣試葛袍  
 良辰邀客坐樓高  
 落花未幾香猶濕  
 見酒無端氣更豪  
 關門已識消詩伯  
 處世誰知脫穎毛  
 清話移時仍剪燭  
 曉風深院聽松濤

杖屨辛勤訪僻居  
 涯生澹泊託樵漁  
 江蘗三春曾理屐  
 黃梅四月共看書  
 池因繁藕通泉細  
 庭爲看山種樹疎  
 今來瓢飲人休笑  
 無愧我心不負初

7 표음(瓢飲): 표주박으로 물을 마신다는 것은 검소하고 절박한 생활을 말한다. 『논어(論語)』옹아(雍也)에, 공자가 안회(安 회)의 어진 것을 칭찬하면서 한 말에 “일단사(一單食) 일표음(一瓢飲)으로 누향에 사는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으니 참으로 어질도다.”라고 칭찬한 내용이 보인다.

## 만송 조종국의 방문

논산 아우 이웃 마을에 거주함



나그네 노 저어 호수 물결 따라 오면서  
 고상한 늙은이 지나온 과정 이야기하네  
 섬들에 향풍 부니 나비 꿈<sup>1</sup>이 심원하고  
 숲 가득한 가을 뜻 매미 소리 요란하구나  
 술로 맺은 근심 즐거움 깨고 나니 오히려 취하고  
 세상이 모두 열량<sup>2</sup> 같은지라 웃고 노래하지  
 다행히 좋은 이웃 만나 충분히 많이 들었으니  
 묘군<sup>3</sup> 소식은 근래에 어떠한지?

서늘한 골짜기 기운 조그마한 시내 동쪽에  
 일좌문장<sup>4</sup>으로 읊고 있는 종이네  
 그대는 어찌하여 남쪽 지역 술에 취하지 않는가?  
 사랑스러운 것은 스스로 불어오는 북창의 바람  
 성긴 울타리 옛 고을에는 부연<sup>5</sup>이 희고  
 먼 봉우리 구름 걷힌 숲에는 낙조가 붉어라

1 나비 꿈: 몽롱한 꿈결을 이르는 말이다. 장자가 꿈결에 나비가 되어 기뻐하면서, 자기가 나비가 된 것 인지 나비가 자기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데서 유래된 말이다.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  
 2 열량(炎涼): 열량시대(炎涼世態)의 준말로 세력이 있으면 아첨하고 세력이 없으면 멀리하는 세태를 뜻한다.  
 3 묘군(卯君): 훌륭한 아우를 뜻하는 말이다. 도끼해에 태어난 사람으로 본디 소식(蘇軾)이 기묘년에 태어난 아우 소철(蘇轍)을 묘군이라 칭했던 데서 비롯된 말이다.  
 4 일좌문장(一坐文章): 한 자리 문장이라는 뜻으로 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뜻이 반영된 문장이다.  
 5 부연(浮煙): 허공에 떠다니는 안개나 연기를 이르는 말이다.

행탁<sup>6</sup>이 더디고 더디다고 말하지 말라  
호운<sup>7</sup>이 자욱하면 안서<sup>8</sup>마저 끊어지리

趙晩松(鍾國)來訪 居論山舍弟隣里

客棹來從湖上波  
清遊歷歷話經過  
丰砌香風蝶夢遼  
滿林秋意蟬聲多  
酒因憂樂醒還醉  
世皆炎涼笑或歌  
幸得芳隣曾飽聞  
卯君消息近如何  
蒼涼峽氣小溪東  
一座文章嘯詠中  
不醉其何南國酒  
自來可愛北窗風  
疏籬古巷浮烟白  
遠岫晴林落照紅  
行囊遲遲君莫道  
湖雲漠漠鴈書空

6 행탁(行囊) : 여행용 전대 자루로 행낭(行囊)이라고도 한다.

7 호운(湖雲) : 호수에 낀 구름으로, 시문(詩文)에선 아름다운 경치를 이르는 말이다.

8 안서(雁書) : 안족서(雁足書)라고도 하며, 기러기발에 묶은 편지를 뜻한다. 『한서(漢書)』 권54, 소무전(蘇武傳)에 나오는 말이다.

## 권운초의 방문을 받고 <sup>2</sup>수



행탁<sup>1</sup>행囊 깊어지고 소요하니 풍류가 족한데  
전날 밤 그리움에 둥근 달 물가를 밝게 비추고  
슬바람 소리 이끼 꽃에 깊숙한 삼경<sup>3</sup>은  
파초 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 한 누대 높구나  
소반에 오른 농어회는 별미 돋우고  
벽 사이 벌레 소리 새로운 근심 조장하지  
우리 집 독에 빛은 술 오늘 처음 익었으니  
국화꽃 피기 전에 이 유희 이어 보세나

글소리 겨우 끝나자 사립문 열었더니  
한 굽이 맑은 시내 몇 리에 뻗힌 마을  
옛 친구는 자리에 있는데 청산은 첩첩  
가을비 연이어 내리니 대낮도 캄캄해  
들쭉날쭉한 뜨락 나무에 거미는 그물치고  
담박한 동산의 꽃에 나비 꿈<sup>2</sup>은 사라지지  
취기에 거문고 타며 긴 휘파람 불고 일어나  
곡조에서 이별의 슬픔을 논하지 말게나

1 삼경(三暎) : 한(漢)의 장후(蔣詡)가 뜨락에 세 길을 만들고 송(松)·국(菊)·죽(竹)을 심은 고사에서 나온 말로 세 길 또는 은둔자를 지칭한다.

2 나비 꿈 : 몽롱한 꿈을 이르는 말이다. 장자가 꿈결에 나비가 되어 기뻐하면서, 자기가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자기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데서 유래되었다.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權雲樵見訪 二首

逍遙行囊足風流  
前夜相思月滿洲  
松籟苔花三遼逕  
雨聲蕉葉一高樓  
鮐膾登盤生別味  
蟲聲在壁助新愁  
吾家甕釀今初熟  
何待黃花續此遊

書聲纔罷關柴門  
一曲清溪數里村  
故人在座青山重  
秋雨連天白日昏  
庭樹參差蛛設網  
園花澹泊蝶銷魂  
沉醉撫琴長嘯起  
莫將離恨曲中論

## 6촌 청탄 오건영<sup>1</sup>과 같이 읊다



임학<sup>2</sup>이 더욱 기이하니 흐르는 물이 맑고  
선경을 두고 어찌 청성<sup>3</sup>을 방문하라  
가을 오동나무에 이슬 내리니 깊숙한 삼경<sup>4</sup>  
은하수는 흰 비단 같아 오경<sup>5</sup>이 환하구나  
보름달 빛에 자네 그리워진 지 오래되었고  
초가을 소식은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네  
향불 피우자마자 술을 갖고 오라 하여  
대청 깊숙한 곳 화락하게 정담을 같이했네

1 청탄(聽灘) 오건영(吳建泳, 1887년생)은 관립외국어학교와 양정의숙을 졸업하고, 탁지부 주사 및 동일은행 취재역을 역임하였다.  
2 임학(林壑) : 삼림과 골짜기로 은거하는 곳을 뜻하는 말이다.  
3 청성(靑城) : 청성산(靑城山), 사천성(四川省) 도강언시(都江堰市)에 있는 도교의 성지이다.  
4 삼경(三逕) : 한(漢)의 장후(蔣詡)가 트랙에 세 길을 만들고 송(松)·국(菊)·죽(竹)을 심은 고사에서 나온 말로 세 길 또는 은둔자를 지칭한다.  
5 오경(五更) : 날이 새기 무렵인 오전 4시 경이다. 『당시품휘(唐詩品彙)』 권42, “胡風千里驚 漢月五更明 縱有還家夢 猶聞出塞聲”

再從建泳(聽灘)共吟

林壑轉奇水轉清  
仙鄉何必訪青城  
露滴涼梧三經邃  
河橫白練五更明  
滿月光輝懷子久  
新秋消息使人驚  
燒香纔罷因呼酒  
湛樂堂深共話情



해주대에 있을 때 신광사에 가서 읊다



우뚱한 증첩된 산봉우리 첩첩이 푸른데  
도착하자마자 흰 가사 입은 사문<sup>1</sup> 따르고  
수많은 갈래의 샘 소리는 소나기처럼 우는데  
천년의 불교 기상은 고송처럼 우뚱하구나  
한가한 구름 밟고 가는 것은 신선의 꿈이고  
초승달에 깨달음 오니 바위에 떨어지는 종소리  
금강산이 별다른 세계가 아님을 알았나니  
하늘을 떠받치고 쫓혀 있는 천·만의 봉우리임을

큰 바위 부여잡고 푸른 하늘에 섰나니  
소쇄<sup>2</sup>한 산 자락은 두 소년 같고  
법계<sup>3</sup>가 편안하니 세월이 한가로운데  
덧없는 삶 속진에 병든 것 안타까워라  
구름기운은 언제나 나막신 아래 깔려 있고  
종소리 한두 번 바위 가로 떨어지는데  
누구 위해 천석<sup>3</sup> 저리도 잘 보전했나  
노스님의 참 인연 그 가운데 있음 배웠네

1 사문(沙門) : 스님을 지칭하며, 상문(桑門) · 사문(娑門)으로도 쓴다.  
2 소쇄(蕭灑) : 속되지 않고 깨끗하다.  
3 법계(法界) : 세계 · 우주 전체와 진리 그 자체인 진어를 의미한다.

在海州隊時往神光寺吟

層巒巍兀碧重重  
纔到沙門白衲從  
百道泉聲鳴急雨  
千年佛氣立孤松  
踏去間雲清客夢  
覺來新月落岩鍾  
聊識金剛非別界  
撐天插立萬千峰

攀登危石立青天  
蕭灑山衿兩少年  
法界自安間日月  
浮生還惜病塵烟  
雲氣尋常橫屐底  
鐘聲一二落岩邊  
爲誰藏來泉石好  
中留老釋學眞緣

또 절구



정적<sup>1</sup>한 옛 암자 부처님의 혼 되살아나고  
바람 찬 회화나무 트락엔 둥근 달이 걸렸지  
원각<sup>2</sup>한 호승은 일찍이 부처가 되었고  
구름 숲 온갖 새는 청산靑山을 호위하네

又 絶

古庵淨寂佛靈還  
風滿槐庭月滿關  
圓覺胡僧曾化佛  
雲林百鳥護靑山

1 정적(淨寂) : 청정하고 고요하다는 뜻이다.

2 원각(圓覺) : 원만한 영각(靈覺), 즉 중생이 갖고 있는 영묘(靈妙)한 불성(佛性)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는 완전하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한다.

# 영동에서 사냥 놀이로 수원역을 출발하면서 재미로 짓다

7언 절구



십 년 경영<sup>1</sup>에 이번이 첫 행차  
명승지에서 사냥놀이 분명히 약속했지  
영동의 친구들 서로 서로 전송함에  
기적<sup>2</sup> 소리는 낙성<sup>3</sup>으로 향하네



嶺東遊獵次發水原驛戲題 七絕

十載經營此一行  
名區遊獵約分明  
山東親友來相送  
瀛笛聲中向洛城

1 십 년 경영(經營) : 사냥을 위해서 십 년 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말이다.  
2 기적(瀛笛) : 기차가 닿고 뜰 때 울리는 소리이다.  
3 낙성(洛城) : 허남성에 있던 동주(東周) · 후한(後漢) · 서진(西晉) · 북위(北魏) · 수(隋) · 오대(五代)의 수도이다. 여기서 단지 수도인 서울을 말한다.

# 안양을 지나면서



삼성산 꼭대기 사찰<sup>1</sup>  
나의 방문 몇 해나 지났는고  
머리 돌려 전겁<sup>2</sup>을 묻는데  
빈산에 물은 저절로 흘러라



過安養

三聖山頭寺  
吾行度幾秋  
回首問前劫  
山空水自流

1 삼성산 꼭대기 사찰 : 삼막사(三幕寺)를 말한다. 현재 주소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480이다.  
2 전겁(前劫) : 숙세(宿世), 전세(前世)라고도 하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세상이다.

## 시흥 구읍을 지나면서 느낌이 있어



옷깃 헤치고 긴 휘파람에 바람 안고 서서  
 관아를 이설한 지 몇 해가 되었는지 묻노라  
 변화했던 이곳이 지금은 한적하게 되었으니  
 물 소리 목메어 울고 저문 구름<sup>1</sup> 시름겨워

過始興舊邑感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披衿長嘯臨風立  
 移設官衙問幾秋  
 繁華此地今還寂  
 水聲嗚咽嘆雲愁

1 저문 구름: 두보(杜甫)의 시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에서 유래된 말이다. “위수 북쪽은 봄 하늘의 나무, 강 동쪽은 해 저문 구름(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이라 하였다.

## 노량진



그 누가 강물의 위대함을 알리  
 쇠막대기 하나로 평지를 완성하듯  
 나루엔 해지자 어부의 피리 소리  
 노량나루엔 푸른 물결만 반짝이네

鷺梁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誰識大江水  
 一鐵平地成  
 津頭漁笛晚  
 鷺下碧波明

## 용산역



옛날에는 9일간 연음으로 소문났는데  
 지금 나의 봄날은 일찍 지나가 버렸네  
 만호萬戶<sup>1</sup>의 주렴珠簾<sup>2</sup> 속에  
 남겨 전해진 것은 낙모가落帽歌<sup>3</sup>뿐



昔聞九日飲  
 今我早春過  
 萬戶珠簾裡  
 遺傳落帽歌

- 1 만호(萬戶) : 아주 많은 집의 비유이다.
- 2 주렴(珠簾) : 진주를 꿰어 만든 발이다.
- 3 낙모가(落帽歌) : 낙모(落帽)는 진(晉)나라 맹가(孟嘉)가 중앙절(重陽節, 음력 9월 9일)에 용산(龍山)의 모임에서 술에 취해 모자를 떨어뜨려 놀림을 받고 시를 지어 좌중을 탄복시킨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때 지은 시를 낙모가라고 한다. 『진서(晉書)』 권98, 맹가전(孟嘉傳). 용산역을 지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은 진나라 맹가의 용산 모임고사인 낙모 생각을 연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 서빙고<sup>1</sup>



외외巍巍<sup>2</sup>한 종남終南<sup>3</sup>의 빛  
 용용溶溶<sup>4</sup>한 한북漢北<sup>5</sup>의 물결  
 파사婆娑<sup>6</sup>한 돛대 그림자 속에  
 때때로 고기잡이 노래 소리 들려오네



巍巍終南色  
 溶溶漢北波  
 婆娑帆影裏  
 時有送漁歌

- 1 서빙고 : 용산구 서빙고동 둔지산(屯智山) 기슭 한강 가에 있었던 조선시대 얼음 창고이다.
- 2 외외(巍巍) : 숭고하고 위대하다.
- 3 종남(終南) : 섬서성(陝西省) 정안 남쪽에 있는 산으로 당대(唐代) 불교의 성지이다. 여기에서는 서빙고에서 바라본 남산의 위용을 종남산에 비유해 한 말이다.
- 4 용용(溶溶) : 물이 성대히 흐르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 5 한북(漢北) : "한북의 물결"이라 한강 북쪽의 물결을 뜻한다.
- 6 파사(婆娑) : 춤추는 모양, 옷이 나부끼는 모양이다.

## 청량리



역로가 통하는 청량리  
 수양버들 봄기운 무르녹고  
 장안<sup>1</sup>은 멀지 않은데  
 소쇄<sup>2</sup>한 만백성의 집

清涼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驛路清涼里  
 垂楊春意多  
 長安知不遠  
 蕭洒萬人家

1 장안(長安) : 여기에서는 4대문 안의 도성을 두고서 한 말이다.  
 2 소쇄(蕭洒) : 쓸쓸하거나 한적하다는 뜻이다.

## 동두천



자재암<sup>1</sup>에 자재한 이 누구인가  
 소요산 아래 소요하고 있는 나그네  
 아연<sup>2</sup> 종소리 떨어지자 흰 구름 날고  
 패엽 소리<sup>3</sup>에 경내는 고요하네.

東豆川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自在庵中誰自在  
 逍遙山下客逍遙  
 俄然鍾落雲飛白  
 貝葉聲中境寂寥

1 자재암(自在庵)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에 있는 암자이다. 원효(元曉) 창건설이 있다.  
 2 아연(俄然) : 갑자기, 별안간이라는 뜻이다.  
 3 패엽(貝葉) 소리 : 패엽은 불경을 베껴 쓰던 나뭇잎으로 불경을 의미한다. 패엽 소리는 독경소리이다.

## 연천



종소리 울려오는 심원사  
 눈 개인 보개산寶蓋山<sup>1</sup>  
 이곳이 명승지 많다가에  
 멀리 구름 속을 가리키네

漣川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鍾落深源寺  
 雪晴寶蓋山  
 名區多此地  
 遙指白雲間

1 심원사…보개산(寶蓋山) : 심원사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보개산에 있던 사찰로 심원사(深源寺)는 금강산 유점사의 말사로 있었으나 현재는 폐사지로 남아 있다. 보개산은 '부처님의 백호(白毫)가 칠보(七寶)의 대개(大蓋)로 변하여 하늘을 가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개산은 불경의 보배로 꾸며진 일산(日傘)처럼 보인다는 의미한다.

## 철원



하얀 물결 떨어지는 용화폭포  
 칼로 만들었다는 금악산金嶽山  
 홍애<sup>1</sup>는 옛 우의友誼 많아  
 나를 그 사이 머물기를 원했네

홍애는 신선이름이다. 옛날에 홍애와 가까이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어, 내가 철원고을에 도착해 뜻밖에 전날 친지였던 홍운토를 만났으므로 이 견해를 따랐을 뿐이다.

## 鐵原

銀落龍華瀑  
 釳成金岳山  
 洪厓多舊誼  
 待我住其間

洪厓仙人名 古有洪厓拍肩之說 而余至鐵原邑 意外逢前日親知洪氏穩討 故用此說耳

1 홍애(洪厓) : 홍애(洪崖)라고도 하며 전설상의 신선 이름이다.

## 평강<sup>1</sup>



젊은 시절 선조의 일을 추모하니  
지는 해에 눈물 가로 비김도 몰랐지  
머리 돌려 금강산 길 바라보니  
백운은 멀리 선인의 집과 막혀 있네

추탄 오윤겸 선조가 평강지역의 수령으로 있을 때 녹봉을 출연하여 학교를 설립하였다. 직무가 교체된 후에도 백성들이 산 사람의 사당을 세웠다. 이곳으로부터 70리가 되어 찾아뵙지는 못하였다.

## 平康

追慕當年先祖事  
斜陽不覺淚橫斜  
回首更看金剛路  
白雲遙隔仙人家

楸灘先祖作宰平康時 捐祿俸設庠序學校 遞任 後民建生祠而 自此爲七十里 故未得進謁耳



1 평강(平康) : 강원도 평강군의 소재지이다. 군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경원선(京元線)의 주요한 역(驛)이다. 김화(金化), 철원(鐵原) 등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어 물산을 집산되는 산업 교통의 요지이다.

## 삼방팔경<sup>1</sup>의 하나인 삼방폭포<sup>2</sup>



천상의 은하수 이 산과 가까이와  
 한 줄기 폭포로 인간세상으로 떨어지고  
 긴 비단 길러 있는 듯 눈처럼 분출하니  
 천 리 길 나그네도 분주히 오가네

SRI 수원시정연구원  
 三防八景 三訪瀑布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天上銀河近此山  
 一波爲瀑落人間  
 掛如長練噴如雪  
 千里行人杖不閒

1 삼방팔경(三防八景) : 함경남도 안변군 신고산면 삼방리에 있는 삼방약수(三防藥水), 삼방폭포(三防瀑布), 고음폭포(鼓音瀑布), 석왕사(釋王寺), 추가령(楸哥嶺), 삼방협곡(三防峽谷) 등 8곳의 명승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삼방폭포(三防瀑布) : 안변군 삼방리 가래산(架來山) 투우곡(鬪牛谷)에 있는 삼방팔경 중의 하나이다.

## 영천靈泉<sup>1</sup>



옛 산엔 영천靈泉이 있어  
 아름다운 이름 만인의 입으로 전해져  
 마시러 오는 사람도 속되지 않으니  
 어찌 꼭 참된 신선만이 방문하리

SRI 수원시정연구원  
 靈泉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山古有靈泉  
 芳名萬口傳  
 飲來人不俗  
 何必訪真仙

1 영천(靈泉) : 샘물을 아름답게 여기는 말이다.

## 세심천



세심은 귀를 씻음이 당연하니  
 응당 영천(潁川)<sup>1</sup>과 통하리  
 상류의 물을 흐리게 하지 말라  
 하류에 송아지 물 먹이는 노옹 있으리나<sup>2</sup>

洗心泉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洗心宜洗耳  
 應與潁川通  
 莫濁上流水  
 下有飲犢翁

1 영천(潁川) :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 기산(箕山) 아래 있는 영수(潁水)을 말한다.  
 2 상류의...있으리나 : 요(堯)임금 때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으라는 왕명을 피하여 기산(箕山) 아래 영수(潁水)로 들어가 귀를 씻었다. 송아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온 사람이 왜 귀를 씻느냐고 묻자, 임금 하라는 더러운 소리를 들어 귀를 씻는다고 하자, 소를 이끌고 온 사람은 우리 소에게 귀 씻은 더러운 물을 송아지에게 마시게 할 수 없다면서 상류로 이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고사전(高士傳)』

## 기각봉



뾰족한 뿔 하나 만장이나 되어 기이하니  
 봉우리 이름은 기각봉이 가장 알맞구나  
 전진도 이를 수 없어 상서로운 구름 머무니  
 위에는 신선이 놀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네

奇角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一角尖尖萬丈奇  
 峰名奇角最相宜  
 戰塵不到祥雲逗  
 上有遊仙人不知

## 동자암



온몸은 푸른 이끼지만 골격은 돌인데  
 완전한 인형으로 옛날처럼 남아 있어  
 동자암에게 묻지만 끝내 대답이 없으니  
 신선과 부처 되고자 하는가 묵묵부답이네

童子巖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遍身苔綠石成骨  
 完似人形依舊存  
 問爾童岩終不答  
 欲爲仙佛默無言

## 선무대



먼 곳에서 온 나그네 선무대에 오르니  
 선무대는 비었고 신선은 내려오지 않네  
 삼신산三神山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묻노니 신선은 어느 때 돌아오느냐고

仙舞臺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遠客上仙臺  
 坵空仙不來  
 三山知不遠  
 借問幾時回

## 고운산



산수유람<sup>1</sup> 산꼭대기 오르니  
 산이 높아 구름은 볼 수 없네  
 산중에 홀연히 구름 피어올라  
 산은 사라지고 구름만 높구나

高雲山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遊屐上山巔  
 山高不見雲  
 山中雲忽起  
 山沒但高雲

1 산수유람 : 유극(遊屐)의 번역이다. 중국 남조 송(宋)의 사령운(謝靈運)이 나막신을 신고 산수를 유람한 데서 나온 말이다. 『송서(宋書)』 사령운전(謝靈運傳) “尋山陟嶺 必造幽峻 巖障千重 莫不備盡 登躡常著 木屐 上山則去前齒 下山則去後齒”

## 청하곡



붉은 노을에 반은 취해 청하곡으로 오르니  
 입구는 깊숙해 작은 길 하나만이 비스듬히  
 걸음걸음 궁벽한 곳을 찾아드니  
 백운이 나무 감싸 산촌의 집은 사라졌네

靑霞谷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靑霞半醉上霞谷  
 谷口深深一逕斜  
 步步行尋幽僻處  
 白雲擁樹失山家

## 박우송(화주) 정송간(환순)과 함께 읊다



신비한 구역 치장했으니 더 보탤 것도 없고  
 봉오리 골짜기 임천林泉이 모두 절경이라  
 푸른 나무 그늘진 쪽엔 낚시 친구 따르고  
 흰 구름 그림자 속엔 선가禪家를 방문하지  
 7월의 삼방三防<sup>1</sup>은 무더운 날이 거의 없고  
 한평생의 하나 계획은 연하벽煙霞癖<sup>2</sup>이라  
 인간의 청복淸福은 이것으로 만족하거나  
 휘바람 불며 서풍에 섰으니 취모<sup>3</sup>가 비끼네

물가에 대臺 만드니 골골이 정결하고  
 절기絶奇<sup>4</sup>한 이곳이 사람들을 놀라게 해  
 천진화폭天真畫幅<sup>5</sup>엔 못 봉우리 일어나고  
 물차고 빠지는 시냇물 소리에 수많은 폭포 울어  
 지기知己<sup>6</sup> 만나는 오직 좋은 날에

- 1 삼방(三防) : 함남 안변군 신고산면 삼방리 지역이다.
- 2 연하벽(煙霞癖) : 지나칠 정도로 산수를 좋아하는 성벽(性癖)이라는 뜻으로 연하고질(煙霞癖疾)이라고도 한다.
- 3 취모(醉帽) : 술 취한 사람의 모자라는 뜻으로, 진(晉)나라 때 맹가(孟嘉)가 중앙절에 환온(桓溫)과 함께 용산에서 술잔치를 벌였을 때, 바람이 불어 맹가의 모자가 떨어졌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진서(晉書)』 권98, 맹가전(孟嘉傳)
- 4 절기(絶奇) : 비할 바 없이 신기하다는 뜻이다.
- 5 천진화폭(天真畫幅) :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말한다.
- 6 지기(知己) :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뜻한다.

신선 떠난 지 멀지 않아 모두 기쁜 마음  
 지난 날 이야기 나눠 정감을 되살리니  
 벼슬살이로 옛 수도에서 같이 노닐었지

삼복에도 덥지 않은 이곳은 별천지  
 물기는 창량<sup>7</sup>한 골짜기 기운 감도네  
 관·현악기 교차 연주엔 사람 바다 이루어  
 들쭉날쭉한 대사臺榭<sup>8</sup>엔 달빛 잔치  
 친구 얻어 시사詩社<sup>9</sup>를 따르니  
 마음 편안해 다시 불등 앞으로 향했지  
 만나질 소요에 깊은 곳까지 통찰했으니<sup>10</sup>  
 온갖 생각 사라지고 점점이 연경<sup>11</sup>이네

與朴又松(和柱)鄭松澗(恒淳)共吟

靈區鋪置更無加  
 峯壑林泉摠絕佳  
 綠樹陰邊隨釣伴  
 白雲影裡訪禪家  
 七月三防無暑日  
 百年一計癖煙霞

- 7 창량(蒼涼) : 서늘하고 차갑다.
- 8 대사(臺榭) : 대(臺)와 사(榭). 누대 따위의 건축물을 두를 이르는 말이다.
- 9 시사(詩社) : 정기적으로 모여 시를 짓고 읊는 시인들의 단체이다.
- 10 깊은...통찰했으니 : 서조(犀照)의 번역으로 서조우저(犀照牛渚)의 준말이다. 무소뿔에 불을 붙여 우저(牛渚) 아래를 살펴본다는 말로, 미세한 곳까지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이다.
- 11 연경(煙景) : 운무가 피어오르는 경치를 뜻한다.

人間清福方斯足  
嘯立西風醉帽斜

臨水爲坵谷谷清  
絕奇此地使人驚  
天真畫幅群峰起  
漲落溪聲萬瀑鳴  
知己相逢唯好日  
去仙不遠摠歡情  
話來往劫還招感  
窟海同遊古帝城

三伏無炎是別天  
蒼涼峽氣水聲邊  
管絃迭奏人成海  
坵樹參差月上筵  
得友或從詩社裡  
安心更向佛燈前  
逍遙半日犀相照  
萬慮同消點點煙



## 종인宗人 태유(호 골산, 평양에 거주)와 이별에 주다



화수회花樹會<sup>1</sup>의 풍류 흥도 많지만  
사는 곳이 얼마나 아득한지 문안도 드물어  
청류清流<sup>2</sup>의 옛 성벽을 먼저 둘러보고  
서늘한 삼방협곡에서 함께 떠나가 보리  
연단鍊丹<sup>3</sup>의 신술은 세상 구제할 수 있고  
향긋한 탁주 따라 마시니 갠 날빛을 아끼지  
기이한 인연 다하지 않아 서로 포옹하면서  
다만 중추절 기다려 달빛 안고 돌아가리

- 1 화수회(花樹會) : 성이 같은 사람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다. 당나라 시인 잠삼(岑參)이 대종(代宗) 영태(永泰) 원년(765) 봄 좌습유(左拾遺)에 제수되어 장안(長安)에 갔을 때, 원외랑(員外郎)으로 있는 어느 위씨(韋氏) 집안의 친족들이 꽃나무 밑에서 매번 술자리를 벌이고 단란한 모임을 갖는 것을 보고 찬양한 데서 인용한 것이다. 후세에 친족 간의 모임을 '화수회(花樹會)'라고 부른 것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잠삼집(岑參集)』 권4, 위원의장화수가(韋員外莊花樹歌)
- 2 청류(清流) : 덕행이 고결하고 명망이 높은 사대부를 비유하는 말이다.
- 3 연약(鍊丹) : 도가(道家)의 용어로, 가마에 단사(丹砂)를 넣고 달여서 단약(丹藥)을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贈別宗人泰遊号橘山(居平壤)

花樹風流興不微  
居何遙遠問聞稀  
清流古壁先縱覽  
涼峽三防共拂衣  
神術鍊丹能濟世  
香醪斟白愛晴暉  
奇緣未盡因相抱  
第待秋高帶月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청계산에 오르다



돌층계 부여잡고 산꼭대기 오르니  
탁 트인 시야에 마음이 활짝 열리지  
2월의 꽃향기 뒤는 사람이 취하고  
오강<sup>1</sup>의 물빛 가를 백로는 나르네  
꿈결 같은 인생이라 부질없이 일 많고  
신선술에 관심 있어 생식을 하게 되지  
옛 절 청계사는 시냇가에 자리했는데  
성긴 종소리는 석양 하늘로 떨어지네

1 오강(五江): 서울 근처 중요한 나루가 있던 다섯 군데의 강으로, 한강, 용산, 마포, 현호, 서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登淸溪山

攀緣石磴向山巔  
眼界恢恢意豁然  
二月花香人醉後  
五江水色鷺飛邊  
浮生是夢空多事  
仙術關心不食煙  
古寺淸溪溪上在  
踈鍾聲落夕陽天



망경대<sup>1</sup>



동풍에 홀로 망경대에 올랐지만  
칩칩 짙은 구름은 건히지 않았네  
원객의 상심에 외톨이 새도 울어  
꿈결 같은 앞 왕조 생각에 한강으로 왔어라  
임금의 은혜 갚지 못함에 칼을 감춘 듯  
세상일 어려움이 많아 술 몇 잔 치켜들었지  
선생의 지조와 서로 같음을 보지 못했는가  
석양에 눈물 뿌리며 잠시 배회하노라

1 망경대(望京臺) : 현재 청계산에 망경대가 있는데 조건이 고려의 멸망을 슬퍼하여 고려 개경을 눈물로 바라보았다고 하여 "망경대"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11, 양주목(楊州牧) 사원(寺院)조에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조건(趙獫) 처음 이름은 윤(胤)이고 자는 거경(巨卿)인데, 평양 사람이다. 본조에서 여러 번 부르니 도망가서 이름을 건(獫)으로 바꾸었다."

望京臺

東風獨上望京臺  
層疊愁雲鬱未開  
遠客傷心孤鳥哭  
前朝如夢大江來  
皇恩未報猶藏劍  
世事多艱數舉杯  
不見先生志相似  
斜陽揮淚暫徘徊



청계사를 방문하다



높고 우뚝한 봉우리 반은 구름인데  
짧은 나막신 신고 청계사를 방문했지  
적막한 사찰 정오라 종소리도 찾아들고  
돛배들 너울너울 바다는 서쪽으로 터졌구나  
부처와 인연 있어 지금 내가 도착하니  
신령한 구역 그림 같아 새는 울어대네  
종일토록 독경소리에 속된 생각 사라져  
연하에 취한 듯 돌 위에서 시 짓노라

訪清溪寺

巍兀層峯雲半齊  
逍遙短屐訪清溪  
沙門寥寂鍾殘午  
檣帆婆娑海坼西  
胡佛有緣今我到  
靈區如畫復禽啼  
聽經盡日消塵慮  
半醉煙霞石上題

# 독성산 보적사<sup>1</sup>



세마대<sup>2</sup>는 비어 있고 들빛은 유장한데  
 창라<sup>3</sup>와 무질서한 돌이 낡은 담을 들렀고  
 허다한 전겹에 구름 싸인 성벽은 아득하거늘  
 옛날 같은 소나무 소리는 물 건너 피리 소리  
 인정에 실망하여 나막신 끌면서 시 읊는데  
 허령<sup>4</sup>한 부처님 기운은 탑화향<sup>5</sup> 같아라  
 산을 바라보다 갑자기 세상 잊는 버릇 있어  
 동쪽 창 평상에 달빛 가득한 것도 몰랐네

# 禿城山寶積寺

洗馬埕空野色長  
 蒼蘿巨石繞荒牆  
 許多戰樹迷雲堞  
 依舊松聲隔水簧  
 潦倒人情吟屨倦  
 虛靈佛氣塌花香  
 看山有癖頓忘世  
 不覺東窓月滿床

1 독성산 보적사: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에 독성산이 있고, 경내에 보적사가 있다.  
 2 세마대(洗馬埕): 세마대는 독산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권율 장군이 1592년 근왕병을 이끌고 북상하는 도중 독성산 산성에 주둔하여 왜병을 무찌른 곳이기도 하다.  
 3 창라(蒼蘿): 푸른 송라(松蘿), 여라(女蘿)를 뜻한다. 교목이나 소나무 등의 가지나 줄기에 실타래처럼 기생하는 것이다.  
 4 허령(虛靈): 허령불매(虛靈不昧)의 준말이다. 신령하여 어둡지 않다는 뜻으로 유교에서는 이 내용을 인용해 명덕(明德)의 본질로 설명하고 있다.  
 5 탑화향(塌花香): 유향(乳香)으로 이해된다. 유향나무는 아라비아와 소말리아가 원산지로서 나무에 상처를 내면 수지(樹脂)가 유두(乳頭)와 같이 떨어져서 유향이라 한다. 유향이 땅에 떨어진 것을 탑향(塌香)이라 부른다.



## 또 읊다 7언 절구



옛 사원 긴긴 해에 불경을 읽고  
 산 빛 구름 그림자 부질없이 시를 읊네  
 향 피우는 탁자엔 깨달음도 많겠지만  
 한 줌 벌레<sup>1</sup> 같은 인간이 우습구나

又吟絶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古寺日長讀梵書  
 山光雲影浪吟餘  
 燒香半榻多圓覺  
 自笑人間一蠹魚

1 줌 벌레: 두어(蠹魚)의 별칭으로 책을 읽고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 태고사<sup>1</sup>(금산 대둔산)



마천대 아래 석문<sup>2</sup> 찾아드니  
 허명<sup>3</sup>한 옛 사찰 태고심<sup>4</sup> 간직했네  
 불기<sup>佛氣</sup> 천 년에 구름도 저절로 머물고  
 앵두꽃 피는 3월 나그네 크게 읊조리겠지  
 바위 사이 쇠송 소리는 하늘 가로 떨어지고  
 나막신 아래 운연이라 하계는 아득하구나  
 크게 남화경<sup>5</sup>을 읽고 가부좌 오래 했더니  
 세상 근심 갑자기 잊어 가슴속이 넓어졌구나!

- 1 태고사(太古寺)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에 있는 절이다. 신라시대 원효(元曉)가 창건하였고, 고려 말 보우(普愚)가 중창하였으며, 조선 중기에 진묵(震默)이 중창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의 수학지(修學地)로도 유명하다.
- 2 마천대(摩天臺)···석문(石門) : 마천대는 대둔산 정상으로 원효 이곳의 경치에 반해 붙인 이름이라 한다. 마천대 아래 태고사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문처럼 생긴 기암을 석문(石門)이라 한다. 송시열이 이곳에서 수학하면서 바위에 썼다는 석문(石門)이란 음각(陰刻)이 남아 있다.
- 3 허명(虛名) : 마음이 비고 밝다는 뜻이다.
- 4 태고심(太古心) : 태고심(太古心)은 바로 태고 시대의 순진무구한 정신이다. 이백(李白)의 시에 "도령은 팽택 영을 떠났으니, 아득히 태고의 마음을 간직해, 큰 소리가 절로 곡조를 이루기에, 줄 없는 거문고만 연주했다오. (陶令去彭澤 茫然太古心 大音自成曲 但奏無絃琴)"라고 하였다. 『전당시(全唐詩)』 권 168, 증임명현령호제(贈臨洛縣令皓弟).
- 5 남화경 : 남화진경(南華眞經)이라고도 하며, 장자(莊子)의 다른 이름이다.

太古寺偶吟(錦山大屯山)

摩天埜下石門尋  
古寺虛明太古心  
佛氣千年雲自逗  
櫻花三月客高吟  
岩間鍾磬諸天落  
屐底雲煙下界深  
大讀南華趺坐久  
頓忘世慮澗胸衿



낙조대<sup>1</sup>에 오르다

7언 절구



석양 빛 만리풍에 긴 휘파람 부니  
끝없는 서해에 둥근 해는 붉어라  
우산은 어디에, 성대는 우뚝한데<sup>2</sup>  
원각 부생<sup>3</sup>은 꿈속에 있구나!



登落照埜 七絶

長嘯斜陽萬里風  
眼窮西海日輪紅  
牛山何在星臺屹  
圓覺浮生是夢中

1 낙조대 : 금산에서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망대(859m)이다.  
2 우산은...우뚝한데 : 춘추 시대 제(齊) 경공(景公)이 우산(牛山)에 올라가 국성(國城)을 살펴보다가 "이 아름다운 강산을 두고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晏子春秋 內篇 諫上』) 중국 연(燕) 제(齊) 지방과 맞닿은 바다엔 아미산(峨嵋山), 양각산(羊角山), 성대(星臺) 등 산봉우리가 있어 노닐며 즐길 만한 곳이라 한다. 여기서 낙조대에 올라 서해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사를 생각하면서 읊은 것이다.  
3 부생(浮生) : 덧없는 인생을 의미한다.

# 군산항에 숙박하면서 부질없이 읊다

7언 절구



짧은 지팡이 깊고 항구 동쪽에 투숙하니  
명월산<sup>1</sup> 앞에는 상서스런 태양이 붉고  
어룡이 노니는 안개 속 저녁의 수많은 돛대  
노래 악기 봄 소리는 만호에 들려오네

SRI 수원시정연구원  
宿群山港護吟 七絶  
SUI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短筇投宿港之東  
明月山前瑞日紅  
魚龍海氣千帆夕  
歌管春聲萬戶風

1 명월산 : 군산의 진산(鎭山)으로 원래는 월명산(月明山)인데 일본인들이 명월산(明月山)으로 불렀다는 견해도 있다.

# 옛 은진미륵

5언 율시



명산인 반야산<sup>1</sup> 동쪽에  
미륵이 창공으로 솟았으니  
강 건너 것보다 더한 신통술<sup>2</sup>  
관촉사의 서광瑞光은 불네  
천만겁 이력을 겪고 나서  
지혜는 고금을 관통했지  
다시 숙향굴<sup>3</sup>을 보면서  
바람 찬 답을 배회하노라

1 반야산(鬘若山) : 논산의 관촉사를 품고 있는 산으로 반야산(般若山)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강 건너...신통술 : 관촉사에 미륵보살이 세워진 내용을 두고서, 달마대사가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 중국에 선(禪)을 전한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한 말이다.  
3 숙향굴(淑香窟) : 숙향굴(글자 의미는 맑은 향기가 나는 굴)은 아마도 미륵이 출현한 반야산에 있던 굴인 듯하나 미상이다.

舊恩津彌勒 五律

名山盤若東  
彌勒出蒼空  
涉江神術大  
灌燭瑞光紅  
慣經千萬劫  
知有古今通  
更見淑香窟  
徊徘徊滿塔風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40세 때 잠시 금강산에 놀면서 우연히 읊다 5언 절구



청정하기는 설빙의 빛같이요  
괴기<sup>1</sup>하기는 선불<sup>2</sup>의 얼굴<sup>2</sup>  
금강산은 동국에서 으뜸이거늘  
천하에서 금강산 같은 산은 없어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四十才時暫遊金剛山偶吟 五絶

清淨雪氷色  
恠奇仙佛顔  
金剛東國屹  
天下更無山

1 괴기(怪奇) : 괴이하고 기묘하다는 뜻이다.  
2 선불(仙佛)의 얼굴 : 신선과 부처의 얼굴이다.

또 7언 절구



1만 2천 봉<sup>1</sup>이 모두 옥<sup>2</sup>이요  
대·중·소불은 영험함도 많구나  
이 산에서 배출된 신명<sup>2</sup>의 승려들  
절세 방명이 죽사<sup>3</sup>에 푸르리

又 七絶

萬二千峰都是玉  
大中小佛又多靈  
此山鍾出神明客  
絶世芳名史竹青

1 1만 2천 봉 : 『화엄경(華嚴經)』에 1만 2천의 범기보살(法起菩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지상의 금강산에 비유하여 금강산에 1만 2천 봉이 있다고 한 것이다.  
2 신명(神明) : 밝은 지혜가 신과 같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3 죽사(竹史) : 청사(靑史)로 역사책을 이르는 말로 옛날에 역사를 죽간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다.

## 삼가 윤국장(치오의 호는 동암) 수강원의 시를 차운<sup>1</sup>하다



용봉고문<sup>2</sup>으로 양친이 장수하여  
인간의 드문 복 참모습 보여 주었지  
푸른 소나무 깊은 수강원에 삼살개 짓고  
늙은 버들 청풍에 손님 말은 눈 부라려  
백수에 연하고벽<sup>3</sup>煙霞癡<sup>3</sup> 되었으나  
청전시례<sup>4</sup>靑氈詩禮<sup>4</sup>로 심신을 길렀고  
돌아와서 농사 독서로 설산을 무겁게 해<sup>5</sup>  
소쇄<sup>6</sup>한 의견으로 티끌세상 멀리했네

1 차운(次韻) :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일이다.  
2 용봉고문(龍鳳高門) :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훌륭한 집안을 말한다.  
3 연하고벽(煙霞癡) : 연하벽(煙霞癖) 혹은 연하고질(煙霞癡疾)이라고도 하며, 지나칠 정도로 산수를 좋아하는 성벽(性癖)을 뜻한다.  
4 청전시례(靑氈詩禮) : 청전은 진(晉)나라 왕헌지(王獻之)가 밤에 서재에서 자다가 도둑이 들어 방 안의 물건을 다 훔쳐서 짐을 꾸리는 것을 보고 "푸른 모포(靑氈)는 우리 집의 오랜 물건이니 그것만은 놓아두라."라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일반적으로 가업(家業)을 뜻한다. 『진서(晉書)』 권80, 왕헌지전(王獻之傳). 시례(詩禮)는 공자가 일찍이 아들 리(鯉)에게 시와 예를 꼭 읽어야 한다고 경계했던 데서, 전하여 유가(儒家)의 가훈(家訓)을 뜻한다.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 유가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다.  
5 설산(雪山)을 무겁게 해 : 설산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영향력이 큼을 뜻하는 말로, 두보(杜甫)의 시에 "공이 오자 설산이 무거워지고 공이 떠나자 설산이 가벼워졌네. (公來雪山重 公去雪山輕)"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두소릉시집(杜少陵詩集)』 권16, 팔에서(八哀詩) 3, 증좌복야정국공임공무(贈左僕射鄭國公嚴公武)  
6 소쇄(蕭洒) : 속되지 않고 고결하다는 뜻이다.

謹次尹局長(致昨号東庵)壽康院韻

龍鳳高門壽兩親  
人間稀福見公眞  
蒼松深院仙猿吠  
老柳清風客馬嘖  
白首烟霞成痼癖  
青氈詩禮養心神  
歸來耕讀雪山重  
蕭洒衣巾迥絕塵



## 고인이 된 교관 하석우(호 경매)를 곱하다



고인의 재덕은 일반인보다 뛰어나  
한 번 만나 마음 주면 30년이지  
강호<sup>1</sup>를 떠돌면서 세도를 한탄했고  
경전에 박통해 묘도妙道를 깨쳤네  
매화꽃 필 때 온다던 약속 저버렸으나  
정한<sup>2</sup>은 먹물이 피어오르듯 새롭고  
조는 곳에 잠시 만나 팔 잡기<sup>3</sup> 어렵듯  
걸출한 인물에겐 신령 있음 알겠네

1 강호(江湖): 사망 각지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2 정한(情翰): 시화나 서화를 이르는 한묵(翰墨)에 대한 감정이다.  
3 팔 잡기: 친밀함의 표시이다.

哭故河教官錫禹(号庚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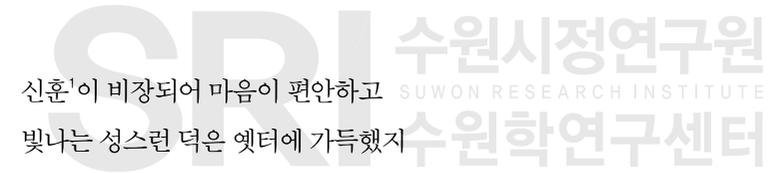
先生才德絶於人  
一見許心三十春  
流落江湖嘆世道  
博通經傳悟玄真  
來期縱負香梅着  
情翰猶存潑墨新  
睡處暫逢難把臂  
始知魁傑有靈神



## 공경히 단군성전을 차운次韻



단군소상은 해주海州 구월산 대암大岩 아래 석함으로 옮겨다가, 나중에 교주教主 정훈모鄭薰謨 초려草廬에 임시 봉안하였다. 그 후 시흥 구읍 안순환安順煥이 세운 성전聖殿으로 옮겨 안치한 관계로, 내가 가서 우러러 절하고 그때 느낌이 있어 감히 한 수를 지었다.



신훈<sup>1</sup>이 비장되어 마음이 편안하고  
빛나는 성스런 덕은 옛터에 가득했지  
인도를 밝게 가르쳐 생민이 즐겁고  
춘풍 같은 교화는 조물주의 입김인가  
이곳에 영전靈殿 경영을 찬탄하노니  
추모 당년엔 초려草廬로 모시었지  
하늘의 묵묵한 도움을 먼저 밝히니  
동방에 사서가 있음을 보여 주었네

1 신훈(神訓): 단군의 가르침을 두고서 표현한 말이다.

敬次檀君聖殿韻

檀君塑像 移來於海州九月山 大岩下石函內 臨時奉安于教主鄭薰謨草廬矣 後移  
安於始興舊邑安順煥所建聖殿 故余往瞻拜 而有感敢構 一首

神訓秘藏意晏如  
熙熙聖德遍遺墟  
教明人道生民樂  
化若春風大塊嘘  
欽嘆此地營靈殿  
追慕當年奉草廬  
天將默佑徵先發  
更見東方有史書



삼가 권운초가 영남에서 경성 필운동으로  
교거僑居<sup>1</sup>한 시를 차운하다



고개 구름과 달에서 그대 거처 바라보니  
맑은 풍모 가로막힌 지 10여 년 되었고  
물가에서 짝했던 꿈은 가을빛에 싸늘해  
파초 잎에 맺힌 정 빛소리만 공허하구나  
사람됨이 온옥<sup>2</sup> 같아 속진을 벗어났고  
집에는 청전<sup>3</sup>으로 서가에 가득한 책  
낙사<sup>4</sup>를 경영하러 새로 집을 지었다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잇는 것이 어떠하리

1 교거(僑居) :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임시로 사는 것을 말한다.  
2 온옥(溫玉) : 공자(孔子)가 "대저 옛날에 군자는 덕을 옥에 비겼으니, 온유하되 윤택함은 인(仁)이요 (夫昔者君子比德於玉焉 溫潤而澤仁也)"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병의(聘義)  
3 청전(靑氈) : 청전시례(靑氈詩禮)의 준말로, 청전은 진(晉)나라 왕헌지(王獻之)가 밤에 서재에서 자다가 도둑이 들어 방 안의 물건을 다 훔쳐서 짐을 꾸리는 것을 보고 "푸른 모포(靑氈)는 우리 집의 오랜 물건이니 그것만은 놓아 두라."라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일반적으로 가업(家業)을 뜻한다. 『진서(晉書)』 권80, 왕헌지전(王獻之傳), 시례(詩禮)는 공자가 일찍이 아들 리(鯉)에게 시와 예를 꼭 읽어야 한다고 경계했던 데서, 전하여 유가(儒家)의 가훈(家訓)을 뜻한다.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 유가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을 뜻한다.  
4 낙사(洛社) : 학덕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를 말한다. 송나라 문언박(文彦博)·부필(富弼)·사마광(司馬光) 등 낙양의 원로 13명의 모임을 이르는 말이다. 『宋史』 권313, 문언박열전(文彦博列傳).

謹次權雲樵自嶺南僑寓京城弼雲洞韻

嶺雲嶺月望君居  
阻隔清儀十載餘  
夢伴苔磯秋色淨  
情關蕉葉雨聲疎  
人如溫玉超塵俗  
家有青氈滿架書  
聞設新庄營洛社  
源源相追更何如



## 동전 맹 선생의 망팔(71세)<sup>1</sup> 경사스러운 잔치를 경하하다



동방의 걸출한 선비 맹동전 선생  
무난히 칠십을 지나 71세가 되었네  
노국의 유풍<sup>2</sup> 이곳에서 나타나고  
주문의 여맥<sup>3</sup> 공에 전해졌지  
장수를 축원하는<sup>4</sup> 생일날  
술 익고 벼 향기 나는 8월의 하늘  
무릎에 앉은 손 · 증손 경사 축하하고  
책상 가득 축하편지 어진 사람 모였네



1 맹보순의 망팔(望八, 71세)은 1932년이다. 정일영(鄭日永)이 지은 「次東田望八韻」(1932)도 있다.  
2 노국의 유풍 : 공자의 조국인 노나라가 남긴 풍속이다.  
3 주문(朱門)의 여맥 : 주자의 학문의 전통이다.  
4 장수를 축원하는 : 주침(壽添)의 번역으로 해옥주침(海屋壽添)의 준말이다. 장수를 기원하는 말이다. 선인(仙人)이 바다가 뿔발으로 변할 때마다 산가지 하나씩을 놓았는데, 그 산가지가 열 칸의 집을 채웠다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다. 『동파지림(東坡志林)』 삼노어(三老語).

敬賀孟先生東田望八慶筵

東方魁士有東田  
安過稀年復耄年  
魯國遺風來此見  
朱門餘脉賴公傳  
籌添岡祝生朝日  
酒熟禾香八月天  
繞膝孫曾餘慶足  
滿床賀牒集群賢



## 재배하고 맹 선생의 만사에 곡하다



선생의 도덕은 우리 동쪽에서 으뜸  
고을을 살펴보니 노풍<sup>1</sup>이 남아 있네  
큰 집이 갑자기 심곡에서 쓰러진 밤에<sup>2</sup>(정암 선생 심곡서원 안에서 서거)  
울면서 부질없이 백운만 바라보네.

再拜哭輓孟先生

先生道德冠吾東

復睹州鄉有魯風

巨厦忽顛深谷夜(深谷靜庵先生書院內逝去)

吞聲遙望百雲空



1 노풍(魯風): 노국의 유풍의 준말로 공자의 조국인 노나라가 남긴 풍속을 뜻한다.  
2 큰 집이...밤에: 1933년 동전 맹 선생의 죽음을 말한다.

## 또



온옥<sup>1</sup> 같은 사람에 기운은 봄 같아  
 깨끗한 흉중은 속진(俗塵)을 멀리했구나  
 다만 금화산(선생 고택 뒷산 이름)<sup>2</sup>의 달을 바라보니  
 안색은 아직도 남아 있어 감회가 새롭구나

又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人如溫玉氣如春  
 灑落胸襟迥絕塵  
 第看金華山上月(先生故宅後山名)  
 尙留顏色感懷新

1 온옥(溫玉) : 공자(孔子)가 “대저 옛날에 군자는 덕을 옥에 비겼으니, 온유하되 윤택함은 인(仁)이요. (夫昔者君子比德於玉焉 溫潤而澤仁也)”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병의(聘義).  
 2 금화산 : 용인 신갈에 있는 산이다.

## 아석 선생 전수기 씨에게 바치다



금강산 유람하면서 산집에 도착하니  
 십 년 상봉에도 눈빛은 헛갈리지 않아  
 청풍이 불어온 듯 마음이 상쾌하고  
 만월이 생각난 듯 꿈속 혼이 나르네  
 세월은 문장의 노숙을 빌려주지 않고  
 영욕은 세사와 어긋나니 무슨 상관이라  
 구름 같은 이합이라 약속하기 어려우니  
 우리 집 술 익었으매 돌아간다 말 마오

贈呈我石先生 全秀璣氏

金剛遊屐到山扉  
 十載相逢眼不迷  
 來似清風衿韻爽  
 思如滿月夢魂飛  
 光陰不貸文章老  
 榮辱何關世事違  
 離合等雲難更定  
 吾家酒熟莫言歸

## 사은정<sup>1</sup>을 중수 후 좋은 모임에서



화남<sup>2</sup>을 유람하다가 구성<sup>3</sup>에 도착하니  
 자리 가득한 화풍은 옛정이 다 모인 것  
 원춘은 간밤의 비로 버들은 온통 푸르고  
 깊숙한 골짜기 새로 꽃피니 피꼬리는 울어라  
 선현의 옛 자취 정자에 그대로 남았는데  
 명승지 맑은 햇빛에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추모하는 후생도 오히려 감동이 있어서  
 한길 높은 바위 휘어잡고 이름을 쓰노라

## 四隱亭重修後雅會

華南遊屐到駒城  
 滿座和風摠舊情  
 宿雨遠村多柳色  
 新花幽谷復鶯聲  
 先賢遺躅亭仍在  
 勝地晴光眼忽明  
 追慕後生還有感  
 高攀石丈敢題名



- 1 사은정(四隱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두암산(斗巖山)에 있는 조선 전기 정자이다.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조광조(趙光祖) · 조광보(趙廣輔) · 조광좌(趙廣佐) · 이자(李穡) 등 네 사람이 도의를 연마하고, 농사, 나무하기, 낚시질, 나물 캐는 등 네 가지를 즐거움으로 삼아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정자를 지었다고 한다.
- 2 화남(華南) : 화성(華城) 남쪽을 의미한다. 1794년(정조 18년) 정조가 장자의 화인축성(華人祝聖)이라는 고사를 생각하며 화성이라 붙였다. 『장자(莊子)』 천지(天地).
- 3 구성(駒城) : 경기도 용인시 지역에 있었던 용구현(龍駒縣)의 고구려시대 이름이다. 지금의 수지(水枝)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이다.

## 송산을 방문해 민우식을 만나다



날씨 따뜻해 벽도는 작은 뜰에 길푸르고  
 개인 날씨 좋거나 하필 먼 곳을 오르리  
 종구나! 나비는 활짝 핀 꽃에 가볍게 날고  
 기쁘구나! 제비는 청풍에 묘한 소리 보내 오네  
 오세주담<sup>2</sup>은 술자리에 알맞고  
 봄의 광태<sup>3</sup>는 임천<sup>1</sup>에 달려 있지  
 화훼와 푸른 버들 경치 좋은 곳에 많거나  
 단장 저버리지 않고 날마다 찾는다오

訪松山見閨雨植

日暖碧桃小院深  
 愛晴何必遠登臨  
 蝶憐花爛來輕舞  
 鷺喜風清送巧音  
 傲世塵談當酒席  
 得春狂態在林泉  
 芳卉綠楊多勝處  
 短筇無負日相尋

1 송산(松山) : 화성시 송산면이다.  
 2 오세주담(傲世塵談) : 세상을 업신여기는 담론을 뜻한다.  
 3 광태(狂態) : 구속되지 않는 모습, 미친 모양을 뜻한다.



# 재동<sup>1</sup>에 사는 구형 집에서 여러 벗들과 읊다 문회<sup>2</sup>文會<sup>2</sup>



시령에 가득한 책으로 대청이 밝은데  
감사한 주인은 속인의 정을 뛰어넘었지  
술 만난 객이 어찌 취함을 주저하며  
명승지에 이른 시인이 시 읊기를 아끼리

바람 따르는 벼들개지는 언제나 떠나버리고  
비 지난 뒤 약초 싹은 한두 개 돌아났지  
짧은 나막신 머뭇머뭇 이별이 아쉬운데  
한가로운 그림자 흩어지고 종성<sup>3</sup>은 어둡네

齋洞具兄庄與諸益吟(文會)

圖書滿架一堂明  
多謝主人超俗情  
酒逢嘉客那嫌醉  
詩到名區不惜聲  
隨風柳絮尋常去  
經雨藥芽一二生  
短屨遲遲堪惜別  
婆娑影散暝鍾城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재동: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조선시대 이래 전형적인 양반 마을이다.  
2 문회(文會): 시주(詩酒)를 즐기는 문인들의 모임을 뜻한다.  
3 종성(鍾城): 종루가 있는 성으로 문회가 있던 재동의 일대를 말하는 듯하다.

# 홍현<sup>1</sup> 신성균 산방에서



새소리에 하루 종일 산방은 닫혔고  
 깨끗한 원림은 서울에서 으뜸이지  
 땅 얻어 한가히 지내니 사람은 옥 품고<sup>2</sup>  
 간산<sup>3</sup>은 뜻 있어 손님은 술잔 멈추네  
 괴훈<sup>4</sup>이 책상 스며들어 푸른빛 더 짙고  
 보리 물결은 온 들관 덮어 열은 황색이라  
 시계는 탁 트여 저녁 경치 청명한데  
 거리 가득한 버드나무 맑은 햇빛에 하늘하늘

紅峴申性均山房

禽聲盡日閉山房  
 瀟灑園林擅洛陽  
 得地養閒人抱玉  
 看山有意客停觴  
 槐薰侵榻濃新碧  
 麥浪通郊送淺黃  
 眼界恢恢清晚眺  
 滿街楊柳放晴光

1 홍현(紅峴) : '붉은갯골'로 서울 종로구 화동·안국동·재동에 걸쳐 있던 마을이다. 정독도서관 남쪽 재동과 만나는 지점에 붉은 흙이 많은 고개가 있던 데서 유래되었다.  
 2 사람은 옥 품고 : 지덕을 깊이 간직한 채 드러내지 않음을 말한다.  
 3 간산(看山) : 뒷자리를 잡기 위하여 산을 살펴보는 일을 의미한다.  
 4 괴훈(槐薰) : 회화나무 꽃향기를 의미한다.



# 수원군 백일장<sup>1</sup> 이등상



백곡이 풍년 드는 이 가을에  
 중앙<sup>2</sup>의 하늘 기운 비 처음 그치고  
 성대한 모임에 군현이 먼 곳에서<sup>3</sup> 오니  
 승평<sup>4</sup>의 태수는 누대에 앉았구나  
 국화꽃 아름다운 계절 벌레소리 들리고  
 단풍잎 석양에 기러기 그림자 스치니  
 우열을 다투는 이 잔치에 백전<sup>5</sup>이 열리어  
 문물이 변화하니 이름난 고을 독점하라

# 水原郡白日場二等賞

百穀豐登有此秋  
 重陽天氣雨初收  
 勝會群賢來日下  
 昇平太守坐樓頭  
 黃花佳節蟲聲動  
 紅葉斜陽鴈影流  
 甲乙斯筵開白戰  
 繁華文物擅名州



1 수원군 백일장 : 1922년 9월 9일(음) 중앙절에 동전 맹보순이 주관하여 수원향교에서 개최된 백일장이다. 『水原郡白日場』, 『매일신보』 1922년 10월 24일.  
 2 중앙(重陽) : 음력 9월 9일의 명절인 중앙절은 삼월 삼진달 강남에서 온 제비가 이때 다시 돌아가고, 가을길이가 끝나는 풍요로운 계절이다.  
 3 먼 곳에서 : 일하(日下)의 번역으로 해가 비추는 아래란 뜻으로 도움을 말한다. 또는 해가 지는 곳, 곧 먼 곳을 뜻한다.  
 4 승평(昇平) : 태평하다는 뜻이다.  
 5 백전(白戰) : 시제(詩才)를 겨루기 위해 시제(詩題)와 관련된 글자를 가급적 쓰지 않는 일이다. 예컨대 눈에 대한 시를 지을 경우 학(鶴)·호(皓)·소(素)·은(銀)·이(梨)·매(梅)·로(鸞) 등 눈과 관련된 어휘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다. 구양수(歐陽脩), 소동파(蘇東坡) 등이 이 수법을 즐겨 썼다고 한다. 『소동파시집(蘇東坡詩集)』 권34, 취성당설(聚星堂雪).

## 단양<sup>1</sup>에 여러 선생을 모시고



지팡이 나막신으로 왜나무 버들 뜰에 이르니  
 간절한 약속은 천중가절<sup>2</sup>天中佳節이라  
 술이 술동이에 가득하니 북해<sup>3</sup>가 생각나고  
 고인<sup>4</sup>의 장수는 천남성<sup>5</sup>을 보아서겠지  
 갓 열린 앵두는 나뭇잎 뒤에 자색을 띠고  
 수확을 끝낸 보리는 낱알이 반은 푸르구나  
 온갖 꽃 다 보았지만 석류꽃 유독 피었으니  
 화신<sup>6</sup>은 끝까지 바람에 떨어지지 말기를

端陽陪諸先生

杖履辱臨槐柳庭  
 天中佳節約丁寧  
 有酒盈樽思北海  
 高人多壽見南星  
 新櫻隔葉光添紫  
 大麥登場粒半青  
 閱盡群芳榴獨發  
 花神抵死莫飄零



- 1 단양(端陽) : 음력 5월 5일 단오(端午)를 말한다.
- 2 천중가절(天中佳節) : 단오일(端午日)의 별칭인 천중절(天中節)을 아름답게 일컫는 말이다.
- 3 술동이…북해(北海) : 북해는 한나라 때 북해상(北海相)을 지낸 공융(孔融)을 말하는데, 어느 날 공융이 말하기를 “자리에는 손님이 항상 가득하고 술동이에 술이 비어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권70, 공융전(孔融傳).
- 4 고인(高人) : 재능과 식견이 뛰어난 사람을 뜻한다.
- 5 천남성(天南星) : 별자리 노인성(老人星)은 장수를 의미하므로 수성(壽星)이라고도 한다. 뿌리가 둥글고 흰 약초로, 노인성(老人星)의 모습과 같다고 한다.
- 6 화신(花神) : 꽃의 정령으로 꽃을 맡은 신이다.

# 공주에서 고향산천으로 돌아가다가 중양<sup>1</sup>을 만남



중양<sup>1</sup>이라 즐겁게 손님 맞이하고  
가절이라 기연을 모두 소홀하지 않지  
인적 드문 빈 누대 귀뚜라미 소리 어지러운 데  
먼 하늘 나뭇잎 떨어지니 기러기 그림자 생기네  
고향산천이라 낯익은 얼굴 많은데  
만년 친우는 관심이 가장 끌리는 법  
국화꽃은 석 잔의 술에 향기 풍기고  
시 시름 다 씻으려 누각 소리 지켰네

自公州歸故山值重陽

重陽客到好相迎  
佳節奇緣儘不輕  
虛樓人寂蛩音亂  
落木天長鴈影生  
故國山川多慣面  
曠年親友最關情  
黃花泛泛三盃酒  
滌盡詩愁坐漏聲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중양(重陽) : 9월 9일의 명절로 음력 삼월 삼짇날 강남에서 온 제비가 이때 다시 돌아가고, 가을 하늘 높이 떠나가는 철새를 보며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 수원 문묘文廟<sup>1</sup>

## 중수 낙성시 운을 따라서



도심道心이 안정되니 풍파가 없고  
 천년 역사 이어지니 은혜가 많거니  
 오기<sup>2</sup>가 분명히 규례로 완성되어  
 만방이 화합해 거문고 소리 들었지  
 성쇠도 운수소관이니 오늘이 슬프고  
 청탁도 때가 있으니 황하를 추궁하라  
 토목공사 닦은 공덕 이미 끝났거늘  
 이공李公의 신책을 어떻게 찬양하리

수원경찰서 서장 이해춘이 성묘聖廟를 알현하면서 원우院宇가 퇴락된 것을 보고 개탄하여, 연극단을 초청해 공연하게 하고 표를 판매하여, 반 년간 재물을 모아 중수비용으로 충당하니 그 성심과 계획이 가상함.

1 문묘(文廟) :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다.  
 2 오기(五紀) : 세시(歲時)를 밝히는 다섯 가지 사물로, 세(歲) · 월(月) · 일(日) · 성신(星辰) · 역수(曆數)를 말한다. 『서경(書經)』 홍범(洪範).

# 次水原文廟重修落成韻

道心安定不風波  
 有史千年恩澤多  
 五紀分明成規例  
 萬邦咸和聽絃歌  
 盛衰關數嗟今日  
 清濁有時徵彼河  
 營築修新功已訖  
 李公神策讚如何

水原警察署長李海春 來謁聖廟 見院宇頽落慨嘆 招請演劇團 來遊而賣票 半年鳩財 以充重修之費 其誠心籌策嘉尙



## 공주산성<sup>1</sup>에 오른 느낌



한양을 떠돌다가 남쪽 지방에 도착하니  
걸음걸음 산수유람 풍물이 아름다워라  
뚜렷한 옛 정자 쌍수정<sup>2</sup>이 있고  
넘실넘실 봄물은 금강으로 유입되네  
성안에 주필駐蹕<sup>3</sup>은 언제였던가?  
천하의 기이한 경관 이 누대에 있구나  
산하는 옛날 같지만 사람들 감개 많아  
석양의 어부 피리 소리에 작은 배만 등등

登公州山城有感

漢陽遊屐到南州  
步步登臨風物休  
歷歷古亭雙樹在  
溶溶春水大江流  
城中駐蹕曾何日  
天下奇觀有此樓  
山河依舊人多感  
漁笛斜陽放小舟



1 공주산성 : 고구려 장수왕의 침략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문주왕이 475년 이곳으로 도읍을 옮겨 성왕이 538년 부여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의 64년간 백제의 도성이 되었다.  
2 쌍수정(雙樹亭) : 공산성(公山城) 내에 있는 조선 후기의 누정이다. 1709년(숙종 35) 이선부(李善溍)가 관찰사로 부임하여 공주 쌍수산성기적비를 건립하고 비각을 건축하였으며, 1735년(영조 11) 이수항(李壽沆)이 관찰사로 부임하여 삼가정(三架亭)을 창건한 것이 쌍수정이다.  
3 주필(駐蹕) : 임금의 행차 중에 어가를 멈추고 잠시 머무는 것이다.

## 쌍수정<sup>1</sup>



선왕의 유택<sup>2</sup>으로 쌍수 남아 있고  
 쌍수 그늘 가에 작은 정자 있어라  
 초목도 무거운 은택에 젖은 듯  
 해마다 3월이면 저절로 청청하네

雙樹亭

先王遺澤餘雙樹  
 雙樹蔭邊有小亭  
 草木猶霑恩渥重  
 年年三月自青青

1 쌍수정 : 공산성(公山城) 내에 있는 조선 후기의 누정. 1709년(숙종 35) 이선부(李善溍)가 관찰사로 부임하여 공주 쌍수산성기적비를 건립하고 비각을 건축하였으며, 1735년(영조 11) 이수항(李壽沆)이 관찰사로 부임하여 삼가정(三架亭)을 창건한 것이 쌍수정이다.

2 유택(遺澤) : 남긴 은택을 의미한다.

## 웅심각<sup>1</sup>



웅심각에 오른 나그네 마음 호방하고  
 무장을 한 수많은 군사 산 북동에 있는 듯  
 나에게 철제 갑옷이 있다면 시험해 보고픈데  
 금강은 멀리 흘러 완강(浣江)까지 통했어라<sup>2</sup>

雄心閣

雄心閣上客心雄  
 萬甲千兵山北東  
 我有鐵衣將試拂  
 錦江遙與浣江通

1 웅심각 : 공주시 산성동 공산성(公山城) 내에 있는 건물이다. 원래 조선 초기 중군영의 정문으로 폐문루(閉門樓)였다가, 일제초기 중군영이 폐지되면서 웅심각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1946년 김구 이시영이 광복을 기해 광복루로 개명하였다.

2 완강(浣江)…통했어라 : 절강성 소흥현의 남쪽 약야산(若耶山) 밑을 흐르는 강이다. 완사계(浣紗溪), 약야계(若耶溪)라고도 한다. 완강이 흘러 서해로 유입되어 금강과 서해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 철교<sup>1</sup>



철교는 웅장한 호수보다 황홀하고  
장강 횡단에 공중으로 솟았구나  
교통과 교역이 이 때문에 좋아져  
사는 사람 편안함이 모두 같아졌네

鐵橋 SRI 수원시정연구원  
SUI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鐵橋惘惚壯湖中  
橫斷長江起半空  
交通質易從此好  
居人安樂萬家同

1 철교(鐵橋) : 1933년에 준공한 공주 금강철교이다. 당시 한강 이남에서 가장 긴 다리로 6·25전쟁 때 파괴되었으나 1952년에 복구되었다.

## 금강에 배 띄우고



강 가 구름과 나무에 또 강 가 안개  
샷갓에 나막신 춤추듯 작은 배에 오르네  
둥둥 복숭아꽃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쌍쌍이 갈매기 백로는 무심히 즐고 있네  
밝은 달 기분 좋게 맞아 술 마시니  
푸른 하늘에 앉은 듯 신선과 다르지 않지  
일위<sup>1</sup>를 맑은 바람 부는 데로 맡기니  
그림 속의 섬 같아 모두 기이한 인연일세

### 泛舟錦江

江雲江樹又江烟  
婆娑笠屐上小船  
泛泛桃花何處去  
雙雙鷗鷺等閒眠  
好迎素月仍謀酒  
如坐青天不遠仙  
一葦清風任所止  
畫中島嶼摠奇緣

1 일위(一葦) : 한 줄기 갈대라는 뜻으로 작은 배를 비유하는 말이다.

# 영은사靈隱寺<sup>1</sup>



7리 성 안 쌍수<sup>2</sup> 동쪽에  
 신령스런 한 기운이 절을 둘러쌌구나  
 구름 사이 학 울고 소나무 성긴 언덕에  
 꽃 아래 스님은 즐고 탑엔 바람만 세차네  
 종소리 울려 퍼진 사원에 산 그림자 푸르는데  
 돛대 지나간 무너진 언덕엔 석양이 붉구나  
 하늘이 감춘 별천지 인심은 예스러운데  
 지척의 혼잡한 인간세계와는 통하지 않네

# 靈隱寺

七里城中雙樹東  
 虛靈一氣繞梵宮  
 雲間鶴吠疎松塢  
 花下僧眠滿塔風  
 鍾落空門山影碧  
 帆過缺岸夕陽紅  
 天藏別界人心古  
 咫尺囂塵不與通

1 영은사: 1458년 세조의 명으로 창건된 공주시 공산성(公山城) 내 사찰이다.  
 2 쌍수(雙樹): 충남 공주시 공산성 내에 있는 나무이다.



# 봉황산<sup>1</sup>



계룡산의 여맥餘脈에 봉황산이라  
 이곳에 모인 용이 날고 봉이 춤춰라  
 어느 해인가 무슨 일로 어가가 머물러  
 근대의 태평세월로 화당<sup>2</sup>이 한가로워  
 변화한 교실은 영재 기르는 즐거움이고  
 넓고 큰 철교는 행락객의 즐거움이라  
 집집마다 대나무 심어 죽실이 많거니  
 은근히 기이한 새 돌아오기를 기다렸네<sup>3</sup>

# 鳳凰山

鷄龍餘脈鳳凰山  
 鳳舞龍飛萃此間  
 有事何年王駕駐  
 昇平近代化堂閒  
 繁華校舍育英樂  
 廣坦鐵橋行客歡  
 種竹家家多竹實  
 慇懃留待異禽還

1 봉황산 : 공주시의 봉황동(鳳凰洞), 반죽동(班竹洞) 등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148m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7, 공주목(公州牧) 산천(山川)조에 “봉황산은 서쪽 3리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2 화당(化堂) : 변화하는 집이란 뜻으로 보인다. 다음 내용이 참고가 된다. 장유(張維)는 자신의 친구 신민일(申敏一)이 “거백옥(藪伯玉)이 60세에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말에 느낀 바가 있어 마침내는 화당(化堂)으로 자신의 호(號)를 삼았다고 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계곡집(谿谷集)』 권4, 화당설(化堂說) 속고(續稿).  
 3 대나무…기다렸네 : 대나무 열매인 죽실(竹實)은 봉황의 식사 재료로 대나무를 심어 죽실이 달리면 태평성대에 출현한다는 기이한 새인 봉황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 서석굴기



공주는 백제 고도로 충남의 수부<sup>1</sup>다. 수백 리 산천이 감싸 안아 옹호하듯 하고, 봉산鳳山이 뒤에 있고 금강이 앞에 있어 연락連絡과 영송迎送이 태극모양처럼 연이어졌고, 옛날부터 독보적 명승지로 난리가 평정되면 거주할 만한 곳이었다. 기묘己卯년(1939년) 봄에 내가 이곳에 교거<sup>2</sup>하고 있는데, 객이 와서 말하기를 “봉산 서쪽에 주봉이 있는데 뚜렷하게 우뚝한 것이 군자의 기상이 있고, 그 아래 거대한 석굴이 있고, 굴 안에 정결한 정사<sup>3</sup>가 있어 선정이라 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옛날 선계에는 석실에 금강이 있고 또한 신선굴에는 도를 닦는 청복<sup>4</sup>이 있는 사람이 왕왕 거주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이곳에는 이 같은 영굴靈窟이 있으므로 친우 4~5인과 함께 휴가일에 소요하면서 주봉<sup>5</sup>을 바라보고 갔다. 주봉 아래 돌길에 이르니 돌길은 험하고 꽃나무는 뻣뻣한데 나막신을 끌고 지팡이에 의지해 굴 앞에 도착하니 한 조각 거대한 바위가 성벽 같은데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석굴에 들어가 돌 위에 쉬고 있는데 소나무 뿌리가 아래위로 뻗어 있는데, 북쪽을 바라보니 금강이 삼면을 감싸 들고 배들이 오가며, 동쪽은 월성月城의 맑은 기운에 상서스런 태양과 구름이 서로 비추어 빛나고, 남쪽은 계룡산의 중첩된 산봉우리가 용처럼 날고 봉처럼 춤추며 구름 속에 나열했고,

1 수부(首府) : 한 도에서 감영(監營)이 있던 곳으로 중심도시를 지칭한다.  
 2 교거(僑居) : 타향에 거주하거나 임시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3 정사(精舍) : 사찰을 의미한다.

서쪽은 주봉이 장중하고 우뚝하며 기이한 꽃과 새들이 환영하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마다 놀라워 심신<sup>6</sup>이 황홀하였다.

조금 있다가 석굴 앞 석문이 반쯤 열리자 한 동자가 나와 맞이하였다. 동자를 따라 굴에 들어가니 높이는 8~9척, 넓이는 6~7칸인데 중앙에 4~5칸이 있고 정사<sup>7</sup> 한 모퉁이로 향하니 석벽으로 스미어 흐르는 자그마한 샘이 있었다. 통을 달아 물을 끌어 흐르게 하여 석함에 물을 대는데, 한 표주박으로 길러 마셨더니 그 맛이 맑고 달달하고 차서 가슴속이 시원하고 탁 티였다.

아마도 몇 만 년 몇 천 년 전에 조물주가 이 영굴靈窟을 만들어 놓고 수도하는 청복<sup>8</sup>인<sup>9</sup>을 기다려 살게 한 것일 것이다.

동자에게 몇 년 몇 월 몇 일에 이 석굴을 영축했는가 물었다. 동자가 말하기를 “십수 년 전에 본 고을 석재<sup>10</sup> 윤유<sup>11</sup>尹酉炳 선생이 이 정사를 세워 가끔 와서 도를 닦고 정신을 수련하면서 혹 동자를 시켜 이곳에 머물면서 손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꺾연<sup>12</sup>“히 일어나 기쁘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석재<sup>13</sup>는 나의 친근한 벗으로 심성이 담박<sup>14</sup>하고 문아<sup>15</sup>가 고상하며 명산대찰을 주유하고 수련 기도를 하면서 이르기를 ‘신명<sup>16</sup>으로 느껴 영굴에서 점을 치면 땅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은 땅을 얻을 수 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옛날 석실 영굴이 마침내 도를 닦는 청복<sup>17</sup>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다. 내가 비록 추술<sup>18</sup>하나 선생을 따르고자 하니 동자는 기꺼이 이 뜻을 가지고 선생에게 고하였다.

대한민국 21년 기묘년<sup>19</sup> 모춘에 봉황리<sup>20</sup>에 임시로 살고 있는 오대영 것이다.

4 꺾연(蹙然) : 갑자기, 급히 일어나는 모양을 뜻한다.  
 5 문아(文雅) : 문재(文才)라고도 일컫는다.  
 6 추술(麤率) : 거칠고 경솔하다는 뜻이다.  
 7 대한민국 21년 기묘년 : 1919년 임시정부부터 계산한 것으로, 서기로 환산하면 1939년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1년 기묘년”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8 봉황리 : 공주시 봉황동 지역이다.

## 西石窟記

公州百濟古都 忠南首府 數百里山川 抱回擁護 而鳳山在後 錦江在前 連絡  
迎送 形如太極 自古擅名勝 平亂可居 己卯春 余僑居茲地 有客來言 鳳山西  
有青峰 特立儼然 有君子人氣像 其下有巨大石窟 窟之內有蕭洒精舍 可謂  
仙界 余曰昔聞仙界 或有石室金剛 亦多仙窟修道清福人 往往居之云 此地  
亦有 若此靈窟 即將欲遊覽 與四五親友 暇日逍遙 望青峰而行 幾至峰下 石  
逕崎嶇 花木蔥密 携屐信筇 及到窟前 一片巨岩 宛如城壁 未知從何處 入其  
窟 休憩于石頭 松根俯仰 瞻眺其北則 錦水長江 抱回三面 舟楫來往 其東則  
月城清嵐 瑞日祥雲 相映明耀 其南則 鷄籠層巒 龍飛鳳舞 羅列雲中 其西則  
奇花異禽 依如歡迎 觸目驚駭 心神恍惚

少焉 窟前石門半開 一童子出迎 隨其童入其窟 高可八九尺 廣可六七間 中  
有四五間 向精舍一隅 石壁有滲流小泉 懸桶引流 灌于石函 汎一匏子 飲來  
一匏 其味清而甘甘而冽 胸衿爽豁

意者幾萬年幾千年前 化翁鋪置此靈窟 留待修道 清福人居之  
問於童子曰 何年月日 誰某營築此舍 童子曰 十數年前 本邑居尹先生酉炳  
號釋齋 築此精舍 往往來遊 修道練精 或使童子 留此待客

余蹶然而起 欣然笑曰 釋齋余之親近友人 其心性淡泊 文雅高尚 周遊名山  
大刹 修鍊祈禱 以神明所感 占此靈窟 可謂地得人 人得地 烏不美哉 古之  
石室靈窟 終歸于修道清福人之說 果不誣矣 余雖羸率 將欲從遊先生 童子  
好將此意 告及於先生焉

大韓民國二十一年己卯暮春 鳳凰里僑居 吳大泳著

## 서석굴가



서산西山 남악에 석굴 있으니

굴은 언제 누구 위해 완성되었는가

큰 바위 잘라 끊기를 흠 자르듯 하니

우부의 신공<sup>1</sup>이 사람 놀라게 했지

진나라 시대 어부도 이것을 모르고

복숭아꽃 물결 따라 강가로 가니<sup>2</sup>

허령<sup>3</sup>한 남굴은 부처 기운도 많아

백운 깊은 곳에 저녁 종소리 울려 퍼지고

기묘한 서굴은 선연<sup>4</sup>이 막중해

청복<sup>5</sup>의 석옹釋翁은 영생하리니

찌든 가슴 영천<sup>6</sup> 물에 씻고자

- 1 우부(禹斧)의 신공 : 하우(夏禹)가 도끼를 들고 나무와 숲을 베어내고 치산치수(治山治水)를 한 공적(功績)을 이르는 말이다.
- 2 진나라 시대 어부도...강가로 가니 :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말이다.
- 3 허령(虛靈) : 잡되지 않고 신령스럽다는 뜻이다.
- 4 선연(仙緣) : 신선의 인연, 도를 닦아 신선이 되는 인연을 뜻한다.
- 5 청복(淸福) : 조용하고 한가로이 지내는 행복을 의미한다. 청복에 대한 다산의 다음 견해는 참고가 된다. “깊은 산중에 살면서 삼베옷을 입고 짚신을 신으며, 맑은 샘물에 가서 발을 씻고 노승에 기대어 시가를 읊으며, 당(堂) 위에는 이름난 거문고와 오래 묵은 석경(石磬), 바둑 한 판[枰], 책 한 다락을 갖추어 두고, 당 앞에는 백학(白鶴) 한 쌍을 기르고 기이한 화초와 나무, 그리고 수명을 늘이고 기운을 돋구는 약초들을 심으며, 때로는 산승이나 선인들과 서로 왕래하고 돌아다니며 즐겨서 세월이 오가는 것을 모르고 조야(朝野)의 치란(治亂)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을 두고 ‘청복(淸福)’이라 한다.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권13, 兵曹參判吳公 大益 七十一 壽序 己未”
- 6 영천(靈泉) : 신령스러운 물이라는 뜻으로 샘물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이다.

조만간 좇아 성명姓名을 숨기리라

西石窟歌

西山南岳有石窟  
窟自何年爲誰成  
斬截巨岩如斬土  
禹斧神功使人驚  
秦世漁人不知此  
浪逐桃花江上行  
南窟虛靈多佛氣  
白雲深處曠鍾鳴  
西窟奇絕仙緣重  
清福釋翁可永生  
塵衿願滌靈泉水  
早晚從遊隱姓名

창벽가



옛날 적벽은 지금의 창벽이라 들었지  
창벽의 한 구역은 모두가 돌이었지  
뽕죽뽕죽 우뚝우뚝 칼이나 창 같아  
허공에 나열되어 구름의 그림자처럼 희네  
푸른 하늘에 은하수가 떨어진 듯  
비 온 뒤 비폭飛瀑이 천척으로 걸린 듯  
바위 사이 다생多生<sup>1</sup>은 약초가 많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선의 발자취 보리라  
창벽 아래 맑은 강은 끝이 없는 깊이에  
옛날부터 명물로는 잉어가 있었고  
도롱이와 삿갓 쓴 어옹이 작은 배를 띄어  
석양에 낚싯대 드리우고 물결에 맡겨 버렸네  
금 갈고리낚시로 뛰는 고기 낚으니  
이 고기 구입해 강가 초려로 돌아왔지  
술 있고 안주 있어 시흥詩興이 솟아나  
하늘 가득 밝은 달은 태초太初 같아라  
금강산이 좋다 한들 어찌 홀로 아름다우리

1 다생(多生): 중생이 업보로 죽음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생사반복을 하는 식물을 의미한다.

소자蘇子 우유했다면 이곳도 멀어졌으리<sup>2</sup>  
 후인들이 이곳의 빼어난 경치를 물으면  
 신선이 살고 있는 금벽정 언덕을 방문하라



蒼壁歌

昔聞赤壁今蒼壁  
 蒼壁一區都是石  
 尖尖兀兀如劍戟  
 羅列半空雲影白  
 疑是青天銀河落  
 雨餘飛瀑掛千尺  
 岩間多生靈藥草  
 居人或見遊仙躅  
 壁下清江深無底  
 自古名產有鯉魚  
 簑笠漁翁放小艇  
 投竿斜日任所如  
 金鉤釣得銀鱗躍  
 買此歸來江上廬  
 有酒有肴詩興發  
 滿天明月似太初  
 金剛雖好奚獨美  
 蘇子優遊過此疎  
 後人若問此處勝  
 錦壁亭畔訪仙居

2 금강산이… 멀어졌으리 : 소동파가 금강산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금강산도 세인의 이목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세평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 백강매가

백마강 가 대재리에 사는 이씨의 이름은 미상이나,  
 거의 백 년 이전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납매<sup>1</sup> 한 주를 구하여  
 집 앞에 심고 대재각을 세웠다. 그러므로 대재리라 이름 하였다.  
 그 매화는 오히려 지금도 눈 속에 꽃을 피운다.



대재각 아래는 백마강 매화梅花  
 옛날 중원에서 동쪽으로 건너와서  
 독수<sup>2</sup>로 춘신을 일찍 전했으니  
 눈 속에 꽃 보는 것이 가장 기이했네  
 눈 희고 꽃 희어 천지天地도 희니  
 암향이 떠도는 곳 옥인<sup>3</sup>이 돌아오리  
 강가로 해 떠 오르자 눈은 다 녹아 버리고  
 꽃은 옛날처럼 나날이 피어나리  
 눈썹 찡긋 어깨 으쓱 노새 타는 나그네  
 시흥이 무르녹거든 짧은 채찍 서둘러  
 옮겨 살 지척의 땅이라도 구입하여  
 아침저녁마다 기쁨의 술잔 기울이세

1 납매(臘梅): 음력 설달에 꽃이 피는 매화를 뜻한다.

2 독수(獨樹): 홀로 서 있다는 뜻이다.

3 옥인(玉人): 용모와 자태가 준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진(晉)나라 위개(衛玠)가 종각 시절에 양거(羊車)를 타고 낙양(洛陽) 시가지에 들어서면 그의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다투어 나와 구경하면서 옥인(玉人)이라고 찬탄했다는 고사가 있다. 『세설신어(世說新語)』 용지(容止).

## 白江梅歌

白馬江上大哉里 李氏名未詳 幾百年前以上 使往中國 求臘梅一株 植于家  
 前 築大哉閣 故因名大哉里 右梅尚今雪中開花

大哉閣下白江梅  
 昔自中原東渡來  
 獨樹分明春信早  
 雪裡看花最奇哉  
 雪白花白天地白  
 暗香浮處玉人回  
 日出江上雪消盡  
 花自依舊日日開  
 歛眉聳肩驢上客  
 詩興闌漫短策催  
 那得移居咫尺地  
 朝朝曛曛喜傾杯

## 웅진



동풍에 놀던 신발 웅진을 물었는데  
 아침 비 처음 개이자 버들 빛 새롭고<sup>1</sup>  
 적막한 두 개의 왕릉은 지금도 있으니  
 문명의 백제는 옛날 어느 때였던가  
 방초 찾는 짧은 지팡이로 꽃을 찾는 나그네  
 석양에 긴 피리 불면서 물을 건너는 사람  
 사랑스런 주점의 미녀는 다투어 술 나르고  
 가득한 술잔에 안주는 은빛 나는 회일세

## 熊津

東風遊屐問熊津  
 朝雨初晴柳色新  
 寂寞兩陵今有地  
 文明百濟昔何辰  
 短筇芳草看花客  
 長笛斜陽渡水人  
 可愛店娥爭進酒  
 滿觴綠蟻膾銀鱗



1 아침 비...새롭고 : 당나라 왕유(王維)의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시에 “위성의 아침 비에 가벼운 티끌 적시니, 객사의 푸르고 푸른 버들 빛이 새롭네.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라는 내용이 보인다.

## 갑사



깨끗한 옛 절은 푸른 산처럼 치솟아  
 조석으로 부처님의 혼이 돌아오는 듯  
 연하 긴 옛 골짜기 청룡이 숨어 있고  
 화석<sup>火石</sup> 선방은 햇빛이 한가하구나  
 험한 바위 기이한 봉오리는 넘쳐나지만  
 그윽한 경치는 인간세상 떨어지지 마오  
 대숲 길 소요하며 스님과 담소하는데  
 바람 찬 높은 누각에 달빛은 문에 가득

### 甲寺

古寺虛明聳碧山  
 曠朝疑似佛靈還  
 烟霞故洞青龍隱  
 花石禪房白日閒  
 剩得奇峰舖檻外  
 不教幽景落人間  
 逍遙竹逕逢僧話  
 風滿高樓月滿關

## 성추<sup>省楸</sup>차 보령으로 향하다

공주로부터 부여, 홍산,  
 연암역을 경유하여 양각산 아래 이르다



무성한 버들도 처음엔 연푸른 모습  
 역로<sup>驛路</sup>를 종횡해 부여를 지나니  
 기러기는 깜박이며 날고 산은 옛 모습  
 제비는 비슷히 날고 바위 그림자 성글다

세상살이 어려움 많아 같이 물 건너고  
 간산도 재미있지만 독서가 더 낫다지  
 우람찬 양각산<sup>2</sup> 상서로운 구름 떠돌고  
 늘그막에 여막을 모시지 못한 것 한스러워

1 성추(省楸) : 성묘의 별칭이다.

2 양각산(羊角山) :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와 웅천읍 평리 사이에 걸쳐 있어 웅천읍과 미산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412m의 산이다.

省楸次向保窳 自公州經夫餘鴻山薦巖驛 至羊角山下

楊柳依依軟綠初  
縱橫驛路過扶餘  
鴻飛點點山容古  
鷺舞斜斜岩影疎  
涉世多艱同涉水  
看山有味勝看書  
蹲蹲羊角祥雲逗  
恨未殘年侍墓廬



## 분황<sup>1</sup> 때에 느낌이 있어서



분황지에 절하고 청산靑山보고 울었지  
어머니 은혜 생각에 얼굴 가득한 눈물  
사람은 까마귀처럼 반포<sup>2</sup>도 할 수 없으니  
영혼이 학으로 변해 되돌아올 수 있다면  
형제는 흰 귀밑머리 모두 늙은 나이 되어  
남북 병진兵塵으로 사업에 여유가 없었지  
아이는 그 심정도 모르고 귀로만 재촉하고  
더디고 더딘 걸음에 백운만 여유롭구나

1 분황(焚黃) : 국가에서 벼슬이 내려지면 고유문을 누런 종이에 써서 사당이나 분묘에서 태우는 일을 뜻한다.  
2 반포(反哺) : 씹어서 먹이다는 뜻으로 자식이 어버이에게 진 은혜를 갚음을 의미한다.

焚黃時有感

拜焚黃紙哭青山  
追慕慈恩淚滿顏  
人不如鳥能反哺  
靈將化鶴倘飛還  
弟兄鬢髮年俱曠  
南北兵塵事未閒  
僮莫知情歸路促  
遲遲步下白雲間



보령에서 곤장 수원으로 향하다  
(웅천의 옥마산<sup>1</sup>을 경유)



해는 느릿느릿 내 발길 또한 머뭇거리  
청산에 계신 부모님을 이별할 때일세  
역의 나무는 정을 품은 듯 새는 즐겁고  
들꽃은 웃지만 나그네는 이다지도 슬픈가  
맑은 냇가 높은 바위는 꿈이 나르는 듯  
먼 봉우리 안개<sup>2</sup>는 기이한 옥마산인가  
천 리 길 내 고향은 지척咫尺인 듯한데  
성 모퉁이에서 환영할 친지는 얼마나 될까

1 옥마산(玉馬山) : 충남 보령시의 남포면과 성주면의 경계에 위치한 597m의 산으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산이며, 위치는 남포현의 동쪽 8리에 있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0, 남포현(藍浦縣) 형승(形勝) 산천(山川)조 참조.  
2 안개: 청담(晴嵐)의 번역으로 맑게 갠 날 산 속에서 이는 안개를 뜻한다.

自保寧直向水原(經熊川玉馬山)

白日遲遲我亦遲  
父母青山告別時  
驛樹含情禽自樂  
野花向笑客何悲  
清川危石飛熊過  
遠岫晴嵐玉馬奇  
千里吾鄉如咫尺  
歡迎城隅幾親知



## 계룡산 강선대에 오르다

계룡산 서쪽 최고봉 위에 등운암이 있는데 암자 옆에 영천이 있다.  
영천 옆에는 강선대가 있고 강선대 위 절벽에  
큰 각자 ‘方百馬角 口或禾生’이 있다.



반등축성<sup>1</sup>으로 강선대 방문하니  
세상의 봉래산이 이곳에 열렸구나  
일월이 동에서 떠오르니 창해처럼 넓고  
건곤이 남으로 갈라져 노성<sup>2</sup>이 다가오네  
티끌 한 점 옥 같은 천봉엔 머물 수 없고  
모든 불 허령<sup>3</sup>하니 만념이 식은 재  
이곳엔 응당 영약초가 많을 것이니  
진시황도 혼자서 잔 들어 마시지는 못하리라

하늘에 오른 듯 황홀해 속류를 끊으니  
서로 호응에 옥경루<sup>4</sup>는 가깝지  
만산홍엽에 나그네 처음 강선대에 도착하니  
신선이 내려와 노니는 백운은 어느 곳인가  
바다 빛 아득하니 한 잔의 물이요  
달 빛 밝고 고요해 조각달 가을<sup>5</sup>이라

1 반등축석(攀藤躑石) : 등나무 넝쿨 더위잡고 돌을 밟다는 뜻이다.  
2 노성(老星) : 노인성(老人星)의 약칭으로,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는 남극성(南極星)을 가리킨다.  
3 허령(虛靈) : 허령불매(虛靈不昧)의 준말로 신령하여 어둡지 않다는 뜻이다. 유교에서는 이 내용을 인 용해 명덕(明德)의 본질로 설명하고 있다.  
4 옥경루(玉京樓) : 신선이 사는 누대이다.  
5 조각달 가을 : 이백(李白)의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의 첫 구절에 나오는 말이다. “아미산의 조각달이 가을 하늘에 떠 있고, 그림자는 평강강에 비쳐서 강물과 함께 흐르지, (峨眉山月半輪秋 影入平羌江水流)” 『이태백문집(李太白文集)』 권6.

남극성南極星<sup>6</sup>은 해마다 나타나는데  
노선사老禪師<sup>7</sup>는 여기 머물지 않네

### 登鷄龍山降仙臺

鷄龍山西 最高峰上 有騰雲庵 庵之傍 有靈泉 靈泉之上 有降仙臺 臺上絕壁  
有大刻字 方百馬角 口或禾生

攀藤躅石訪仙台  
世上蓬萊此地開  
日月東升蒼海潤  
乾坤南坼老星來  
一塵不逗千峰玉  
百佛虛靈萬慮灰  
此處應多靈藥草  
秦皇不見獨含盃

恍若登天絕俗流  
相應不遠玉京樓  
滿山紅葉客初到  
何處白雲仙降遊  
海色迷茫一杯水  
月輝寥朗半輪秋  
南來極宿年年見  
未老禪師此地留

6 남극성(南極星) : 남극성은 노인성(老人星)이라고도 부르는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일컬어진다.  
7 노선사(老禪師) : 오랜 수련과정을 통해 깨침을 얻은 선사를 말한다.

## 안개바다

깊은 산과 해상에 간혹 안개 바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곳에 와서 처음 보았다.



새벽빛 용잠산<sup>1</sup>은 완전히 개이지 않고  
경각에 신의 숨씨 안개바다 되었구나  
우주는 홍몽<sup>2</sup>하고 천뢰<sup>3</sup>는 고요한데  
산하는 분간키 어렵고 조수는 평탄하네다만  
숲 아래 다니는 행인의 말 듣나니  
구름 가 나르는 따오기 소리 기빠라  
풍백<sup>4</sup>만이 신속히 청소할 수 있나니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다시 선명해지리

1 용잠산(龍岑山) : 용잠산은 용천산(龍泉山)의 잘못된 표기로 담양부 서쪽에 있다고 한다. 『해동역사(海東譯史)』 속집 권13, 산수(山水) 1. 저자가 이 일대를 흐르는 영산강이나 담양호 주위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를 두고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2 홍몽(鴻濛) :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 혼돈 상태를 뜻한다.  
3 천뢰(千籟) : 자연에서 나는 소리이다.  
4 풍백(風伯) : 바람을 신격화해서 부르는 말이다.

霧海 深山與海上 或成霧海云 來此始見

龍岑曉色未全晴  
傾刻神功霧海成  
宇宙洪濛千籟寂  
山河迷沒遠潮平  
但聞林下行人語  
却喜雲邊飛鷺聲  
風伯指揮能快掃  
森羅萬象更分明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가을에 부여 고도를 지나면서



부소산 아래 대강<sup>1</sup>은 흐르는데  
넘실넘실한 강물에 산 빛은 가을  
백제의 번영은 물어볼 곳도 없고  
낙화암엔 덧없이 시름에 겨운 새

秋過扶餘古都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扶蘇山下大江流  
江水溶溶山色秋  
百濟繁華無處問  
落花岩畔鳥空愁

1 대강(大江) : 금강(錦江)을 말한다.

## 고란사

천여 년 전 사찰을 창건할 때에 스님이  
고란초를 갖고 와서 뜨락에 심었는데 지금도 남아 있다.  
고란사 앞에 소나무를 심어 강 빛을 볼 수 없다



강물 소리 잠긴 사찰은 산 그림자 동쪽  
고란초 한 줄기 뜨락 가운데에 심었다오  
선어<sup>1</sup>가 때론 솔바람 소리에 들려오고  
뱃사람들은 놀라 푸른 허공을 바라보네

### 皐蘭寺

千餘年前創寺時 僧持皐蘭草來植庭 至今猶存 寺前植松林 不見江色

寺在江聲山影東  
皐蘭一朵植庭中  
禪語時從松籟落  
船人驚訝望蒼空

1 선어(禪語) : 승려들의 화두(話頭)나 법담(法談)을 두고서 한 말이다.

## 공주읍에 있을 때 성재화 성주경의 방문



오늘 대한은 봄이 닥쳐올 기쁨  
눈 속의 매화는 가장 좋은 명절이지  
격조했던 친구 북사<sup>1</sup>에 모여  
신월·상동<sup>2</sup> 이웃을 두루 돌아다녔네  
술잔 들고 마주 대하는 청안<sup>3</sup>의 손님  
만사를 연모<sup>3</sup>하는 백발의 늙은이  
떠도는 세상 기연 참으로 우연 아니니  
그대에게 청하노니 기러기 되지 말게나

1 북사(北社) : 북교(北郊)에 있는 토지신에게 제사지내는 단(壇)이다. 여기에서는 시사(詩社)의 명칭으로 여겨진다.  
2 신월 상동 : 공주에 있는 마을 이름인 듯하다.  
3 청안(靑眼) : 반가워하는 눈빛이다. 진(晉) 나라 완적(阮籍)이 반가운 사람에게는 청안(靑眼)을 달갑지 않은 사람에게에는 백안(白眼)을 보인 고사에서 유래한다. 『진서(晉書)』 권49, 완적전(阮籍傳).

在公州邑時 成載華及成周慶 見訪

大寒今日喜將春  
雪裏梅花是令辰  
隔阻親朋來北社  
徘徊新月上東隣  
一樽相對青眸客  
萬事同憐白髮人  
萍海奇緣誠非偶  
請君且莫作鴻賓



## 율정 심재찬(호 동산) 문병



고인故人<sup>1</sup>의 병 늘 관심이지만  
한번 방문도 지지해 녹음이 지났네  
짹 이룬 피꼬리 소리 듣기 부끄럽고  
허황한 나비 꿈<sup>2</sup>은 이루기 어려와라  
약 복용에 편안한 마음은 완쾌의 지름길  
손님 이별 마음 상할 것 없어 다시 찾으리  
비운 뒤 산 뜨락은 국화 종류도 많지만  
후일 꽃 피면 마음 다해 읊으리라

1 고인(故人) : 고구(故舊)라고도 하며, 사귄지 오래된 친구인 심재찬을 말한다.  
2 나비 꿈 : 호접몽(胡蝶夢)이라고 하며, 물아(物我)의 구별을 완전한 잊은 경지를 비유하는 말이다. 장자(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피아(彼我)의 구별을 잊고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이다.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問栗亭沈載讚(号 桐山)有病

故人有病每關心  
一訪遲遲過綠陰  
愧聽友鶯聲自滑  
未成幻蝶夢難深  
安心當藥應全快  
送客何傷擬更尋  
雨後山庭多種菊  
花開他日盡情吟



또



십 리 길 그대 방문에 역로는 저물고  
청담 나누려 등불 심지 다 돋우었지  
연하 낀 이곳 인심은 옛날 같아서  
시주 나누는 오늘 밤 달빛도 짙어라  
세상 일 공평치 못해 귀머거리에 병어리요  
기연 두 번 하기 어려워 시가 읊고 돌아오니  
주인의 접대가 이 같이도 훌륭하여  
내 일찍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라

又

十里訪君驛路斜  
清談挑盡一燈花  
煙霞此地人心古  
詩酒今宵月色多  
世事不平聾且啞  
奇緣難再嘯還歌  
主翁款接長如此  
未必吾行早向家

## 경천역<sup>1</sup> 김금농(교준) 방문



문 앞은 비옥한 들판, 뒤는 기이한 봉우리  
금수강산에 스스로 금농이라 호를 붙였다지  
정원에는 이름난 꽃 가득한데 흰 학도 있고  
또 하나 정원에는 흐르는 물에 푸른 소나무  
흥에 겨워 쓴 시 많으니 그 누가 두보 아니며  
거문고로 지음을 만나니 자네는 종자기<sup>2</sup>  
좌석엔 아름다운 손님에 술두루미 있으니  
옛날의 그 풍채에 그 풍류 줄어들지 않았네

訪景天驛金錦農(教駿)

門前沃野後奇峰  
錦繡江山自號農  
滿院名花兼白鶴  
一庭流水又蒼松  
詩多漫興誰非杜  
琴遇知音子是鍾  
座有佳賓樽有酒  
風流不減舊時容

SRI 수원시정연구원  
SUI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경천역(景天驛) : 경천역(敬天驛)의 오자로, 공주에서 노성(지금의 논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역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9, 공주목(公州牧) 역원조(驛院條) 참조.  
2 종자기(鍾子期) : 춘추시대(春秋時代) 초(楚)나라 사람이다. 종자기는 백아(伯牙)가 타는 거문고를 들으면 그의 심정을 그대로 잘 파악하였는데, 종자기가 죽은 후에는 거문고 타는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열자(列子)』 탕문(湯問).

## 이만운 산장山莊에서 함께 읊다(만용)



금강 강변에서 처음 만나  
아침저녁 따르며 좋은 이웃 되었지  
앞서 놀았던 벼슬길은 모두 꿈이지만  
시단의 행락 조금도 게으르지 말아야지  
가을 갈대 이슬에 어부의 저녁 피리 소리  
봄에 환한 살구꽃에 술 맛은 짙어라  
이합집산 부평초를 그대 말하지 말게나  
한번 이별이 어찌 천 갈래 길인가

李晚雲山莊共吟(萬用)

錦江江上始相逢  
幸接芳隣晨夕從  
宦海前游俱是夢  
詩壇行樂小無慵  
秋清葭露漁笛晚  
春煥杏花酒味濃  
散合等萍君莫說  
其何一別路千重

## 이금오(좌) 산당山堂'에 모여



금성錦城<sup>2</sup>에서 10년간 가장 친해  
하루 종일 뒤쫓으며 좋은 이웃 되었지  
임천에 살아도 집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주옥같은 시로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지  
어느 날 봉황이 날아도 산은 옛 모습이요  
지금 하늘에 제비 춤추어도 축하 말은 새롭지  
나이 많을수록 적게 마시니 풍류는 족하고  
고희古稀에도 늙지 않는 그대가 부럽다오

1 산당(山堂): 은사(隱士)가 사는 산중의 집이다.  
2 금성(錦城): 전라남도 나주 지역의 옛 지명이다.

會李錦塢(佐)山堂

錦城十載最相親  
昕夕追隨好作隣  
僻在林泉能潤屋  
詩成珠玉可驚人  
鳳飛何日山容古  
鸞舞今天賀語新  
年高飲小風流足  
羨子稀齡未老身



## 제익諸益<sup>1</sup>의 방문



군극羈履<sup>2</sup>으로 동쪽 성에서 소요하는데  
도극倒履<sup>3</sup>으로 환영하니 눈이 홀연 밝아  
파초 잎 반 가린 창에 갑자기 바람 불고  
유채꽃 핀 깊숙한 뜰에 비 처음 개였구나  
춘삼월 남은 자취에 미친 나비 날아오고  
울어대는<sup>4</sup> 참신한 소리는 찌꼬리 소리  
웅진에서는 별미가 많다고들 하는데  
맑은 술 향기 나는 잉어에 마음이 흔들려

- 1 제익(諸益) : 도움을 주는 좋은 벗들이라는 뜻으로 제우(諸友)라고도 한다.
- 2 치마와 나막신 : 원문은 군극(羈履)이다. 중국 육조시대 귀족가제들의 복식, 즉 옷차림을 의미한다. 여기서 귀한 사람의 복식을 가리킨다.
- 3 신발을 거꾸로 신고 : 원문은 도극(倒履)으로 황급히 나가느라 신을 거꾸로 신는 것을 말한다. 즉 손님을 반갑게 맞이함을 의미한다.
- 4 울어대는 : 원문은 백전(百戰)으로, 새가 시끄럽게 우는 것을 말한다.

諸益來訪

逍遙屨自東城  
倒屨懼迎眼忽明  
蕉葉半窓風乍動  
菜花深院雨初晴  
三春餘跡來狂蝶  
百轉新聲聽巧鸞  
聞道熊津多別味  
清醪香鯉更關情



이관직(호 해관)과  
고광상(호 위반) 같이 읊다



노안에 슬기운이라 석양을 대하니  
격세隔世 상봉이라 이야기 길어지네  
달구경으로 전야의 꿈 얼마나 피곤했을까  
매화 사랑 남은 것은 지난해 향기 때문  
오랜 세월 풍상에 지금은 어떤 세상인가  
정이 깊은 친한 벗이 바로 고향이겠지  
나이 들수록 풍류風流는 적막이 싫고  
화초 맞이해 한 번 미친 듯 놀고 싶어라

李觀植(號海巖)及高光翔(號渭畔)共吟

衰顏借酒對斜陽  
隔世相逢話更長  
看月幾勞前夜夢  
憐梅猶在去年香  
風霜劫浩今何世  
親友情深卽故鄉  
到老風流嫌寂寞  
好迎花鳥一顛狂

# 동산 심원에게 증정한 시에 화운和韻<sup>1</sup>하다



가을 따라온 고인의 소식  
술동이 기울어 듯 유쾌해  
백런 두고 한 전일 약속 어겼으니  
황국 필 때 만나 볼 수 있으리  
3년 된 오랜 병 물거품처럼 흩어지고  
한 폭의 새로운 시 주옥처럼 쌓였지  
풍월은 옛 주인을 사모하는 듯하니  
뱃노래 소리 다시 금강변에 이르리

## 和呈沈桐山源韻

故人消息伴秋來  
快似同斟滿甕醅  
巧負白蓮前日約  
將看黃菊對時開  
三年久病泡花散  
一幅新詩珠玉堆  
風月依如戀舊主  
棹歌更到錦江隈



1 화운(和韻):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써서 화답(和答)하여 지은 시이다.

# 산성에서 저녁 경치 구경하며

소주 조종륜 금오 이좌와 같이 짓다



금강 금강산은 선두를 양보키 어렵고

호서 지역 명승지는 웅주<sup>1</sup>라

선왕의 유적 쌍수<sup>2</sup> 남았고

먼 손님 한가한 정취 누대에 의지했네

온종일 범종소리 영은사<sup>3</sup>가 가깝고

석양의 어적<sup>4</sup>은 금강으로 울려 퍼져

대지는 적벽과 같고 창벽은 환상적인데

어쩌면 소선<sup>5</sup> 이곳에서 놀았으리

山城晚眺 趙鍾綸 梳洲李佐錦 鳩共賦

錦水金剛不讓頭

湖西名勝是熊州

先王遺蹟餘雙樹

遠客閒情倚一樓

盡日禪鍾靈寺近

斜陽漁笛大江流

地同赤壁幻蒼壁

倘或蘇仙來此遊



1 웅주(熊州) : 현 공주의 옛 이름이다.

2 쌍수(雙樹) : 충남 공주시 공산성 내에 있는 나무이다.

3 영은사(靈隱寺) : 1458년 세조의 명으로 창건된 공주시 공산성(公山城) 내 사찰이다.

4 어적(漁笛) : 고깃배 피리소리이다.

5 소선(蘇仙)도...놀았으리 : 소동파가 양자강 적벽에 배를 띄우고 뱃놀이를 하다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은 적이 있는데 금강이 소동파가 뱃놀이 했던 적벽 못지않음을 연상하고 이렇게 쓴 것이다.

# 위당 정인보가 이르자 공북루<sup>1</sup>에 같이 오르다



높다란 고루는 금강 공산성을 베개 했고  
천 리 먼 길 찾아 이곳에 행차하셨구려  
물 건너 한가한 정취 백로 떼 내려오고  
숲 가득 서늘한 기운 매미 소리 맑아라  
다행히 승지 만나 흥금 티놓고 즐기는데  
석양이 흰 귀밑머리 비추는 것 서운해  
돌부리 소나무 바람에 술병 안고 쓰러져  
침음<sup>2</sup>으로 저녁연기 오름도 몰랐네

鄭寅善(號爲堂)來到 共登拱北樓

古樓迢遞枕江城  
千里相尋有此行  
隔水閒情羣鷺下  
滿林涼意一蟬清  
幸逢勝地遊襟樂  
却恨斜陽照鬢明  
石角松風瓶俱臥  
沈吟不覺暝烟生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공북루(拱北樓): 공산성을 감싸고 도는 금강 가 나루터에 있다. 시제 控北樓는 拱北樓로 쓰는 것이 맞다.  
2 침음(沈吟):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다.

## 웅진[공주]에서 가을 모임



푸른 돌 강 언덕 백운 속에 앉아서  
 뱃노래 어부의 피리 소리 많이 들었지  
 곡식이 익어 가니 가을 모습 참만하고  
 물새들 다 튀 나르니 들빛이 분명하구나  
 기복에 무심해 예불도 잊어버렸고  
 궁귀<sup>1</sup> 쫓으려 글 보기 좋아했지  
 달빛에 소요하면서 은근한 부탁은  
 단풍 국화 좋은 때 같이 무리 이루는 것

## 熊津秋會

翠石江干坐白雲  
 棹歌漁笛轉多聞  
 稻梁向熟秋容滿  
 鷗鷺爭飛野色分  
 祈福無心忘禮佛  
 送窮有術愛看文  
 逍遙步月慙勸囑  
 楓菊良辰好作群



1 궁귀(窮鬼) : 한유(韓愈)가 송궁문에서 지궁(智窮), 학궁(學窮), 문궁(文窮), 명궁(命窮), 교궁(交窮) 등 다섯 궁귀(窮鬼)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 권36, 송궁문(送窮文).

# 칠석에 읊다



누워서 견우직녀의 멋진 약속을 보았지  
 꽤옥이 운 것은 소문같이 달 밝은 때  
 물을 사이하고 나뉜 인연 너무 얇아  
 해 넘겨 떠돌다가 대화도 도란도란  
 까마득한 긴 다리는 은하수로 통하는데  
 나부끼는 가랑잎 우물가 가지에 떨어지고  
 하늘이나 인간이나 오늘 저녁이 좋아서  
 나그네 아랑<sup>1</sup>의 걸교<sup>2</sup>를 시로 읊네

# 七夕吟

臥看牛女趁佳期  
 鳴珮如聞月朗時  
 隔水分離緣已薄  
 經年閱歷話應遲  
 長橋杳漠通星渚  
 一葉飄搖落井枝  
 天上人間今夕好  
 阿娘乞巧客吟詩

1 아랑(阿娘) : 여인의 미칭이다. 아(阿)는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글자이며 낭(娘)은 낭자(娘子)를 뜻한다.  
 2 걸교(乞巧) : 칠석날 부녀자들이 견우직녀성에 걸쌈 바느질 솜씨를 늘게 해 달라고 비는 일이다.



## 7월 16일 밤에 금강교를 산보하다



강바람에 비 뿌려 그 형세 당당한데  
 비 그친 뒤 미풍에 달빛 쏟아지니  
 소자의 고상한 즐길<sup>1</sup> 바로 이날이고  
 류영의 통음<sup>2</sup>은 좋은 방법이었네  
 어룡의 기운이 엄습해 옷이 싸늘하고  
 귀뚜라미 소리에 우주가 시원하지  
 술집 여인은 시인의 취미를 알아서  
 정향노래<sup>3</sup>에 아황주<sup>4</sup>까지 붙였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七月既望夜散步錦江橋

江風吹雨勢堂堂  
 雨歇風微月吐光  
 蘇子清遊曾此日  
 劉伶痛飲是良方  
 魚龍氣襲衣衫冷  
 蟋蟀聲來宇宙涼  
 店女能知騷客趣  
 香歌進酒着鵝黃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소자(蘇子)의…즐길: 소동파가 1082년 적벽(赤壁)에 배 띄우고 놀 때 삼국시대 역사적 격전지임을 생각하고 “적벽부(赤壁賦)”를 지었는데, 그때가 7월 16일 밤[七月既望]이었다.  
 2 류영(劉伶)의 통음: 진(晉)나라 사람으로 완적(阮籍)·혜강(嵇康)과 의기가 투합하여 죽림칠현의 한 사람이 되었고, 항상 녹기(鹿車)를 타고 술 한 병을 휴대하고는 사람을 시켜 삼(簞)을 메고 따르게 하면서 말하였다. 유령(劉伶)은 항상 술을 실컷 먹고 방탕하여 혹 옷을 벗은 알몸으로 집에 있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무라면 유령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천지(天地)를 집으로 삼고 옥실(屋室)을 옷으로 삼는데, 여러분은 무슨 일로 나의 옷 속에 들어왔는가?” 하였다. 『세설신어(世說新語)』  
 3 정향(丁香)노래: 마음에 맺혀 풀리지 않는 감정을 표현한 노래이다. 이상은(李商隱) 시에, “과초 잎은 피질 못하고 정향은 맺혀 있어, 봄바람을 함께 향해 제각기 수심으로세(芭蕉不展丁香結 同向春風各自愁)”하였다. 『어정전당시(御定全唐詩)』 권539, 대증시(代贈詩).  
 4 아황주(鵝黃酒): 당나라 두보(杜甫)의 시에 나오는 말이다. “새끼 거위 누런빛이 술 빛과 같아, 술을 대하듯 거위 새끼 사랑하네.(鵝兒黃似酒 對酒愛新鵝)”라고 하였다. 이 시로 인해 아황주는 좋은 술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두소릉시집(杜少陵詩集)』 권12, 주전소아아(舟前小鵝兒).

# 어제 유희를 이어 또 읊다



반복하는 날씨가 굶든 맑든 닷하랴  
 온갖 분망 버리면 일신이 편안하지  
 매미 소리 들으려 정원에 심은 나무  
 산 빛<sup>1</sup> 사랑해 책상에서 산을 대하네  
 벗 사귀는 도 삼익<sup>2</sup>이 최고요  
 풍류<sup>3</sup>는 길게 백 년간 지속되는데  
 그대는 거문고 난 휘파람 주고받으니  
 술바람 소리 찬 정원은 낮에도 문 닫혀

날씨 찬 고요한 밤 첫눈도 개이고  
 귀밑머리 희끗희끗 옛 심정을 토로해  
 주국<sup>3</sup>의 사람 찾아와 무한히 기쁘고  
 시루에 달 떠오르자 마음이 밝아지네  
 이 자리 손님 가득찬 것 마음 끌리고  
 당년의 검술 못 이룬 것 부끄러워

1 산 빛 : 남광(風光)의 번역이다. 저녁 무렵 먼 산에 떠오르는 푸르스름한 기운인 남기(風氣)가 햇빛을 받아 생기는 광채를 뜻한다.  
 2 삼익(三益) : 삼익우(三益友)의 준말이다. 유익한 세 가지 벗이라는 뜻으로 즉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건문이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 『논어(論語)』 계절(季氏).  
 3 주국(酒國) : 술에 취한 세계로 취향(醉鄉)과 같은 말이다. 주국은 송(宋)나라 때의 시인 당경(唐庚)의 「차계두(次泊頭)」라는 시에 “염전에는 흉년이 없고, 주국은 언제나 봄이라네. (硯田無惡歲 酒國有長春)”라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 『미산시집(眉山詩集)』 권4, 차계두(次泊頭).

반쪽 벽을 도서圖書 채워 같이 취해  
 침음<sup>4</sup>에 먼 닭소리도 잊었노라

## 續昨遊又吟

不較陰晴去復還  
 百忙除却一身閒  
 爲聽蟬語庭栽樹  
 愛看風光案對山  
 友道何求三益外  
 風流長在百年間  
 君琴我嘯時相和  
 滿院松聲晝掩關

天寒夜寂雪初晴  
 鬢髮蕭蕭話舊情  
 酒國人來無限快  
 詩樓月上有心明  
 堪憐此席賓常滿  
 自愧當年釵不成  
 半壁圖書因共醉  
 沈吟却忘遠鷄聲

4 침음(沈吟) :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의미이다.

## 심동산을 방문해 지병을 위문



향긋한 바람 끊임없이 사철 불어대니  
 뜰 가득 기이한 꽃 모두 때 맞추었네  
 물가에는 여름 되어 연蓮이 빼어나고  
 돌계단에 심은 국화는 가을 기약 묻네  
 은근한 가슴속 말은 늙음이 가련하고  
 우애<sup>1</sup>가풍은 속진을 떠났지  
 푸른 산 비 그치자 산달은 흰한테  
 이 밤에 만났으니 시가 없겠는가

세상길 기구하고 공평하지 않아  
 상봉한 이날도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유선이 어찌 봉래를 찾으리<sup>2</sup>  
 일우<sup>3</sup>가 죽계<sup>4</sup> 모방 당연하지  
 늙은 곰도 야윈 학도 가련하지만  
 생애 해계<sup>5</sup> 같아 스스로 웃었지

- 1 우애(友愛): 동기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 2 유선(游仙)이...구하리: 신선의 세계에 한가로이 노닌다고 해서 꼭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 3 일우(逸友): 세속을 초탈한 고상한 친구를 뜻한다.
- 4 죽계(竹溪): 대나무 숲과 시냇물. 여기서 깨끗하고 그윽한 경계를 말한다.
- 5 해계(醜鷄): 해계는 술에 생기는 벌레로 술독 안에서만 산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술독 안의 벌레처럼 좁은 식견으로 세상을 살아감을 비유한 것이다.

농가의 5월은 모내기가 급한데  
 저물녘 돌아오니 다시 길이 아득해

강 구름 자욱한 강성<sup>6</sup>을 바라보고  
 주인과 손님 오순도순 이 밤의 정감  
 문묵<sup>7</sup>의 청담은 간담을 비추고  
 풍상의 오랜 세월에 귀밑털이 하얗구나  
 울타리 국화에서 고인의 취미를 알겠고  
 군자 이름 붙은 못 속의 연 사랑스러워  
 백석계<sup>8</sup>의 남쪽은 농촌길이고  
 늙은 농부 즐거움은 보릿가을<sup>8</sup> 마무리

### 訪沈桐山慰宿痾

香風不斷四時吹  
 滿院奇花摠適宜  
 玉漱抽蓮當夏日  
 石階裁菊問秋期  
 慇懃衿話憐人老  
 友愛家風見俗離  
 雨歇青山山月白  
 相逢此夕可無詩

- 6 강성(江城): 여기서 금강가에 쌓은 성을 뜻한다.
- 7 간담(肝膽)을 비추고: 진심을 보여 줌을 말한다.
- 8 보릿가을: 보리가 익는 계절, 즉 음력 4-5월을 가리키는 말이다.

世路崎嶇亦不齊  
相逢又是日將西  
游仙何必求蓬海  
逸友還宜傲竹溪  
老熊堪憐同瘦鶴  
生涯自笑似醞鷄  
田家五月移秧急  
薄暝歸來路更迷

江雲漠漠望江城  
賓主團欒此夜情  
文墨清談肝胆照  
風霜餘劫鬢毛明  
却看籬菊故人趣  
可愛塘蓮君子名  
白石溪南田舍路  
老農樂事麥秋成

## 이만운이 논산 옛 거처로 돌아간 후 혼자 방문하여 같이 읊다



난석 깔린 얇은 개울에 길은 희미하고  
주인의 정자는 낡고 흰 구름은 의구하네  
천종록<sup>1</sup>의 벼슬은 청춘의 꿈이요  
상마<sup>2</sup> 그 계획으로 백발로 돌아가는 것  
소식이 늦더니만 안서<sup>2</sup>도 끊어지고  
우정은 나는 찢꼬리 불러 보도록 했네  
이 고을 좋아하여 응당 잊기 어렵나니  
밝은 달 외로운 성을 금강이 둘러쌌네

1 천종록(千鍾祿) : 후한 녹봉을 의미한다. 종(種)은 양(量)의 단위로 6곡(斛) 4두(斗)이다.  
2 안서(雁書) : 안족서(雁足書)라고도 하며 기러기발에 묶은 편지라는 뜻이다. 편지를 안신(雁信)이라고 한다.

李晚雲還歸論山舊居後專訪共吟

亂石淺溪路轉微  
主人亭古白雲依  
千鍾宦祿青春夢  
一計桑麻皓首歸  
音信遲來書雁斷  
友情卽看喚鶯飛  
此鄉縱好應難忘  
明月孤城錦水圍



## 용인의 옛 친구 두 사람(홍화산 윤두암)과 조소주가 방문



강호<sup>1</sup>를 떠돌다가 멀리서 찾아오니  
당년에 마음을 같이 알아주었기 때문  
흰 머리 높은 풍도에 늙은 새 나그네  
황매우<sup>2</sup>에 술동이 한가득했네  
정담 나누며 달구경 같이 할 수 있으니  
탐승으로 숲 속에 묵는 것 문제없겠지  
앞 가린 어린 피꼬리는 하소연 있는가  
몇 마디로 벗 찾아 서로 좋아 울부짖네

1 강호(江湖): 사방 각지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2 황매우(黃梅雨): 매실이 노랗게 익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내리는 비를 뜻한다.

龍仁故舊二人及趙梳洲來訪(洪華山 尹杜菴)

江湖遊屐遠來尋  
認出當年共許心  
白首高風三客老  
黃梅疎雨一樽深  
話情只可同看月  
探勝何妨更宿林  
隔葉新鶯如有解  
數聲求友好相吟



## 주봉의 석암



하늘이 감춘 별세계 운림도 피해 가고  
고요한 외로운 암자 돌 그늘에 있네  
인간세상 두절되니 진세보다 더 멀고<sup>1</sup>  
신부의 착경斷經은 우공보다 더 깊어라<sup>2</sup>  
오랜 인연을 깨치면 누가 부처 아니리  
지기知己와 수작엔 거문고도 필요 없지  
나그네 금강에 이르러 출발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주봉의 맑은 경치 높이 읊조리네

1 인간세상…멀고 : 밥 짓는 인간세상 사라졌으니 진(秦)나라 시대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뜻이다. 즉 '주봉의 석암' 역사가 장구함을 두고서 표현한 말이다.  
2 신부(神斧)의…더 깊어라 : 우(禹)임금이 천하의 하천(河川)을 개척할 때 용문산(龍門山)을 도끼로 끊었다 하여 우부(禹斧)를 신부라고 한다. 『회남자(淮南子)』 신부(神斧)로 '주봉의 석암'을 뚫은 공로를 찬양한 말이다.

周峰石庵

天藏別界僻雲林  
靜寂孤庵在石陰  
超絶人煙秦世遠  
斷經神斧禹功深  
劫緣方悟誰非佛  
知己相酬不待琴  
客到錦江初動屨  
周峰晴景人高吟



첫 여름 감사에서 놀다



바다 같은 실버들 그늘 종소리 울려오고  
황매에 비 그치자 정오 가까워 개였네  
온 산 예스러운 돌엔 부처 기운 엉기고  
나르는 폭포 천척에 세속 생각 씻겨 버렸지  
부도<sup>1</sup>엔 푸른 시든 이끼 자취 남았고  
옛 사당 표충사<sup>表忠祠</sup>는 백일처럼 밝구나  
하늘이 기이한 인연 빌려준 것 우연이 아니니  
이곳을 소요하매 갈 길 재촉하지 말아라

初夏遊甲寺

絲陰如海泛鍾聲  
雨歇黃梅近午晴  
石老群山凝佛氣  
瀑飛千尺滌塵情  
浮屠留跡殘苔綠  
古廟表忠白日明  
天借奇緣誠不偶  
逍遙此地莫催行

1 부도(浮屠) : 스님의 사리탑이다.

# 영은사<sup>1</sup> 아회<sup>2</sup>雅會



허령한 옛 절은 정벽산에 자리 잡았고  
 성긴 종소리 반나절에 나그네 돌아오네  
 북쪽 누대 밖에는 너울너울 돌아가는 돛대  
 푸른 벽 사이에는 아득한 한가로운 구름  
 봄 지나면서 시채<sup>3</sup>로 야윈 모습만 남았지만  
 허무한 인생 술 있으니 온통 기쁜 얼굴이라  
 부처 인연인 듯 마음 밝혀 앉았으니  
 패엽<sup>4</sup>貝葉 소리<sup>4</sup>에 문도 단지 못했어라

# 靈隱寺雅會

古寺虛靈淨碧山  
 疎鍾半日客筇還  
 婆娑歸帆北樓外  
 縹緲閒雲蒼壁間  
 詩債經春餘瘦骨  
 浮生有酒搃歡顏  
 佛緣彷彿觀心坐  
 貝葉聲中不掩關

1 영은사(靈隱寺) : 1458년 세조의 명으로 창건된 공주시 공산성(公山城) 내 사찰이다.  
 2 아회(雅會) : 멋스러운 모임을 의미한다.  
 3 시채(詩債) : 부탁받은 시 요청에 응하지 못한 것을 빚대어 이르는 말이다.  
 4 패엽(貝葉) 소리 : 패엽은 인도 다라수(多羅樹) 나무의 잎이다. 종이가 없던 고대에는 불경을 이 잎사귀에 종이 대신 불경을 써 둔 것이 많아서 불경을 패엽이라고도 한다. 패엽소리는 독경소리이다.



## 읍 뒤 수청동의 극락암



티끌세상 옆에 두고 운림<sup>1</sup>을 방문하니  
 물기는 청량하고 골짜기는 저절로 음침해  
 외로운 절 공중에 걸려 돌부리에 의지했고  
 노 선사 경쇠소리에 산에 주저앉고 싶어라  
 이 세상에 이름 숨기고 술 없이 지내니  
 그대 같은 지기 있어 거문고 필요 없지<sup>2</sup>  
 한 경내 깊고 깊어 사람들이 오지 않아  
 띠끄리 좋은 소리 나의 읊조림 도와주네

邑後水清洞極樂菴

囂塵只尺訪雲林  
 水氣清涼谷自陰  
 孤寺懸空依石角  
 老禪聽磬坐山心  
 藏名此世無過酒  
 知己如君不待琴  
 一境深深人未到  
 好音黃鳥助吾吟



1 운림(雲林): 구름이 뒤덮인 숲을 의미한다. 보통 처사(處士)가 은둔하고 있는 곳으로, 여기서 수청동 극락암 일대를 말한다.

2 그대...없지: 춘추시대 백야(伯牙)는 거문고를 잘 연주했는데, 종자기(鍾子期)는 백야의 거문고 연주를 잘 감상하였다. 그러나 종자가 죽은 후로는 자신의 거문고 연주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게 되자 다시는 거문고 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서 단지 이름 숨기고 술 없이 지내니 거문고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말로 사용되었다.

또 7언 절구



서늘한 낙조에 정벽산淨碧山을 마주보고  
한가한 시간 지팡이 짚고 돌아올 줄 모르네  
속절없이 읊으며 술병과 같이 취하여 쓰러져  
이 세상의 만사萬事를 모두 잊어버렸네

又 七絶

夕眺蒼涼對碧山  
偷閒筇屐不知還  
浪吟泥醉瓶俱臥  
萬事渾忘此世間



욕불일



동화사 깊은 사원 낮 바람이 경쾌한데  
문 두드리는 손님들로 잠을 이룰 수 없고  
욕불<sup>1</sup>하는 오늘 부처님처럼 앉았는데  
그대 아름다운 글귀 척금성<sup>2</sup>에 놀랐네

浴佛日

桐華深院午風輕  
數客叩扉睡未成  
浴佛今天如佛坐  
驚君佳句擲金聲



1 욕불(浴佛) : 불가(佛家)에서 초과일에 향수, 감차(甘茶), 오색수(五色水) 따위를 아기 부처상의 정수리에 뿌리는 일을 말한다.

2 척금성(擲金聲) : 척지금성(擲地金聲)의 준말이다. 진(晉)나라의 문장가인 손작(孫綽)이 천태산부(天台山賦)를 지은 뒤에 친구인 범영기(范榮期)에게 “그대는 시험 삼아 이 부(賦)를 땅에 던져 보게나, 의당 금석 소리가 날 것일세. (卿試擲地, 當作金石聲.)”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진서(晉書)』 권56, 손작열전(孫綽列傳). 문장이 매우 아름다움을 형용한 말이다.

# 돌잔치에 느낌이 있어 자술하다

경진(1880년) 5월 28일이나 3월 28일에 먼저 행함



오늘 아침 즐거운 일에 만감이 생각나서  
 어제처럼 어머니 가르침 배우려 친당에 절했네  
 아가위 꽃<sup>1</sup> 옛날 같이 봄빛이 머물러 있고  
 새로 자라란 난옥<sup>2</sup> 집안에 가득한 향기  
 외로운 충정으로 항상 조국을 그리워하다가  
 오순도순 정담<sup>3</sup>으로 고향 생각 배가 되었지  
 형처<sup>3</sup>는 형제의 아회를 감싸 안으니  
 우리 집안의 즐거운 일이라 또 한 잔 마셨네

## 弧筵有感自述

庚辰五月二十八日 以三月廿八日先行

強喜今朝百感長  
 趨庭如昨拜親堂  
 棣花依舊留春色  
 蘭玉生新滿室香  
 淪落孤忱常戀國  
 團欒情話倍思鄉  
 荊妻抱送棠兒戲  
 樂事吾家又一觴

1 아가위 꽃 : 제화(棣花)라고 하며 형제를 비유한 것이다. 우애를 읊은 『시경』 「소아(小雅) 상채(常棣)」에 "아가위 꽃송이 활짝 피어 울긋불긋, 지금 어떤 사람들도 형제만 한 이는 없지.(常棣之華 鄂不韡韡 凡黍之人 莫如兄弟)"라는 말이 나온다.  
 2 난옥(蘭玉) : 남의 자제를 칭찬하여 이르는 말이다.  
 3 형처(荊妻) : 남에게 자기(自己)의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또 7언 절구



상서스러운 해가 비치는 산가 이 봄에  
육순이 꿈결 같아 흰머리 새로 났네  
그대들은 나의 심사心事를 알지 못하리  
뒤틀린 티끌세상에 귀양 온 사람<sup>1</sup>

又絶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瑞日山家爲此春  
六旬如夢鬢毛新  
諸君不識余心事  
枉道塵間謫降人

1 귀양 온 사람: 적강인(謫降人)이라고 하며 벼슬아치가 죄를 지어 변방으로 좌천된 사람을 뜻한다. 당나라 이백(李白)이 벌을 받아 인간세계로 쫓겨 온 신선이라는 의미에서 적선(謫仙)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 선 비슷한 말로 쓰이고 있다.

몇 명의 손님을 맞이해 우연히 읊다



손님과 정담에 세상 근심 사라지니  
파초 깊은 동산에 사립문 열렸지  
산정에 날씨 따듯하니 병아리 달리고  
주렴에 가벼운 바람 제비 새끼 나르지  
멀리 떨어져 그리운 생각 등근 달 밤에  
꿈같은 기이한 인연에 봄옷을 전당잡히고  
썰렁한 부엌 소박한 안주로 술을 권하니  
석양의 금강역 술 취해 부축받아 돌아가네

邀數客偶吟

見客話情世念微  
芭蕉深園不關扉  
山庭日暖鷄兒走  
簾幙風輕燕子飛  
隔地相思圓夜月  
奇緣如夢典春衣  
寒廚供薄將謀酒  
江驛斜陽扶醉歸

## 능암에서 저물어 돌아가다



보리 처음 익자 뼈꾸기 울고  
산길 십 리 길이 백운길이로구나  
티끌세상 멀리 떨어져 신령한 경계  
실상 허상 다 공소이고 경쇠 소리뿐  
문장으로 회자되는 사람 이두李杜<sup>1</sup>요  
신명 계책 뉘 양평良平<sup>2</sup>보다 나오리  
담박澹泊한 스님이 나를 알고나 있을까  
서로 보고 비추고도 심정을 말하지 않네

## 陵庵暮歸

大麥初黃布穀鳴  
山行十里白雲程  
塵埃迥絕惟靈界  
色像俱空但磬聲  
膾煮文章人李杜  
神明籌策孰良平  
澹泊胡僧能識我  
相看相照不言情

1 이두(李杜) : 이백(李白)과 두보(杜甫)를 가리킨다.

2 양평(良平) : 중국 한(漢)나라 고조의 신하인 장양(張良)과 진평(陳平)을 가리키며, 지략이 뛰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 귀로에 취옹봉을 지나다



단장에 의지해 걷는 돌길 해는 저물고  
겨우 절 문 나서자마자 술집으로 향했지  
취옹봉 물으려 하는데 다 같이 취했구나  
산이 깊어 사철 꽃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歸路過醉翁峯

短筇石逕日將斜  
纔出禪門向酒家  
欲問醉峯人共醉  
山深不斷四時花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창벽 금강 상류



온 산 나르는 폭포에 안개 자욱한 강  
유명한 꽃 잘 신고서 등등 떠가는 배  
적벽赤壁은 어딘가 창벽에 이르니  
풍류는 옛 소선보다 못하지 않다네<sup>1</sup>

蒼壁 錦江上流

滿山飛瀑滿江煙  
好載名花泛泛船  
赤壁在何到蒼壁  
風流不減古蘇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적벽…않다네 : 금강 창벽에 이르니 그 풍광이 북송(北宋) 말기 소선(蘇仙, 소동파)이 놀던 적벽(赤壁)의 풍광보다 못지않음을 표현한 말이다.

## 산성에서 어두워지자 돌아감



푸른 산 빛 흐르는 듯 나그네 그림자  
 봄 시름 보내자 시 근심 밀려오네  
 온 강 밝은 달에 배 움직이려 하고  
 은근히 뒷날 북쪽 누대를 약속하네

맑은 강 느린 걸음 석대에 오르니  
 일망무제 푸른 강에 구름 개였는데  
 무심한 흰 물결은 번득이듯 벽을 때리고  
 낮익은 청산은 잔속에 거꾸로 비추이네  
 못가에서 읊던 굴원<sup>1</sup> 어디로 돌아갔을까  
 물가 이끼 돌에 앉은 태공<sup>2</sup> 못 보았는가  
 백발이 된 나는 백로에게 묻고자 하노니  
 노 젓는 외마디 소리에 날아가지 말아라

- 1 굴원(屈原) :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 정치가이자 비극시인이다. 학식이 뛰어나 초 회왕(懷王)의 좌도(左徒:左相)의 중책을 맡아, 내정·외교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함을 받아 궁정에서 쫓겨난 후 세상을 환탄하는 시를 읊다가 기원전 278년 멩라수에 빠져 자살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어부사(漁父辭)』 등이 있다.
- 2 태공(太公) : 본명은 강상(姜尙)이다. 그의 선조가 여(呂)나라에 봉하여졌으므로 여상(呂尙)이라 불렀고, 태공망이라고 불렀지만 강태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뒷날 그의 고사를 바탕으로 하여 한가하게 낚시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는 속어가 생겼다.

이름난 정자 조용하고 풀은 더부룩한데  
 반나절에 오르니 세상 근심은 없다네  
 큰 들판 황금물결에 양마<sup>3</sup>는 떠나고  
 강 건너 다급한 것은 돌아가는 양떼들  
 훌륭한 벗 많지만 화합하긴 정말 어려워  
 시 또한 기연이니 부디 맘껏 즐기시게  
 물차고 빠지는 모래톱 고기는 뛰어오르고  
 고깃배는 저녁 되자 도롱이를 정리하네



- 3 양마(秣馬)는 떠나고 : 양마는 농기구의 일종으로, 말처럼 타고서 모를 심는 도구이다. 가을이 되어 황금물결 일면 양마는 자연 필요 없게 됨을 말한다.

山城暮歸

山翠欲流客影浮  
春愁纔送又詩愁  
滿江明月舟將泛  
後約慙慙在北樓

晚步清江上石埭  
水天一碧霽雲開  
無心白浪翻春壁  
慣面青山倒映盃  
屈子安歸吟澤畔  
太公不見坐磯苔  
白頭我欲白鷗問  
搖棹一聲飛莫催

名亭幽闌草離離  
半日登臨世慮非  
大野波生秧馬去  
隔江驟急牧羊歸  
人多勝友誠難合  
詩亦奇緣且莫違  
漲落汀洲魚躍上  
晚隨漁艇理簑衣

전아석 선생이 잠시 논산에  
우거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내방하여 하루 묵다



높이 나는 새 한 마리 남쪽 가지 그림고<sup>1</sup>  
한가한 갈매기 기심<sup>2</sup> 없는 것 믿지 않아  
호수의 밝은 달 몇 날 밤을 서로 그리워했던가  
남은 인생은 고개 향해 돌아가는 구름인 것을  
두보杜甫의 시수詩瘦 인연 안타깝고<sup>3</sup>  
여래<sup>4</sup>의 속되고 그림 싫어함 처음 인정했지  
버들 꺾던 새로 만든 정자 그 아랫길은  
달리는 말 멈추기 어렵고 새벽엔 별도 드물어

1 남쪽 가지 그림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고시(古詩)」의 “호지의 말은 북풍을 의지하고 월지의 새는 남쪽 가지에 깃들이네. (胡馬依北風, 越鳥巢南枝.)”라는 표현에서 유래되었다. 『태평어람(太平御覽)』 권800.  
2 기심(機心): 기심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묘한 마음을 의미한다. 옛날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수백 마리의 물새와 벗하며 놀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잡아 달라고 부탁하자, 그다음 한 마리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열자(列子)』 황제(黃帝).  
3 두보(杜甫)의…안타깝고: 공부(工部)는 당나라 두보(杜甫)의 별호로 두보는 시작에 골몰하여 몸이 수척한 상태인 시수(詩瘦)에 빠졌다. 두보의 시에 “그대 괴로운 생각 시 때문에 여원 줄 아노니, 친구에게 만사를 게을리하노라. (知君苦思緣詩瘦 太向交游萬事慵)”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杜少陵詩集』 권9, 「모등사안사중루기배십적(暮登四安寺鐘樓寄裴十迪)」。  
4 여래(如來): 여여(如如)하게 오신 분으로 부처님을 의미한다.

全先生我石暫于寓論山欲還故鄉來訪一宿

高飛一鳥戀南枝  
未信間鷗自忘機  
幾夜相思湖月朗  
殘年獨向嶺雲歸  
只憐工部緣詩瘦  
始認如來厭俗非  
折柳新亭亭下路  
征驂難駐曙星稀



## 이웃 벗의 ‘등산’ 시에 차운하다



절창<sup>1</sup>의 새로 지은 시는 죽지사<sup>2</sup>와 같으니  
몇 곳을 오르면서 진짜 진기眞機를 얻었지  
일찍 회淮, 촉蜀으로 먼저 유학하였으나  
다시 기우沂雩 향해 혼자 읊고 돌아오리<sup>3</sup>  
계사禊事<sup>4</sup>도 좀 늦춰 훗날 기약하노니  
세정世情은 번복되어 전날의 잘못을 깨달았지  
기이한 인연 박했어도 마음이 서로 비추니  
오래 앉았다가 낮이 더디 흐르는 것도 잊었네

- 1 절창(絶唱) : 뛰어난게 잘 지은 시를 뜻한다.
- 2 죽지사(竹枝詞) : 촉중(蜀中)의 민요(民謠)로 지방의 풍물(風物)을 읊은 것인데, 유우석(劉禹錫)이 지은 「죽지사(竹枝詞)」가 유명하다.
- 3 기우(沂雩)…돌아오리 : 기수(沂水)와 무우(舞雩)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수는 강 이름이고, 무우(舞雩)는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이다. 공자가 어느 날 문인에게 각자 폼은 뜻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증점(曾點)만이 다른 제들과는 달리, “늦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몇 명과 동자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에서 목욕한 뒤에 무우에서 바람 쏘이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말하여 공자의 동의를 얻은 일을 말한다. 『논어(論語)』 선진(先進).
- 4 계사(禊事) : 계사(禊事), 수계(修禊)라고도 한다. 음력 3월 상사일(上巳日)에 불길한 재앙(災殃)을 막기 위해 물가에 가서 몸을 씻는 제사 의식이다.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수계(蘭亭修禊)에 대한 고사가 유명하다.

次隣友登山韻

絶唱新詩等竹枝  
登臨幾處得眞機  
曾從淮蜀先遊學  
更向沂雩獨咏歸  
稷事差遲留後約  
世情翻覆悟前非  
奇緣縱薄心相照  
坐从渾忘晝漏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김금농의 경성 이사에 붙여



소요하던 높은 자취 경천<sup>1</sup>에서 출발해  
좋은 이웃 된 지도 이미 여러 해이었지  
풍류는 70이 넘어서도 줄어들지 않았고  
지기志氣는 통음할 정도로 호기부려  
천금을 낭비한 진짜 방탕한 사람  
맑은 유람 하루에 신선 인연 되었으니  
그대에게 청하노니 서울로 가지 말게나  
세상사 혼란해 슬픔이 배가 될 것을

1 경천(敬天) : 경천역(敬天驛), 공주에서 노성(지금의 논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역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9, 공주목(公州牧) 역원조(驛院條) 참조.

贈金錦農搬移京城

高躡逍遙自敬天  
芳隣相逐已多年  
風流不減稀齡後  
志氣尙豪痛飲邊  
浪費千金真宕子  
清遊一日是仙緣  
請君莫向長安去  
時事紛紜倍憾然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후봉 홍순학의 아들이  
마곡국민학교<sup>1</sup> 교장으로 전임하자  
따라가므로 시를 지어 줌



만남과 이별에 슬픔 기쁨은 모두 하늘의 뜻  
서로 동정하는 것은 백발에 나이가 같다는 것  
영굴靈窟과 연하煙霞를 몇 번 찾으면서  
다시 이름난 정자와 멋진 풍광을 찾았다네  
이곳 강산에는 훌륭한 벗들도 많다고 하니  
여생에 시와 술은 좋은 인연되기 족하리  
진실로 늙어 지식 따르는 것 자네 생각인가  
지금 마곡행은 형세가 그렇게 되어서겠지

1 마곡국민학교: 현 마곡초등학교이다.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로 1947년 개교하였다.

贈別 洪淳鬻号後峯 因其子轉任麻谷民校校長 故隨去

逢別悲歡摠是天  
相憐白髮又同年  
幾從靈窟烟霞際  
更向名亭風月邊  
此處江山多勝友  
餘生文酒足清緣  
誠非君意老聽子  
麻谷今行因勢然



## 조소주를 맞이해 밤에 시 읊기를 청하다



시냇가 정자 손님 맞아 푸른 이끼 청소하니  
서쪽에 찬 보배로운 문장<sup>1</sup> 눈이 확 열리고  
누대에 의지해 창밖하는 늙름한 풍채를 보니  
힘찬 모습 어찌 급히 시 짓기<sup>2</sup>를 사양하리  
깊은 밤 풀벌레소리 정자엔 꿈은 괴롭고  
새벽달 닭 소리에 술잔을 함께 기울이지  
호수 바다 고상한 놀이 장관도 많다지만  
파초 창 벌레소리에 재주 없음 부끄럽네

1 보배로운 문장 : 원문 경거(瓊瑤)의 번역으로 훌륭한 시를 말한다. 『시경(詩經)』 위풍(衛風) 목과(木瓜)에 “나에게 모과를 주니 경거로서 보답하네(投我以木瓜 報之以瓊瑤)”라 하였다.  
2 급히 시 짓기 : 격발취시(擊鉢催詩). 남조(南朝) 양(梁)나라 소문염(蕭文瑒)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로, 동발(銅鉢)을 두드려 그 소리가 다 끝나기 전에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請邀趙梳洲夜吟

澗亭邀客掃蒼苔  
滿幅瓊瑤眼忽開  
神鋒復見倚樓唱  
健步何辭擊鉢催  
虫語深更堂惱夢  
鷄聲曙月共含杯  
湖海清遊多壯觀  
蟄伏蕉窓愧不才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금룡암 아회<sup>1</sup> 7언 절구



금용암은 금성 동쪽에 치우쳐 있고  
연하煙霞는 대부분 다 이곳에 있다지  
속세의 잡념 사라져 갈매기와 꿈꾸니  
놀란 고깃배 피리 소리 강바람에 가득해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錦龍菴雅會 七絶

龍菴僻在錦城東  
多少烟霞盡此中  
塵念漸消鷗與夢  
忽驚漁笛滿江風

1 아회: 멋스러운 모임을 뜻한다.

## 금농의 별장에서 우연히 만남



만사를 생각해 보니 지난번 잘못을 깨달았고  
 한평생의 궁달窮達은 기미 아는 데 있거니  
 공명이 귀한 것 아니라 마음 닦는 것 중요해  
 운산에서 책 읽고 밭 갈며 자네와 함께하리라

錦農庄偶會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萬事商量悟昨非  
 一生窮達在知機  
 功名不貴脩心貴  
 耕讀雲山與子同

## 영은사 초여름



강변의 구름 나무는 금강 공산성을 감싸고  
 매우<sup>1</sup> 처음 개이자 좋은 모임 이루어졌지  
 소사<sup>2</sup>의 차가운 쇠북소리 산은 태고적  
 석양빛 방초芳草에 길은 조금 희미해라  
 풍류는 적막하지 않고 시의 인연은 중요해  
 색과 상이 모두 공<sup>3</sup>이라 부처 기운 생기지  
 강호의 친한 벗들 반은 영락零落되었거니  
 이날의 맑은 놀이 모두 마음에 걸리네

1 매우(梅雨): 매실이 노랗게 익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내리는 비를 뜻한다.  
 2 소사(蕭寺): 사원, 사찰이다. 남조(南朝) 양(梁) 무제(武帝)가 사찰을 지은 다음 자신의 성(姓)인 소(蕭)자를 넣어 소사라 한 데서 비롯되었다.  
 3 색과 상이 모두 공(空):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色不異空空不異色 色即是空空即是色)”이라는 말이 있다.

靈隱寺夏初

江雲江樹擁江城  
梅雨初晴雅會成  
蕭寺寒鍾山太古  
斜陽芳草路微明  
風流不寂詩緣重  
色相俱空佛氣生  
湖海親朋半零落  
清遊此日總關情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또 7언 절구



아득한 강 하늘은 한 누각 아래 잠겨 있고  
속세의 잡념 잠시 사라지고 꿈속 헤매네  
빨래하는 여자 조롱하는 듯 왁자지껄 웃는데  
세탁하는 소리에 해는 서산으로 기울었네

又 絶

江天漠漠一樓低  
塵念纔消醉夢迷  
漂女如嘲喧且笑  
泔澼聲中日已西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단오날 강가에서 모임



남풍에 술 실어 맑은 강가에 앉았으니  
 백제의 성은 여유로운데 금강은 울고 있네  
 문무文武 이루지 못했는데 백발에 놀라워  
 고기 잡고 나무 하며 여생 자적하면서 즐기리라  
 들풀 연기 뒤섞여 새는 길도 잊어버리고  
 수레 먼저 길 막아 인도가 아득한데  
 아녀자만이 오직 단오 풍속 알아서  
 밝은 석양에 그네 타러 다투어 나가네

### 端陽會江上

南風載酒坐江晴  
 百濟城閒錦水鳴  
 書鈔未成驚白髮  
 漁樵自適樂餘生  
 野草和烟迷鳥度  
 車塵遮道渺人行  
 兒女唯知端午俗  
 秋千競出夕陽明

## 늦봄에 만송 이용원 서용 김용찬과 같이 읊다



동풍이 불어 멀리서 지팡이 짚고 찾아오니  
 가난한 집 광채 빛나<sup>1</sup> 시상이 짙어지고  
 사람들은 큰 바가지 닷 섬을 수용<sup>2</sup>한 것 같아  
 집은 목가산의 옛 삼봉<sup>3</sup> 같다 했다지  
 깊이 공부하여 천 권의 책이 쌓였으나  
 맑은 정취 만종의 녹<sup>4</sup>과 무슨 상관이라  
 예쁜 꽃놀이 하려는데 사람들은 쉽게 늙어  
 상봉하는 이 밤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 1 가난한... 빛나 : 봉필광휘(蓬華光輝)의 번역이다. 봉필은 쭉대나 싸리로 엮어 만든 문으로 가난한 집이고, 광채가 빛나는 것은 손님이 찾아온 것을 빗대어 한 말이다. 즉, 누추한 집을 빛나게 하거나 손님이 찾아오거나 서화 따위를 걸었을 때 감사의 뜻으로 하는 말이다.
- 2 큰 바가지 닷 섬을 수용 : 전국시대(戰國時代) 위왕(魏王)이 혜자(惠子)에게 큰 박씨 하나를 보내자, 혜자가 그것을 심은 결과 닷 섬들이 박이 열렸는데, 그대로는 속이 너무 깊어서 장을 담을 수 없고, 이를 쪼개어 바가지를 만들어 봐도 너무 넓어서 쓸 수가 없어, 혜자가 마침내 이 바가지를 쓸모가 없다고 여겨 부수어 버렸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 3 목가산의 옛 삼봉 : 송(宋)의 소순(蘇洵)은 산같이 생긴 오래된 나무뿌리에 대해 목가산(木假山)이라 칭하고 목가산기(木假山記)를 썼다. 목가산의 삼봉(三峯)에 대해 형상을 근엄한 군주와 지조 있는 신하에 빗대었다. “가운데 봉우리는 높고 크며 느낌이 장중하여 옆의 두 봉우리를 복종시킬 듯하다. 옆의 두 봉우리는 꺾어지는 듯한 모습이 씩씩하여 범할 수 없으니, 가운데 봉우리에게 복종하는 형세이기는 하나 고상하여 결코 이부하는 느낌이 없다. (中峯魁岸踞肆 意氣端重 若有以服其旁之二峯 二峯者莊栗刻峭 凜乎不可犯 雖其勢服於中峯 而岌然決無阿附意)”라고 하였다. 『당송팔가문(唐宋八家文)』 권17, 목가산기(木假山記).
- 4 만종(萬鍾)의 녹 : 제후들이 받는 것과 같은 엄청난 봉록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에 “책 속에 절로 만종의 봉록이 있네. (書中自有萬鍾祿)”라는 저자 미상의 시구가 전해진다.

먼 손님 사립문 두드리자 약속 없이 만나  
 풍상風霜 겪은 삶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꽃 떨어지는 어느 곳에 남은 것은 병든 몸  
 방초에 해 기우니 지팡이에 맡겨 따라가네  
 허튼 세상 부평초 인연이라 만나기도 어려워  
 늘그막에 인간사 그리움이 갑절로 생각나  
 덧없는 세상의 승부는 무슨 뜻이 있을까  
 고수高手는 원래 내기 바둑하지 않는 법

달빛에 잠들지 못해 시내 남쪽을 걸었지  
 강 구름 다 사라지고 온 하늘이 끝없어라  
 등불은 조는 듯 모든 집이 조용한데  
 이슬 기운 조금 짙어 백초가 향기롭구나  
 풍진세상 사람들 연시에서 비분강개하고<sup>5</sup>  
 풍류는 그 누가 진의 청광<sup>6</sup>만 못하랴  
 문장은 자금과 같이<sup>7</sup> 기약한 듯 합치되고  
 만년 생활 이 고을에서 고기 잡고 나무하는 것

5 연시(燕市)에서 비분강개하고 : 연조(燕趙) 지방에는 예로부터 비장한 노래를 부르며 비분강개한 기개를 과시하던 선비가 많았는데, 전국 시대 자객 형가(荊軻)가 일찍이 연시(燕市)에 가서 개백정(狗屠) 및 축을 잘 연주하는 고점리(高漸離) 등과 서로 어울려 날마다 도성 거리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애절한 가락의 축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 비장한 회포를 풀었다는 고사가 특히 유명하다.

6 진(晉)의 청광(淸狂) :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의 친진스런 흥취란 말이다. 진(晉)나라 때 산음(山陰)에 살던 왕휘지가 설월(雪月)이 밝은 밤에 문득 섬계(剡溪)에 사는 친구 대규(戴逵)를 생각하고 배를 저어 찾아가서 새벽에 그 집 문 앞까지 갔다가는 다시 배를 돌렸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되돌아온 이유를 물은즉 “흥(興)을 타고 왔다가 흥이 다하매 돌아왔으니, 하필 안도(安道, 戴逵의 자)를 보아야 하느냐. (吾本乘興而行 興盡而返 何必見安道耶)” 하였다고 한다. 『진서(晉書)』 권80, 왕휘지(王徽之)의 傳.

7 자금(子衿)과 같이 : 자금(子衿)은 시경(詩經)의 편명(篇名)이다. 『시경(詩經)』 자금(子衿)에 “푸르고 푸른 그대의 옷깃이여, 길고 긴 나의 마음이다. (青青子衿 悠悠我心)”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전(毛傳)에 “청금(靑衿)은 푸른 것이니, 학자가 입는 것이다. (靑衿 靑領也 學子之所服)”라고 하였다. “자금(子衿)과 같이”란 말은 청금(靑衿)과 같은 말로, 유생(儒生)의 별칭이다.

晚春與李容遠(号晚松)金容瓚(号恕翁)共吟

東風吹送遠來筇  
 蓬華生光詩思濃  
 人似大匏容五石  
 家稱木假古三峰  
 深工惟積書千卷  
 清趣何關祿萬鍾  
 花事將妍人易老  
 相逢此夜意重重

遠客叩扉會不期  
 風霜經歷話遲遲  
 落花幾處餘癯骨  
 芳艸斜陽信杖枝  
 浮世萍緣難久合  
 曠年人事倍相思  
 塵枵勝負何關意  
 高手元來不着碁

愛月無眠步澗陽  
 江雲消盡一天長  
 燈光如睡千家靜  
 露氣微濃百草香  
 淪落人皆燕慷慨  
 風流孰不晉清狂  
 文章似子衿期合  
 晚計漁樵共此鄉

## 봉산鳳山<sup>1</sup>에 오르다



등나무 잡고 돌에 의지해 맑은 시내 굽어보니  
천년된 오랜 산이라 상서스런 봉황이 깃들고  
만물은 모두 새로운 데 사람만이 유독 늙었지  
못 향기에 꽃은 웃고 새는 부질없이 울어대네  
함께 술잔 들고 조나라의 슬픈 노래<sup>2</sup> 부르며  
상층 누대로 오르려 울퉁불퉁한 길을 걸었지  
역의 버드나무 치렁치렁 의미 있는 듯한데  
누가 서산으로 지는 해를 붙들어 댈 수 있을까

## 登鳳山

攀藤依石俯清溪  
山古千年瑞鳳棲  
萬物皆新人獨老  
衆香俱笑鳥空啼  
共啣盃酒歌登趙  
更上層樓路不齊  
驛柳長長如有意  
教誰能繫日將西

1 봉산(鳳山) :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소이면(蘇伊面) 봉전리(鳳田里)에 있는 산인 듯하다.  
2 조(趙)나라의...노래 : 중국의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에는 비분강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연나라 태자 단(丹)을 위해 진시황(秦始皇)을 죽이려고 자객(刺客)인 형가(荊軻)가 떠나면서 부른 역수한풍(易水寒風)의 비장한 노래가 유명하다.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3.

## 집으로 돌아가면서 읊다

7언 절구



벽도화 밑에 조그마한 덧집  
 잠시 정답이 책 보는 것보다 낫지  
 인간은 봄날 쉽게 저무는 것이 겁나  
 아침저녁 지내면서 소원하지 말게나

歸家詠 七絶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碧桃花下小茅廬  
 情話移時勝看書  
 剛怕人間春易曠  
 曠朝相逐莫相踈

## 이금오에게 주다



풍류 아는 어진 주인 이름 헛되지 않아  
 운림에 은둔하며 세상의 영화 멀리했어라  
 기이한 꽃 많이 사랑해 산도 구입하고  
 밝은 달 감상하기 위해 손님도 맞이하지  
 갈가리 찢겨진 병난에도 두공부 읊고<sup>1</sup>  
 머잖아 마음은 상평 짝하기로<sup>2</sup> 약속했지  
 봄밤 너무 짧아 오랜 시간 시 읊기 어려우니  
 다시 좋은 술 갖고 자주 순행巡行하세나

- 1 두공부(杜工部) 읊고 : 공부(工部)는 공부원의랑(工部員外郎)을 지낸 두보(杜甫)이다. 전쟁에 패한 방관(房瑄)을 두둔하다가 숙종(肅宗)의 노여움을 사서 추문(推問)을 당하게 되었는데, 장호(張鎰)의 도움으로 추문을 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에 봉상(鳳翔)에서 고향인 부주(鄜州)로 돌아가면서 북정(北征) 시를 지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으니, "아득히 도원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니, 처세를 잘못된 것이 더욱 한탄스럽네.(緬思桃源內 益歎身世拙)"라는 대목이 있다. 『두시상주(杜詩詳註)』 권5, 북정(北征).
- 2 상평(尙平) 짝하기로 : 자녀의 성혼을 다 마치는 일을 뜻한다. 동한(東漢) 때 상장(尙長)은 자녀의 성혼을 다 마치고 명산을 찾아 놀았다. 『후한서(後漢書)』 일민열전(逸民列傳).

贈李錦塢

風流賢主不虛名  
棲息雲林遁世榮  
多愛奇花山亦買  
爲看明月客相迎  
支離兵亂吟工部  
早晚心期伴向平  
苦短春宵難以永  
更將美酒數巡行



동학사<sup>1</sup>에서 병 조리 중인  
김정옥을 방문



하늘은 별세계를 간직하고 숲만을 열어  
천 년 된 노수는 골짜기에 그늘 만들었지  
백 갈래의 샘이 흘러 뿔속까지 맑게 하니  
한 번 선禪을 깨치면 마음을 읽게 되리  
구름 가린 절벽은 세상과 아득히 멀어졌고  
석양에 울려 퍼진 종소리 산은 다시 깊어라  
고인의 병이 쾌차하기를 축하드리니  
가을 매미도 이날만은 해질녘에 찾아오네

삐죽삐죽 기봉에 골골이 개울  
사찰 높아 백운은 아래에 깔렸지  
원숭이 생계로 도토리 딸 줄 알고  
새는 천기<sup>2</sup>로 염불할 줄 안다네  
가을 기운은 숲 아래 지는 잠을 깨우고  
석양에서 얻은 시 구절은 바위에서 짓노라  
티끌 마음 씻지 못하고 노래 부르고 떠나니  
선학<sup>3</sup>은 동으로 날고 손님은 서쪽으로 향했네

1 동학사(東鶴寺)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계룡산(鷄龍山)에 있는 절이다.  
2 천기(天機) : 조화를 꾸미는 하늘의 기밀 혹은 천부의 성질을 의미한다.  
3 선학(仙鶴) : 신선이 학을 타고 생황을 연주하는 것을 뜻한다.

訪金正玉調病於東鶴寺

天藏別界闌祗林  
樹老千年谷自陰  
百道泉鳴清澈骨  
一經禪寤靜觀心  
雲遮絕壁世相遠  
鍾落斜陽山更深  
爲賀故人蘓病快  
涼蟬是日晚來尋

轟轟奇峰谷谷溪  
梵宮迢遞白雲低  
狙知生計啣翎落  
鳥自天機念佛啼  
秋氣甦人林下睡  
斜陽得句石頭題  
塵衿未滌離歌唱  
仙鶴東飛客向西

가을에 동굴암에 놀면서

오연율시는 절을 찾을 때



서풍에 동굴암으로 가는 길에  
두세 짝은 지팡이 날아가니  
비가 처음 지난 시내 소리에  
자던 구름 돌아가는 산 모습  
성긴 종소리 사찰이 가깝고  
굽은 길도 좇는 사람 드물지만  
노불<sup>1</sup>은 반기듯 서로 맞으며  
향 사르고 의발을 정리하네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노불(老佛) : 승려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秋遊東窟庵 五律 尋寺時

西風東窟路  
三兩短筇飛  
溪響雨初過  
山容雲宿歸  
疎鍾僧舍近  
曲逕客蹤稀  
老佛如相喜  
燒香整鉢衣

또 7언 율시



불교를 배우려 해도 부처는 말이 없고  
단정히 앉아 늙은 돌 뿌리에 향 사르지  
세상에서 청안객<sup>1</sup>을 만나기 어려워  
입산해서는 흰 구름 마을을 편애했어라  
천 년 바위 덩어리에 영천수는 떨어지고  
한 사찰 보리수 앞에는 이슬이 번득이네  
인간 세상 종이 울리니 근심이 발동하고  
못 까마귀는 어두운 먼 숲속으로 사라지네



1 청안객(靑眼客) : 마음이 서로 통하는 벗을 뜻한다. 진(晉)나라 완적(阮籍)은 세속의 법도에 구애받지 않고 살면서 세속의 선비를 만나면 백안(白眼)으로 대하고, 뜻 높은 선비를 만나면 청안(靑眼)으로 대하였다. 완적의 어머니 상사(喪事)에 혜희(嵇喜)가 조문할 때 그를 세속의 선비라 여겨 백안으로 보자, 혜희가 화를 내면서 되돌아갔다. 혜희의 동생인 혜강(嵇康)이 그 말을 듣고는 술과 거문고를 가지고 가서 조문하자, 완적이 몹시 기뻐하면서 청안으로 대하였다. 『진서(晉書)』 권49, 완적열전(阮籍列傳).

又 七律

願將學佛佛無言  
端坐燒香老石根  
處世難逢青眼客  
入山偏愛白雲村  
千年巖髓靈泉滴  
一院菩提露葉翻  
鍾落人間塵念動  
群鴉投盡遠林昏



## 7월에 다시 서굴에 놀면서



지친 나막신 등산에 마음이 탁 탁이고  
두세 사람 덩그렇게 백운 가에 앉았지  
속 빈 늙은 바위 석실로 포용할 수 있고  
우뚝한 고송은 나이도 알 수 없구나  
어제 놀이에 소자<sup>1</sup> 만나지 못했으니  
오늘 모임에 도원<sup>2</sup> 같은 특별함 없겠지  
돌아오는 길 찌든 가슴 씻기 어려웠는데  
대지 가득한 벼 향기에 저녁연기로세

사귀는 관포<sup>3</sup>처럼 늦도록 친해야지  
내 삶에 자진 이별과 만남 한스러워  
꽃 버들 전날 인연 모두 노년에 붙이니  
이슬 갈대 명월에 아득히 님 그리워  
진솔히 술두루미 박하다고 닷하지 마오

- 1 소자(蘇子) : 소동파라고도 한다. 여기선 소동파가 유배지인 황주(黃州)에서 양자강(揚子江)을 유람하며, 예전의 적벽전을 회상하고 자연의 장구함에 비하여 인생이 짧음을 한탄한 적벽부(赤壁賦)에 나오는 것 같은 멋진 놀이를 염두에 두고서 소자를 말한 것이다.
- 2 도원(桃源) : 무릉도원(武陵桃源)의 준말이다.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이 세상을 떠난 별천지(別天地)를 두고서 이르는 말이다.
- 3 관포(管鮑) :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를 가리키며, 두 사람은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하다. 관중은 춘추시대(春秋時代) 제(齊)나라의 재상으로 환공(桓公)을 도와 중원(中原)의 패자(霸者)로 만들었고, 포숙아는 춘추시대 제나라의 정치가로 친구 관중을 제나라의 환공에게 추천하여 환공의 정치를 도왔다. 『사기(史記)』 권62, 관중열전(管仲列傳).

풍류는 흰 머리 생겨도 줄어들지 않아  
 노래에 올라라 연·조<sup>4</sup>는 석양이 가깝고  
 인축이 만나는 곳<sup>5</sup> 가난은 걱정 없어<sup>6</sup>

七月復遊西窟

倦屐登山意豁然  
 兩三團坐白雲邊  
 中虛老石能容室  
 特立孤松不記年  
 蘓子未逢遊昨日  
 桃源非別會今天  
 塵衿難滌臨歸路  
 滿地禾香又夕煙

交如管鮑晚相親  
 每恨吾生逢別頻  
 花柳前緣渾寄暮  
 露葭明月遠懷人  
 眞率莫嫌樽酒薄  
 風流不減鬢毛新  
 歌登燕趙斜陽近  
 釵筑逢場不患貧



4 노래에…연(燕)·조(趙) : 중국 연나라와 조나라 지역은 기개(氣概)가 꺾이지 않고 강개(慷慨)하여 노래를 부르며 격양(激昂)하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므로 '연조풍(燕趙風)'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사기(史記)』 권86, 자객열전(刺客列傳).

5 인축(釵筑) 만나는 곳 : 무기인 갈(鉞)과 악기인 축(筑)이 만나는 곳을 의미한다. 전국 시대 형가(荊軻) 같은 자객(刺客)이 연나라 태자 단(丹)의 부탁을 받고 진왕(秦王)을 죽이러 떠날 적에, 축(筑)의 명인인 고점리(高漸離)의 반주에 맞추어 "바람 쓸쓸해라 역수 물 차가운데, 장사 한 번 떠나 다시 오지 않으리. (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 라는 역수한풍(易水寒風)가 유명하다.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 3.

6 가난은 걱정 없어 : 공자가 말하기를 "나(丘)는 들으니, 나라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한 자는 백성의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백성의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백성의 가난을 근심하지 않고 불안을 근심한다(丘也聞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계씨(季氏).

# 호계 김국당이 방문하자 화암정<sup>1</sup>에 올라 원운<sup>2</sup>을 빌려 시를 짓다



정자는 화암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위험한 난간 백 척이라 청류를 굽어보지  
넘실대는 두 물줄기 흘러와 서로 합쳐<sup>3</sup>  
점점이 잇는 못 산들 여기저기 솟았네  
천리 길 자주 만나는 구우<sup>4</sup>는 많은데  
술 한 두루미 이별에 또 초가을이구나  
갈지 머물지 심사心事 호계 물가를  
누가 삼소<sup>5</sup>를 나보다 먼저 노니었는가?

訪虎溪金菊堂登花岩亭次原韻

亭在花岩最上頭  
危欄百尺俯清流  
溶溶二水來相合  
點點群山散不收  
千里重逢多舊雨  
一樽惜別又新秋  
去留心事虎溪畔  
三笑何人先我遊



1 화암정(花岩亭) : 충남 공주시(公州市) 사곡면(寺谷面) 호계리(虎溪里)에 있는 정자로 1935년 사곡면 지역 유지들이 세운 정자라고 한다.  
2 원운(原韻) : 차운(次韻)이나 화운(和韻)의 원작이 되는 시의 운자를 빌려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3 두 물줄기...합쳐 : 마곡천(麻谷川)이 유구천으로 유입되어 두 물줄기가 합쳐지면서 마곡천은 그 이름이 사라지고 유구천이 그 이름을 유지하면서 금강으로 유입된다.  
4 구우(舊雨) : 옛 벗이란 뜻이다. 두보(杜甫)의 추술(秋述)에 “내가 병으로 장안(長安)의 여관에 누워 있을 때에, 장마가 저서 물고기가 생길 정도였고 푸른 이끼가 침상까지 올라왔다. 평상시에 오가던 벗들이, 예전에는 비가 와도 왔는데(舊雨來) 요즘은 비가 오면 오지 않는다.(今雨不來)” 하였다. 이후로 구우(舊雨)는 옛 벗을, 금우(今雨)는 새 벗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두시상주(杜詩詳註)』 권25, 추술(秋述).  
5 호계(虎溪)...삼소(三笑) : 호계삼소(虎溪三笑)의 일을 의미한다. 진(晉)나라 고승 혜원(慧遠)이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에 주석하여 백련결사운동을 전개할 때 손님들이 찾아오면 절대로 산문 밖 호계(虎溪)를 건너 전송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도잠(陶潛)과 육수정(陸修靜)이 방문하여 서로 의기투합한 나머지 호계 앞까지 전송하자 빗이 울어, 세 사람이 서로 쳐다보고 크게 웃고 헤어졌다고 한다. 『연사고현전(蓮社高賢傳)』 백이십삼인전(百二十三人傳).

## 장마 중에 청계 성재화 방문



파초 잎 빗소리에 석양의 하늘  
그림 속 청산은 흐릿한 연무 속이네  
시주가 많다보니 백발이 늘어나지만  
풍류는 청년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다네  
피꼬리는 촉촉한 것 싫어 숲으로 돌아가고  
닭은 맑은 것 좋아해 나뭇가지로 오르지  
풍물은 여유가 있고 사람은 담박<sup>1</sup>해  
이 자리가 왕유의 망천 별장<sup>2</sup>이구먼

潦雨中訪成載華(聽溪)

雨聲蕉葉夕陽天  
畫裡青山黯淡煙  
詩酒縱多添白髮  
風流不欲讓青年  
鷓鴣嫌細濕歸林下  
鷄喜於晴上樹邊  
景物有餘人澹泊  
輞川別業卽斯筵

1 담박(澹泊) :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이다.

2 왕유의 망천(輞川) 별장 : 당나라 왕유(王維)는 불교를 신봉하여 평소에 소식(蔬食)하고 마늘 같은 냄새 나는 채소나 비린내 나는 고기 등을 먹지 않았다. 섬서성 남전현(藍田縣) 망천에 별장이 있었는데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배적(裴迪) 등과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었다. 『구당서(舊唐書)』 권190, 왕유전(王維傳).



# 서용 김용찬이 잠시 공주에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주다



강의 달 호수 구름 더욱 아득하여라  
저물녘에 만나 보니 귀밑머리 희었구나  
화평和平한 기상에 봄바람 불어오니  
시례詩禮 집안<sup>1</sup> 명성 음덕이 길러 주었네  
얼음처럼 깨끗한 마음 같이하잔 약속  
손님 잡아 두고 향기로운 술대접 애쓰니  
숲속 바람은 소인騷人<sup>2</sup>의 모임 이해해  
장맛비 불어 끊고 만나절 햇벌이 짹짹

贈金容瓚(恕翁)暫住公州還移故鄉

洛月湖雲轉渺茫  
晚來相對鬢毛蒼  
和平氣像春風動  
詩禮家聲德蔭長  
已許同心片冰潔  
辛勤留客一樽香  
林颺能解騷人會  
吹斷霖霖半日陽



1 시례(詩禮) 집안: 시례지훈(詩禮之訓)이 있는 오랜 집안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는 지방을 일컫는다.  
2 소인(騷人): 초(楚)나라 굴원(屈原)이 지은 「이소부(離騷賦)」에서 유래한 말로, 시인과 문사를 말한다.

## 울정 심동산 초청에 참석



전날 밤 그대 생각 꿈자리 어수선했고  
 오늘 십 리 길 멀다는 것 다 잊었지  
 느린 발길 지팡이 의지하니 한낮이 더디고  
 수척한 얼굴 술 빌려 홍조<sup>1</sup>를 띠었네  
 군계 함께 울어 궁벽한 골목은 시끄럽고  
 새 한 마리 높이 날아 하늘까지 오르네  
 세상에 지음<sup>2</sup> 적다 하지 말게나  
 외마디 매미 소리 가요<sup>3</sup>에 화답하네

## 赴栗亭沈桐山招會

懷君前夜夢搖搖  
 十里今行却忘遙  
 倦步信筇遲白日  
 衰顏借酒帶紅潮  
 群鷄齊唱喧深巷  
 獨鳥高飛上九霄  
 世小知音人莫道  
 一聲蟬曳和詩謠



1 홍조(紅潮) : 취하거나 부끄러워 달아오른 얼굴빛을 뜻한다.

2 지음(知音) : 자기의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친구를 뜻한다. 거문고의 명인(名人)인 백아(伯牙)가 고산(高山)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그의 지음(知音)인 종자기가 "종구나, 아아(峨峨)하여 태산(泰山)과 같도다." 하였고, 유수(流水)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종구나, 양양(洋洋)하여 강하(江河)와 같도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다. 『열자(列子)』탕문(湯問).

## 중추에 응진에서 배를 띄우다



장건의 때<sup>1</sup> 8월에 먼저 동으로 향하고

순로<sup>2</sup>의 진미는 고금이 같거늘

좋은 시절 손님 이르니 술 준비하고

어부의 작은 배 바람 두려워하지 않네

가을비 뒤 들관은 벼 향기 물씬 풍기고

석양 하늘엔 천기 아는 고기 뛰어오르지

강호에 떠도는 덧없는 자취 묻는 사람 없고

흰머리 소요에 세상일이란 덧없는 것을

仲秋泛舟熊津

八月張槎先向東

蓴鱸珍味古今同

良辰客到仍謀酒

漁子舟輕不畏風

野色稻香秋雨後

天機魚躍夕陽天

江湖散跡無人問

白首逍遙世慮空



1 장건의 때: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장건(張騫)이 사신 길에 뗏목을 타고 황하(黃河)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한 성시(城市)에 도착하니, 한 여인은 방 안에서 배를 짜고, 한 남자는 소를 끌고 은하의 물을 먹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여기가 어느 곳인가?”라고 묻자, 그 여인이 지기석(支機石) 하나를 장건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성도(成都)의 엄군평(嚴君平)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므로, 과연 그가 돌아와서 엄군평을 찾아가서 지기석을 보이자, 엄군평이 말하기를, “이것은 직녀(織女)의 지기석이다. 아무 연월 일에 객성(客星)이 건우(牽牛), 직녀를 범했는데, 지금 헤아려 보니 그때가 바로 이 사람이 은하(銀河)에 당도한 때였도다.”라고 했다는 전설에서 온 말이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2 순로(蓴鱸): 순채국과 농어회라는 순갱노회(蓴羹鱸膾)의 준말이다. 진(晉) 나라 장한(張翰)이 가을바람에 순채국과 농어 생각이 나서 “인생은 자기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소중하니, 어찌 수천 리 타관에서 벼슬 하며 명성과 작위를 구하겠는가. (人生貴得適志 何能躡宦數千里 以要名爵乎)” 하고는 수레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고사이다. 『진서(晉書)』 권92, 문원전(文苑傳) 장한(張翰).

## 중양<sup>1</sup> 후 창농 심재극 농장 시사<sup>2</sup>에 참여



온갖 바쁜 일 잊고 집안 가득한 손님  
그윽하고 기특한 산수는 내 고향 같아  
국화꽃 변치 않은 중양의 모습에  
소주가 어떠하리 반평생 취했거늘  
문 밖 청산은 이미 낯익은 모습이고  
쟁반의 진기한 과일 새로운 향기일세  
만년의 이 모임 춘추로 소원해져  
밤낮으로 불러서 술잔 들었다네

조석 기후 달라 삼의<sup>3</sup> 서늘하고  
산창이 비에 갇혀 돌아갈 수 없어라  
구름 걷히매 달이 좋을 줄 알았고  
국향 먼저 피어올라 꽃 보기 힘들어  
사립문 밤에도 고요해 샅샅개는 즐고  
단풍나무 찬 하늘 흰 기러기 나르니  
이웃해 살지 않아도 마음은 계합되어  
고기 잡고 나무하는 묵은 약속 지키지

1 중양(重陽): 9월 9일의 명절로 음력 삼월 삼진날 강남에서 온 제비가 이때 다시 돌아가고, 가을 하늘 높이 떠나가는 철새를 보며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2 시사(詩社): 정기적으로 모여 시를 짓고 읊는 시인들의 단체를 뜻한다.  
3 삼의(衫衣): 소매를 없애고 옷자락을 튼 옷을 의미한다.

重陽後往參沈載克(蒼農)庄詩社

掃盡千忙客滿堂  
幽奇泉石似吾鄉  
黃花不變重陽色  
白酒何妨半世狂  
戶外青山來慣面  
盤中珍果動新香  
殘年此會春秋遠  
日夕招招共舉觴

曠朝異候冷衫衣  
滯雨山窓故未歸  
雲翳初収知月好  
菊香先動見花稀  
柴門夜寂青衫睡  
楓葉天寒白鴈飛  
居不同隣心契合  
漁樵宿約莫相違

# 눈 오는 밤에 제익諸益<sup>1</sup>을 초청



정담에 등불 가물가물 모두가 옛 얼굴  
 밤새도록 퀘병<sup>2</sup>사이 등글게 앉아  
 천 금으로 매화 달빛 구입하고 싶지만  
 일필로는 설산 모사하기 어렵지  
 옛 동네 바람 세차 다듬이 소리 멀어지고  
 찬 하늘 낙엽에 두어 마리 기러기 한가로워  
 그대에게 권하노니 양관곡<sup>3</sup> 부르지 말게나  
 먼 길 가는 말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

세모의 인간은 스러져 가는 석양빛이여라  
 그대와 같이 부르고 따른 것 어기지 말게나  
 친한 벗 몇 있다지만 마음 아는 사람 거의 없지  
 멋진 자리도 많지 않지만 즐거운 일도 드물어  
 천하 눈 가득하니 술 데우는 게 좋겠고  
 온 집안 매화 향기 옷깃에 스며들어

1 제익(諸益) : 제우(諸友)라고도 하며 도움을 주는 좋은 벗이라는 뜻이다.  
 2 퀘병(几屏) : 탁자와 병풍을 가리킨다.  
 3 양관곡(陽關曲) : 옛날 이별곡의 이름이다. 양관삼첩(陽關三疊)이라고도 한다. 왕유(王維)가 원이(元二)를 전송하는 시에, “위성의 아침 비는 가벼운 티끌 적시고, 객사의 버들은 푸르고 푸르구나. 그대에게 권하노니 한 잔 더 드시게나, 서쪽으로 양관을 나가면 아는 사람 없으리니.(渭城朝雨潤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하였다. 『전당시(全唐詩)』 권126, 위성곡(渭城曲).

기이한 인연 만송 집안을 잇고자 하니  
 단장에 달빛 띠고 돌아오는데<sup>4</sup> 무슨 상관

## 雪夜招請諸益

情話傾燈總舊顏  
 通宵團坐几屏間  
 千金欲買梅前月  
 一筆難模雪後山  
 洞古風鳴孤杵遠  
 天寒木落數鴻閒  
 請君莫唱陽關曲  
 信是征驂去復還  
 歲曠人間又夕暉  
 與君徵逐莫相違  
 親明有幾知心小  
 勝會無多樂事稀  
 雪意滿天當煮酒  
 梅香盡室更侵衣  
 奇緣將續晚松宅  
 短策何妨帶月歸

4 달빛 띠고 돌아오는데 : 도연명의 시에 “남산 아래에 콩 심었는데, 풀은 무성하고 콩 싹은 드르네. 새벽에 일어나 잠초를 김내고, 달빛 띠고서 호미를 베고 돌아오네. (種豆南山下 草盛豆苗稀 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이라는 말이 나온다. 『도연명집(陶淵明集)』 권2, 귀진원거(歸田園居).

장순정 덕에 유희하는  
 이날 아침에 눈 비 내리고 바람 불어,  
 저녁에는 비소鄙所<sup>1</sup>로 약속해 다시 읊다



산에 산다고 세속을 피하는 것 아니고  
 사물의 이치 성쇠는 자연에 맡겨야지  
 어제 비 오늘의 바람 인연과 관련된 일  
 아침에 핀 꽃 저녁에 지니 하늘도 모르리  
 이 모임 즐거워 향사香社<sup>2</sup>를 모방했는데  
 혹 그대 가려거든 염선剡船<sup>3</sup>과 짝하라  
 분수 따른 편안한 마음 가장 좋은 계책이니  
 만년에 귀밑머리 흰 것이 가장 불쌍하구나

遊張蓴汀宅是日雨雪且風夜期鄙所更吟

居山不是避塵烟  
 物理消長任自然  
 昨雨今風緣這事  
 朝華曠零未知天  
 祗歡此會模香社  
 倘或君行伴剡船  
 隨分安心良在策  
 殘年鬢髮最相憐



1 비소(鄙所) : 자기 거처하는 곳을 낮춰 부르는 말로, 이 시집의 저자 화은공의 집을 말한다.  
 2 향사(香社) : 당(唐) 나라 때 백거이(白居易)가 향산(香山)의 승려 여만(如滿)과 함께 결성한 모임으로 향화사(香火社)의 준말이다.  
 3 염선(剡船) : 염계(剡溪)로 가는 배를 뜻으로 염주(剡舟)라고도 한다. 진(晉) 나라 왕휘지(王徽之)가 눈 내린 달밤에 배를 타고 섬계(剡溪)로 대규(戴逵)를 찾으려다 포기하고 되돌아왔다는 고사가 있다. 「진서(晉書)」 권80, 왕휘지(王徽之)傳.

# 눈 내리는 밤에 친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눈 소리 잠 못 들어 만감이 교차하고  
친구는 경황<sup>1</sup>이 없어 오지 못했는지  
매화 깊은 곳 잡자다 꿈 깨기 다반사요  
어는 집 다듬이질 소리 멀리서 들려오네  
시정은 그대 방문으로 이해<sup>2</sup> 건너려고  
풍류로 술 준비해 시름을 없애려 했네  
집 앞 봉수<sup>3</sup>와 상안<sup>3</sup>과 비슷하거나  
만좌한 의관은 신선의 풍골처럼 맑았으리

雨雪夜待友不至

聞雪未眠百感生  
故人不到短檠橫  
梅花深處頻驚夢  
砧杵誰家遠送聲  
詩意訪君涉泥海  
風流持酒破愁城  
屋頭鳳岫商顏似  
滿座衣冠仙骨清



- 1 경황(槩橫) : 어둠을 밝히는 등잔인 듯하다. 『정암집(貞菴集)』 권1, 室屋甫完 居處甚適 兄弟相對 賦咏自娛 而意到輒書 遂至累篇 眞古人所謂紙墨遂多 辭無詮次者爾 其十에 “거처가 초연하니 세상 밖이 밝고, 실창에 한 가히 대하니 등잔불이 모자라네(居處超然世外清 雪窻開對短檠橫)”이란 내용이 보인다.
- 2 이해(泥海) : 바다처럼 넓고 깊은 진흙탕을 뜻한다. 『法苑珠林』 감응연(感應緣)에 “왕을 따라 급류 속으로 빨리 들어갔다가 이해 가운데 도달하는 변괴를 만났으나 미리 피하였다(乃從王入磧 達于泥海中應遭變怪 皆預避之)”라는 이야기가 있다.
- 3 상안(商顏) : 상안(商顏)은 사람의 얼굴 형태와 비슷한 모양의 상산(商山)이라는 뜻으로, 보통 상산의 별칭으로 쓰인다. 여기서 봉수(鳳岫)를 진(秦)나라 말기에 상산사호(商山四皓)가 자지(紫芝 : 靈芝를 말함)를 캐 먹으며 살았던 곳과 같은 멋진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공주에서 선달그믐 밤을 맞이해



일 년 밤이 거의 끝나는 무렵  
 형제는 각각 동서로 흩어지고  
 시 짓느라 야윈 몸<sup>1</sup> 매화 같아  
 향기로운 마음 밀랍이 우네<sup>2</sup>  
 넓은 금강에 배 띄우니  
 꿈은 낙운<sup>3</sup> 아래로 들어가고  
 멀리 명산<sup>4</sup> 아래를 생각하니  
 그대 응당 석계<sup>5</sup>를 걸어 보게나

흰머리로 선달그믐 밤을 맞으니  
 와러<sup>6</sup>는 옛 성곽 서쪽이요  
 아내는 새 술독을 끌어 권하지만  
 아이는 채색 옷 보채며 울고 있네

- 1 시 짓느라 야윈 몸 : 이백(李白)의 희중두보시(戲贈杜甫詩)에 “문노니 어찌 모습이 그렇게 수척했는가, 다만 전처럼 시 공부하는 고통 때문(借問形容何瘦生 祇爲從前學詩苦)”이라는 구절이 있다. 『당척언(唐摭言)』 권12, 경조(輕佻).
- 2 향기로운…우네 : 진(晉) 나라 부호 석숭(石崇)은 밤을 지을 때 빨나무 대신 밀(蠟)을 사용했는데, 그에 게는 녹주(綠珠)라는 예쁜 첩이 있었다. 손수(孫秀)가 녹주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주지 않자 조서를 꾸며 모함하여 석숭이 그 때문에 죄를 얻어 잡히자 녹주는 누(樓)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진서(晉書)』 권33, 석숭전(石崇傳).
- 3 낙운(洛雲) : 구름 산 밖에 있는 서울이다. 두보(杜甫)가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며 지은 ‘운산(雲山)’이라는 시의 첫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두소릉시집(杜少陵詩集)』 권9, 운산(雲山)에 “서울은 구름과 산 밖인데 소식 전하는 글월 전혀 오지 않네.(京洛雲山外 音書靜不來)”라 하였다.
- 4 와러(蝸廬) : 누추한 집의 비유로 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계절은 봄이 가까워 오는데  
 생활 형편은 늙을수록 나빠지고  
 창가 매화는 나처럼 여위었는데  
 눈은 앞개울에 가득 쌓였구나

### 在公州當除夕

一年將盡夜  
 兄弟各東西  
 詩骨梅同瘦  
 香心蠟更啼  
 舟泛錦江濶  
 夢入洛雲低  
 遙憶明山下  
 君應步石溪

白首當除夕  
 蝸廬古郭西  
 婦携新醞勸  
 兒索彩衣啼  
 節序春將近  
 生涯老益低  
 嚮梅如我瘦  
 積雪滿前溪

# 대보름



상원<sup>1</sup> 달 솟아 온세상 밝히는데  
 풍년 살피며 정담<sup>2</sup> 나누었지  
 관등<sup>3</sup> 감사하는 뜻 이전 사람과 같고  
 답교<sup>3</sup>하는 곳마다 탄성이 새어나와  
 고생 지팡이에 지초 같은 얼굴 건강하니  
 오래지 않아 지당에는 풀 돋아나겠지  
 아름다운 계절 많아도 오늘 저녁이 최고라  
 도소주<sup>4</sup> 남김없이 시성<sup>5</sup>에 누웠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上元

上元月出萬邦明  
 驗看豐登各話情  
 觀燈前人同感意  
 踏橋何處動歎聲  
 辛勤筇屐芝顏健  
 未久池塘草色生  
 佳節縱多今夕最  
 屠蘇餘瀝卧詩城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상원(上元) : 대보름을 말한다. 새해 첫 보름날로써 농사의 시작 일을 의미하는 날이다.  
 2 관등(觀燈) : 정월 대보름 등의 명절에 등불을 구경하는 일을 말한다.  
 3 답교(踏橋) : 정월 대보름날 밤에 그해의 재액을 물리친다 하여 다리를 밟으며 건너는 풍속이다.  
 4 도소주(屠蘇酒) : 설날에 마시는 약주 이름이다. 귀기(鬼氣)를 도절(屠絶)하고 인혼(人魂)을 소성(蘇醒)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의하면 화타(華佗)의 비방(秘方)이라고 한다. 새해 아침에 가족 모두가 의관을 정제하고 모여서 차례로 도소주 술잔을 어른에게 올린 뒤에 나이 어린 사람부터 일어나서 나가는 풍습이 있었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5 시성(詩城) : 당 나라 시인 유장경(劉長卿)이 오언시를 잘해 오언장성(五言長城)이란 호를 얻었다. 오언시를 잘 짓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다. 『신당서(新唐書)』 은일전(隱逸傳), 진계(秦系).

또



손님 와서 문 두드려 가볍게 문 나섰지  
 동·서쪽 길 멀고 가까움 가리지 않고서  
 이날 밤 대보름 달빛이 많이도 내려앉고  
 시성이 높은 서쪽 이웃<sup>1</sup> 그대 행차 기뻐라  
 목숨 연장할 약석<sup>2</sup> 구하기 어려워  
 고기 잡고 나무 하며 이름 숨기려 했는데  
 머지않아 봄 동산에 좋은 꽃소식 있으려니  
 술두루미 갖고 와서 내 인생 즐겨 보려네

又

客來剝啄出門輕  
 不計東西遠近程  
 次夜上元多月色  
 有詩西隣喜君行  
 難求藥石能延壽  
 更向漁樵可隱名  
 未久春園花事好  
 聊將樽酒樂吾生

1 시성(詩聲)이 높은 서쪽 이웃 : 시로 이름 난 서쪽 이웃이라는 뜻이다. '서쪽 이웃'은 전국 시대 초(楚)나라의 시인 송옥(宋玉)을 뜻하는 말이다. 송옥이 절세미인[東家女]의 서쪽 이웃집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선(文選)』 권19, 등도자호색부(登徒子好色賦).  
 2 약석(藥石) : 약제와 돌침이라는 뜻으로 약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



# 위사 김정옥이 새로 마련한 농장의 아집<sup>1</sup>에 다다라



하늘이 봉산의 남쪽에 별업<sup>2</sup> 열었으니  
음덕<sup>3</sup>의 그대 집안 상서스런 날 길쨌지  
풍월<sup>4</sup> 가득한 누대의 주인이 되었으니  
도서<sup>4</sup> 쌓인 벽 향기 저절로 피어오르지  
깊은 술독 가득한 술 어찌 취하길 사양하리  
난답<sup>4</sup>의 청아한 노래에 향기 피어오르니  
온갖 걱정이 사라지고 시흥이 샘솟듯 하니  
이 몸 신선의 고향 반열에 있는 듯하구나

赴金正玉(號韋士)新庄 雅集

天開別業鳳山陽  
德蔭君家瑞日長  
風月盈樓仍作主  
圖書傳壁自生香  
深樽綠酒寧辭醉  
闌榻清歌自生香  
萬慮方消詩興發  
此身疑在列仙鄉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아집(雅集): 아회(雅會)이라고도 하며 멋있는 모임을 의미한다.  
2 별업(別業): 별서(別墅), 별장을 뜻한다.  
3 음덕(蔭德): 조상의 덕이라는 뜻이다.  
4 난답(闌榻): 난간이 있는 평상(平床)이다.

# 추운 봄에 병으로 칩거하다가 놀라 일어나 친구가 와서 같이 읊다



병들어 누워 조만간 봄이 온 줄도 모르고

옛 친구 찾는 문 두드림에 깜짝 놀랐지

적막한 시연 부질없이 탁상만 걸어 놓고<sup>1</sup>

은근<sup>2</sup>한 교배에 용감히 산을 나섰네

꽃은 꿀을 보관하고 벌은 꽃술을 더듬고

버들은 청사를 떨치고 피꼬리는 금사 던져<sup>3</sup>

팔순 가까운 나이 조그마한 한 한탄에

눈 비비고 팔 끼고서 소리 높여 읊조리네

春寒病蠶驚起 親友至共吟

病蠶不知春早晚

忽驚剝啄故人尋

詩緣寂寞空懸榻

交禮慙慙勇出林

花藏甘蜜蝶穿藥

柳拂青絲鶯擲金

年近八旬嘆小一

拭眸把臂又高吟

1 탁상(榻床)만 걸어 놓고: 후한(後漢)의 진번(陳蕃)이 예장태수(豫章太守)로 있을 때 친구인 서치(徐穉)가 왔을 때만 상탁을 내려 놓았다는 고사가 있다. 『후한서(後漢書)』 서치전(徐穉傳).

2 은근(慙慙): 태도가 겸손(謙遜)하고 정중하다.

3 버들은...금사(金梭) 던져: 버들은 청사(늘어진 버들가지를 두고서 한 말)를 늘어뜨리고, 피꼬리는 마치 금빛 베를 북이 움직이는 것처럼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는 말이다.

# 이만운과 같이 점운拈韻<sup>1</sup>하여 시를 짓다



뜨락 햇살 따뜻하고 작약 싹이 고운데  
오시까지 시회에 나오라는 명령이 엄해  
인정은 늙을수록 술만한 것 없고  
세상맛은 오히려 고염<sup>2</sup> 같아라  
새가 깃들도록 여러 종류 나무 심고  
푸른 산빛 보기 좋아 처마를 제거했지  
주인의 마음속은 정말로 알기 어려운데  
금강은 넘실넘실 봉수<sup>3</sup>는 뾰족하네

與李晚雲共拈

庭暉微暖藥芽纖  
趁午詩壇令出嚴  
人情老去無過酒  
世味嘗來反苦鹽  
爲借鳥棲多種樹  
愛看山翠故除檐  
主人胸抱誠難測  
錦水溶溶鳳岵尖



1 점운(拈韻) : 시를 지을 때 운자를 마음대로 뽑는다는 것이다.  
2 고염(苦鹽) : 습기가 찬 소금에서 저절로 녹아 흐르는 짜고 쓴 물이다.

# 고요한 밤에 회포를 서술하다



칼 어루만지며 역사책을 읽으니  
 슬픔과 기쁨 모두 기약키 어려워  
 비범한 재능이 횡재橫財하는 밤  
 인필麟筆<sup>1</sup>이 글쓰기를 끊을 때  
 주국酒國<sup>2</sup>에 이름을 오래 걸고  
 초당草堂<sup>3</sup>에서는 꿈도 길었지  
 기회 따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거늘  
 기러기 울면서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 靜夜述懷

撫劔讀青史  
 悲歡摠不期  
 龍光橫財夜  
 麟筆絕書時  
 酒國藏久名  
 草堂有夢遲  
 隨機能善處  
 叫雁欲何之

1 인필(麟筆): 시관의 붓을 말한다. 공자가 춘추를 지을 때 '절필어획린(絕筆於獲麟)'에서 절필한 데서 유래되었다. 노(魯) 애공(哀公) 14년 봄에 해당된다.  
 2 주국(酒國): 술 취한 세계를 뜻하며, 취향(醉鄉)과 같은 말이다. 송(宋)나라 때의 시인 당경(唐庚)의 차계두(次計頭)라는 시에 "염전에는 흉년이 없고, 주국은 언제나 봄이라네.(潮田無惡歲 酒國有長春)"라는 구절에서 온 말이다. '주국'은 술에 취한 뒤의 황홀한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송시초(宋詩鈔)』 권46.  
 3 초당(草堂): 짚 따위로 지붕을 인 집으로 문인들이 거처하는 곳을 주로 지칭한다.



# 청계산장이 완성되다



창공은 씻은 듯 백운은 유장悠長하고  
 오늘 밤 밝은 달에 유희 이어 보세나  
 청계산장 방문해 세상 근심 잊으려는데  
 부질없이 시 지으려니 수심 안겨 주네  
 산중 바둑 놓으니 상수商叟<sup>1</sup>인 듯  
 눈 내린 후 배 돌아오니 염주<sup>2</sup>인가  
 세월 지나 서로 만나니 구의<sup>3</sup> 더해  
 온 집안 큰 웃음<sup>4</sup> 풍류가 족하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成聽溪山庄

蒼空如洗白雲悠  
 朗月今宵續此遊  
 爲訪仙庄妄世慮  
 謾將詩律使人愁  
 山中棋落疑商叟  
 雪後帆來倘剡舟  
 經歲相逢添舊誼  
 轟堂歌笑足風流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상수(商叟) : 상산사호(商山四皓)를 말한다. 즉 진(秦)나라 말기에 폭정(暴政)을 피해 상산(商山)에 숨어 살았던 네 명의 노인을 말하는데, 후세에 나이도 많고 덕도 높은 은사(隱士)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상산사호는 동원공(東園公) · 하황공(夏黃公) · 녹리선생(角里先生) · 기리계(綺里季)를 가리킨다.  
 2 염주(剡舟) : 염계를 오가던 배란 뜻으로,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와 섬계(剡溪)에 사는 친구 대규(戴逵)와 관련된 재미나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진(晉)나라 때 산음(山陰)에 살던 왕휘지가 설월(雪月)이 밝은 밤에 문득 섬계(剡溪)에 사는 친구 대규(戴逵)를 생각하고 배를 저어 찾아가서 새벽에 그 집 문 앞까지 갔다가는 다시 배를 돌렸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되돌아온 이유를 물은즉 “흥(興)을 타고 왔다가 흥이 다하매 돌아왔으니, 하필 안도(安道, 戴逵의 자)를 보아야 하느냐. (吾本乘興而行 興盡而返 何必見安道耶)” 하였다고 한다. 『진서(晉書)』 권80, 왕휘지(王徽之)의 傳.  
 3 구의(舊誼) : 지난날에 사이 좋게 지내던 정(情誼)를 뜻한다.  
 4 온 집안 큰 웃음 : 평당가소(轟堂歌笑)의 번역으로 집안사람들이 들쭉거리도록 크게 웃는 것을 말한다.

# 이만운 김만취의 ‘산성조춘山城早春’ 시를 차운하다



좋은 정원 놀던 자취 새 시를 보니  
 아기<sup>1</sup>모임도 기약할 수 없지  
 기이한 만남 인연은 오늘인데  
 변화한 이곳이 옛적 어느 때인가  
 물결 일던 옛 나무 버들은 필 것이고  
 눈 다 녹은 온 산에는 꽃이 곧 피겠지  
 청풍<sup>2</sup>명월 남쪽 고을 그대가 주인 되니  
 이런 청량한 경지<sup>2</sup> 그 누가 알리

次李晚雲金晚翠山城早春韻

名園遊跡見新詩  
 認是牙期會不期  
 邂逅奇緣今有日  
 繁華此地昔何時  
 浪生古渡柳將敘  
 雪盡群山花未遲  
 風月南州君作主  
 一般清意孰知之

수원시정연구원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아기(牙期) : 백아(伯牙)와 종자기(鍾子期)를 가리키며 서로 내면을 알아주는 벗을 뜻한다. 종자기(鍾子期)는 춘추시대(春秋時代) 초(楚)나라 사람으로, 백아(伯牙)가 타는 거문고를 들으면 그의 심정을 그대로 잘 파악하였는데, 종자기가 죽은 후에는 거문고 타는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열자(列子)』 탕문(湯問).  
 2 청량한 경지 : 송(宋)나라 소옹(邵雍)이 밝힌 도의 경지를 말한다. 그의 청야음(淸夜吟)이라는 오언절구에 "달은 하늘 중천에 뜨고 바람이 수면에 불어 올 때, 이런 청량한 의미를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라 하였다. 『격양집(擊壤集)』 권12.

## 이만운의 수석壽席<sup>1</sup>을 축하하는 자리



영공 이만운의 생신을 축하하노니  
 여론은 맹상과 교제<sup>2</sup> 원했네  
 주현 다스려 우수한 치적 쌓았으니  
 만년 전원생활은 진성을 기르려는 것  
 시례의 고가<sup>3</sup> 세업을 이었으니  
 연하청벽<sup>4</sup>은 다른 사람도 밝게 만들지  
 요도반무<sup>5</sup>로 환성이 넘치고  
 학발쌍선<sup>6</sup>은 티끌에 오염되지 않으리

賀李晚雲壽席

爲賀令公嶽降辰  
 群情各自孟嘗親  
 曾治州縣留優績  
 晚向田園養性眞  
 詩禮古家承世業  
 烟霞清癖俾餘人  
 瑤桃斑舞歡聲溢  
 鶴髮雙仙不染塵

- 1 수석(壽席) : 축수(祝壽)하는 자리로 보통 회갑연을 말한다.
- 2 맹상(孟嘗)과 교제 : 함포(合浦)의 바다에서 진주가 많이 생산되었는데, 탐욕을 부리는 태수(太守)가 나타나 진주가 점차 교지군(交趾郡)으로 옮겨 갔다. 이 소식을 들은 후한(後漢)의 맹상(孟嘗)이 함포에 부임하여 폐단을 개혁하고 청렴한 정사를 펼치자, 그동안 생산되지 않던 진주가 예전처럼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후한서(後漢書)』 권76, 순리열전 맹상(循吏列傳 孟嘗). 이만운이 맹상같은 청렴한 치적을 남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소리이다.
- 3 시례(詩禮)의 고가(古家) : 시례지훈(詩禮之訓)이 있는 오랜 집안으로 자식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다. 백어(伯魚)가 아버지 공자로부터 시와 예를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부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논어(論語)』 계씨(季氏), “한 번은 혼자 서 계실 때, 제가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지나는데 ‘시(詩)를 배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길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러 나와 시를 배웠습니다. 다른 날 또 혼자서 계실 때에 제가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지나갔는데 ‘예(禮)를 배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예를 배우지 않으면 남 앞에 나설 길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러나와 예를 배웠습니다(鯉趨而過庭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言 鯉退而學詩 他日又獨立 鯉趨而過庭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
- 4 연하청벽(煙霞清癖) : 자연에 대한 청아한 기호나 비릇을 의미한다.
- 5 요도반무(瑤桃斑舞) : 복숭아나무 흔들고 색동옷 입고 춤추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초(楚)나라 노래자(老萊子)가 70의 나이에도 아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당에 올라 색동옷 입고 춤을 추었다고 한다. 『소학(小學)』 계고(稽古).
- 6 학발쌍선(鶴髮雙仙) : 백발의 두 신선이라는 뜻으로 부모를 칭한다.



# 한노수 시하侍下<sup>1</sup>의 수연을 축하하는 자리



갑년의 이 늙은이 소년 같은지라

반의<sup>2</sup>로 북당<sup>3</sup>의 자리 배알하고

시례 가문<sup>4</sup> 전통 아주 중히 여겨

잠영<sup>5</sup> 세습이라 음덕이 온전했네

금슬<sup>6</sup> 연주 책상에 봄빛은 따듯하고

지란<sup>7</sup> 뜨락에 달이 휘영청 둥글구나

형 아우 정다운 술잔에 좋은 손님 취하고

끝없는 수주<sup>8</sup>에 시가는 백 편일세

## 賀韓魯洙侍下壽席

絳甲斯翁若少年

斑衣趨拜北堂筵

家傳詩禮聲名重

世襲簪纓德蔭全

琴瑟床頭春正暖

芝蘭庭畔月長圓

兄酬弟勸佳賓醉

壽酒無量詞百篇



1 시하(侍下) : 부모 혹은 조부모가 생존한 사람을 의미한다.

2 반의(斑衣) : 노래자(老萊子)가 아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입었다는 색동옷이다.

3 북당(北堂) : 원당(萱堂)이라고도 부르며 어머니가 계신 방 혹은 어머니를 뜻한다. 『시경(詩經)』 위풍(衛風) 백혜(伯兮)에 “어떻게 원주리 얻어서 북당에 심어 볼까. 伯을 그리워하는지라 내 마음 병들게 하도다. (焉得萱草言樹之背願言思伯使我心癡)”라는 말이 있다.

4 시례(詩禮) 가문 : 시례지훈(詩禮之訓)이 있는 오랜 집안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가문을 뜻한다.

5 잠영(簪纓) : 잠영은 관에 꽂는 비녀와 허리띠라는 뜻으로 벼슬살이를 말한다.

6 수주(壽酒) : 축수(祝壽)하는 술이다.

## 장순정 사형詞兄<sup>1</sup>의 수연 축하



현옹의 여음<sup>2</sup>은 천성 그대로 보전되어  
 시례 문중<sup>3</sup>의 따뜻한 옥 같은 사람  
 세상살이 순화되어 마음이 태연자약하고  
 집안 다스림 맑고 깨끗해 덕이 새로워졌네  
 푸른 산에 올라 천 년의 장수를 축원했나니  
 술독 가득 한 소주 열 말 마시는 봄이로세  
 비파가락 조율은 당채<sup>4</sup> 놀이에 흡족하니  
 만당하신 손님들 축하 편지로 떠들썩했네

## 賀張尊訂詞兄壽筵

軒翁餘蔭保天真  
 詩禮門中溫玉人  
 涉世醇和心自泰  
 理家清素德維新  
 青山登祝千年壽  
 白酒盈樽十斗春  
 瑤瑟調音棠戲恰  
 紛紜賀貼滿堂賓



1 사형(詞兄) : 시문을 같이 짓는 벗에 대한 경칭이다.  
 2 여음(餘蔭) : 선조가 쌓은 공덕으로 자손이 받는 복을 뜻한다.  
 3 시례 문중(詩禮門中) : 아버지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집안을 뜻한다.  
 4 당채(棠棣) : 당채는 상채(常棣)와 같은 말로 『시경(詩經)』 소아(小雅) 상채(常棣)에 “아가위 꽃송이 활짝 피어 울긋불긋, 지금 어떤 사람들도 형제만한 이는 없지.(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는 말이 나온다. 형제간의 우애를 읊은 시이다.

## 만취 김종헌의 만사<sup>1</sup>



낙엽 지는 성 동쪽 석양 속에  
슬픈 눈물은 친구의 시름인가  
평소 이별 후 목소리 모습 끊기고  
60년 오가며 시문으로 지냈는데  
다정인 양 금강은 푸른 물결 목메이고  
빛깔 잃은 봉산에 백운만 한가롭구나  
옥경<sup>2</sup>이 멀어도 그대 응당 떠날 것이니  
남쪽 고을에서 풍월만은 제일류였다네

輓金鍾憲(晚翠)

落木城東夕照裡  
悄然涕淚故人愁  
尋常別後音容斷  
六十年來翰墨遊  
錦水有情碧波咽  
鳳山無色白雲悠  
玉京雖遠君應去  
風月南州第一流

1 만사(輓詞) :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이다.

2 옥경(玉京) :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천제(天帝)의 거소로 왕국의 수도를 뜻한다. 여기서는 사후 가는 곳으로 쓰였다.

## 또 강변의 정자에 오르다



천 년의 쌍수<sup>1</sup>가 이 정자에 있어  
 우리러 은하수, 구부러 긴 모래톱 만지니  
 산 모습 그림 족자 흰 구름처럼 희고  
 들관 건너는 사람 드문데 버들만이 푸르네  
 시에 몰두하면 오히려 즐릴하기 쉽고  
 술 때문에 병이 된다 해도 깨기 싫지  
 풍광은 사랑스럽지만 기연이 더 중요해  
 석양에 돌아가는 길 걸음걸음마다 멈추네

틈만 나면 소년처럼 돌아다녀 늦잠 자고<sup>2</sup>  
 단양가절<sup>3</sup>에 하늘마저 맑은데  
 햇살에 빨강계 익은 앵두 이슬 머금었고  
 바람에 흔들린 실버들 푸른 안개 베 짜지  
 나막신에 시 읊으며 방초 언덕 소요하고  
 찌든 가슴 큰 금강 가에서 깨끗이 씻으며

1 쌍수(雙樹) : 금강 변 공산성 안 쌍수정 옆에 쌍수가 있다.

2 틈만 나면...늦잠자고 : 송(宋)나라 성리학자 정호(程顥)가 호현(鄆縣)의 주부(主簿)로 있을 때 지은 춘일우성(春日偶成)이라는 시에 "얽은 구름 상큼한 바람 정오가 가까운데, 꽃 찾아 비들 따라 앞 시내를 건너도다. 사람들은 나의 마음 즐거운 것도 모르고서, 틈만 나면 소년처럼 나돌아 다닌다 말하네. (雲淡風輕近午天 傍花隨柳過前川 時人不識予心樂 將謂偷閒學少年)"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권3.

3 단양가절(丹陽佳節) : 단오명절이다.

풍부한 맑은 저녁 운치 풍광 따라 변하고  
 구로<sup>4</sup>가 뒤따르니 가슴속이 후련해

### 又登江亭

雙樹千年有此亭  
 仰摩絳漢俯長汀  
 山容畫簇雲俱白  
 野渡人稀柳自青  
 詩欲盡情還易拙  
 酒雖成病願無醒  
 風光可愛奇緣重  
 歸路斜陽步步停

懶起偷閒學少年  
 端陽佳節又晴天  
 朱櫻映日紅含露  
 絲柳牽風翠織烟  
 吟屨逍遙芳艸岸  
 塵衿蕭洒大江邊  
 晚饒清致風光轉  
 九老相隨意豁然

4 구로(九老) : 당(唐)나라 시인 백居易(白居易)가 벼슬에서 물러난 여덟 사람과 낙양(洛陽)에 모여 놓고 이 모임을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라 불렀다. 그 구성원은 백居易를 비롯하여 호고(胡果), 길교(吉皎), 유진(劉真), 정거(鄭據), 노정(盧貞), 장혼(張渾), 이원상(李元爽)과 승려 여만(如滿)이다.

## 나중에 춘유축<sup>1</sup>春遊軸<sup>1</sup> 중에서 옮겨 베끼



상봉해 한 번 읊는 것도 좋은데  
 앞 인연 이르러니 만날 기약 없어  
 꽃동산 나비 꿈에 봄 경치 저물고  
 촌락의 닭 소리에 낮 그림 옮겨 왔네  
 마음껏 즐기는 시주 오늘까지 많았는데  
 풍류 옛날보다 줄어드는 것 어찌리  
 아양<sup>2</sup> 곡에 백설<sup>3</sup> 노래 있으니  
 한결같은 심사는 친구가 알아주겠지

기묘(1939년)년 봄에 공주읍으로 이사를 했다가 신묘(1951)년 여름에 영통 옛  
 집으로 돌아오다.

1 춘유축(春遊軸) : 봄놀이를 두루마리에 쓴 시이다.  
 2 아양(峨洋) : 아양 곡이다. 거문고의 명인 백아(伯牙)가 고산(高山)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그의 지음(知音)인 종자기(鍾子期)가 "종구나, 아아하여 태산과 같도다.(善哉 峩峩兮 若泰山)" 하였고, 유수(流水)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종구나, 양양하여 강하와 같도다.(善哉 洋洋兮 若江河)"라고 평했다. 지음인 종자가 죽자 거문고를 파하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열자(列子)』 탕문(湯問).  
 3 백설(白雪) : 백설은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가곡 이름으로, 양춘(陽春)과 함께 남이 따라 부르기 어려운 고상한 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 追移寫春遊軸中

相逢一詠亦相宜  
 更續前緣會不期  
 蝶夢芳園春色老  
 鷄聲籬落午陰移  
 縱歡詩酒多今日  
 其奈風流減昔時  
 曲有峨洋歌有雪  
 一般心事故人知

己卯春搬移于公州邑 辛卯夏 還歸靈通故第



## 지나간 중양절<sup>1</sup>에

처음 서울에 살던 김종한(호 구운)을 만나다



처세는 굳이 자위하는 것이 최고요  
 시비는 관여 말고 비탄은 같이하라  
 동산의 토란 밤 거두어 식량 삼고  
 문이 연하에 가려 관복은 입지 않았네  
 뜬금없는 백발에 꿈결같이 어지럽고  
 홀로 핀 국화꽃 이 몸처럼 추워라  
 수유<sup>2</sup> 茱萸 꺾어 꽃고<sup>2</sup> 돌아가는 길  
 다시 벗들을 향해 자세히 살펴보노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前期重陽 初逢京居金鍾邯号龜雲

處世莫如強自寬  
 不關是非共悲歎  
 園收芋栗能爲食  
 門掩烟霞不着冠  
 白髮無端如夢亂  
 黃花獨與此身寒  
 茱萸折插臨歸路  
 更向親朋仔細看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중양절(重陽節) : 중구(重九)라고도 한다. 9는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겹쳤다는 뜻으로 중양이라 한다. 중양절은 중국에서 유래한 명절로 한족의 전통절일이다. 중양절은 중국에서는 한나라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송(唐宋) 때에는 추석보다 더 큰 명절로 지켜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이래로 군신들의 연례 모임이 이날 행해졌으며, 특히 고려 때는 국가적인 향연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선 세종 때에는 중산 곧 3월 3일과 중구를 명절로 공인하고 중구를 무척 중요하게 여겨 늙은 대신들을 위한 잔치인 기로연(耆老宴)을 추석에서 중구로 옮겼으며, 또 중양절에 특별히 과거시험을 실시하여 이날을 기리기도 하였다.

2 수유(茱萸) 꺾어 꽃고 : 왕유(王維)가 17세에 중양절을 맞아 객지에서 산둥(山東)의 형제를 그리며 지은 시에, “홀로 타향에 있어 나그네 되니, 명절 만날 적마다 부모 생각 갑절 나네. 멀리서도 형제들 높은 곳에 오른 것 아나니, 모두 수유 꽃았는데 한 사람 없는 것을. (獨在異鄉爲異客 每逢佳節倍思親 遙知兄弟登高處 遍插茱萸少一人)”이라고 하였다. 『전당시(全唐詩)』 권128, 구월구일억산동형제(九月九日憶山東兄弟).

## 또 7언 절구



열게 붉은 단풍잎 이름도 모르고  
 눈길 닿자 새로 변해 뜨락 걸었네  
 심중에는 단심 남았는데 머리는 백발  
 어떤 모습이 다시 내 삶을 기쁘게 할까



又絶  
 淺紅楓葉不知名  
 觸眼新渝庭畔行  
 中有丹心頭已白  
 更將何狀悅吾生

## 늦가을



늦가을 산 뜨락에 낙엽 휘날리고  
 고음 만나절 물시계 소리 희미한데  
 국화꽃 남은 술 좋은 날 지나가고  
 백수에 한가로운 정취 옛 친구 돌아가네  
 먼 하늘 기러기는 먼 변방과 통하고  
 화려한 산 단풍 숲은 석양이 아까와라  
 농가의 즐거운 일은 풍년 드는 것이고  
 아이는 빈시<sup>1</sup> 읽고 수의<sup>2</sup>편을 읊네

풍진은 이 서림<sup>3</sup>에 이를 수 없는데  
 희미한 등불 두어 사람은 깊은 경지일세  
 시율을 적용하기는 지금의 두자미요<sup>4</sup>  
 교정은 옛 산음의 왕휘지 못지않았네<sup>5</sup>

- 1 빈시(邠詩) : 빈시(邠詩)는 농민의 생활을 읊은 『시경(詩經)』 빈풍(邠風) 칠월(七月)의 시를 가리키는데, 『주례(周禮)』 춘관(春官) 종백(宗伯)에 “중춘이 되면 낮에 토고를 치고 피리로 빈시를 연주하여 더위를 맞는다.(中春晝擊土鼓吹邠詩以逆暑)”라는 말이 있다.
- 2 수의(授衣) : 『시경(詩經)』 빈풍(邠風) 칠월(七月)에 “칠월에 대화심성(大火心星)이 서쪽으로 내려가면, 구월에는 두터운 옷을 준다.(七月流火 九月授衣)”라고 하였다. 9월에는 서리가 내려 추워지기 시작하므로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주어 추위를 막게 한다는 말이다.
- 3 서림(書林) : 시책이 숲처럼 많이 쌓여 있다는 말로 시책을 간직해 둔 곳이다.
- 4 시율(詩律) : 두자미(杜子美)요 : 시를 지을 때 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두자미(杜甫)와 같다는 말이다.
- 5 교정(交情)은...못지않았네 : 눈 내린 밤에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가 산음(山陰) 땅에 있다가 홀연히 섬계(剡溪)에 사는 친구 대규(戴逵)가 보고 싶어져서 배를 타고 그 집 앞까지 갔다가 다시 배를 돌려서 돌아왔다는 고사를 말한다. 『진서(晉書)』 권80, 왕휘지(王徽之)傳.

벽안<sup>6</sup>과 수작하니 속된 마음 벗고  
 국화꽃 시들지 않아 오상고절<sup>7</sup>의 마음이네  
 기연 바꿀 수 없다 이별을 말하지 말게나  
 잠 못 이루는 한밤 풀벌레 울어대네

暮秋

秋暮山庭落木飛  
 苦吟半日漏聲微  
 黃花餘瀝佳辰過  
 白首閒情故友歸  
 鴻鴈天長通遠塞  
 楓林山侈愛斜暉  
 田家樂事場登穀  
 兒讀幽詩詠授衣

風塵不到此書林  
 數客殘燈一境深  
 詩律方看今子美  
 交情不下古山陰  
 碧眼相酬超俗志  
 黃花未老傲霜心  
 奇緣不易莫言別  
 半夜無眠蟲送音

6 벽안(碧眼) : 고승(高僧)은 벽안(碧眼)이 많다고 한다.

7 오상고절(傲霜孤節) : 서릿발이 심한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홀로 꼳꼳하다는 뜻. 충신 또는 국화를 말한다.

남파산장에 모이다



홀로이 짝 구하러 한가한 시간 만드니  
 하늘은 기이한 인연 주어 이곳에 모였지  
 어둠 깔려 소와 양은 분주히 내려가고  
 때를 아는 잡새는 지쳐서 돌아온다네  
 청운은 나를 그르쳐 백발로 남게 했고  
 백설은 사람과 화답해 청산을 만나게 했지  
 담박한 화분의 매화꽃도 응당 시들 것이니  
 바람에 나부껴도 감싸 주지 못할까 염려되어

會南坡山庄

獨相求伴欲偷閒  
 天借奇緣會此間  
 帶暎牛羊奔走下  
 知時鳥雀倦飛還  
 青雲誤我餘華髮  
 白雪和人對碧山  
 盆梅澹泊花應老  
 或恐飄零不敢攀

## 오언 율시



구름 깊지만 산은 옛날 그대로요  
 스스로 사랑하는 것은 이 숲의 샘  
 여원 학 같이 늙어 가는 것 불쌍하고  
 성긴 소나무 나이도 알 수 없어라  
 시수로 두 방망이 소리 아득하고<sup>1</sup>  
 새벽녘에 몇 개의 별만이 달려 있네  
 여흥은 향기로운 막걸리로도 족하니  
 마시고 나면 기분은 넓고 크다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五律

雲深山太古  
 自愛此林泉  
 癯鶴同憐老  
 疎松不記年  
 詩愁雙杵遠  
 曉色數星懸  
 餘興香醪足  
 飲來氣浩然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시수(詩愁)로 아득하고 : 시 지을 근심 때문에 다듬질하는 두 방망이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다.

# 신묘년(1951) 수세<sup>1</sup>에

오언율시 2수



흑한에도 새해 봄기운이 오겠지만<sup>2</sup>  
 슬퍼라! 앞일이 잘못된 것 깨달았으니  
 할아버지 아버지 청산에 계시고  
 형제들은 새로 흰머리 된 것을  
 큰 뱀<sup>3</sup> 부질없이 다가오고  
 늙은 준마 마침 어찌 돌아가리  
 문 닫고도 잠 못 이루니  
 가물거리는 등불 시간도 더디 흐르네

하늘도 차가운데 수세를 하고자  
 바가지로 맑은 샘물 퍼 마시고  
 폭죽은 오늘 저녁 아니면 언제하리  
 종소리 나면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지나가는 기러기 북에서 오고  
 동쪽을 향한 북두칠성도 휘황찬란하니

1 수세(守歲): 선달 그믐날 밤에 잠자지 않으며 새해를 맞는 풍습이다.  
 2 흑한에도...오겠지만: 새해가 오고 봄기운이 발양하는 것을 이른다. 『초사(楚辭)』 초혼(招魂) 난(亂)에 "해가 새로이 이르고 봄기운이 발양하건만, 나만 혼자 쫓겨나서 남으로 가네. (獻歲發春兮 汨吾南征)"라고 한 데서 따온 말이다.  
 3 큰 뱀: 옛날 요 임금 때 아주 큰 뱀이 봉희(封豨)와 아주 큰 뱀인 수사(修蛇)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자, 요 임금이 예(羿)를 시켜서 이들을 죽이게 하였는데, 예가 한(韓)나라 정림(桑林)에서 봉희를 사냥해 죽이고, 동정호에서 수사를 베어 죽였다고 한다. 『회남자(淮南子)』 본경훈(本經訓).

순환의 이치를 살펴보라  
 염량<sup>4</sup>도 우연이 아닌 것을

## 辛卯守歲 五律二首

歲寒當獻發  
 惆愴覺前非  
 父祖青山在  
 弟兄白髮新  
 修蛇空自赴  
 老驥竟安歸  
 閉戶因無寐  
 燈殘漏亦稀

天寒人守歲  
 匏飲有清泉  
 爆竹今何夕  
 鳴鍾又一年  
 賓鴻從北至  
 星斗向東懸  
 驗看循環理  
 炎涼不偶然

4 염량(炎涼): 염량세태(炎涼世態)의 준말이다. 염량세태에 대한 두보(杜甫)의 유명한 시가 있으니, "하늘 위의 뜬구름 백의 같더니, 어느새 푸른 개로 바뀌었네. 예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있었을 이 한때여, 인생 만사 이와 같지 않았던 적 없었나니, (天上浮雲似白衣 斯須改變如蒼狗 古往今來共一時 人生萬事無不有)"라는 표현이 있다. 『두소릉시집(杜少陵詩集)』 권21, 가탈(可歎).

# 삼가 매부妹夫 이병순 수연壽宴을 축하하는 자리



이 늙은이 장수는 어질기 때문이니  
시례 문중<sup>1</sup>의 완전히 복 받은 사람  
뜨락 가득한 채무<sup>2</sup>는 둥근 달 모습  
자리 같이한 형제들 따뜻한 봄빛 머무네  
자각봉紫閣峯 앞의 손님 아니라 해도  
서방의 부처 후신임을 인정해야 하리<sup>3</sup>  
매부는 나 건강하지 않은 줄 알지만  
친구도 축하하거늘 하물며 친척임에라

謹賀李妹丙順壽席

斯翁得壽必由仁  
詩禮門中完福人  
彩舞盈庭圓像月  
棣花聯榻暖留春  
若非紫閣峯前客  
認是西方佛後身  
阿妹應知儂不健  
賓朋猶賀况姻親



1 시례(詩禮) 문중: 자식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집안을 의미한다.  
2 채무(彩舞): 춘추시대(春秋時代) 초(楚)나라 은사(隱士) 노래자(老萊子) 이야기이다. 노래자(老萊子)가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렸다고 한다.  
3 자각봉(紫閣峯)·하리: 서울의 남산을 자각봉이라 하는데 남산 앞 궁궐의 고관대작을 역임한 손님이 아니라 해도 그 인품으로 박서는 서방에서 유입된 부처의 후신답다는 표현인 듯싶다. 즉 저자 매부 이병순의 인품을 찬양하는 말로 이해된다.

# 원정<sup>1</sup>에 우연히 만나서

진사 김성재, 김구운, 엄명섭(호 미당)



고매화 아래쪽 조그만 시내 동쪽  
 백발의 벗과 손님들 담소 중이네  
 대지는 병란의 티끌로 불안하지만  
 신년은 술잔으로 마음이 서로 통하지  
 오늘 밤 눈과 달에 맑은 경치 풍성하고  
 전대의 의관엔 순박한 풍속 보겠네  
 남은 인생에서 즐거움이 거의 없거늘  
 애오라지 살아가는 방법은 독서였다네

달이 떠오를 때 내리던 눈이 또 멎었고  
 많은 손님 이름 아래 내 이름은 없구나  
 봄소식 먼저 알리는 것은 매화나무 빛  
 시 시름 깨는 방울 소리는 술 거르는 소리  
 간성<sup>2</sup> 이어감이 나라 위한 계책이고  
 빙옥<sup>2</sup> 잇기 어려움은 고인의 심정이지  
 이 가운데 그윽한 정취 있음 누가 알리

1 원정(元正) : 원단(元旦)이라고도 하며 설날이다.  
 2 빙옥(冰玉) : 장인과 사위 모두가 뛰어난게 이름답다는 뜻이다. 진(晉)나라 악광(樂廣)이 위개(衛玠)를 사위로 맞아들였는데, 이에 대해서 배숙도(裴叔道)가 “장인은 얼음처럼 맑고 사위는 옥돌처럼 윤이 난다. (婦公冰清 女婿玉潤)”고 평했다는 고사가 있다. 『진서(晉書)』 권43, 악광전(樂廣傳).

대지는 통령<sup>3</sup>하고 산은 자명하네

元正偶會 金進士誠齋 金龜雲 嚴明變号美堂

古梅花下小溪東  
 白首賓朋談笑中  
 大地兵塵心未定  
 新年杯酒意相通  
 今宵雪月多晴景  
 前代衣冠見淳風  
 無幾餘生何所樂  
 聊將活計讀書同

月欲來時雪又晴  
 客多名下我無名  
 開先春信香梅色  
 滴破詩愁瀉滔聲  
 繼負干城爲國策  
 難忘冰玉故人情  
 此中幽趣誰能識  
 地自通靈山自明

3 통령(通靈) : 정신이 신령과 서로 통한다는 뜻이다.

# 상원<sup>1</sup>에 달구경과 관등<sup>2</sup>觀燈



상원의 아름다운 절기는 일 년 중 으뜸  
 달 구경과 관등에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  
 만 리의 밝은 달 다 같이 보고 즐기나니  
 집집마다 촛불은 추운 줄도 모르는구나  
 화아<sup>3</sup>는 손님맞이로 광채를 더 보태고  
 옥토는 누구 위해 단약<sup>4</sup>丹藥을 찢는가  
 풍년을 점쳐 보니 촛불 같이 밝다 하니  
 도처의 답가<sup>5</sup> 실컷 즐길 수 있으리

# 上元翫月觀燈

上元佳節一年冠  
 翫月觀燈意自安  
 萬里冰輪同見樂  
 千門蠟炬不知寒  
 火蛾迎客增光彩  
 玉兔爲誰搗藥丹  
 驗看豐登明似燭  
 踏歌到處盡情歡

1 상원(上元): 음력 정월 대보름이다.  
 2 관등(觀燈): 정월 대보름에 등불을 구경하는 일이다.  
 3 화아(火蛾): 정월 15일에 부녀자들이 색종이로 풀벌레나 호랑나비 등의 장식[火蛾兒]을 만들어서 머리에 꽂던 풍속이다. 『고사비(古事比)』 권1 시서(時序)에 “정월 15일에는 화아이를 만들고, 기장떡을 먹는다. (造火蛾兒 食玉梁糕)”라는 말이 나오는데, 화아이는 보통 줄여서 아아(蛾兒)라고도 하고, 요아(鬧蛾)라고도 한다.  
 4 옥토(玉兔)…찢는가: 달 속에 옥토끼가 있어 항상 불사약(不死藥)을 찢고 있다는 전설에서 온 말이다. 이백(李白)의 시에 “흰 토끼는 봄 가을로 불사약만 찢는다니, 항아는 외로이 지내며 누구와 이웃하리. (白兔搗藥秋復春 姮娥孤樓與誰鄰)” 하였다. 『이태백문집(李太白文集)』 권17, 파주문월(把酒問月).  
 5 답가(踏歌): 밭로 땅을 구르며 장단을 맞추어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 진사 김성재의 방문



산동에서 온 나그네 작은 뜨락 방문하니  
차가운 날씨에 이른 봄날은 어두워지고  
채마 밭을 찾았더니 향기로운 싹 여린데  
뜨락 나뭇가지 잠자던 새 언 혀가 시끄럽네  
여러 해 익힌 무술로 장한 뜻은 남았으나  
어느 날 마음 편안히 넋이 돌아오게 하리  
백설 내리는 오늘 밤 그대 화답할 수 있겠지  
고아한 노래<sup>1</sup>에 술은 향아리에 있다네

## 金進士誠齋見訪

客自山東訪小園  
天寒春早日將昏  
行尋圃藥香芽細  
留宿庭枝凍舌喧  
講武多年餘壯志  
安心何日返遊魂  
今宵白雪君能和  
歌有郢門酒有樽



1 고아한 노래 : 영문(郢門)의 번역으로 격조가 고아한 악곡 또는 시문을 비유한 것이다. 춘추(春秋) 시대 초(楚) 나라 수도 영도(郢都)에서 어떤 사람이 불렀다는 양춘백설곡(陽春白雪曲)으로, 그 수준이 워낙 높아 그에 화답한 자가 수십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 종이를 읊다



닥 껍질로 만든 종이가 진품이고  
 옥판 같은 파전<sup>1</sup>은 종이 중의 보배  
 문자가 생긴 이래 천만 가지 일 중에  
 사책<sup>史冊</sup> 종사 많으니 아는 사람 있겠지

詠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造得楮皮品是真  
 巴牋玉板紙中珍  
 書契以來千萬事  
 多從史冊有知人

1 파전(巴牋) : 촉(蜀) 땅에서 생산되는 질이 좋은 종이다.

## 붓



채필<sup>1</sup>이 꽃 만들어 정말 꿈 같고  
 한 번 붓을 휘갈겨 쓰니<sup>2</sup> 진주가 흩어져  
 용사<sup>龍蛇</sup>가 나르고 풍우에 놀라니  
 서화가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筆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彩筆生花一夢眞  
 揮毫落處散珠珍  
 龍蛇飛動驚風雨  
 書畫家中有幾人

1 채필(彩筆) : 뛰어난 문필을 뜻한다. 양(梁)나라 때 문장가인 강엄(江淹)이 야정(冶亭)에서 잠을 자는데 광박(郭璞)이라는 노인이 와서 자기 붓을 돌려 달라고 하므로, 품속에서 오색필을 꺼내어 그에게 돌려 준 꿈을 꾸었는데, 그 후로는 좋은 시문을 전혀 짓지 못했다고 한다. 『남사(南史)』 권59, 강엄전(江淹傳).  
 2 한번…쓰니 : 초성(草聖)으로 전해지는 장욱(張旭)의 글씨에 대해서 두보의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에 "한번 붓을 휘갈겨 종이 위에 쓰면 마치 구름이나 연기와 같네. (揮毫落紙如雲煙)"라고 묘사한 구절이 보인다.

## 벼루

다듬으면 순수한 붉은 색에 소리가 맑다



옛 단석<sup>1</sup>을 탁마한 진품을 품평하면  
붉은색에 소리 나니 세상의 보배라네  
우군<sup>2</sup> 사라지고 그대 혼자 가졌으니  
응당 천추<sup>3</sup>에 주인 그리워하리라

왕희지가 사용하던 벼루로 단주석으로 만든 상품인데 아름다운 색이 붉고 소리가 맑다.

硯 琢磨眞色赤聲清

品古端石琢磨眞  
色赤聲漏稱世珍  
曾別右軍君獨在  
應是千秋憶主人

王羲之所用硯 以端州石爲之品 佳色赤聲清

- 1 단석(端石) : 단석은 벼루를 만드는 가장 좋은 돌로 광둥성(廣東省) 단계(端溪)에서 생산된다.
- 2 우군(右軍) : 진(晉)나라 원제(元帝)때 왕희지(王羲之). 우군 장군(右軍將軍)을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칭한 것이다. 해서·행서·초서에 뛰어나 서성(書聖)이라고 불린다.

## 먹

당<sup>1</sup> 명황<sup>2</sup> : 玄宗이 하루는 누상에 행차하여 크기가 파리만한 한 도사가 가물가물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명황이 꾸짖자 곧 만세를 부르면서 말하기를 “신은 폐하의 어묵<sup>3</sup>의 정수입니다.”라고 하였더니, 황제는 ‘용향제’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용향제<sup>1</sup>라는 이름 그대가 진짜이네  
누상에 계신 황제가 보배처럼 총애했으니  
동쪽 해주 고을 부용당<sup>2</sup>이 아름다운데  
이 풍월 읊은 한림<sup>3</sup> 몇 사람이나 될까

墨

唐明皇 一日御樓上 見一道士大如蠅 隱隱而行 帝叱之 卽呼萬歲曰 臣陛下御墨之精也 帝賜名龍香劑

賜號龍香子是眞  
明皇樓上寵如珍  
東渡海郡芙蓉堂美  
風月翰林咏幾人

- 1 용향제(龍香劑) : 향기로운 묵향(墨香)으로 용뇌(龍腦)와 사향(麝香) 등을 넣어서 제조한 먹이다.
- 2 부용당(芙蓉堂) : 황해도 해주에 있는 누각이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곳에 잠시 머문 적이 있고, 인조(仁祖)가 이곳에서 태어나기도 하였다.
- 3 한림(翰林) : 조선시대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의 별칭이다.

## 옥섬여<sup>1</sup>(연적)



두꺼비 같은 모습 백옥의 진품  
 시인들은 구슬 보배보다 더 아끼지  
 물의 덕성따라 삼키고 뱉기도 하니  
 뱃속 경륜은 사람들 기쁘게 하는 데 있지

玉蟾蜍(水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形似蟾蜍白玉眞  
 詩人愛此勝珠珍  
 爲行水德能吞吐  
 滿腹經綸在悅人

1 옥섬여(玉蟾蜍) : 두꺼비처럼 생긴 연적을 뜻한다.

## 단壇 위의 소나무



규각 용염의 소나무<sup>1</sup> 나이도 알 수 없고  
 우뚝 일산만한 푸른 솔 연무에 감싸였네  
 동량의 재목 결핍되면 사용할 터이니  
 부근<sup>2</sup>은 소나무 단에 얼씬도 하지 말라

壇松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虬角龍髯不記年  
 亭亭一蓋翠籠煙  
 棟樑乏材將見取  
 斧斤且莫向壇邊

1 규각(虬角) 용염(龍髯)의 소나무 : 규각은 바다코끼리의 송곳니, 용염은 용의 수염을 의미한다. 단(壇) 위의 소나무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뽕족하고 구불구불하게 생긴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2 부근(斧斤) : 도끼와 자귀를 이르는 말이다.

## 의죽義竹

당나라 현종이 후원에 놀면서 대나무가 뻗뻗한데 죽순이 밖으로 뻗어나가지 않으니, 왕자에게 이르기를 “부자 형제가 서로 친함이 당연이 이 대나무와 같아야 하니 의죽이라고 부르라.” 하였다.<sup>1</sup>



명황의 의죽義竹은 옛날 어느 때였던가  
죽순이 뻗뻗하게 임금의 후원에 돋았네  
형제가 친함이 당연히 이와 같아야 하니  
하늘이 내려준 복록福祿이 연면하리라

### 義竹

明皇 遊後苑 有竹叢密 筍不出外 顧謂王曰 父子兄弟相親 當如此竹 因號義竹

明皇義竹昔何年  
叢密筍生御苑邊  
兄弟相親當如此  
自天申祿必綿連

1 이 내용은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 의죽(義竹)에 있다.

## 읍순泣筍

맹종孟宗은 성품이 효가 지극했는데 어머니가 겨울에 죽자 종성은 대나무 숲에 들어가 슬피 울자 죽순이 돋아나서 그것을 제사에 바쳤다.<sup>1</sup> 진흥나라 유은劉殷은 나이 9세에 조모를 위해 겨울에 죽순을 생각하고 슬피 울어 죽순을 얻어 바쳤다.<sup>2</sup>



조모께 바치고 모친께 제사지낸 두 사람 소문  
심한 추위 대밭에서 울자 천신도 감응했고  
태어날 손자 당연히 진나라 유은 같으리니  
9세 어린 아이 정말로 진실한 효성이었네

### 泣筍

孟宗 性至孝 母卒冬節 宗乃入竹林哀泣 筍爲之生 得以供祭 晉劉殷年九歲 爲祖母 冬思筍 殷泣而獲供饋

饋祖祭親聞兩人  
凍寒泣筍應天神  
生孫當若晉劉殷  
九歲孩兒誠孝眞

1 맹종의 이 이야기는 『삼국지(三國志)』 오지(吳志) 손호전(孫皓傳)에 근거한 것이다.

2 류은(劉殷)은 9세에 조모를 위해 근(董)이나 곡식을 구해 봉양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죽순이야기는 없다. 저자의 착각인 듯하다. 『진서(晉書)』 권88, 류은열전(劉殷列傳) 참조.

## 고매



옆으로 뻗어 나온 한 가지 꽃 보니  
 웃음 띤 봄빛 우리 집에도 왔구나  
 화갱<sup>1</sup> 어렵지만 상적<sup>2</sup>도 없으니  
 시인은 낙매가<sup>3</sup> 듣기 싫어한다지



古梅  
 考查橫出一枝花  
 笑帶春光到我家  
 難得和羹無向笛  
 詩人厭聽落梅歌

1 화갱(和羹) : 화갱염매(和羹鹽梅)의 준말이다. 소금과 식초로 양념한 국이란 뜻으로, 임금을 보좌하는 재상(宰相)의 직무이다.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재상으로 임명하면서 “내가 술이나 단술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그대가 누룩이 되어 주고, 내가 술에 국을 끓이려 할 때에는 그대가 소금과 매실이 되어 주오.(若作酒醴 爾惟麴蘖 若作和羹 爾惟鹽梅)”라는 내용에서 유래된 말이다. 『서경(書經)』 열명하(說命 下).  
 2 상적(向笛) : 죽은 친구를 그리워 한다는 뜻이다. 진(晉)의 상수(向秀)가 죽은 벗 혜강(嵇康)의 집을 지나다가 이웃집에서 부는 피리소리를 듣고 사구부(思舊賦)를 지은 데서 유래한다.  
 3 낙매가(落梅歌) : 고대 피리로 연주하는 악곡인 횡취곡사(橫吹曲辭) 가운데 「매화락(梅花落)」이 있다. 관산낙매곡(關山落梅曲)이라고도 한다.

## 의란猗蘭<sup>1</sup>



공자가 위(衛)나라에서 노(魯)나라로 되돌아와 은곡(隱谷)에 이르러 향란(香蘭)이 홀로 무성한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난이 왕자가 되는 것은 향 때문이다. 중초(衆艸)와 더불어 짝이 되었구나.”라고 하셨다. 수레를 멈추고 거문고를 당겨 연주하면서 스스로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상심하면서 향란에 의탁해 심경을 말씀하셨다.<sup>2</sup>



연녹색 난 꽃은 진짜 국향이라더니  
 취미가 의연(依然)히 군자 같구나  
 공자는 언제 은곡에서 탄식했는가  
 거문고 안은 단좌에 모정이 새롭구나

1 의란(猗蘭) : 의란은 향란(香蘭)을 말하는데 공자가 일찍이 금곡(琴曲) 의란조(猗蘭操)를 지었던 데서 온 말로, 큰 재덕(才德)을 지니고도 때를 만나지 못한 고결(高潔)한 선비를 비유할 때 쓰인다. 다산도 “벗을 참미하는 뜻이다(猗蘭 美友人也)”라고 하였다.  
 2 이 이야기는 공자가 천하 제후들을 다 만나 보았으나 공자를 써 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오다가 깊은 골짜기에서 향기로운 난초가 홀로 무성한 것을 보고 탄식하여 한 소리다. 한나라 채옹(蔡邕)의 『고악부(古樂府)』 금곡가사(琴曲歌辭) 의란조(猗蘭操)에 나오는 말이다.

## 猗蘭

孔子自衛反魯 至隱谷見香蘭獨茂 喟然歎曰 夫蘭當爲王者香 乃與衆艸爲伍 止  
車援琴鼓之 自傷不逢時 託辭於蘭云

蘭花淺碧國香眞  
臭味依如君子人  
隱谷何年夫子嘆  
援琴端坐慕情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황국黃菊<sup>1</sup>



채마밭 만 송이 노오란 국화꽃  
찬 서리 이슬에 홀로 향기 피웠지  
동쪽 울 의구한데 도연명은 아득하고<sup>2</sup>  
술 보낸 사람만 내 집에 도착했구나

黃菊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老圃寒花萬朵黃  
冷霜涼露獨生香  
東籬依舊陶令遠  
送酒人來到我堂

1 황국(黃菊) : 누른 꽃잎이 피는 국화이다.

2 동쪽...아득하고 : 도연명(陶淵明)의 음주(飲酒) 시에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꽃을 따다가,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노라.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구절이 있다. 『도연명집(陶淵明集)』 권3. 여기서의 도연명의 운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대추



붉은 열매 주렁주렁 달린 8월 하늘  
 계심 양각<sup>1</sup> 아름다운 이름 전하지  
 생대추 크기 어찌 오이처럼 크기 바라며  
 친히 맛보고 어떻게 신선될 수 있으리

棗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朱實離離八月天  
 鷄心羊角芳名傳  
 安期生棗大如菘  
 那得親嘗作羽仙

1 계심양각(鷄心羊角) : 계심과 양각은 모두 신선이 먹는 대추 이름이다. 『옥담시집(玉潭詩集)』, 만물편(萬物篇) 과실류(果實類), 棗 鷄心羊角皆仙棗名.

## 밤



별은 꽃의 진액 물어 꿀 만들고  
 가지 끝에 바짝 솟은 바늘 침<sup>1</sup>  
 하룻밤 서풍에 밤이 떨어지니  
 정원의 늙은 삼살개 놀라 짓어대네

栗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蜂舍花液蜜香成  
 蠟縮枝頭針刺生  
 一夜西風宜栗落  
 園中走吠老彪驚

1 가지...침 : 밤송이 겉모습을 보고서 표현한 말이다.

# 배



백설이 꽃 피어 옥 같은 배가 살지니  
 아! 쾌과<sup>1</sup> 생각 많이 나는 때이네  
 아내는 날 위해 동쪽 저자에서 구입해  
 껍질 벗겨 간장 뒤섞기 왜 이다지 더딘지

梨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白雪開花玉作肥  
 噶思快果已多時  
 山妻爲我求東市  
 解甲取醬嫌手遲

1 쾌과(快果): 배의 다른 이름이다. 『본초(本草)』에 “배는 쾌과(快果)이다.”라고 하였다.

# 감



영통구 감나무 과일나무 중 가장 커  
 감나무 원근 가옥의 숲을 이루었다네  
 한 몸에 칠절<sup>1</sup> 겸해 사랑스러운데  
 단풍잎 봄꽃보다 더 좋은 것이 가장 기이해

柿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靈區有柿果中佳  
 此樹成林遠近家  
 可愛一身兼七絕  
 最奇霜葉勝春花

1 칠절(七絶): 감나무가 지닌 일곱 가지 덕을 일컫는 말이다. 첫째는 장수, 둘째는 감나무 그늘이 많은 것, 셋째는 새가 등지를 들지 않음, 넷째는 나무에 벌레가 없음, 다섯째는 서리 맞은 감잎이 완상할 만하다 는 것, 여섯째는 열매가 아름답다는 것, 마지막 일곱째는 감잎이 크고 두껍다는 것이다. 『이아익(爾雅翼)』 권10, 시(柿). “柿有七絶 一壽二多陰三無鳥巢四無蟲蠹五霜葉可翫六嘉實七落葉肥大”

## 석류



연지꽃 붉은 뺨에 석류 잎은 치마고  
 상천에 반쪽 열려 붉은 옥처럼 빛나네  
 모든 아들 서로 친해 한집안에 있거니  
 그대 다복함 분양<sup>1</sup>보다 낫구나

石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臙脂花頰葉衣裳  
 半坼霜天紅玉光  
 萬子相親同一室  
 賀君多福勝汾陽

1 분양(汾陽) : 곽분양(郭汾陽). 당(唐)나라 때 명장인 분양왕(汾陽王) 곽자의(郭子儀)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였으며, 자손이 많아 아들 8명과 사위 7명이 모두 조정의 고관이었으며, 손자는 수십 명이 었다. 그리하여 그 집안에서만 조정에 나온 벼슬아치가 6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구당서(舊唐書)』 권 120, 곽자의열전(郭子儀列傳).

## 오동



푸른 잎 붉은 꽃 서로 비취 환한데  
 시냇물 소리에 노쇠한 오동나무 한 그루  
 우뚝 홀로 서서 속세를 끊고선  
 봉황이 가지 위에서 울기를 기다리네

梧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翠葉紫花相映明  
 梧桐一樹老溪聲  
 亭亭獨立塵埃絕  
 留待鳳凰枝上鳴

## 문 앞 오래된 느티나무



문 앞 오래된 느티나무 5대를 내려와  
수레 위 일산 같은 모습 기쁘게 바라보지  
마음 비운 용의 울음 겨울 바람 부는 밤이요  
나무 가득한 꾀꼬리 울음 여름 하늘이네  
천홍만자는 봄이 지나니 의연히 꿈이요  
길은 그들은 바다 같아 한없이 넓어라  
우리 집안 먼 후손들 온전히 번성하려면  
동수<sup>1</sup> 상친으로 좋은 인연 만들어야지

## 門前老槻

槻老當門五世傳  
形如車蓋望欣然  
虛心龍吼冬風夜  
滿樹鶯啼夏月天  
萬紫經春依是夢  
濃陰似海浩無邊  
吾家苗裔能全盛  
同壽相親作好緣

1 동수(同壽) : 같이 오래 산다는 말이다. 『논어(論語)』 용야(雍也)에 “인지는 수를 누린다.(仁者壽)”는 말이 나온다.

## 앵도



4월의 하늘에 앵두는 스스로 붉은데<sup>1</sup>  
 산 늙은이는 푸른 창 앞에 홀로 앉았네  
 무성한 가지는 치켜 올려도 땅에 닿고  
 온 나무 불붙듯 해도 연기 일지 않지  
 금반에 쏟아내니 옥이 구르는 듯  
 감로 내려도 오히려 수명 길어져  
 사당에 반사<sup>2</sup>는 어느 날이었던가  
 부질없이 두보 시 읊으면서 슬펐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櫻桃

也自紅櫻四月天  
 山翁獨坐綠窓前  
 繁枝相擎還低地  
 渾樹如燃不起烟  
 瀉出金盤疑轉玉  
 嘗來甘露倘延年  
 明宮頒賜曾何日  
 謾誦杜詩却悵然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앵두는...붉은데 : 두보(杜甫)의 시 "서촉의 앵두는 절로 붉나니 야인이 대광주리에 가득 담아 주네. (西蜀櫻桃也自紅 野人相贈滿筠籠)"라는 말이 보인다. 『고금사문류취후집(古今事文類聚後集)』 권25, 앵도(櫻桃).

2 사당에 반사(頒賜) : 당(唐) 나라 이작(李瓘)의 『세시기(歲時記)』에 "4월 1일에 앵도를 침원에 올리고, 끝나고 나면 백관에게 반사(頒賜)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침원(寢園)은 침묘(寢廟)와 원릉(園陵)으로 종묘(宗廟)를 뜻한다. 또 당(唐) 나라 시인 왕유(王維)의 시 원제(原題)에 "어명으로 백관에게 앵도를 하사하다. (勅賜百官櫻桃)"라는 말이 있다. 『왕우승집(王右丞集)』 권10.

## 파초



영롱한 한 그루 나무 한 길 여유롭고  
찬 서리 무서워 따뜻한 창가에 의지했네  
은혜 바라는<sup>1</sup> 방심은 누굴 위해 펼쳤는가  
편지 쓴 부채는 향기 뿜어 사랑스러워라  
빗방울 소리 요란해 길손의 꿈 어지럽고  
바람은 부채 흔들 듯 무더운 여름 시원해  
매죽의 반열에 이름 올라 길러졌으니  
깊은 은혜 감동되어 이 집 보호하리

## 芭蕉

玲瓏一樹丈餘長  
唯怕霜寒依暖窓  
芳心懷禮爲誰展  
便面題書憐自香  
雨滴聲喧羈夢亂  
風來扇動暑天涼  
名叅梅竹同培養  
感此深恩護此堂

1 은혜 바라는 : 『논어(論語)』 이인(里仁)에 “군자는 준법을 생각하고 소인은 은혜받기를 바란다(君子懷刑 小人懷禮)”라는 말이 있다.

## 모란



온갖 꽃 다 떨어지고 홀로 봄을 차지했으니  
 응당 동군<sup>1</sup>과 특별한 인연 있겠지  
 화분의 매화 난초 수척한 모습 가련한데  
 락의 복사꽃과 오얏꽃은 티끌로 변했네  
 엄연히 고운 국색<sup>2</sup> 왕좌답고  
 수정 같은 타고난 맵시 미인을 압도하지  
 만 그루 꽃 중에 그 이름 제일이라  
 이슬 향기 붓 적서 새롭게 품평하리

## 牡丹

千紅落盡獨為春  
 應與東君別有因  
 盆上梅蘭憐瘦骨  
 園中桃李化芳塵  
 儼妍國色宜王坐  
 晶瑩天姿壓美人  
 萬本花中名第一  
 露香霑筆品題新



1 동군(東君) : 동군은 봄을 맡은 신 이름이다. 동제(東帝) · 동황(東皇) · 청황(靑皇) · 청제(靑帝)라고도 한다.

2 국색(國色) : 모란의 별칭으로 모란의 비범한 향기와 색깔을 국색천향(國色天香)이라 한다.

## 구기



약재 중 구기는 목숨을 연장시키고  
 묘목은 선홍색인데 가지와 잎은 푸르지  
 삶아 먹는 늙은 뿌리 모습은 개 같고<sup>1</sup>  
 몸 가벼워 나르니 신령 있는 줄 알았네

枸杞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藥中枸杞可延齡  
 有子殷紅枝葉青  
 烹食老根形似犬  
 身輕飛去始知靈

<sup>1</sup> 모습은 개 같고 : 구기자(枸杞子)의 구(枸)자는 개 구(狗)자 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 뿌리가 오래  
 자라면 마치 개의 형상처럼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 무궁화



무궁화는 무궁히 가지에서 피어나니  
 집집마다 무궁화 심으면 봄빛 오래 머물고  
 자자손손 번창하리니  
 무궁한 복록 나 먼저 알았네

槿花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無窮花發無窮枝  
 種此家家春色遲  
 子子孫孫如許盛  
 無窮福祿我先知

## 전등



발전 기술 수많은 기계로 구성되어  
 송전으로 전등되어 촛불 대신해 밝히고  
 별 달처럼 흩어져 달려 있어도 불야성<sup>1</sup>이라  
 유리세계는 정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네

電燈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發電施術萬機成  
 分送爲燈代燭明  
 星散月懸還不夜  
 琉璃世界使人驚

1 불야성(不夜城) : 밤인 데도 등불이 켜져 대낮같이 환한 곳을 말한다. 밤에도 해가 났다는 산둥성(山東省) 동래군(東萊郡) 불야현(不夜縣)의 성(城)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제지기(齊地記)』.

## 비행기



모습은 흰 학인데 번개같이 빠르고  
 소리는 산하를 뒤흔들고 구름과 짝해 돌아가  
 벼락 치듯 폭탄 투하로 사람 혼을 빼앗으니  
 문노니 천하 소당은 언제 하려는가

飛行機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形如白鶴疾電飛  
 聲撼山河雲半歸  
 雷擊投彈人喪魄  
 掃平天下問何時

## 유성기



신기한 기계 유성기라 부르니  
 그 가운데 머문 소리 맑고도 밝아  
 노래하고 웃고 완연히 사람이 부르는 듯  
 놀란 마음 나도 모르게 귀 먼저 기울였네



奇神一器號留聲  
 聲自留中清且明  
 歌笑宛然人唱送  
 心驚不覺耳先傾

## 화로



분도 앙도 아니고<sup>1</sup> 또한 관冠도 없이  
 오두막집 저택 가는 곳마다 편안케 하니  
 어진 후손 아끼듯 사람들 스스로 끼고돌아  
 어머니 같이 따뜻해 나그네 추위 잊는다네  
 전신 중 입으로만 솥을 삼킬 수<sup>2</sup> 있으니  
 마음에 품은 조화 몇 번이나 연단<sup>3</sup>했는가  
 도척<sup>4</sup>을 좇으면서 사우<sup>5</sup>와 이웃되니  
 미희美姬와 재자才子들 모두 기뻐하리

- 1 분(盆)도 앙(盎)도 아니고 : 분과 앙은 질그릇의 하나로 꽃을 심는 화분 같은 그릇이다. 여기선 화로가 분과 앙 같은 그릇이나 그렇다고 앙과 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 2 솥을 삼킬 수 : 춘추 시대 진(晉)나라 예양(豫讓)은 자기를 국사로 대우했던 지백(智伯)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몸에 옷칠을 하여 문둥이가 되고 솥을 삼켜 병어리가 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기(史記)』 권86, 자객열전(刺客列傳).
- 3 연단(鍊丹) : 도교(道敎)에서 신선술(神仙術)을 수련하는 이들이 단사(丹砂) 등의 광물(鑛物)을 이용해 서 만든 약물인 단약(丹藥)을 만드는 일이다. 주자(朱子)는 “금속에 용과 범이 서려 있더니, 삼 년 만에 신선의 단약을 고았어라. (金鼎蟠龍虎 三年養神丹)” 라고 하였다. 『회암집(晦庵集)』 권4. 재거감흥(齋居感興).
- 4 도척(刀尺) : 바느질 할 때 사용하는 가위와 자를 가리킨다. 전의되어 바느질을 의미한다.
- 5 사우(四友) : 문방사우(文房四友)의 준말로 붓·먹·종이·버루를 가리킨다.

## 火爐

非盆非盎亦無冠  
 白屋朱門隨處安  
 愛若賢孫人自擁  
 煖同慈母客忘寒  
 全身唯口能吞炭  
 造化藏心幾鍊丹  
 刀尺相從隣四友  
 佳姬才子摠爲歡



## 등화<sup>1</sup>



머리에 명주 이고 옥으로 관 만들어  
 어두운 곳을 몰아내니 삶이 편안하고  
 등화는 바둑알 따라 한가로이 나부끼며<sup>2</sup>  
 그림자는 매화 넋 짝해 추위 견뎌내지  
 낮을 이은 정신에 초승달이 밝고  
 밤을 지새운 생각은 일편단심이네  
 신선의 음악을 들은 듯 정월 보름에  
 광릉산<sup>3</sup> 함께하며 밤새도록 기뻐네

- 1 등화(燈花) : 등불 혹은 등불 심지 끝에 맺힌 꽃 모양의 불뿔이다. 진(晉)나라 갈홍(葛洪)은 “눈을 깜빡거리면 술과 밥을 얻어먹고, 등불에 불뿔이 맺히면 돈과 재물이 생기고, 까치가 지저귀면 길 떠난 사람이 돌아오고, 거미가 모이면 모든 일이 잘된다. (目瞬得酒食 燈火華得錢財 乾鵲噪而行人至 蜘蛛集而百事喜)”라는 말이 보인다. 『서경잡기(西京雜記)』 권3.
- 2 바둑알·나부끼며 : 바둑알을 놓는 바둑걸에 따라 등불이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 3 광릉산(廣陵散) : 진(晉)의 혜강(嵇康)이 낙서(洛西)에서 놀 때 화양정(華陽亭)에서 자면서 거문고를 통기다가 뜻밖에 나타난 어느 객으로부터 전수받은 곡이 바로 광릉산이다. 그 뒤 혜강이 종회(鍾會)의 참소로 인하여 사마소(司馬昭)에게 죽으면서 형장(刑場)에서 그 곡을 마지막으로 연주하면서, “광릉산이 이제 끊어지게 되었구나. (廣陵散於今絕矣)” 하였다. 『진서(晉書)』 혜강전(嵇康傳).

## 燈花

頭戴明珠玉作冠  
携來暗處起居安  
花隨碁子間飄落  
影伴梅魂故耐寒  
繼晷精神新月白  
通宵意思寸心丹  
如聽仙樂上元又  
共向廣陵盡夜歡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요강<sup>1</sup>



질그릇과 녹쇠로 만든 요강이 최고인데  
사람의 행동거지에 앓는 곳이 편안해  
겉면은 둥글지만 성채星彩<sup>2</sup>를 누면  
중심으로 떨어지는 싸늘한 폭포 소리  
시인은 책상 아래 향목을 같이하고  
착한 머느리 베개 가에 모란을 대하지  
하루라도 요강이 없을 수가 없으니  
분주히 오줌 누면서 얼마나 기뻐던가

1 요강 : 방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으로 한자를 빌려 '溺江'으로 쓰기도 한다. 야호(夜壺)라고도 한다.  
2 성채(星彩) : 별의 광채라는 뜻으로 여기서 '소변(오줌)'으로 쓰인 듯하다.

灞江

陶金爲體亦爲冠  
 動止須人坐處安  
 外面團圓星彩射  
 中心漲落瀑聲寒  
 騷人床下隣香墨  
 佳婦枕邊對牧丹  
 不可無渠經一日  
 奔忙灞處幾多歡



중



새벽 종소리에 일어나 의관을 바로잡지만  
 온갖 생각 떠돌아 마음 편치 않아  
 배 안에 들리는 종소리 나그네 한이 서럽고<sup>1</sup>  
 밥 먹은 뒤 울려오는 종소리 가난을 닷하랴<sup>2</sup>  
 이유 없이 급속도로 온통 흰머리 되었고  
 의구한 존심양성存心養性은 일편단심이지  
 단지 지손들이 독실이 배우고자 함이 기쁘고  
 일찍 출발할 때를 알았으니 기쁨이 가득했네

1 배 안에...서럽고 : 백거이(白居易)의 비파행(琵琶行)에 “원화(元和) 10년에 내가 구강군 사마(九江郡司馬)로 좌천되어, 다음 해에 분포구(湓浦口)에서 손을 전송하는데, 배에서 밤에 비파 타는 소리가 나기에 한참 듣다가 그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본디 장안(長安)의 창녀로 일찍이 비파를 배웠고 젊은 시절에는 홍등가(紅燈街)에서 호화롭게 지내다가 늙어지자 어쩔 수 없이 장사꾼 아내가 되었는데, 이제 이 남편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이렇게 강호(江湖)를 떠돌아다닙니다.’ 하기에 느낌이 있어 비파행을 지어서 주었다.”고 한 데서 온 말로, 몹시 애처로움을 말한다. 『전당시(全唐詩)』 권435.

2 밥 먹은 뒤...닷하랴 : 당나라 왕파(王播)가 어릴 때 가난하여 양주(揚州) 혜소사(惠昭寺) 목란원(木蘭院)에서 밥을 얻어먹었는데, 승려들이 왕파를 싫어해 밥을 먹고 난 뒤에야 종을 치곤하였다. 그 뒤 20여 년이 지난 후 왕파가 이 지방 장관이 되어 그 절을 찾았더니, 지난날 자기가 벽에다 써 놓은 시를 벌써 푸른 비단으로 감싸 놓고 있었으므로, 그 시의 뒤에 “이십 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가, 오늘에야 푸른 길로 장식되었구나. (二十年來塵撲面 如今始得碧紗籠)”라고 써 넣은 고사가 있다. 『당척언(唐摭言)』 권7, 기자한고(起自寒苦)

## 鍾

聞鍾曉起整衣冠  
萬念徘徊不自安  
聲到船中憐客恨  
鳴來飯後愧公寒  
無端催髮千莖白  
依舊存心一片丹  
只喜兒孫能篤學  
知時早發滿顏歡



## 그림 병풍



병으로 침거한 지 열흘간 의관도 정리 못 하고  
그림 병풍 가려진 깊숙한 곳 몸 편안히 지냈지  
천 년 산다는 늙은 학은 푸른 소나무에 집 짓고  
한 폭 병풍엔 나방이 모란을 향해 나르고 있네  
산중에서 홀로 즐기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것은  
천하에 추위 겪는 사람 얼마인지도 모르는 것  
머리 염색하고 좋은 자연 경치 얻기를 본떠  
다만 꽃 피는 시기 기다려 객과 함께 즐기려네

## 畫屏

病蝨經旬不整冠  
畫屏深處此身安  
千年鶴老巢松碧  
一幅蛾飛向牧丹  
自愧山中惟獨樂  
不知天下幾人寒  
染毫模得林泉勝  
第待花辰共客歡

# 담뱃대



입 모양은 목처럼 굽었고 부리는 한 쪽으로 길어  
 금은으로 교묘하게 만들어 정교한 빛이 난다네  
 담뱃대는 제녀 사당 앞 대나무 수입한 것이고<sup>1</sup>  
 담배는 담과고<sup>2</sup>로 무덤가 향초를 가져온 것  
 한 번 흡입에 영약보다 좋다니 마음이 끌리고  
 온갖 시름 다 사라지니 신선의 세계라지  
 팔진<sup>3</sup> 맛있다 한들 담배를 먼저 끌어당기니  
 손님 대한 좋은 자리에도 손이 너무 분주해

# 烟竹

口圖項曲嘴偏長  
 巧鍊金銀精且光  
 竹輸帝女祠前品  
 草取淡婆塚上香  
 一吸堪憐勝靈藥  
 千愁消盡是仙鄉  
 八珍雖美先携爾  
 對客華筵手自忙

1 담뱃대는…것이고 : 담뱃대는 순(舜)이 죽은 후 제녀(帝女)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뿌린 눈물로 얼룩진 대나무인 소상반죽(瀟湘斑竹)을 갖고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소상반죽 이야기는 『술이기(述異記)』 참조.  
 2 담과고(淡婆姑) : 남쪽 오랑캐의 나라에 담과고(淡婆姑)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담질(痰疾)을 앓다가 남령초(南靈草)를 먹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름을 따서 남령초를 담과고(淡婆姑)라고 명명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임하필기(林下筆記)』 권13,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3 팔진(八珍) : 8가지 진귀한 음식으로, 용간(龍肝 용의 간) · 봉수(鳳髓 : 봉황의 골) · 토태(兔胎 : 토끼의 태) · 이미(鯉尾 : 잉어꼬리) · 약자(鵝炙 : 독수리 고기구이) · 웅장(熊掌 : 곰 발바닥) · 성순(猩脣 : 원숭이 혀바닥) · 표태(豹胎 : 뱀속에 있는 표범 새끼)를 가리킨다.



## 남초南草<sup>1</sup>



남초의 향기로운 이름은 백초의 음땀  
 흡입하면 만 가지 근심 일시에 편안해져  
 이 남초가 특별히 천국에서만 생산되었다니  
 신선들 연단<sup>2</sup>으로 번민할 필요 없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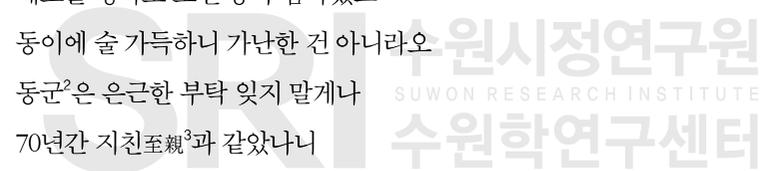
南草香名百草冠  
 吸來萬慮一時安  
 假如此特生天國  
 不必諸仙惱練丹

1 남초(南草) : 담배의 별칭으로 남미가 원산(原産)이다.  
 2 연단(練丹) : 도교(道敎)에서 신선술(神仙術)을 수련하는 이들이 단사(丹砂) 등의 광물(鑛物)을 이용해 서 약물인 단약(丹藥)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주자(朱子)는 “금술에 용과 범이 서려 있더니, 삼 년 만에 신선의 단약을 고았어라. (金鼎蟠龍虎 三年養神丹)” 라고 하였다. 『회암집(晦庵集)』 권4, 재거감흥(齋居感興).

## 입춘



길운 화풍이 바로 봄에 해당되니  
 봄이 오니 나날이 새로워짐이 행복해  
 병란 완전히 사라져 민심이 즐겁고  
 국가는 신비한 성덕에 부흥하리라  
 채소를 청사로 보낸 풍속 남아있고<sup>1</sup>  
 동이에 술 가득하니 가난한 건 아니랴오  
 동군<sup>2</sup>은 은근한 부탁 잊지 말게나  
 70년간 지친<sup>3</sup>과 같았나니



1 채소를…남아있고 : 두보의 시에 “입춘일 봄 쟁만 위엔 생채가 보드라우니, 장안과 낙양의 종던 시절 갑자기 생각나네. 부귀가에서 나온 쟁반에 백옥이 구르는 듯하고, 채소는 섬섬옥수로 푸른 실처럼 썬 나물을 보내 왔지. (春日春盤細生菜 忽憶兩京全盛時 盤出高門行白玉 菜傳纖手透青絲)”라 하였다. 『두소룡집(杜少陵集)』 권18, 입춘시(立春詩).  
 2 동군(東君) : 동군은 봄을 맡은 신 이름이다. 동제(東帝)·동황(東皇)·청황(靑皇)·청제(靑帝)라고도 한다.  
 3 지친(至親) : 가장 가까운 친족인 부모형제를 뜻한다.

## 立春

吉運和風正值春  
春來日日慶維新  
兵塵快掃民情樂  
家國將興聖德神  
菜送青絲遺有俗  
樽盈白酒不全貧  
東君莫負慇懃囑  
七十年間似至親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중춘<sup>1</sup>에 큰 눈



창문 열어 보니 산촌의 집은 사라졌고  
황홀한 신공은 순간의 꽃으로 피었네<sup>2</sup>  
가지에 어지러이 붙어 가볍게 춤추는 나비  
들빛을 가로질러 외롭게 나르는 까마귀  
춘심은 향그런 짝에서 꿈틀대는 것이 보이고  
하늘의 뜻은 흰머리 늘어가도록 재촉하지  
동풍은 밤 달에게 바람을 불어 보내어<sup>3</sup>  
염계로 향하던 노 그림자 멈추게 했네<sup>3</sup>

1 중춘(仲春) : 2월 봄날을 뜻한다.

2 황홀한...피었네 : 내린 눈이 나뭇가지에 잠시 맺혀 있는 모습을 말한다.

3 염계(剡溪)...했네 : 진(晉) 나라 왕휘지(王徽之)와 대규(戴逵)의 고사가 있는 개울 이름이다. 진(晉)나라 때 산음(山陰)에 살던 왕휘지가 설월(雪月)이 밝은 밤에 문득 섬계(剡溪)에 사는 친구 대규(戴逵)를 생각하고 배를 지어 찾아가서 새벽에 그 집 문 앞까지 갔다가는 다시 배를 돌렸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되돌아온 이유를 물은즉 “흥(興)을 타고 왔다가 흥이 다하매 돌아왔으니, 하필 안도(安道, 戴逵의 자)를 보아야 하느냐. (吾本乘興而行 興盡而返 何必見安道耶)” 하였다고 한다. 『진서(晉書)』 권80, 왕휘지전(王徽之傳).

仲春壯雪

推窓遙望失山家  
恍惚神功傾刻花  
亂着枝頭輕舞蝶  
橫分野色獨飛鴉  
春心已看香芽動  
天意應催鬢髮華  
東風吹送令宵月  
共向剡溪棹影斜



우연히 읊다 장단구 2수



나그네 평상에 의지하고  
봄은 집안 가득하다네  
사킴은 물같이 늘 담담하고  
졸음은 산처럼 점점 감미롭지  
날씨 따뜻해도 흰머리 없애지 못하지만  
질풍은 주수양<sup>1</sup>을 뽑아 버릴 것이네  
산은 적막한데  
바람 가볍게 불고  
구름 그림자 비단 깐 듯 이롭담고  
언덕 풍경은 꽃이 피려고 하네  
뜻 있어 거문고 안고 친구 이르리니<sup>2</sup>  
오늘 밤 달빛 읊으며 누구 집에 잠잘꼬

1 주수양(肘垂楊) : 주생류(肘生柳)와 같은 말인 듯하며 팔꿈치에 혹이 생겼다는 뜻이다. 여기서 생사나 질병 등 뜻밖의 변화를 비유한 것이다. 『장자(莊子)』 지락(至樂)에 “얼마 뒤 골개숙(潘介叔)의 왼쪽 팔에 버드나무 가지가 나왔다. (俄而柳生其左肘)”는 말이 있는데, 柳는 瘤의 假借字로 갑자기 변화함을 이른다.

2 뜻 있어...이르리니 : 이백(李白)의 시에 “두 사람이 대작할 때 산에는 꽃이 활짝 피고, 한 잔 한 잔 마시고 다시 한 잔을 더 마시네. 나는 취해 자려 하니 경은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 생각나면 거문고 안고 오게나. (兩人對酌山花開 一杯一杯復一杯 我醉欲眠卿且去 明朝有意抱琴來)”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태백집(李太白集)』 권23, 산중여유인대작(山中與幽人對酌).

偶吟 長短句 二首

客依榻  
春滿堂  
交若水常淡  
睡如山漸香  
日暖未消頭撒雪  
風皆風倘拔肘垂楊

山靜寂  
風輕斜  
雲影闌鋪錦  
岸容欲放花  
有意抱琴親友到  
今宵詠月宿誰家

해방초<sup>1</sup>



해방초 왕년에 이 샘 가에서 자라  
세 포기가 이른 봄에 꽃을 피웠지  
동서 전란으로 지리멸렬할 때  
천만 생령은 변방을 걱정했었네  
원자탄 투하로 일본이 항복하여  
우리 민족 해방되어 서광이 보였으나  
탄알만한 소국 남북으로 분열되어  
동족상쟁 다툼 정말로 놀라웠네  
신이 도운 부흥으로 효험 있어  
인심 단합에 어찌 연유가 없으랴  
집 태우고 구덩이에 자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 잃고 실종되었으니 정말 가련해라  
공교히 풍설 속에 흥년 만났으니  
누구에게 의지 하리! 옥황에게 읍소하고  
작년 겨울 이 샘에 또 해방초 자라  
물이 얼어도 봄빛이 완연했네  
아흠 포기 들쭉날쭉 꽃피고 결실 맺어

1 해방초 : 남미를 원산지로 하는 귀화식물로 일명 달맞이꽃이다. 광복 이후 전국적으로 퍼져 '해방초(解放草)'라고도 불렀다. 따가운 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7월 길가에 잘 자리는데, 해질 무렵에 진가를 발휘한다. 달맞이꽃은 한자로 '월견초(月見草)' 혹은 '야래향(夜來香)'이라고 쓴다.

놀라고 의아함 일시에 구전되니  
남녀들이 분주히 구름처럼 모여들고  
적막한 산촌이 거마로 연이었네  
돌아가기 전혀 잊기를 창천에 축수하니  
곱게 물든 석양에 푸른 연기 흩어지네

### 解放草

此草曾年生此泉  
三株花發早春天  
東西戰亂支離際  
千萬生靈憂慮邊  
原子投彈日邦伏  
濱民解放瑞徵先  
如丸小國分南北  
同族相爭誠駭然  
神祐復興縱有驗  
人心團合奈無緣  
燒家處穴且姑捨  
喪命失踪眞可憐  
巧值歉荒風雪裡  
憑誰泣訴玉皇前  
昨冬此井又生草  
水底戴冰春色全  
九本參差花或結  
一時驚訝口相傳  
奔忙士女雲屯聚  
寂寞山村車馬連  
暗祝蒼穹渾忘返  
斜陽明艷散青烟

## 뒤이어 권중철 형의 시를 차운함



꽃 피는 계절 늦은 봄 그늘 속에  
 수계<sup>1</sup> 선장<sup>2</sup>은 즐거운 뜻 깊어  
 명성 있는 친한 벗 몇 사람 도착했는가  
 병들어 머리 들고 구름숲을 바라보네

追次權兄重哲韻

養花天氣暝春陰  
 修禊仙庄樂意深  
 名下親朋幾人到  
 病餘翹首望雲林

1 수계(修禊) : 수계는 음력 3월 상사일(上巳日 3월의 첫 번째 사일<巳日>)에 제앙을 제거하기 위해 물가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2 선장(仙莊) : 선장(仙莊)이라고도 하며 상대방의 집을 뜻한다.

## 제비



검은 새 조잘조잘 삼월 삼진날  
 옛 주인 잊지 않으려 처마 앞에서 춤추고  
 추운 겨울 지나면서 마음이 상한 지 오래  
 따뜻한 봄 생애는 즐거운 일만 있으리  
 차진 흙으로 집수리 만족할 줄 알고<sup>1</sup>  
 손님께 전할 편지 묶으니<sup>2</sup> 정말 가련해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오히려 감정은 같아  
 해마다 동풍 불면 좋은 인연 만들지

1 차진…줄 알고 : 제비가 진흙을 물어와 전에 살던 집을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손님께…묶으니 : 한나라 무제(武帝) 때에 소무(蘇武)가 흉노에 사신 가서 19년 억류되었다가, 뒤에 흉노와 화친을 맺고 소무를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흉노의 선우(單于)는 소무가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한나라에서는 소무가 북해(北海) 지역에 억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흉노에게 “천자가 상림원(上林苑)에서 사냥을 하다가 기러기를 잡았는데, 기러기의 발목에 비단에 쓴 편지(帛書)가 매여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마침내 소무가 한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한서(漢書)』권54, 소무전(蘇武傳).

## 鷺

玄鳥喃喃上巳天  
不忘舊主舞檐前  
冬寒經歷傷神久  
春暖生涯樂事專  
修戶黏土知可足  
繫書傳客信堪憐  
未通言語情猶似  
歲歲東風作好緣

## 정원의 두견화



소나무 그늘 속에 두견화 한 그루  
누가 이 깊은 곳에 나비 보냈을까  
물아가 마음 같아 향이 싫지 않고  
집 서쪽 숲에서 시 읊고 날아 춤추듯

푸른 버들 깊은 곳 백묘당白茅堂에  
비 그치자 산들바람 산골의 해는 길어  
대지의 농사일이란 곡식 파종이 기쁘고  
숲속 꽃의 계절 향기 사라질까 걱정이네  
새해의 좋은 모임 약속한 듯 찾아와서  
옛 친구 심정 알아 바쁘지 않다면서 떠나고  
내일 아침이면 아득한 생이별 어쩔 수 없어  
청담에 촛불 돋우며 함께 술잔 들렀네

인천으로 가는 김구운을 보내면서

院中鵑花

鵑花一樹間松陰  
誰送蝶兒到此深  
物我情同香不厭  
浪吟飛舞屋西林

綠楊深處白茆堂  
雨歇風輕山日長  
大地農功欣播穀  
千林花事恐飄香  
新年雅會來如約  
故友知情去莫忙  
無奈明朝生遠別  
清談剪燭共飛觴

送金龜雲向仁川

전춘餞春<sup>1</sup>



전춘에 손님 보내느라 문 열고 나갔더니  
봄은 어느 곳 객은 어느 마을로 떠났는가  
정을 머금은 역의 버들은 노란 잎이요  
눈을 흐리는 풍화<sup>2</sup>는 대낮에도 어둡구나  
새벽 종소리에 이르지 못함 안타까워  
밤 촛불 잡고서 부질없이 닳고 있네  
봄이 오가는 것은 오히려 공도公道이거늘  
홀연히 오늘 행차 다시 논하지 말게나

1 전춘(餞春) : 화창한 봄이 가는 것을 서운하게 여겨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즐겁게 하루를 즐기는 풍속이다. 조선시대 전춘에는 선비나 묵객들은 시제를 내서 글을 짓고 서로 낭독하고 음영(吟詠)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뽐냈다.  
2 눈을 흐리는 풍화(風花) : 버드나무 꽃은 명주실 같은 털이 있어 한창 휘날리면 눈을 흐리게 한다.

餞春

送客餞春強出門  
春歸何處客何村  
含情驛柳黃金嫩  
迷眼風花白日昏  
未到曉鍾猶自惜  
更携夜燭謾消魂  
東君來去猶公道  
倏忽今行且莫論



## 상사<sup>1</sup> 上舍<sup>1</sup> 김성재 회방<sup>2</sup> 回榜<sup>2</sup> 겸 생일



사림에서 맹상<sup>3</sup>의 친구라 하지만  
일흔일곱 생일 아침에 과거급제 60년  
당년에 강한 뜻 해외에 노닐면서  
이 세상에 이름 숨기고 구름과 짝했네  
선불과 해로는 소문 듣지 못했지만  
지란 기쁨으로<sup>4</sup> 영원히 봄 보전하리  
계왕개래<sup>5</sup>로 수행할 일도 많아  
순수히 덕 좋아하고 건강해야 하리



- 
- 1 상사(上舍) : 진사(進士)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 2 회방(回榜) : 과거에 급제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 3 맹상 : 맹상군(孟嘗君), 중국 전국 시대의 정치가. 종횡가(縱橫家)의 세계관을 기조로 전국 칠웅 간에 외교가로 활약하였다. 진나라에서 제나라로 돌아갈 때 재치를 보여준 “계명구도(鷄鳴狗盜)의 고사는 유명하다. 『사기(史記)』 권75,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
  - 4 지란(芝蘭) 기쁨으로 : 『공자가어(孔子家語)』 육본(六本)에 “선인과 거처하는 것은 난초 향기 가득한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는 말이 보인다.
  - 5 계왕개래(繼往開來) : 선현(先賢)의 학통을 이어 후학(後學)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을 말한다.

金上舍誠齋圃榜兼生朝

士林咸道孟嘗親  
七七生朝圃榜人  
壯志當年遊海外  
韜名此世與雲隣  
未聞仙佛終偕老  
却喜芝蘭永葆春  
繼往開來多事業  
粹然好德健康身



## 피꼬리 소리를 듣다



매우<sup>1</sup>가 새롭게 갠 4월의 하늘

피꼬리 소리 새벽 창에서 처음 듣네

웃는 듯 말하는 듯 서로 하소연하는 듯

금방 갔다 금방 오니 인연이 있어서겠지

가는 곳마다 시인들은 늦도록 노래 부르고

어느 집 게으른 아낙 꿈속에서 먼저 놀라지<sup>2</sup>

보통 새는 류가 아닌 데서 항상 짝을 찾으니

책을 읽는 것보다 나아<sup>3</sup> 마음이 확 트이네

1 매우(梅雨): 매실이 노랗게 익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내리는 비를 가리킨다.

2 게으른...놀라지: 여름철에 가족들이 따뜻하게 지내도록 겨울 대비를 해야 하는 여인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가을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다는 것이다. 주희(朱熹)의 시에 “시름겨운 길손 꿈 쉽게 끊기고 게으른 아낙 놀라 마음 불안하네.(易斷愁人夢 難安懶婦驚)”라 하였는데, 그 주석에 “옛말에 귀뚜라미가 울면 게으른 아낙이 놀란다고 했다.” 하였다. 『회암집(晦菴集)』 권9, 의현보이충명추시(擬顯輔以蟲鳴秋詩).

3 책을 읽는 것보다 나아: 독서보다 대화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고시(古詩)가 있다. “그대와 함께 하룻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십 년 동안 독서한 것보다도 낫다.(共君一夜話 勝讀十年書)”는 고시가 있는데,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가 철저히 이치를 궁구하라는 뜻으로 인용한 바가 있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17, 주자(朱子) 14, 훈문인(訓門人) 5.

聞鶯

梅雨新晴四月天  
 鶯聲初出曉窓前  
 半啼半語與相訴  
 乍去年來倘有緣  
 到處詩人歌唱晚  
 誰家懶婦夢驚先  
 凡禽非類常求友  
 勝讀古書意豁然



호수가 우아한 모임 4월 5일



명호에 약속 있어 나그네 사립문 두드리러  
 하늘 맑고 산들바람 부는 한낮 속을 달렸지  
 방초 감싼 연무는 옛 나루터 헤매게 하고  
 눈 같은 떨어지는 꽃이 새 옷에 달라붙네  
 물고기 스스로 즐거워 물속에서 뛰어놀고<sup>1</sup>  
 한가한 백로는 정을 알아 뜻 같은 날개 펴려이지  
 취해서 춤추고 미치듯 노래한다고 비웃지 말게나  
 백발 서로 안타깝더니 돌아갈 길도 잊었구나

1 물고기...뛰어놀고 : 자연 속의 물고기와 새가 제자리를 얻어 생을 만끽하고 있음을 말한 것으로, 두보의 「추야(秋野)」에 “물 깊으니 고기는 지극히 즐거워하고, 숲 무성하니 새는 돌아올 줄 아네. (水深魚極樂, 林茂鳥知歸.)”라고 한 구절을 원용한 것으로, 본래 두보가 『회남자(淮南子)』 「설산훈(說山訓)」에서 “물이 고여야 물고기가 모이고 나무가 무성해야 새가 내려앉는다. (水積而魚聚, 木茂而鳥集.)”라고 한 것을 고사로 인용한 것이다.

湖上雅會 四月五日

名湖有約客叩扉  
天朗風輕趁午暉  
芳艸和煙迷古渡  
落花如雪着新衣  
遊魚自樂波心躍  
閒鷺知情檣角飛  
醉舞狂歌人莫笑  
相憐白髮却忘歸



## 가뭄을 민망히 여겨

방사<sup>1</sup> 우보가 기운을 불어넣으니 용이 떠오르는데 길이가 십수 장<sup>2</sup>이 되었다가, 다시 기운을 불어넣으니 쭈그러들어 수 촌<sup>3</sup>에 이르렀다. 병 속에 엮어 넣었는데 혹 4~5마리 용이 되었다. 적은 물로도 길렀는데 가뭄이 있는 곳에 용을 가져와 팔았더니 한 마리 용 값이 십수 근의 금값이었다. 병 속 한 마리 용을 꺼내어 못 가운데 넣고 우보가 기운을 불어넣으니 십수 장이 되었는데 잠깐 사이에 구름이 사방에서 모여 비가 내렸다.



하늘이 비바람 불면 안온하기 어렵지만  
비와 바람 순조로워<sup>2</sup> 만물이 흥향하지  
남쪽 지방 이름난 꽃도 의연히 분발하고  
서쪽 고을 농사에도 때 맞춰 밭 갈겠지  
이유 없는 한발에 타버림이 지독하거늘  
생령<sup>3</sup>의 굶주림 사정을 어찌 하리  
어떻게 용을 길러 기운 불어 넣는 기술로  
잠깐 사이 황하 기울인 듯 단비 쏟아졌으면

1 방사(方士) : 신선(神仙)의 술법(術法)을 닦은 사람을 뜻한다.  
2 비와 바람 순조로워 : 소식(蘇軾)의 시에 “비와 바람 순조로우면 풍년이 들 것이니, 백성은 추위와 굶주림 면하는 게 최고의 복일지라.(雨順風調百穀登 民不飢寒爲上瑞)”라는 구절이 있다. 『蘇東坡詩集』 권 39, 지탄(支嘆).  
3 생령(生靈) : 생물의 총칭.

## 憫旱

方士禹步吹氣 龍即浮出 長十數丈 更吹輒縮至數寸 綴取壺中 或有四五龍  
以小水養之 有旱處 便賁龍往賣 一龍直十數斤金 發壺中一龍 着潭中 禹步  
吹之長十數丈 須臾雲四集雨下

天行風雨亦難平  
雨順風和品物享  
南國名花依奮發  
西疇有事及時耕  
無端旱魃焦焚虐  
其奈生靈饑饉情  
那得養龍吹氣術  
須臾甘霖若河傾

## 단오



천중가절<sup>1</sup> 해는 더디고 더딘데  
정원 가득한 석류꽃 가장 요염할 때  
굴지는 어느 해 강물에 한을 던졌는가<sup>2</sup>  
전문의 이날 탄생했다는 것 기이하지<sup>3</sup>  
새벽에 목욕한 향탕 향기 그대로 남았고  
저녁에 잔질한 창포주 즐거움 절로 알지  
숲 사이 짧은 계집 2~3명이 짝을 지었으니  
그네 그림자 석양의 나뭇가지로 보이네

- 1 천중가절(天中佳節) : 단오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굴자(屈子)·던졌는가 : 굴지는 이소경(離騷經)을 지은 굴원(屈原)으로 학식이 뛰어나 초 회왕(懷王)의 좌도(左徒·左相)의 중책을 맡아, 내정·외교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함을 받아 궁정에서 쫓겨난 후 기원전 278년 벽리수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한다.
- 3 전문(田文)의·기이하지 : 전문은 맹상군(孟嘗君)으로 그의 출생은 정확하지 않아, 굴원이 벽리수에 몸을 던진 날에 맹상군이 태어났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맹상군은 중국 전국 시대의 정치가이다. 종횡가(縱橫家)의 세계관을 기초로 전국 칠웅 간에 외교가로 활약하였다. 진나라에서 제나라로 돌아갈 때 재치를 보여 준 “계명구도(鷄鳴狗盜)”의 고사는 유명하다. 『사기(史記)』 권75,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

端陽

天中佳節日遲遲  
滿院榴花濃艷時  
屈子何年投沒恨  
田文此日誕生奇  
蘭湯曉浴香猶在  
菖酒晚斟樂自知  
隔樹紅娥三兩伴  
秋千影出夕陽枝



## 5월 16일 감우가 적은 것이 한스러워

50일 가뭄 나머지



가뭄 뒤 비 내리니 풍년을 바라고  
보슬비 갑자기 끊긴 저녁 구름 가  
정원의 풀을 바라보니 갈수록 생기 도는데  
파초 창가 미세한 소리 편안히 잠들지 못했네  
처세는 토기 굴<sup>1</sup> 경영이 오히려 부끄럽고  
생애는 혜계<sup>2</sup>의 하늘<sup>2</sup>이 가소롭구나  
가동<sup>3</sup>은 물대고 늙은이 쪽정이 제거하며  
보리 삶는 집집마다 푸른 연기 흩어지네

1 토기 굴 : 토기가 위험한 상황을 감안하여 미리 세 개의 굴을 뚫어 놓는다는 교토삼굴(狡兔三窟)의 준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퇴로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전국책(戰國策)』 제책(齊策) 4.

2 혜계(醴鷄)의 하늘 : 혜계는 초파리로, 범위가 좁음을 말한다.

3 가동(家僮) : 집안 심부름을 맡아 하는 아이를 의미한다.

五月十六日甘雨恨小 五十日旱餘

雨滴旱餘望有年  
霏微忽斷暎雲邊  
卽看庭草添生色  
細聽窓蕉未穩眠  
處世還羞營兔窟  
生涯自笑醞鷄天  
家僮灌水翁除秕  
煮麥家家散翠烟



## 김성재, 양재한(호 학포) 방문



소요객 자유로우니 백운은 깊어  
자네의 시 소리는 땅에 던진 쇠소리<sup>1</sup>  
서로 보고 벽안 여는 것 어찌 늦는가<sup>2</sup>  
청담으로 단심<sup>3</sup> 비추는 것 금방이지  
번잡한 세상사 아침저녁으로 다르고  
수려한 산빛은 고금이 같은데  
피꼬리도 우의의 중요성을 알아  
진정으로 서로 부르며 다시 찾는다네



- 1 땅에 던진 쇠소리 : 잘 지은 시문을 말함. 진(簞)나라 손작(孫織)이 시문을 잘했는데, 일찍이 천태산부(天台山賦)를 지어 범영기(范榮期)에게 보이면서 “그대는 이것을 땅에 던져 보라. 웅당 금석 소리가 날 것이다. (卿試擲地 當作金石聲)”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진서(晉書)』 권56, 손작전(孫織傳)
- 2 벽안(碧眼)…늦은가 : 푸른 눈은 중국인들이 서역이나 북방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승려를 지칭한다. 여기서 저자를 방문한 김성재 양재한 두 사람이 속마음을 터놓고 빨리 이야기하라는 의미로 한 말이다.
- 3 단심(丹心) : 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뜻한다.

金誠齋梁在漢(号鶴圃)來訪

逍遙客自白雲深  
聞子詩聲擲地金  
相見何遲開碧眼  
清談未幾照丹心  
繽紛世事異朝夕  
秀麗山光同古今  
黃鳥亦知友誼重  
盡情相喚復相尋



## 난을 만난 후 벗 윤종대의 방문



산 고요하고 밤 깊어 태초 같아라  
고인과의 대화는 고인의 책을 보는 것  
난 향기 집안에 가득하니 마음이 합쳐져  
대나무 기운 침상에 달그림자는 성기네  
서울 병란 아직 평정이 안 되었는데  
산동山東의 친우 근황은 어떠한지  
추풍에 짝하여 장공張公이 떠나니  
면 송강의 순채국과 농어회 회상하노라

1 추풍에...회상하노라: 진(晉)의 장한(張翰)이 고향의 명물 순채국과 농어회가 먹고 싶어 사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장한전에 의하면 장한이 가을바람이 부는 것을 보자 오중(吳中)의 순채국과 농어회가 생각나서 말하기를 "인생살이는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귀한 법인데, 어찌 벼슬에 얽매어서 수천 리 밖을 떠돌면서 명예와 관작을 노리겠는가.(人生貴得適意 何能羈宦數千里以要名爵乎)하고는, 드디어 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진서(晉書)』 권92, 문원열전(文苑列傳) 장한전(張翰傳).

遭亂後尹友鍾大見訪

山靜夜闌似太初  
故人對話故人書  
蘭香滿室心期合  
竹氣侵床月影疎  
洛北兵塵猶未定  
山東親友近何如  
秋風欲伴張公去  
遙憶松江蓴與魚



## 한가한 가운데 즉흥시



산골 기운 짐통더위 비 오려 하는데  
바람을 쐬러 문 여니 온다는 객은 늦고  
늪은 박 들판의 집에 달처럼 매달렸는데  
새 잎 돌아나는 파초 창엔 시 쓸 만하겠지  
그대만이 인정을 알아 사귀는 도리 있거늘  
세상에 왜 이권 좇는 어리석은 사람 많은지  
천석<sup>1</sup>에 거하니 명산<sup>2</sup>이 이곳인데  
꺾아 세운 듯 연꽃은 온통 기이하구나

낭랑하게 고서 읽으니 세상 근심 사라지고  
뽕과 삼 재배하는 고요한 순박한 마을 풍속  
누가 도성에서 꽃 구경하는 나그네 마음 알리  
곧 청산에서 약초 캐는 늪은이 될 것이네  
남쪽 들판 아욱 꺾으니 별미가 많고  
동쪽 울타리 국화 재배로 농공을 대신하지  
시사에 관여하는 것이 좋은 계책이 아니니

1 천석(泉石) : 천석고황(泉石膏肓)의 준말이다. 산수(山水)에 중독되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자연의 승경(勝景)에 대한 혹독한 애착심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전유암(田游巖)이 당 고종(唐高宗)에게 “신은 물과 바위에 대한 병이 이미 고향에 들고 연무(煙霧)와 노을에 고질병이 들었는데, 성상의 시대를 만나 다행히 소요하고 있습니다. (臣泉石膏肓煙霞癩疾 既逢聖代 幸得逍遙)”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구당서(舊唐書)』 권192, 전유암전(田游巖傳).

아침에 취하고 저녁에 읊기를 그대와 함께하리

間中卽事

峽氣蒸炎欲雨時  
 納涼出戶客來遲  
 老匏野屋如懸月  
 新葉窓蕉可抄詩  
 君獨知情交有道  
 人何逐利世多痴  
 占居泉石明山是  
 削立芙蓉面奇  
 浪讀古書世慮空  
 桑麻村靜有淳風  
 誰知紫陌看花客  
 便作青山採藥翁  
 南畝折葵多別味  
 東籬栽菊代農工  
 不關時事爲良策  
 朝醉暮吟與子同

칠석



오작교는 아득한데 어느 물가에 있는가  
 견우직녀 만나는 이날 저녁은 그만 쉬어라  
 조각달 떠오르니 안개와 구름 개이고  
 오동잎 하나가 천하의 가을을 알려 주네  
 촉랍<sup>1</sup>도 때로는 눈물 떨어뜨리니  
 금계<sup>2</sup>는 서광 비춘다 알리지 말아라  
 상해<sup>3</sup>도 자주 읊겨 견우 멀리 막혔으니  
 이런 사정 옥경루<sup>4</sup>에 하소연하려네

- 1 촉랍(蠟蠟) : 촛불을 켜는 밀랍을 뜻한다.
- 2 금계(金鷄) : 금계(金鷄)는 본디 천상에 산다는 금계성(金鷄星)의 닭을 가리킨다. 전설에 의하면, 이 닭이 천상에서 새벽을 알리면 지상의 모든 닭들이 그 소리에 응하여 다 같이 운다고 한 데서, 전하여 수탉을 가리킨다. 한유(韓愈)의 시에 "한밤중에 금계가 꼬끼오 하고 울어 대더니, 태양이 금방 솟아올라 나 그네 마음 놀랐네. (夜半金鷄啾啾鳴 火輪飛出客心驚)"라고 하였다. 『한창리집(韓昌黎集)』권3, 도원도(桃源圖).
- 3 상해(桑海) : 상해는 부상(扶桑)의 바다라는 말로, 동해(東海)를 가리킨다. 부상은 동해 속의 신목(神木)으로, 해가 뜰 때 이 나뭇가지를 떨치고서 솟구쳐 올라온다고 한다. 또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訓)」에 "해는 양곡에서 떠올라 함지에서 목욕한다. (日出於暘谷 浴於咸池)"라는 말이 나온다.
- 4 옥경루(玉京樓) : 신선이 사는 누대이다.

## 七夕

鵲橋渺漠在河洲  
牛女相逢此夕休  
半輪月上烟雲霽  
一葉梧飛天地秋  
燭蠟時從珠淚滴  
金鷄莫報曙光流  
桑海屢遷郎隔遠  
此情欲訴玉京樓



## 고 기수技手 오기영(호 초운) 사촌동생 노제路祭의 축문



유세차 임진(1952년) 7월 초하루 무술일 24일 신유에 종형 화은華隱은 고 기수技手 초운樵雲 동생에게 고하나이다. 아아! 슬프고 원통하다. 군의 천성은 지혜롭고 민첩해 부모를 효로 섬기고 동기간에 우애가 있어 집안을 극진히 다스렸다. 정리情理와 예禮는 어버이 병환으로 인해 의학을 공부해 약을 올리고 시탕侍湯함에 천수天壽가 지났고 장례와 제의를 한결 같이 정성과 효로서 하였고, 경제는 청렴하고 검소함을 업으로 삼은 지 10년을 헤아린다. 치료가 어려운 증세도 여러 번 소생시켜 서울과 지방 원근에서 양의良醫라고 칭찬하였고 친척에 이르러서도 친소親疏 없이 무료로 시약하여 모두 감탄하였다. 가운家運이 불행하여 작년에는 장자가 미리 죽는 변을 당하고,<sup>1</sup> 또 전란을 당해 심신이 모두 상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 되어 10일 정도 고통을 호소하다가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믿기 어려운 것은 하늘이라<sup>2</sup> 차자次子是 나이가 젊고 어린 손자는 건강하지 못하니 가시는 장차 어떻게 처리하며 더욱 이루어놓은 공덕도 다 떠나 버렸다. 나도 병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기志氣가 서로 합쳐 한 가지 일 한 번 움직임에도 서로 붙잡고 의논하여 친형제와 다름이 없었다. 어찌 생각했으랴! 오늘 그대는 먼저 떠나고 나는 뒤에 남아 갑자기 이런 변을 당해 마음이 찢어지고 정신이 꺾여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조출하게 제수를 진열하

1 장자 배근(培根, 1919-1950)은 철도국 역장을 역임하였는데, 1950년 12월 5일(음) 사망하였다.

2 믿기 어려운 것은 하늘이라 : 『서경(書經)』 함유일덕(咸有一德)에 보면 “아, 믿기 어려운 것은 하늘이요, 무상한 것은 명이다.(嗚呼 天難諶 命靡常)”라는 말이 나온다.

고 예를 다해 곡하면서 그대를 보내노라.

영靈이 혹 계신다면 이르기를 바라노라. 아! 슬프다! 상향尙饗.<sup>3</sup>

故技手琪泳(号樵雲)從君遣奠祭祝

維歲次壬辰七月戊戌朔二十四日辛酉 從兄華隱 告于

故技手樵雲從君 嗚呼痛哉 君之天性慧敏 孝友事親 齊家克盡 情禮因親 患工醫學 進藥侍湯 以經天年 喪葬祭儀 一是誠孝 以經濟清儉 清廉爲業 數十年 難治之症 多數回甦 京鄉遠近 咸稱良醫 至於親戚 勿論親疎 無料施藥 俱爲感歎 家運不幸 昨年遭長子逆理之變 又值戰亂 心神俱傷 以成無何之病 近旬餘 叫苦 奄忽仙化 難諶者天 次子年小 釋孫不健 來頭家事將何處理 尤功痛迫 維我病從 粵自幼年 志氣相合 一事一動 相持相議 無異於親兄弟 豈意今者 君先我後 奄當此變 心裂神催 罔知所措 畧陳遺禮 一哭送君 靈或有知 庶乎來格 嗚呼哀哉尙饗

8월 보름달 5언 율시



아름다운 계절 중추 저녁  
하늘 맑고 한 점 티끌 없어  
일 년 중 오늘 중추 달밤에  
자리 가득한 고향 사람들  
어찌 구름 사다리 사용해 달을 따서  
들은 것 같은 새로운 음악 연주하리  
갈림길에 뒷날 약속 물어서  
국화꽃 필 때를 기다리리



당唐 태화太和(827~835)연간에 주생周生이란 술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이 르기를 “내가 구름 사다리를 타고 달을 따서 소매에 넣을 수 있소.”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노끈 수백 가닥을 취해 멩에를 하고 떠나더니 갑자기 소매 속의 달을 꺼내어 손에 들었는데 달은 한 치 정도로 색이 찬란하고 한기가 뼈에 스 밀 정도였다.<sup>1</sup>

당唐 현종玄宗이 8월 보름밤에 도사 섭법선乘法善과 같이 월궁月宮에서 놀 때 달 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듣고, 현종이 곡명을 물으니 “자운곡紫雲曲이라 합 니다.” 하였다. 현종은 평소에 음률을 깨달아 그 소리를 기록하고 돌아와 그

3 상향(尙饗): “비록 차린 제물은 적지만 받으십시오.”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1 당 태화 연간에 술사 주생이 달을 따다는 이야기는, 『고금사문류취(古今事文類聚)』前集 卷11, 제운취월 조(樵雲取月條)에 보인다.

음악을 명명하기를 “에상우의곡”이라 하였다.

仲秋月 五律

佳節仲秋夕  
天晴絕點塵  
一年今夜月  
滿座故鄉人  
焉用梯雲取  
如聞奏樂新  
臨岐問後約  
留待黃花辰

唐大和年 周生有術 仲秋玩月 謂客曰 我能梯雲取月 置懷袂 取繩數百條 駕之而去 俄而手舉懷中出月 月寸餘 光色照爛 寒氣入肥骨。

唐玄宗八月望夜 與葉法善 同遊月宮 聆月中奏樂 上問曲名曰 紫雲曲 玄宗素曉音律 默記其聲 歸傳其音 名之曰 霓裳羽衣曲

# 중양절에



명산明山은 옛 용산龍山 못지않아  
경물景物 풍류는 이곳보다 더 좋지  
모자 떨어뜨린 사람 호기를 발동하고<sup>1</sup>  
머리에 수유 꽃은<sup>2</sup> 오늘 우정이 새롭구나  
귀여워라 국화는 춘색을 남겼지만  
부끄러운 것은 백발에 옛 얼굴 상함이네  
기러기 우는 소리 사람 그림자 흩어지고  
집집마다 노인 모시고 달빛 속으로 돌아오네

1 모자…발동하고: 진(晉)나라 맹가(孟嘉)가 9월 9일 중양절에 정서장군(征西將軍) 환온(桓溫)이 베푼 용산(龍山)의 주연(酒宴)에 참군(參軍)의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국화주에 취한 나머지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서 측간에 가자, 환온이 그에게 알려 주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눈짓을 하고는 손성(孫盛)에게 희롱하는 글을 짓게 하였는데, 맹가가 돌아와서 그 글을 보고는 곧장 멋지게 대응하는 글을 지어서 좌중을 경탄하게 했던 용산낙모(龍山落帽)의 고사가 있다. 『진서(晉書)』 권98, 맹가전(孟嘉傳).

2 머리에 수유(茱萸) 꽃은: 왕유(王維)가 17세에 중양절을 맞아 객지에서 산둥(山東)의 형제를 그리며 지은 시에, “홀로 타향에 있어 나그네 되니, 명절 만날 적마다 부모 생각 갑절 나네. 멀리서도 형제들 높은 곳에 오른 것 아나니, 모두 수유 꽃았는데 한 사람 없는 것을.(獨在異鄉爲異客 每逢佳節倍思親 遙知兄弟登高處 遍插茱萸少一人)”이라고 하였다. 『전당시(全唐詩)』 권128, 구월구일억산동형제(九月九日憶山東兄弟).

## 重陽

明山不下古龍山  
景物風流勝此間  
落帽何人豪氣發  
插萸今日友情新  
黃花憐爾留春色  
白髮羞吾減舊顏  
鳴雁聲來人影散  
家家扶老月中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또 절구



윤주潤州 학림사鶴林寺에 두견화가 피었다. 주보周寶가 절서浙西를 진무鎭撫할 적에 도인 은칠칠殿七七에게 말하기를 “학림사 두견화를 다시 볼 수 있겠는가?” 하였다니, 은칠칠이 말하기를 “앞서 약속했던 여인이 와서 오늘 천도의 뜻이 있어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였는데, 과연 중앙절이 되자 두견화가 난만하게 피었다.<sup>1</sup>

중앙절 이날 손님이 다시 찾아와  
단풍 국화 핀 신정에서 몇 잔 들었지  
문노니 두견화는 오늘도 피겠지  
학림사는 요원해 돌아오는 사람 없구나

1 윤주 학림사에…난만하게 피었다 : 이 이야기는 『고금사문류취(古今事文類聚)』 전집(前集) 권11, 개두견화조(開杜鵑花條)에 보인다.

又絶

潤州鶴林寺有杜鵑花 周寶鎮浙西 渭道人殷七七曰 鶴林寺鵑花 可復重見乎 曰  
可 乃期前往之有女子來 謂 今爲有道志開花 至九日爛熳

重陽此日客重來  
楓菊新亭數舉杯  
借問鵑花今亦發  
鶴林遙遠無人回



## 중양절 후 2일 김성재를 만나서



국화꽃 애석한지 나그네 발길 더디고  
땅에 가득한 화려한 꽃 바로 이때지  
청향 술에 띄우니 정말로 사랑스러워  
오상고절傲霜孤節<sup>1</sup> 그 누가 알아주리  
이슬 머금은 약한 가지 깨끗한 빛 더 보태고  
단풍 뚫고 나온 탐스런 꽃송이 더욱 신기해  
하늘은 중양절 빌려주고 사람은 비를 재촉하니  
거문고 곡조 맞으니 종자기<sup>2</sup>를 만나리

1 오상고절(傲霜孤節) : 서릿발이 심한 추위 속에서도 굽하지 않고 홀로 꽃꽂하다는 뜻으로 충신 또는 국화를 말한다.  
2 종자기(鍾子期) : 백아(伯牙)와 종자기 이야기이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초(楚)나라 사람이다. 종자기는 백아(伯牙)가 타는 거문고를 들으면 그의 심정을 그대로 잘 파악하였는데, 종자기가 죽은 후에는 거문고 타는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열자(列子)』 탕문(湯問).

重陽後二日金誠齋見逢

黃花爲惜客來遲  
滿地繁華定此時  
泛酒清香誠可愛  
傲霜高節有誰知  
弱枝擎露光添潔  
豔朶穿楓品更奇  
天借重陽人奮雨  
琴心相許遇鐘期



## 김종한(호 구운)의 방문

둘째 형은 의학에 독실해 현재 인천부에서 약국 설치



만년에 시은<sup>1</sup>하며 신농<sup>2</sup>을 배워  
온갖 풀 맛보면서 채취해 짚었지  
만남을 얼마나 구로<sup>3</sup>에게 알렸는가  
시명은 소삼봉<sup>4</sup>에 못지않았네  
군사든 약이든 재주는 오직 하나  
문무 다 능해 취업이 두 개 가능했지  
월도<sup>5</sup>의 풍광은 옛날 같든가  
눈 속에 노 저어 쫓고자 했네<sup>6</sup>



- 1 시은(市隱) : 세상을 피하여 시중(市中)에서 숨어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진(晉) 나라 왕강거(王康珣)의 반초은(反招隱) 시에, “소은은 산림 속에 숨고, 대은은 조시에 숨나니, 백이는 수양산으로 도망갔고, 노담은 주하사(柱下史)에 은복하였네. (小隱隱陵藪 大隱隱朝市 伯夷竄首陽 老聃伏柱史)”라고 하였다. 『고금사문류취(古今事文類聚)』 前集 권33.
- 2 신농(神農) : 신농씨(神農氏)로 중국 전설상의 제왕이다. 농사법, 의료, 교역 등을 민중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 3 구로(九老) : 구로는 당(唐) 나라 백거이(白居易)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여덟 명과 낙양(洛陽)에서 결성한 구로회(九老會)라는 시사(詩社)이다. 그 구성원은 백거이를 비롯하여 호고(胡果)·길교(吉皎)·유진(劉眞)·정거(鄭瓛)·노정(盧貞)·장훈(張渾)·이원상(李元爽)과 승려 여만(如滿)이다.
- 4 소삼봉(蘇三峰) : 소삼봉은 소씨(蘇氏)네 여러 형제들 가운데 세 번째 봉우리인 소식(蘇岾)을 말한다.
- 5 월도(月島)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鰲川面) 효자도리(孝子島里)에 딸린 섬이다.
- 6 눈 속에…쫓고자 했네 : 진(晉)나라 왕위지(王徽之)가 눈 밝은 밤에 친구 대규(戴逵)를 생각하고 배를 저어 그 집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배를 돌렸다는 고사이다. 『진서(晉書)』 권80, 왕위지(王徽之)傳.

金鐘邯(號龜雲)見訪 次兄篤於醫學 現設局於仁川府

暮年市隱學神農  
百草嘗來採且春  
會事幾多白九老  
詩名不下蘇三峰  
用兵用藥才惟一  
能武能文就可雙  
月島風光依舊否  
雪中扁棹擬過從



## 자탄



서생의 만년 계책은 농업에 의탁하는 것  
아이는 나무하고 아낙네는 방아 찧는다네  
따뜻한 술 국화 향기에 의자를 내려놓고<sup>1</sup>  
찬 하늘 낙엽지고 달은 산봉우리로 떠오르네  
사귀는 정은 한결같은 빙심氷心<sup>2</sup> 어렵지만  
공도는 오직 흰 귀밑머리 될 때까지 지키는 것  
세상에는 영웅 드물고 병란은 오래가니  
어느 날 용이 구름 헤치고 치솟는 것 보리

1 의자를 내려놓고 : 손님에 대한 예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후한(後漢) 때 진번(陳蕃)이 서치(徐穉)를 위하여 특별히 의자를 준비한 데서 비롯한 말이다. 『후한서(後漢書)』 권53, 서치열전(徐穉列傳).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사람이 걸출함은 땅이 영수하기 때문이니 서유가 진번의 걸상을 내려놓게 했다. (人傑地靈 徐孺下陳蕃之榻)”라고 하였다.  
2 빙심(氷心) :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뜻한다.

自嘆

書生晚計托於農  
兒或樵山婦且春  
酒暖菊香人下榻  
天寒木落月升峰  
交情難得水心一  
公道惟存雪鬢雙  
世罕英雄兵亂久  
龍興何日見雲從



## 홍재화(호 화산) 격조<sup>1</sup>한 나머지 혼자 방문



하늘 기연 빌려 나그네 동에서 오매  
청담으로 붉은 등잔 심지 돋우었지  
웃고 우는 것으로 염량세태 안정 어렵지만  
지기<sup>2</sup>志氣는 아직 소장의 풍모 남아 있네  
낙엽 지는 찬 소리 발 밖에서 들려오고  
국화꽃 남은 술은 항아리에 남아 있어  
나란히 함께 명산 집에서 비녀장 던지니<sup>2</sup>  
흡사 상안사호<sup>3</sup>商顔四皓 늙은이 같구려

- 
- 1 격조(隔阻) : 오랫동안 소식이 막혔다는 의미이다.
  - 2 비녀장 던지니 : 한(漢)나라 진준(陳遵)이 술을 좋아해서 주연을 크게 벌이면, 손님들이 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들의 수레바퀴에서 비녀장을 빼내어 우물 속에 던졌다는 고사가 전한다. 『전한서(前漢書)』 권92, 진준전(陳遵傳).
  - 3 상안사호(商顔四皓) : 상산사호(商山四皓)라고도 한다. 상안(商顔)은 사람의 얼굴 형태와 비슷한 모양의 상산(商山)이라는 뜻으로 보통 상산(商山)의 별칭으로 사용한다. 진(秦)나라 말기에 폭정(暴政)을 피해 상산(商山)에 숨어 살았던 네 명의 노인을 말하는데, 후세에 나이도 많고 덕도 높은 은사(隱士)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상산사호는 동원공(東園公) · 하황공(夏黃公) · 녹리선생(角里先生) · 기리계(綺里季)이다.

洪在華(號華山)隔阻餘專訪

天借奇緣客自東  
清談挑盡一燈紅  
笑啼難定炎涼世  
志氣猶存少壯風  
落木寒聲來箔外  
黃花餘瀝在樽中  
聯衿投轄明山屋  
恰似商顏四皓翁



# 서상룡 선대인<sup>1</sup> 영가 앞에 통곡재배하며 쓴 만사(수 96세)



공의 집안은 대대로 어버이에 효도하고  
효도 우애의 가풍은 먼 지역에도 미쳐서  
중생 구제 신비한 방술 사람들 칭송하니  
집안에 가득한 화기 사철이 봄이로세  
남극노인성<sup>2</sup>은 화려한 자취 감추고  
서방의 부처님처럼 다시 이승을 떠났구려  
나그네 보내는 만사 나 홀로 하례하노니  
훨훨 학을 타고 진짜 신선의 짝이 되었네

1 선대인 :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컫는 말이다.  
2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 : 노인성(老人星)이라고도 하는데, 장수를 상징하므로 수성(壽星)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96세에 죽은 서상룡의 아버지의 영가를 지칭한다.

再拜哭挽徐相龍先大人靈輻前(壽九十六歲)

公家世世孝其親  
孝友家風遠及人  
濟衆神方千口頌  
滿堂和氣四時春  
老星南極因藏彩  
胡佛西方更幻身  
客送哀辭余獨賀  
翩然駕鶴伴仙眞



## 소한에 조난당한 유민을 탄식하며



오늘 밤 소한에 몇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을까  
대궐 같은 집으로도 구제 어려워 마음이 불편해  
난을 만나고 흉년을 당해도 하소할 곳이 없으니  
집 태우고 목숨 잃으니 누구와 같이 기뻐하리  
묘당<sup>1</sup>의 기원은 백성과 같이 즐기지는 것이고  
칠실<sup>2</sup>이 자주 비어 먼 나그네 탄식하게 되니  
하늘 원리는 분명해 봄 또 이르리니  
당우<sup>3</sup>의 일월을 잘 보게 되리라

1 묘당(廟堂) : 제왕의 조상을 모신 사당으로 조정 또는 묘우(廟宇)을 일컫는다.  
2 칠실(柒室) : 칠실(漆室)이라고도 한다.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읍(邑) 이름이다. 노나라 목공(穆公) 때에 임금이 늙고 태자가 어려서 국사(國事)가 매우 위태로웠다. 칠실(漆室)에 사는 어떤 소녀가 기둥에 기대어 휘파람을 불며, 나라와 백성들을 근심하였다고 한다. 후에 칠실(漆室)로 국사(國事)에 관심을 갖는 전고(典故)로 사용하게 되었다. 『열녀전(列女傳)』 권3, 칠실녀(漆室女).  
3 당우(唐虞) : 도당(陶唐, 요임금)과 유우(有虞, 순임금) 또는 그 시대를 뜻한다. 즉 태평성대를 말한다.

小寒嘆遭亂流民

小寒今夜幾人寒  
黃厦難求意未寬  
遭亂當凶無處訴  
燒家喪命與誰歡  
廟堂惟祝同民樂  
柒室空多遠客歎  
天理昭然春又到  
唐處日月善將看



## 출정 군인에게 주다



남북전쟁<sup>1</sup> 이미 여러 해  
사슴이 증원으로 달리는데<sup>2</sup> 누가 먼저 취할까  
탄환 던져 사람 헤치는 것 장기 있으니  
용병의 기이한 전술 고서에 전했다  
초나라 장수 불인으로 경륜에도 패했고<sup>3</sup>  
분양<sup>4</sup>은 다복해 공업이 온전했지  
중군 자체 안심하고 떠나가니  
다른 날 개선가 수없이 외치리라



- 1 남북전쟁(南北戰爭) : 한국전쟁을 말한다.
- 2 사슴이...달리는데 :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당(唐)나라 서유공(徐有功)에게 시어사(侍御史)의 벼슬이 내려지자 그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사슴이 산림으로 달아나지만 목숨은 푸줏간에 달려있다고 하니,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鹿走山林而命懸庖厨, 勢使之然也.)"라고 하였다. 『신당서(新唐書)』 권113, 서유공열전(徐有功列傳).
- 3 초나라...패했고 : 초장(楚將) 요치(淖齒)가 민왕을 죽이자, 제(齊) 나라 민왕(湣王)을 섬기고 있던 왕손가(王孫賈)는 나와 함께 요치를 치고자 하는 사람은 우단(右袒)하라고 외치면서 동조자 4백 명을 얻어 그를 토벌하였다. 『전국책(戰國策)』 권13.
- 4 분양(汾陽) : 괘분양(郭汾陽). 당(唐)나라 때 명장인 분양왕(汾陽王) 괘자의(郭子儀)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였으며, 자손이 많아 아들 8명과 사위 7명이 모두 조정의 고관이었으며, 손자는 수십 명이 었다. 그리하여 그 집안에서만 조정에 나온 벼슬아치가 6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구당서(舊唐書)』 권120, 괘자의열전(郭子儀列傳).

贈出征軍人

戰爭南北已多年  
鹿走中原誰得先  
投彈傷人長技在  
用兵奇術古書傳  
不仁楚將經綸敗  
多福汾陽勳業全  
從軍子弟安心去  
凱旋他日大呼千



계사년(1953년) 신춘에  
서울에 살고 있는 최영식이  
처음 방문하자 같이 읊다



노년의 이 모임 새해가 된 것 기쁘고  
나는 화남에 그대는 한강변에 살았지  
세상을 구제할 경륜에 논리가 있거니  
사람 놀랄 시국걱정에 잠들 수 없었네  
초화<sup>1</sup>에 따뜻한 술 향기 남아 있고  
도부<sup>2</sup>에 썰렁한 봄 하늘 가득한 눈  
한 번 보고 마음 주고 답소 나누는 곳  
도서 쌓인 책상엔 향연 피어오르네

가랑비 내리는 산창 만나절은 음지  
동풍에 해동되니 구름 숲 깨끗하지  
하늘이 화기 만드니 꽃은 피려하고  
나 신시 있으니 새는 예쁘게 우네  
소주로 환영하니 지금 세상 즐겁고  
푸른 봄날 짝 지어서<sup>3</sup> 고인 찾았지  
지금의 일과 염량세대는 말하지 말라

1 초화(椒花) : 산초나무 꽃으로 신년을 축하할 때 자주 쓰인다.  
2 도부(桃符) : 도부는 두 개의 복숭아나무 판자에다 신도(神荼)와 울루(鬱壘)의 두 귀신 이름을 써서 만든 부적으로, 사기(邪氣)를 막을 목적으로 정초에 이것을 문간에 걸어 두었다. 『설부(說郛)』 권12, 울루(鬱壘).  
3 푸른 봄날 짝 지어서 : 두보(杜甫)의 시에 "백발에 노래 부르면서 술을 좇다가, 푸른 봄날 짝 지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白首放歌須縱酒 青春作伴好還鄉)"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두소릉시집(杜少陵詩集)』 권11, 문관군수하남하북(聞官軍收河南河北).

거문고로 지기 만나<sup>4</sup> 이 정이 깊었네  
위는 성재와 같이 읊다

癸巳新春京居崔英植初訪共吟

老年此會喜新年  
我居華南君漢邊  
濟世經綸能有理  
驚人時語却無眠  
椒花酒暖香有瀝  
桃符春寒雪滿天  
一見許心談笑地  
圖書堆案又篆烟  
微雨山窓半日陰  
東風解凍淨雲林  
天生和氣花將發  
我有新詩鳥倩吟  
白酒歡迎今世樂  
青春作伴故人尋  
時事炎涼君莫說  
琴逢知己此情深  
右與誠齋吟

4 거문고로 지기 만나 : 백아(伯牙)와 종자기(鍾子期) 이야기이다. 종자기는 백아가 타는 거문고를 들으면 그의 심정을 그대로 잘 파악하였는데, 백아는 종자기가 죽은 후에 거문고 타는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다시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열자(列子)』, 탕문(湯問).

## 이 참봉 호 송담 선생에게 재배하고 곡하며 지은 만사



들었네, 옥경대<sup>1</sup>에서  
신선들 모여 큰 잔치 연다는 것  
얼마나 많이 학 타고 도착했고  
또 바람 타고<sup>2</sup> 돌아왔는가  
장로<sup>3</sup>는 붉은 만장<sup>4</sup>으로 떠났고  
후생은 백발로 돌아왔다지  
이것이 공연한 구별이 아니니  
해질녘에 술잔 들고 슬펐네

- 1 옥경대(玉鏡臺) : 결혼을 뜻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온교(溫嶠)가 유총(劉聰)을 정벌하고 얻은 물건으로 상처한 뒤 재혼하면서 옥경대(玉鏡臺)를 예물로 삼았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 가홀(假誦).
- 2 바람 타고 : 신선처럼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달라는 말이다. 열자(列子)가 "바람을 품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가볍하게 보름 동안쯤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땅 위로 내려오곤 하였다. (御風而行 冷然善也 旬有五日而後反)"는 말이 나온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
- 3 장로(長老) : 노인이나 승려에 대한 존칭으로, 여기서 송담 선생을 지칭한다.
- 4 만장(輓章) : 죽음을 애도하는 시이다.

再拜哭輓李參奉号松潭先生

聞道玉京臺  
集仙大宴開  
幾多乘鶴到  
又有御風回  
長老丹旌去  
後生白髮來  
此非等閒別  
落日悵含盃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임진년(1952) 그믐



오늘 밤 수세<sup>1</sup>로 만감이 새로워  
어느 새 74세 늙은이  
전쟁 속의 자제는 관심도 크지만  
강호의 친한 벗 꿈속에서 자주 보이네  
늦도록 푸른 계곡의 소나무는 절개 있고  
피려는 언덕 버드나무는 봄맞이에 기쁘지  
따뜻한 도소주로 그대와 같이 취했는데  
새벽에 우는 닭 소리 사방 이웃을 둘러싸네

1 수세(守歲): 설날 그믐날 밤에 잠가지 않으며 새해를 맞는 풍습을 가리킨다.

壬辰除夕

守歲今宵百感新  
居然七十四年人  
風塵子弟關心大  
湖海親朋入夢頻  
晚翠澗松能有節  
將舒岸柳喜迎春  
屠蘇酒煖同君醉  
唱曉鷄聲繞四隣



## 계사년(1953년) 정월 초하루



계사년 춘왕정월 삼원<sup>1</sup>에  
물씬 풍기는 화기는 처음 집안에서 나오니  
어른께 인사하는 미풍으로 마을이 시끄럽고  
의례를 우선으로 자손들을 가르치네  
성벽은 타고 나온지라 천석을 사랑했나니  
늙어 가면서 은혜와 정의는 체원<sup>2</sup>이고  
나라 편안과 풍년을 다 같이 축하하니  
만좌한 좋은 손님에 술은 독에 가득하네

차가운 하늘 아득한데 기러기 소리 싸늘하고  
오랫동안 앓은 산창에 억지로 마음을 풀지  
밝은 달 다정도 해 손님 맞이해 이르니  
매화 향기 약속이나 한 듯 사람들 기쁘게 해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청춘은 가버리고  
백발이 가련해 벽안<sup>3</sup>을 바라보지

1 춘왕정월(春王正月) 삼원(三元) : 『춘추(春秋)』 은공(隱公) 원년 첫머리에 “원년 춘왕정월(元年春王正月)”이라고 한 연대표기 방식과 관련하여, 『공양전(公羊傳)』에서 “왜 왕정월이라고 했는가. 크게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이다. (何言乎王正月 大一統也)”라고 한 말에서 나온 것이다. 삼원은 정월 초하룻날, 해 달 낱의 처음이라는 뜻.  
2 체원(楝園) : 은혜와 정의는 형제가 가꾸어야 할 동산과 같다는 말이다.  
3 벽안(碧眼) : 벽안은 푸른 눈의 달마대사(達摩大師)를 벽안호승(碧眼胡僧)이라 호칭한 데서 온 말로, 훗날 고승(高僧)을 뜻하는 말로 주로 쓰였다.

동자야 양력 설날을 의아하게 여기지 말아라  
친한 벗 없는 것 이것이 정말로 탄식거리라네

癸巳元朝

春王正月日三元  
和氣氤氳始出門  
拜長美風喧閭里  
爲先儀禮訓兒孫  
生來性癖唯泉石  
老去恩情是棣園  
國泰年豐因共祝  
佳賓滿座酒盈樽

凍天漠漠雁聲寒  
坐久山窓強自寬  
明月有情迎客到  
香梅如約向人權  
黃金未贖青春去  
白髮相憐碧眼看  
童子莫詫陽歲首  
親朋無幾是誠嘆

## 보라리<sup>1</sup> 친구 김선식 수연을 축하하며



이 봄에 그대 집의 수주<sup>2</sup> 잔  
오늘따라 어버이 생각 배로 나졌지  
훈지<sup>3</sup> 편안한 연주에 무궁한 즐거움  
금슬이 조화로우니 몸이 늙지 않는다지  
백 그루 지란은 큰 복을 받은 것이고  
한 구역의 천석은 심신을 기르는 것이지  
평지 신선<sup>4</sup>의 거처 오늘 처음 보았으니  
등덩굴 달 술바람에 속진을 벗어났구나

1 보라리(甫羅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2 수주(壽酒) : 축수(祝壽)하는 술이다.

3 훈지(塤箎) : 훈지(塤箎)라고도 한다. 형제 혹은 친구 사이의 화목과 조화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으로, “만형은 훈을 불고 둘째형은 지를 분다.(伯氏吹塤 仲氏吹箎)”는 말이 있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

賀甫羅里金友善植壽宴

壽酒君家爲此春  
知應今日倍思親  
埴篴佚奏無窮樂  
琴瑟相和不老身  
百本芝蘭膺慶福  
一區泉石養心神  
仙居平地今初見  
蘿月松風迥絕塵



낙화를 애석히 여겨



가지 위에 아름다운 꽃이 꽃 아래 사람  
태어나면서 단지 기쁨은 청춘을 가지는 것  
꽃도 십일홍이 없고 피었다 떨어지는 법  
백 년도 못 사는 인생 웃고 찌푸리고 하노라  
꽃은 그래도 뒷기약 있어 스스로 떨어지지만  
인간은 다시 젊기 어려워 정신만 헤치누나  
사람이 늙음을 쫓아버리고 꽃처럼 오래 산다면  
꽃 속에서 같이 자면서 나비와 친해질 텐데

惜落花

枝上花芳花下人  
生來只喜得青春  
花無十日開還落  
人不百年笑且嘖  
花有後期應自落  
人難更少謾傷神  
人能却老花長在  
共宿花間蛺蝶親

## 만춘에 우연히 읊다



제비 춤추고 벌 노래하는 대낮은 길어  
 고인은 날 위해 뗏집을 방문했지  
 화려한 봄빛은 모든 나무 꽃을 피우고  
 끈끈하게 엷힌 시정은 술이 여러 잔  
 고기 없는 식사에 이 세상 한탄하지만  
 환상적인 나비 꿈은 길고 이 몸은 감미로워  
 가문 뒤 큰 비 내리니 하늘은 왜 인색했던가  
 응당 남은 단풍 비바람에 상할까 두려워

### 晩春偶吟

鷺舞蜂歌白日長  
 故人爲我訪茆堂  
 繁華春色花千樹  
 纏綿詩情酒幾觴  
 食乃無魚今世歎  
 夢多幻蝶此身香  
 早餘甘霖天何靳  
 應怕殘紅風雨傷

## 전춘<sup>1</sup>



동황<sup>2</sup>이 수레를 재촉하니 무정한 듯  
 봄 전송 등산으로 마음이 편치 않아  
 만송이 이름난 꽃 고은 자태 감추었고  
 모든 숲에 우는 새 시름소리 어지럽네  
 끝없이 우거진 초록빛은 왕손초<sup>3</sup>요  
 시야가 끊긴 몽미장점은 옥제성<sup>4</sup>일세  
 오늘 밤 촛불 잡고 머물기를 약속했으니  
 남은 단풍 기다리듯 밝게 빛나네

- 1 전춘(錢春) : 화창한 봄이 가는 것을 서운하게 여겨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즐겁게 하루를 즐기는 풍속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전춘에는 선비나 묵객들은 시제를 내서 글을 짓고 서로 낭독하고 음영(吟詠)하면 서 자신의 기량을 뽐냈다.
- 2 동황(東皇) : 봄을 관장하는 천신(天神)의 이름이다.
- 3 왕손초(王孫草) : 왕손의 풀이라는 의미인데, 먼 곳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사모하는 고사다. 한(漢)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초사(楚辭)』의 초은사(招隱士)에서 "왕손은 유람길 떠나 돌아오지 않건만, 봄풀은 싹이 돌아나니 무성하구나. (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 4 시야가...옥제성(玉帝城) : 몽미장점(夢迷莊蝶)은 장주(莊周)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깬 뒤에, 장주가 나비가 되었는지 또는 나비가 장주가 되었는지 판단하기에 애썼다는 고사로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옥제성은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성(城)이다. 장주(莊周)의 나비 꿈은 옥황상제가 머무는 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의 시야를 벗어난 곳에서 성사된 것이란 의미로 파악된다.

餞春

東皇促駕似無情  
爲餞登山意不平  
萬朵名花藏艷態  
千林啼鳥動愁聲  
眼窮萋綠王孫草  
望斷迷莊玉帝城  
留約今宵同秉燭  
殘紅如待向人明



## 단오 다음 날 김성재 방문



빛소리 파초 잎은 낮 바람에 필적이고  
보이나니 신선해 경물을 감상하노라  
붉은 앵도 소반에 담겨 나오니 별미요  
누른 보리 풍년이라 농가는 즐거워라  
시 짓는 근심 없애려면 술이 최고요  
그림의 뜻 살펴보려면 꽃을 보아야지  
추권대척<sup>1</sup> 병아리는 나무 위에서 울고  
붉은 성류 처음 피자 그림자 어지러워

사방 들관 푸른 벼 일색으로 평평해  
삼농<sup>2</sup>의 풍족도 다시 분명해지리라  
남쪽 들관 아욱 꺾으니 정말로 진미고  
서쪽 이웃 보리 쪼으니 사람들 기뻐라  
전란에 승부 따져 무슨 관계있으리오  
청유<sup>3</sup>清遊에 맑고 개임 따질 필요 없지

1 추권대척(麤拳大踢) :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유학을 진흥시키려고 힘썼다는 말이다. 주희(朱熹)가 진량(陳亮)에게 준 편지에, “공자가 어찌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정성스럽지 않았으며, 맹자가 어찌 기린 주먹을 휘두르고 크게 발길질하지 않았겠는가. (孔子豈不是至公至誠 孟子豈不是麤拳大踢)”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회암집(晦庵集)』 권28, 답진동부서(答陳同夫書). 여기서 병아리의 무모한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2 삼농(三農) : 평지·산·천택(川澤)의 농사를 말한다.

백성들 굶어죽은 시체 없는 것 소원이요  
산새 포곡<sup>3</sup>의 소리 듣는 것이 기뻐라

端陽翌日金誠齋見訪

雨聲蕉葉午風斜  
觸目新鮮感物華  
盤進紫櫻知別味  
場登黃麥樂田家  
詩愁欲破無如酒  
畫意看來縱是花  
拳大鷄兒鳴上樹  
紅榴初發影參差  
四野秧青一色平  
三農豐足更分明  
折葵南畝當珍味  
春麥西隣悅衆情  
戰亂何關多勝負  
清遊不必較陰晴  
民無餓殍惟吾願  
喜聽山禽布穀聲

3 포곡(布穀) : 포곡은 벼꾸기의 별칭이다. 봄철에 우는 소리가 '씨앗을 뿌려라(布穀)'라고 재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 진주에 사는 하은용(호 국사)에게 주다



백수로 다시 찾으니 정이 가장 두터워  
그대의 지기 부러워 군평<sup>1</sup>을 배우고  
지음을 상대는 산과 바다로 평가하지<sup>2</sup>  
대은은 원래 시성<sup>3</sup>에 있는 법이라네  
영고성쇠 운수는 힘으로 다투기 어렵지만  
시례 전가<sup>4</sup> 명성은 계승할 수 있다지  
노쇠하고 영락한 나의 삶 무엇이 좋은지  
숲 아래 독서가 장래의 분명한 약속이랴오

1 군평(君平) : 전한(前漢) 시대 엄준(嚴遵)의 자(字)이다. 촉(蜀) 땅에 은거하여 성도(成都)의 저자에서 점치는 일로 살면서 늘 충효와 신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였고, 하루에 100전을 벌면 가게의 문을 닫고 주렴을 내린 채 저술에 몰두했다고 한다. 『한서(漢書)』 권72, 왕공양공포전(王貢兩龔鮑傳).  
2 지음(知音)을…평가하지 : 거문고의 명인인 백아(伯牙)와 친구인 종자기(鍾子期) 사이에 있던 말이다. 거문고의 명인(名人)인 백아(伯牙)가 고산(高山)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그의 지음(知音)인 종자가 “종구나, 아아(峨峨)하여 태산(泰山)과 같도다.” 하였고, 유수(流水)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종구나, 양양(洋洋)하여 강하(江河)와 같도다.”라고 하였다. 『열자(列子)』 탕문(湯問).  
3 대은(大隱)은 원래 시성(市城) : 진(晉) 나라 왕강기(王康珣)의 반초은(反招隱) 시에, “소은은 산림 속에 숨고, 대은은 조시에 숨나니, 백이는 수양산으로 도망갔고, 노담은 주하사(柱下史)에 은복하였네. (小隱隱陵藪 大隱隱朝市 伯夷窟首陽 老聃伏柱史)”라고 하였다. 『고금사문류취(古今事文類聚)』 前集 권33.  
4 시례(詩禮) 전가(傳家) : 시례지훈(詩禮之訓)이 있는 오랜 집안으로 자식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다. 백어(伯魚)가 아버지 공자로부터 시와 예를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부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논어(論語)』 계씨(季氏), “한 번은 혼자 서 계실 때, 제가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지나는데 ‘시(詩)를 배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길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러 나와 시를 배웠습니다. 다른 날 또 혼자서 계실 때에 제가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지나갔는데 ‘예(禮)를 배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예를 배우지 않으면 남 앞에 나설 길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러나와 예를 배웠습니다(鯉趨而過庭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禮 他日又獨立 鯉趨而過庭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

贈晉州居河殷熔(號菊史)

白首重尋最有情  
羨君志氣學君平  
知音相對評山海  
大隱元來在市城  
榮枯關數難爭力  
詩禮傳家克繼聲  
淪落吾生何所樂  
讀書林下約分明



## 복이 지난 후 성재 내방



찌는 듯한 더위 겨우 지나자 저녁연기  
복이 지난 우중에 처음 갈옷 갈아입고  
맑은 바람 같은 기쁘네 친구 찾아오니  
담수 같은 사귄 세상에선 찾기 힘들다오  
처마에 가린 제비 새끼 먹여 주는 것으로 살고  
나무 가득 우는 매미 황혼녘이 아름다워  
한 잔 술도 사양하지 않으니 하삭음<sup>1</sup>이라  
아이 시켜 투할<sup>2</sup>이라 바빠 돌아가지 말게나

1 하삭음(河朔飲) : 무더운 여름철에 피서한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술자리라는 뜻이다. 후한(後漢) 말에 유송(劉松)이 원소(袁紹)의 자제와 하삭(河朔)에서 삼복(三伏) 무렵에 술자리를 벌이고 밤낮으로 정신 없이 마셔댄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초학기(初學記)』 세시부(歲時部) 상(上), 하피서음(夏避暑飲).  
2 투할(投轄) : 서한(西漢) 때 진준(陳遵)이라는 사람이 술을 좋아해 손님이 수레 타고 오면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수레바퀴 굴대를 뽑아 우물에 던진 데서 유래한 말이다. 『전한서(前漢書)』 권92, 진준전(陳遵傳).

過伏後誠齋來訪

蒸炎纔追曠煙飛  
經伏雨中始葛衣  
歡若清風親友至  
交如淡水世情稀  
隔簷乳鷺營新哺  
滿樹鳴蟬美夕暉  
盃酒不辭河朔飲  
教童投轄莫忙歸



칠석에 성재 형이 또 방문



견우직녀 아름다운 약속 이날 저녁이 다가와  
쌍부채 들고 배회하니 기쁨이 얼굴에 번져  
견우직녀 정분을 다 퍼려면 잠잘 시간 없거나  
금계<sup>1</sup>로 하여금 새벽빛을 재촉하지 말게나

七夕誠齋兄又訪

牛女佳期此夕來  
徘徊雙扇喜顏開  
兩情欲訴眠無暇  
莫使金鷄曉色催



1 금계(金鷄) : 금계(金鷄)는 본디 천상에 산다는 금계성(金鷄星)의 닭을 가리킨다. 전설에 의하면, 이 닭이 천상에서 새벽을 알리면 지상의 모든 닭들이 그 소리에 응하여 다 같이 운다고 한 데서, 전하여 수탉을 가리킨다. 한유(韓愈)의 시에 “한밤중에 금계가 꼬끼오 하고 울어 대더니, 태양이 금방 솟아올라 나 그네 마음 놀랐네. (夜半金鷄啾嘶鳴 火輪飛出客心驚)”라고 하였다. 『한창려집(韓昌黎集)』권3, 도원도(桃源圖).

또



견우는 직녀 품고 은하수 건너왔는데  
 그대는 무슨 마음으로 나를 방문했는가  
 맑은 하늘 쇄복<sup>1</sup>으로 여흥이 일어나  
 한 병 술 차고 짧은 지팡이 재촉하네

又

牛郎懷女渡河來  
 君獨何心訪我回  
 曬腹晴天餘興發  
 一壺酒短筇催

1 쇄복(曬腹): 쇄복은 햇볕에 배를 쬐는 것을 이른다. 진(晉) 나라 때 학룡(郝隆)이 7월 7석에 남들은 모두 의물(衣物)을 꺼내서 햇볕에 쬐는데 그는 햇볕에 배를 내놓고 누워 있으므로, 누가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내 배속에 들어 있는 서책들을 볕에 쬐고 있다.”고 한 고사에서 온 말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 배조(排調).

## 삼종<sup>1</sup>(인영) 수연壽宴 축하

용인 수여리에 거주



만년 임천 계획은 진성 기르려는 것  
 한 몸 강건하고 장중함 청년 같아라  
 공명의 노선도 무관한 나그네라  
 효도와 우애 가정에 복 받은 사람이네  
 청아한 보배 거문고 은의도 무겁고  
 영롱한 채색 옷 춤<sup>2</sup> 서광이 새롭지  
 편지 늦어 정담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세세토록 이 잔치 송축 자주 있으리

1 삼종(三從): 삼종형제로 고조할아버지가 같은 8촌 형제를 말한다.  
 2 채색 옷 춤: 채색 옷을 입고 추는 춤이다. 곧 늙은 부모를 위로하는 일을 미화하여 이르는 말이다. 고대(古代)에 노래자(老萊子)라는 효자가 나이 70에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모양으로 노친 앞에서 재롱을 부려, 노친으로 하여금 나이 든 것을 잊게 하였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반의지희(斑衣之戲). 『몽구(蒙求)』 下 노래반의(老萊斑衣).

賀三從(寅泳)壽席 居龍仁水餘里

晚計林泉養性眞  
一身康壯似青春  
功名路線無關客  
孝友家庭有福人  
清雅瑤絃恩義重  
玲瓏彩舞瑞光新  
書遲未克參情話  
世世此筵頌祝頻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스스로 만사를 짓다



세월은 유수라 70년이 지나 버려  
영고성쇠 고해를 자연에 맡기니  
칼 차고 종군했던 일 꿈결 같고  
시작에 풍월 읊으니 맑은 인연이네  
전쟁 속의 자질<sup>1</sup> 언제 만나려나  
백발이 된 형제는 저 하늘만 믿지  
자손은 장성하지 못하고 난 늙은이<sup>2</sup>  
주국酒國에 이름 감춘 신선이라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자질(子姪): 아들 조카의 통칭이다.

2 늙은이: 용로(隆老)의 번역으로 칠팔십 세 이상 되는 노인을 뜻한다.

自輓

光陰若水過稀年  
 苦海榮枯任自然  
 珮釵從軍如夢事  
 歌詩詠月即清緣  
 兵塵子姪逢何日  
 鶴髮弟兄信彼天  
 兒孫未壯吾隆老  
 酒國藏名便是仙



# 김성재가 눈 내리는 중 찾아옴

양력 1월



백옥 같은 강산이 잠깐 사이 만들어져  
 창문 여니 평탄한 것이 흡사 달 흔적인 듯  
 섬계의 친한 벗 조각배로 이르렀는데<sup>1</sup>  
 파교 위로 어떤 사람이 필마로 가는군<sup>2</sup>  
 백엽주<sup>3</sup> 술 향아리는 새해 맞는 기쁨이고  
 매화꽃 깊숙한 집에선 글 읽는 소리일세  
 천사와 인사 부질없이 늙음을 재촉하지만  
 만년에 서로 어울리니 정이 배가 되는구나

1 섬계(剡溪)···이르렀는데 : 진(晉)나라 때 산음(山陰)에 살던 왕휘지가 설월(雪月)이 밝은 밤에 문득 섬계(剡溪)에 사는 친구 대규(戴逵)를 생각하고 배를 저어 찾아가서 새벽에 그 집 문 앞까지 갔다가는 다 시 배를 돌렸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되돌아온 이유를 물은즉 “흥(興)을 타고 왔다가 흥이 다하매 돌아왔으니, 하필 안도(安道, 戴逵의 자)를 보아야 하느냐. (吾本乘興而行 興盡而返 何必見安道耶)” 하였다고 한다. 『진서(晉書)』 권80, 왕휘지(王徽之傳).

2 파교(灞橋)···가는군 : 당(唐)나라 정경(鄭綰)이 “시상(詩想)이란 원래 눈이 내리는 날 파교 위를 나귀 타고 지나갈 때 일어나는 법이다. (詩思在灞橋雪中驢子上)”라고 말했다는 고사가 있다. 『북몽쇄언(北夢瑣言)』 권7. 파교는 섬서성 서안시 파수(灞水)에 놓인 다리로, 한대(漢代)에 사람을 전송할 때 이 다리에서 버들을 꺾어 주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3 백엽주(柏葉酒) : 설날에 어른에게 세배를 드리며 사기(邪氣)를 쫓기 위해 가족들이 둘러가며 마시던 술이다.

金誠齋來訪雪中 陽歲初

白玉江山頃刻成  
推窓疑似月痕平  
剡中親友扁舟到  
灞上何人匹馬行  
栢葉香樽迎歲樂  
梅花深屋讀書聲  
天時人事空催老  
曠境相隨倍有情



## 눈 속의 대화를 읊다



고매화 긴 한 가지에 꽃을 피워  
봄빛이 가장 먼저 우리 집에 왔지  
흠사 옥인이 깨끗한 형세를 다투듯  
설월을 시로 폼평하기 가장 바쁠 때  
맑은 향기 합쳐지니 지초 난초 냄새요  
가객 때 맞춰 오니 봉필<sup>1</sup>이 빛나지  
매화를 아내 삼고자<sup>2</sup> 물어보니  
말없이 연전<sup>3</sup> 앞에 미소 머금었네



- 1 봉필(蓬華) : 봉필생휘(蓬華生輝)의 준말로 누추한 집을 빛나게 한다는 의미이다. 손님이 찾아오거나 서화 따위를 걸었을 때 감사의 뜻으로 하는 말이다.
- 2 매화를…삼고자 : 송(宋) 나라의 은자(隱者) 임포(林逋)가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초막을 짓고 20년 동안 출입하지 않은 채 매화를 가꾸고 학을 기르면서 독신으로 살았으므로 당시에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았다.(梅妻鶴子)'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송사(宋史)』 권457, 임포전(林逋傳).
- 3 연전(硯田) : 문인들이 생활을 위하여 글을 쓸 때, 벼루를 농사짓는 논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당경(唐庚)의 시에 "연전에는 흉년이 없고, 주국엔 봄만이 있네(硯田無惡歲 酒國有長春)"라 하였다. 『미산시집(眉山詩集)』 권4, 차박두(次泊頭).

詠雪中梅

古梅花發一枝長  
春色最先入我堂  
疑似玉人態勢淨  
更宜雪月品題忙  
清香亶合芝蘭臭  
佳客適來蓬華光  
用汝爲妻今試問  
無言含笑硯田陽



송당 엄명섭의 만사挽詞



삼 대의 친함이 말년까지 같이했나니  
시사에서 만날 때마다 기쁨은 배가 되고  
아취를 한가히 기르고 바위 아래 살면서  
성인 사모 깊은 정성 묘당으로 달려갔네  
매화 탐방 약속에 흰 눈이 내리더니  
홀연히 학 타고 푸른 하늘로 떠나갔지  
한 집에서 정을 같이한 그대 가버렸으니  
서글피 남쪽 구름 바라보니 눈물이 앞서네

挽松堂嚴明燮

三世相親俱曠年  
每逢詩社倍欣然  
養閒雅趣居岩下  
慕聖深誠趨廟前  
有約訪梅來白雪  
忽聞駕鶴上青天  
情同一室君今去  
悵望南雲涕淚先

# 섣달 그믐날 우스개로 지은 시

6언 고시



문노니 섣달 그믐이 어떤 저녁인가  
 새벽 종소리 한 번 신년을 알리니  
 온갖 재앙 눈과 함께 사라지고  
 만복이 햇볕 따라 깊이 얽혀지리  
 남북이 합쳐져 풍진이 안정되고  
 상하가 화합해서 심성이 어질고  
 국가 편안하고 백성들 즐거워  
 세월 풍년 들어 황천은 축복하리  
 다만 나아가 술잔을 서로 권하니  
 아이는 즐겁고 어른은 잠들지 못해  
 온갖 감정에 소상같이 앓았으니  
 등불 꺼지고 닭 소리 들려오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戲題除夕 六言古詩

借問除夕何夕  
 曉鐘一到新年  
 千殃與雪消散  
 萬福隨陽纏綿  
 南北合風塵定  
 上下和心性賢  
 家國安黎民樂  
 歲且豐祝皇天  
 第爲進盃相勸  
 兒欣添齒不眠  
 百感生坐如塑  
 燈花落鷄聲傳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갑오년(1954) 상원<sup>1</sup>



청천에 떠 있는 달 어느 때 찾아오리  
 가장 사랑하는 상원이 오늘 밤에 찾아왔네  
 안개 기운 쾌청하고 둥근 달 두둥실 떠올라  
 광명이 크게 비추어 만방이 다 열렸구나  
 광릉산<sup>2</sup> 멀어도 그 음악 듣는 듯하고  
 산음 고을에 누구 있어 함께 술 마시리<sup>3</sup>  
 화기 넘친 인정 가장 원만하니  
 풍검<sup>4</sup>을 증험하기 위해 누대에 올랐네

甲午上元

青天有月幾時來  
 最愛上元今夜圓  
 氛靄快晴一輪轉  
 光明大放萬邦開  
 廣陵雖遠如聽樂  
 陰郡有誰共飲盃  
 和悅人情圓且滿  
 驗看豐儉又登臺

1 상원(上元) : 음력 정월 보름날이다.  
 2 광릉산(廣陵散) : 진(晉)의 혜강(嵇康)이 낙서(洛西)에서 놀 때 화양정(華陽亭)에서 자면서 거문고를 튕기다가 뜻밖에 나타난 어느 객으로부터 전수받은 곡이 바로 광릉산이다. 그 뒤 혜강이 종회(鍾會)의 참소로 인하여 사마소(司馬昭)에게 죽으면서 형장(刑場)에서 그 곡을 마지막으로 연주하면서, “광릉산이 이제 끊어지게 되었구나. (廣陵散於今絕矣)” 하였다. 『진서(晉書)』 혜강전(嵇康傳).  
 3 산음(山陰)·마시리 : 진(晉)나라 때 산음(山陰)에 살던 왕휘지(王徽之) 고사이다. 진(晉)나라 때 산음(山陰)에 살던 왕휘지가 설월(雪月)이 밝은 밤에 문득 섬계(剡溪)에 사는 친구 대규(戴逵)를 생각하고 배를 저어 찾아가서 새벽에 그 집 문 앞까지 갔다가는 다시 배를 돌렸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되돌아온 이유를 물은즉 “흥(興)을 타고 왔다가 흥이 다하매 돌아왔으니, 하필 안도(安道, 戴逵의 자)를 보아야 하느냐. (吾本乘興而行 興盡而返 何必見安道耶)” 하였다고 한다. 『진서(晉書)』 권80, 왕휘지(王徽之)傳.  
 4 풍검(豐儉) : 풍성함과 검박함을 뜻한다.



## 상사(上巳)<sup>1</sup>에 우연히 읊다



삼짇날 지금 하늘이 봄기운 더딘데  
서로 생각하며 바라보는 친지 얼마일가  
지리한 눈바람에 머문다는 약속 어렵고  
적막한 창가에 시작 폐한 지 오래되었지  
제비는 삼삼이 모여 아름다운 절기 노래하고  
꽃은 하나하나 지난해 가지에서 피었구나  
이름난 동산 도착한 곳이 초청받은 곳이라  
백수에 천진스런 흥취 이 또한 기이하네

## 上巳偶吟

上巳今天春色遲  
相思相望幾親知  
支離風雪難留約  
寂寞軒窓久廢詩  
鶯語三三佳節日  
花開一一去年枝  
名園到處招邀地  
白首清狂此亦奇

1 상사(上巳): 삼짇날로, 음력 3월 3일이다.

희제戲題<sup>1</sup> 7언 절구



인정의 후박은 금전 때문이고  
꽃 소식은 풍우 속에 오갔지  
어찌 봄도 재물도 머물게 하여  
명승지 주유하면서 가난을 구휼하리

戲題 七絶  
SRI 수원시정연구원  
SUI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人情厚薄金錢上  
花事往來風雨中  
安得留春兼有財  
周遊名勝又調窮

1 희제(戲題): 장난삼아 지은 시이다.

또 오언 절구



일백 세 사는 사람 없지만  
봄은 만 년 봄이 있다네  
몰래 동군<sup>1</sup>에게 부탁하노니  
같이 노닐면서 영원히 친하세

又 五絶  
SRI 수원시정연구원  
SUI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人無百歲人  
春有萬年春  
暗向東君囑  
從遊永世親

1 동군(東君): 봄을 관장 하는 신(神)이다. 동제(東帝)·동황(東皇)·청황(靑皇)·청제(靑帝)라고도 한다.

## 또

오언 율시 맥우<sup>1</sup>가 기뻐서



시골집 저녁 초대 모임에  
 동풍에 술은 잔에 가득하고  
 명화는 태양 향해 피었는데  
 단비는 때를 알아 내렸어라  
 물소리 들으려 지팡이 의지하고  
 맑은 바람 좋아해 대臺에 올랐지  
 거친 들판엔 보리기운 일렁이고  
 서로 손뼉 치고 얼굴 활짝 폈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又 五律 喜麥雨

田舍晚招會  
 東風酒滿杯  
 名花向陽發  
 甘雨知時來  
 聽水因依杖  
 愛晴更上臺  
 荒郊生麥氣  
 相拊好顏開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맥우(麥雨): 보리가 익을 무렵에 오는 비를 가리킨다.

## 늦봄 한류운 농장에 모여



온 산 붉고 푸른 빛 정말 어여빠라  
 꽃다운 풀 늘어진 버들 일렁이는 연무  
 돌길 꽃 그림자 속에 오가는 사람  
 운림 속 농장은 물소리 가에 있네  
 오늘 잔술 많다고 사양하지 말게나  
 소년시절 같은 풍류 부러워하리  
 봄의 신이 오래 머물게 한다면  
 맑은 향기 끊임없이 사철 전하리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晩春會韓柳雲庄

滿山紅綠正堪憐  
 芳艸垂楊澹澹烟  
 石逕人來花影裡  
 雲林家在水聲邊  
 莫辭盞酒多今日  
 可羨風流似少年  
 若使東君長駐在  
 清香不斷四時傳

## 한류운에게 주다



몇 첩의 청산에 몇 골짜기 안개인가  
 백발로 바라보니 볼 때마다 가엾어라  
 정분은 동기동창 처지보다 더 깊어  
 주위 산과 물가를 두루 돌아다녔네  
 천지는 온통 봄인데 홀로 늙음 서러워  
 세월은 꿈결 같아 칠십 년이 우습구나  
 이제 겨우 양가의 자식에게 말하노니  
 칠 세의 교정<sup>1</sup>은 백 세에 전해지리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칠 세(七世)의 교정(交情) : 일곱 대가 지나도록 사귄 정을 뜻한다. 한나라 적공(翟公)이 정위(廷尉)로 있을 때에는 빈객이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다가, 파직된 뒤에는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 문 앞에 참새 잡는 그물을 칠 정도가 되었는데, 다시 복관(復官)되매 빈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문에다 큰 글씨로 써서 내걸기를 “한 번 죽고 한 번 살매 우정을 알 수 있고, 한 번 가난하고 한 번 부유하매 친구의 태도를 알 수 있으며, 한 번 귀하고 한 번 천해지매 속마음이 다 보이도다. (一死一生乃知交情 一貧一富乃知交態 一貴一賤交情乃見)”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 『사기(史記)』 권120, 급암열전(汲黯列傳).

贈韓柳雲

數疊青山數谷烟  
相看白髮每相憐  
契深同硯同窓處  
遊遍某邱某水邊  
天地皆春傷獨老  
光陰若夢笑稀年  
辛勤寄語兩家子  
七世交情百世傳



우중에 김성재와 같이 읊다



버들 빛 긴 뚝방에 날씨가 개였고  
나무꾼 들 피리 소리 춘정을 다했네  
지난 밤 풍우에 꽃은 아무 탈 없는지  
늙을수록 문장은 시로 명성이 있다네  
만사 근심 잊으려 오직 초야에 사니  
삼공도 이 산자수명과 바꾸지 않으리<sup>1</sup>  
먼 울리<sup>2</sup>에 살지만 사람의 취미는 같나니  
동리에 국화 심고<sup>3</sup> 달빛에 발 갈리라

1 삼공(三公)도...않으리 : 송(宋)나라 대복고(戴復古)가 후한(後漢)의 은사(隱士) 엄광(嚴光)의 고사를 소재로 읊은 시로 조대(釣臺)에 "어떤 일에도 욕심 없이 오직 하나의 낚싯대뿐, 삼공의 자리도 이 강산과 바꿀 수 없고말고, 평소 유문숙을 잘못 알고 지낸 탓에, 세상 가득 허명을 야기했을 뿐이랴오. (萬事無心一釣竿 三公不換此江山 平生誤識劉文叔 惹起虛名滿世間)"라는 내용이 보인다. 『석병시집(石屏詩集)』 권6.  
2 울리(栗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통합된 마을이다.  
3 동리(東籬)에 국화 심고 : 이 말은 도잠(道潛)의 음주(飲酒)시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꽃을 따다가,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노라.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명구에서 인용한 것이다. 『도연명집(陶淵明集)』 권3.

金誠齋雨中共吟

柳色長堤日色晴  
樵歌野笛盡春情  
夜來風雨花無恙  
老去文章詩有聲  
萬事忘憂唯草在  
三公不換此山明  
地遐栗里人同趣  
栽菊東籬月下耕



또 5언 읍시



한 조각 얼음같이 밝은 마음  
견견<sup>1</sup>한 친구의 우정  
뜨락의 나무는 꽃기운 피어나고  
파초 창가엔 비 떨어지는 소리  
고기는 봄물이 매끄러운 것 알고  
닭은 한낮이 맑음을 기뻐하지  
헤아려 보니 남은 인생 즐거움은  
구름숲에 독서하고 받기는 것



又 五律

氷心一片明  
纏纏故人情  
庭樹蒸花氣  
窓蕉滴雨聲  
魚知春水滑  
鷄喜午天晴  
料得餘生樂  
雲林共讀耕

1 견견(纏纏) : 정의(情誼)가 살뜰하여 못내 잊히지 않거나 떨어질 수 없다는 뜻이다.

# 만음漫吟<sup>1</sup>



단장으로 작은 개울 동쪽 거닐면서  
 친구 만나 보니 영서<sup>2</sup>가 통하네  
 모란 가지 위로 더디 가는 햇빛이요  
 버드나무 실가엔 살랑대는 바람일레  
 산 그림자 반 잠긴 봄물은 푸르고  
 새소리 너무 시끄럽고 석양은 붉어라  
 곧 이름난 정원에 피꼬리 나타나리니  
 좋이 말술 갖고 가서 귀기울여 보세나

# 漫吟

短策徜徉小澗東  
 故人相對屛相通  
 牧丹枝上遲遲日  
 楊柳絲邊嫋嫋風  
 山影半沈春水綠  
 禽聲多在夕陽紅  
 非久名園黃鳥出  
 好將斗酒往聽同

1 만음(漫吟) : 글씨가 없이 생각나는 대로 시 등 따위를 지어서 읊다.  
 2 영서(靈犀) : 마음이 서로 통함을 이르는 말. 옛날에 뿔 안에 실과 같은 하얀 결이 뿌리에서 뿔끝까지 이어져 있는 무소의 뿔을 영험하게 여겨, 통서(通犀) 또는 통천서(通天犀)라고 하였다.



## 봄을 전별하다



봄이 아까워 금년 봄 보내고 싶지 않아  
해마다 봄은 떠나가고 이 몸은 늙어 가네  
비록 동산 좋아하니 꽃향기 무르녹는데  
어찌 귀밑털에 새로운 하얀 터럭인가  
가련한 것은 강가의 정감을 담은 나무  
흡사 하늘 가에 미인을 보내는 것 같아  
성쇠<sup>1</sup>와 존망<sup>2</sup>이 진리이거니  
세상 근심으로 덧없이 마음 상하지 말게나

### 錢春

惜春不欲錢今春  
春去年年老此身  
縱好林園花氣爛  
其何鬢髮雪華新  
可憐江上含情樹  
恰似天涯送美人  
消長存亡眞理在  
莫將世慮謾傷神

## 4월 길일<sup>1</sup>에 소모임



전춘의 여흥으로 산촌의 집에 모이자  
현조<sup>2</sup>는 훨훨 날고 찌꼬리는 노래해  
오르락내리락할 때 낙화가 어지럽고  
풍류가 있는 곳 푸른 버들 흐드러져  
매년 기이한 모습은 새끼 데리고 떠나는 것  
하루 종일 좋은 소리로 친구 부르며 지내지  
생령들을 바라보니 모두가 스스로 즐거운데  
소광<sup>3</sup>한 백수는 어찌 섞여 놀지 못하는가

1 길일(吉日): 매월 음력 '초하룻날'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2 현조(玄鳥): 제비의 별칭이다.

3 소광(疎狂): 호방하고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四月吉日小會

餞春餘興會山家  
玄鳥飛飛黃鳥歌  
頽頽來時落花亂  
風流到處綠楊多  
每年奇跡將雛去  
盡日好音喚友過  
第看群生皆自樂  
踈狂皓首不遊何



용호<sup>1</sup>에서 모여 술잔을 기울이다



피곤한 몸 연무 낀 방초에 함께 이르니  
비 온 뒤 경색<sup>1</sup>이 온통 어여빠라  
명사에 해오라기 꿈은 석양 속이요  
연한 버들 피꼬리 소리는 옛 물가일세  
시사<sup>2</sup>의 친구는 이런 날이 많겠지만  
배 가운데 담소는 금년뿐이랴오  
젊은 계집 갑자기 시가 자리 도착하니  
잔 가득한 막걸리 고운 손으로 전하네

龍湖會酌

倦履同來芳草烟  
雨餘景色摠堪憐  
明沙鷺夢斜陽裡  
軟柳鶯聲古渚邊  
社上親朋多此日  
舟中談笑又今年  
紅娥忽到詩歌席  
滿爵香醪玉手傳

1 용호(龍湖) : 조선시대 용산 앞 한강을 용호라 부른다.

# 옛 죽산 이우의 수연壽宴 대신해서 짓다



극숙<sup>1</sup>이 휘황찬란한 4월의 하늘에  
백학이 쌍으로 날아 신선으로 내려오고  
멀리서 온 화조<sup>2</sup>는 소반 우측에 있는데  
누가 보낸 요도<sup>3</sup>가 술항아리 앞에 있네  
우애롭던 훈지<sup>4</sup>는 평상과 연이었고  
잇닿은 채무<sup>5</sup>는 한 뜨락 둥그렇지  
유덕한 가문의 경사<sup>6</sup>는 끝이 없거니  
이 연회 영원히 전하길 축수하노라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舊竹山李友壽席代

極宿煌煌四月天  
雙飛白鶴降眞仙  
遠來火棗登盤右  
誰送瑤桃到酒前  
湛樂塤篪連榻在  
翩聯彩舞一庭圓  
德門餘慶將未艾  
爲祝斯筵永世傳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극숙(極宿) : 남극성(南極星)으로 노인의 장수를 상징하는 별이다. 노인성(老人星) 또는 수성(壽星)이라 하기도 한다.  
2 화조(火棗) : 신선이 먹는 과일로 이것을 먹으면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한다.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인용되었다.  
3 요도(瑤桃) : 신선이 먹는 과일이다. 『한무고사(漢武故事)』에, 한무제(漢武帝) 때에 동군(東郡)에서 키가 겨우 5촌(寸)에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단인(短人)을 보내왔으므로 무제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물어 보려고 동방삭을 불렀다. 이때 그 단인이 손가락으로 동방삭을 가리키면서 무제에게 말하기를 “서왕모께서 선도를 심어 삼천 년 만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데, 이 아이가 불량하여 이미 세 번이나 선도를 훔쳐 먹고 서왕모의 미움을 받아 쫓겨나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王母種桃 三千年一結子 此兒不良 已三過偷之 失王母意 故被謫來此)”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이 고사를 인용되었다.  
4 훈지(塤篪) : 형제 혹은 친구 사이의 화목과 조화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으로, “만형은 훈을 불고 둘째형은 지를 분다. (伯氏吹塤 仲氏吹篪)”는 말이 있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  
5 채무(彩舞) : 춘추시대(春秋時代) 초(楚)나라 은사(隱士) 노래자(老萊子) 이야기로 노래자(老萊子)가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렸다고 한다.  
6 덕이 있는 가문의 경사 : 『주역』 곤괘(坤卦) 문언(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경사가 있게 마련이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재앙이 돌아오게 마련이다.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라는 말이 나온다.

## 용호<sup>1</sup>에 모였을 때 7언 절구 3수



맑게 갠 호수 보려니 집 생각 괴로워  
피꼬리 소리 들리는 곳 현가보다 낫지<sup>2</sup>  
흰 갈매기 년 놀라서 날아가지 말아라  
맑고 한가하게 많은 세월 짝하고자 했나니

거울 같은 맑은 호수 위에 집은 떠있고  
손님 맞이하는 피꼬리 소리는 기녀 노래라  
백로와 갈매기 쌍으로 날고 고기는 뛰는데  
은빛 물결 만 이랑에 저녁 햇빛만 쏟아지네

산 아랫 맑은 호수요 호수가엔 집  
어여쁜 아가씨 춤에 맑은 노래 소리  
술 향아리 술 잔뜩 취하도록 마시게  
앞서 도착한 친한 벗 사연 많지 않은가

1 용호(龍湖) : 조선시대 용산 앞 한강을 용호라 부른다.

2 현가(絃歌)보다 낫지 : 『시경(詩經)』의 시보다 뛰어나다는 말이다. 『사기(史記)』 권47 공자세가(孔子世家)에 “시경 삼백 편의 시를 공자가 모두 연주하며 노래 불렀다. (詩三百篇 孔子皆絃歌之)”는 말이 나온다.

## 龍湖會時 絕句 三首

爲看晴湖惱自家  
鶯聲到處勝絃歌  
白鷗爾莫驚飛去  
欲伴清閒歲月多

明湖如鑑上浮家  
邀客鶯聲當妓歌  
鷗鷺雙飛魚自躍  
銀波萬頃夕陽多

山下明湖湖上家  
紅娥踏舞又清歌  
莫辭樽酒醕酌醉  
前到親朋故不多

# 4월 14일 신리<sup>1</sup> 최신암 농장에서 만남

7언 절구 3수



천석 한 구역은 부춘산<sup>2</sup>과 같고  
신제수<sup>3</sup> 아래선 정답이 새로웠지  
피꼬리 울고 짓대 소리 석양 길에  
취한 사람 부축해 이웃으로 돌아가네

시례 전한 가문<sup>4</sup> 기운은 봄날 같고  
세상살이 진수는 일신<sup>日新</sup>이 즐거워  
이렇게 망년지우로 덕을 벗 삼으니  
자주 찾아보고 좇으니 좋은 이웃이어라

개나리 한 경내 일찍 봄을 찾았으니  
이 개나리꽃 뒤 온갖 꽃들 새롭겠지  
땅이 신비로우니 풍류객 태어나고  
시와 술로 초청하니 원근이 이웃이지

1 신리(莘里) : 수원시 영통구 신동이다.  
2 천석...부춘산(富春山) : 산수 한 구역이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부춘산과 같다는 말이다. 이 부춘산이 유명한 것은 동한(東漢)의 은자(隱者)인 엄광(嚴光) 때문이다. 엄광은 소실적에 광무제(光武帝)와 동문수학했던 인연으로 광무제 즉위 후 간의대부(諫議大夫)로 부름을 받았다가 응하지 않고 부춘산(富春山)에서 밭 갈고 낚시로 소일하며 여생을 마쳤던 인물이다. 『후한서(後漢書)』 권113, 고사전 하(高士傳 下).  
3 신제수(莘蕒樹) : 개나리나무로 신이수(莘蕒樹)로도 읽는다.  
4 시례(詩禮) 전한 가문 : 시례지훈(詩禮之訓)이 있는 오랜 집안으로 자식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가문을 의미한다.

四月十四日莘里崔莘庵庄上會 絕句三首

泉石一區等富春  
莘蕒樹下話情新  
流鶯長笛夕陽路  
扶得醉人歸四隣

家傳詩禮氣如春  
涉世粹眞樂日新  
交是忘年友其德  
源源相逐似芳隣

一境莘蕒早得春  
此花開後百花新  
地靈鍾出風流客  
詩酒招邀遠近隣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용인군 포곡의 홍재화(호 화산) 내방



산동의 친우 언제나 관심이었는데  
 화옹이 뜻밖에 손님 데리고 왕림했네  
 어제는 괴로운 생각에 명월도 건디기 어려웠고  
 오늘은 기쁨 만남으로 새 피꼬리 소리 같이 들었네  
 나를 속인 청춘 쉽게 지나가더니만  
 누구 위해 백발은 덧없이 침노하는가  
 부엌 대접 보잘 것 없으나 남은 술 있으니  
 뜨락에 가득한 오동 꽃 또 한 번 읊네

龍仁郡蒲谷洪在華(號華山)來訪

山東親友每關心  
 不意華翁伴客臨  
 明月難堪苦思昨  
 新鶯同聽喜逢今  
 欺我青春容易過  
 爲誰白髮謾相侵  
 廚供雖薄餘觴在  
 滿院桐花又一吟

## 농가에서 우연히 읊다



붉은 석류꽃 아래 백모당白茅堂에서  
 우연히 시 인연에 온갖 바쁨 다 잊고  
 수면에 모 꽃으며 사람들과 같이 즐기며  
 마당에 계수나무 심으니 저절로 향기피지  
 우레 소리 비 쏟아져 모든 봉우리 어둡고  
 하늘 기운 시원한 바람 보리 누렇게 익지  
 풍년가 격양가로 여흥도 많거니  
 석양에 소 타고 피리 소리 길어지네

1 격양가(擊壤歌) : 요(堯) 임금 때에 노인이 지었다는 격양가(擊壤歌)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면서, 내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내 밭을 갈아서 밥 먹니,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랴. (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耨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라는 말이 있는데, 진(晉)나라 황보밀(皇甫謐)의 『제왕세기(帝王世紀)』에 전한다.

田舍偶吟

紅榴花下白茅堂  
偶得詩緣除百忙  
水面插秧人共樂  
庭心栽桂自生香  
雷聲送雨千峰暗  
天氣噓涼大麥黃  
歌登擊壤多餘興  
牛背斜陽弄笛長

의관議官 이태진 만사輓詞

5언 배율排律 6월 22일



두 집안 5대가 친하여  
청춘시절부터 서로 좇아  
시와 술로 누대 정자에서  
휘파람 노래에 꽃피는 시절  
공명은 초개같이 여기고  
천 석으로 심신 길러  
한 번 병 3년 겪고서  
팔순의 고령 누렸어라  
노인성<sup>1</sup>이 빛을 잃어  
홍보가 이미 이르러  
웃음소리 꿈만 같고  
존망이 진실이 아닌 듯  
상여 줄 잡는 슬픈 오늘  
지음<sup>2</sup>知音은 몇 사람일까  
구름 조각에 석양 비추고  
수건에 눈물 한가득



1 노인성(老人星) : 남극 하늘에 떠서 인간 수명의 연장 여부를 점친다는 수성(壽星)을 말한다.

輓李議官泰鎮 五言 六月 廿二日

兩家五世親  
相逐自青春  
詩酒亭坵處  
嘯歌花月辰  
功名如草芥  
泉石養心神  
一病經三載  
高年過八旬  
壽星迷失彩  
凶報已來臻  
笑語還疑夢  
存亡似不眞  
執紼嗟今日  
知音復幾人  
斷雲殘照夕  
不覺淚沾巾



## 참봉 오희풍 축하

본관 보성, 충북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거주, 시하로 5형제에 자손이 있다



화갑도 어려운데 어버이 모시면서  
반의<sup>1</sup>로 현수<sup>2</sup>하니 복이 증가하고  
한 뜨락 후손들은 모두 남은 경사인데  
다섯 그루 아가위 꽃<sup>3</sup> 늙지 않았다네  
성세의 벼슬은 우악한 무거운 은혜요  
선영의 나무와 들은 참된 효심일세  
남의 부조가 되어서도 아회가 되니<sup>4</sup>  
화기 감도는 남쪽 하늘은 봄 같은 가을

- 1 반의(斑衣) : 춘추 시대에 초(楚)나라에 노래자(老萊子)라는 은사(隱士)가 있었는데, 어버이를 모시는 효성이 지극하여 나이 일흔에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워 어버이를 즐겁게 해 드렸다고 한다. 『소학(小學)』 계고(稽古).
- 2 현수(獻壽) : 오래 살기를 비는 뜻으로 잔에 술을 부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 3 다섯 그루 아가위 꽃 : 5형제를 말한다. 형제간의 우애를 읊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상채(常棣)」에 “아가위 꽃송이 활짝 피어 울긋불긋, 지금 어떤 사람들도 형제만 한 이는 없지. (常棣之華 鄂不韡韡 凡黍之人 莫如兄弟)”에서 유래된 말이다.
- 4 남의...되니 : 할아버지 아버지 처지에 부모를 기쁘게 헤드리기 위해 아이처럼 옷 입고 춤추며 노래했다는 노래자(老萊子)의 이야기이다. 『몽구(蒙求) 下』 노래반의(老萊斑衣).

賀吳參奉熙豐

貫宝城 居忠北清原郡賢都面達溪里 侍下 五兄弟 有子孫

華甲猶難況侍親  
斑依獻壽福增新  
一庭蘭葉皆餘慶  
五本棣花未老身  
聖世居官恩渥重  
先隴樹石孝心眞  
爲人父祖作兒戲  
和氣南天秋若春



## 멋대로 읊음

어린 손자에게 권함



춡고 적막한 밤 어린 손자와 같이하며  
새벽까지 잠 못 들고 붉은 촛불 가물거려  
한 그루 매화에 동각東閣<sup>1</sup>의 달이요  
몇 마디 다듬이 소리는 오경의 바람인가  
메마른 전답은 계륵 같아 무익하고  
텅 빈 대책은 신기루라 공적이 없지  
눈 헤치며 학교 가는 길 고통스럽다 말라  
만종관록萬鍾官祿<sup>2</sup>이 책 가운데 있거늘

1 동각(東閣) : 동쪽으로 열린 쪽문이라는 뜻으로, 고관이 빈객을 예우하며 초치(招致)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한(漢)나라 공손홍(公孫弘)이 재상이 된 뒤에 "객관을 세우고 동쪽 쪽문을 열어서 현인을 맞이하였다. (起客館 開東閣以延賢人)"라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서(漢書)』 권58, 공손홍전(公孫弘傳).  
2 만종관록(萬鍾官祿) : 민간에 "책 속에 절로 만종의 봉록이 있다. (書中自有萬鍾祿)"라는 저자 미상의 시구가 전한다.

謾吟勸穉孫

天寒夜寂穉孫同  
抵曉不眠殘燭紅  
一樹梅花東閣月  
數聲砧杵五更風  
薄田鷄筋終無益  
空策蜃樓未有功  
衝雪校程須莫苦  
萬鍾官祿在書中



스스로 탄식함



세간의 물건마다 모두 같기 어렵듯  
소나무는 저절로 청청하고 꽃은 붉어라  
푸른 일산 우뚝하니 눈을 업신여기고  
아름다운 자태 활짝 피니 바람이 싫지  
인정이 쉽게 변하는 영고성쇠의 변화 속에  
하늘의 뜻 화복 가운데 있다 믿지 말게나  
노경의 생애 표주박으로 물 마시면 죽하고  
오히려 빈궁에 처한 안연<sup>1</sup>이 좋다네

1 빈궁...안연(顔淵) : 공자 수제자로 그의 투철한 호학정신을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질도다 회여! 한 대광주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마실 것으로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기를 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려 하지 않으니, 어질구나 회여!(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回也)” 『논어(論語)』 용야(雍也).

自嘆

世間物物總難同  
 松自青青花自紅  
 翠蓋亭亭能傲雪  
 艷容灼灼只嫌風  
 人情易變榮枯裡  
 天意莫諶禍福中  
 曠境生涯瓢飲足  
 還甘顏氏處貧窮



## 납설臘雪<sup>1</sup> 후 극락암 방문



연하가 성벽이라 성 동쪽으로 향하니  
 흥에 겨워 눈바람 꺼릴 것이 없으라  
 대지는 양기 생겨 봄소식 왔는데  
 제천<sup>2</sup>의 종소리 해질녘에 떨어지네  
 충천하는 석탑은 흰 구름 모습이요  
 손님 알리는 송단은 붉은 학 이마<sup>3</sup>  
 제봉<sup>4</sup> 처의 암자 승려는 못 보고  
 수룡<sup>5</sup> 읊으며 돌아가는 두 세 늙은이

- 1 납설(臘雪) : 동지 뒤의 셋째 술일(戌日)인 납일(臘日)에 내리는 눈이다. 조선시대 태조 이후에는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로 했다. 납일은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인 납향(臘享)이 있는 날이다.
- 2 제천(諸天) : 산꼭대기에 있는 절이다. 두보(杜甫)의 시에 “제천은 응당 등라 저 밖에 있을 텐데, 산꼭대기에 오르려면 날이 캄캄해지겠군. (諸天舍在藤蘿外 昏黑應須到上頭)”이라는 표현이 있다. 『두소룡시집(杜少龍詩集)』 권12, 부성현향적사관각(溟城縣香積寺官閣).
- 3 손님…이마 : 북송(北宋) 은군자인 임포(林逋)는 고산(孤山)에 은거하면서 두 마리 학을 길렀는데, 손님이 찾아오면 동자(童子)가 학의 우리를 열어 학들이 날게 되면 손님이 온줄 알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송사(宋史)』 권457, 임포전(林逋). 송단(松壇)은 소나무가 서 있는 낮은 언덕을 의미한다.
- 4 제봉(題鳳) : 봉(鳳)이라는 글자를 써 놓았다는 것으로 봉을 파자(破字)하면 범조(凡鳥)가 되는 데에서 사람을 우롱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여안(呂安)이 천리 길을 달려 혜강(嵇康)의 집을 찾아갔다가, 혜강은 마침 외출하여 만나지 못하고 그의 형 혜희(嵇喜)만을 만나보고는, 문에다 ‘봉(鳳)’이라는 글자 하나를 써 놓고 돌아갔다는 고사가 있다 『태평광기(太平廣記)』 권235, 교우(交友).
- 5 수룡음(水龍吟) : 사패(詞牌) 이름이다. 이백(李白)의 시 「궁중행락사(宮中行樂詞)」 8수 중 “피리를 연주하니 물속의 용이 노래하고, 통소가 울리니 공중의 봉황이 내려오네. (笛奏龍吟水 簫鳴鳳下空)”에서 유래한다. 『전당시(全唐詩)』 권164.

臘雪後訪極樂菴

烟霞爲癖向城東  
乘興何嫌雪且風  
大地陽生春有信  
諸天鍾落日當中  
撐空石塔雲容白  
報客松壇鶴頂紅  
未見菴僧題鳳處  
水龍歸屐兩三翁



추운 봄이 싫어 다시 윤춘<sup>1</sup>이  
가까워 오자 기뻐서



따뜻한 봄 지나도 제비 늦어지고  
저녁에 산문 나서 옛 친구 방문했지  
빙심<sup>2</sup>으로 마음 통한 나그네 못 잊어  
사랑스럽네 꽃나무 피고자 할 때였네  
시 인연 적막해 환속하는 사람 많고  
만남은 단란해 좋은 기회 있으리니  
오히려 동군<sup>3</sup> 이별 아쉬움이 기쁘네  
30일 더 머무르는 것<sup>4</sup> 기이하구나



1 윤춘(潤春): 윤달이 든 봄을 뜻한다.  
2 빙심(氷心): 깨끗한 마음이다.  
3 동군(東君): 봄을 맡은 신 이름으로 동제(東帝)·동황(東皇)·청황(靑皇)·청제(靑帝)라고도 한다.  
4 30일...것: 윤달이 든 봄 30일이 더 있어서 한 말이다.

怕春寒更喜閏春將近

陽春已過鶯來遲  
晚出山門訪舊知  
難忘冰心相照客  
最憐花木欲開時  
詩緣寂寞還多俗  
會事團圓勝有期  
却喜東君能惜別  
三旬加住亦爲奇



## 봄날 아름다운 때 우아한 모임



천지가 봄인데 누대는 손님으로 가득  
천기 화창하니 비가 처음으로 그쳤지  
복숭아 꽃 미소 짓는 창가에 다다르니  
제비새끼 잠박가로 자주 오르내리네  
성야에서 노래 부르니 삼락에 이르고<sup>1</sup>  
난정의 계사禊事에 술잔 하나 띄우니<sup>2</sup>  
언덕 밭 맥수가<sup>3</sup> 교외 터에 넘쳐흘러  
인간이 가을을 차지한 것이 가장 좋아라

1 성야(鄜野)의...이르고 : 공자가 태산(泰山)에서 노닐 때 영계기(榮啓期)가 성야(鄜野)에서 사슴가족에 새끼 띠를 띠고 거문고를 안고 춤을 추길래 공자가 선생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물었다. 대답하기를 “사람 된 즐거움, 사내로 태어난 즐거움, 나이가 95세나 된 즐거움이 세 가지 즐거움이다”라 하였다. 『太平御覽』 권579, 樂部17, 琴下. “孔子遊於泰山 見榮啓期行鄜之野 鹿裘帶索 抱琴而舞 孔子問曰 先生爲樂何也 對曰 天生萬物唯人爲貴 吾既爲人 一樂也 男尊女卑 吾既爲男 二樂也 人生有不見日月不免襁褓 吾行年九十五歲矣 三樂也”

2 난정(蘭亭)의...띄우니 : 진(晉) 목제(穆帝) 영화(永和) 9년(353) 늦은 봄에 회계(會稽) 산음(山陰)의 난정(蘭亭)에서 왕희지, 사안(謝安), 손작(孫綽) 등 42인의 명사(名士)가 모여 계사(禊事)를 행한 뒤에 곡수(曲水)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으며 성대한 풍류놀이를 즐긴 이야기가 왕희지의『난정기(蘭亭記)』에 보인다.

3 맥수가(麥秀歌) : 은(殷) 나라가 망한 뒤에 기자(箕子)가 옛날 은나라 터를 지나다가 궁실이 모두 무너지고 무성하게 보리 이삭이 켜진 것을 보고는 가슴이 아팠는데 곡을 하자니 안 될 일이고 울자니 부녀자와 비슷하게 될 듯 하여 이에 ‘맥수가(麥秀歌)’를 지어서 노래하였다 한다. 『사기(史記)』 권38, 微子世家 第8 “箕子朝周 過故殷虛 感宮室毀壞 生禾黍 箕子傷之 欲泣則不可 欲立爲其近婦人 乃作麥秀之詩 以歌詠之 其詩曰 麥秀漸漸兮 禾黍油油 彼狡僞兮 不與我好兮”. 그러나 여기서 단지 풍년 든 모습을 취하였다.

花辰雅會

春滿乾坤客滿樓  
暢和天氣雨初收  
桃花微笑臨窓下  
鷺子頻來上箔頭  
邨野行歌三樂至  
蘭亭禊事一觴流  
壠田麥秀郊墟漲  
大人人間占有秋



전교典校<sup>1</sup> 권중철 회석會席에 참석



풀빛 짙고 꽃 시드니 비 온 뒤 하늘이요  
샷갓 나막신 잇달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마워라 주인옹은 성인 숭모할 줄 아니  
성심으로 사당에 올라 향불을 받드네  
선생의 집 한 폭은 그림 속 풍광이요  
제비가 나는 꽃차 날리며 잔 앞에 춤추고  
계사난정<sup>2</sup>에 봄은 쉬이 저물어 가는데  
더딘 걸음에 저녁연기 나는 것도 몰랐네

1 전교(典校) : 지방향교를 관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2 계사난정(契事蘭亭) : 진(晉) 목제(穆帝) 영화(永和) 9년(353) 늦은 봄에 회계(會稽) 산음(山陰)의 난정(蘭亭)에서 왕희지, 시안(謝安), 손작(孫綽) 등 42인의 명사(名士)가 모여 계사(禊事)를 행한 뒤에 곡수(曲水)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으며 성대한 풍류놀이를 즐긴 이야기가 왕희지의 「난정기(蘭亭記)」에 보인다.

赴權典校(重哲)會席

綠肥紅瘦雨餘天  
笠屐翩聯或後前  
多謝主翁能慕聖  
誠心趨廟奉香烟  
仙庄一幅畫中天  
鷺蹴飛花舞酒前  
禊事蘭亭春易暮  
遲遲不覺夕生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용호<sup>1</sup>의 저물어 가는 봄



봄물은 넘실넘실 돛대 그림자 드물고  
하늘은 활짝 개어 백로 쌍쌍이 나르네  
풍류 다한 곳에는 아가씨 자리 있어  
석양까지 춤추다 돌아가는 것 잊어노라  
여자와 질탕히 놀아나는 남자도 드물지만  
온 산에서 춤추니 완전히 나르는 듯  
기이한 경관은 이 세상의 내 몸 늙는 것  
취한 몸 가누며 달빛 속 돌아감 어떠하리

1 용호(龍湖) : 조선시대 용산 앞 한강을 용호라 부른다.

龍湖暮春

春水溶溶帆影稀  
一天霽景鷺雙飛  
風流盡在阿娘席  
蹈舞斜陽却忘歸  
女伴宕遊男子稀  
滿山蹈舞完如飛  
奇觀此世吾生老  
扶醉何妨帶月歸



장미꽃 필 때 소모임



청산에 살아가니 저잣거리와 멀지만  
좋은 때 객이 도착하니 비가 막 개고  
장미꽃 깊은 집 봄빛이 남아 있어  
버드나무 미풍에 피꼬리 소리 들리네  
시비를 분별하기 어려운 지금 세상사  
어여빠라 친구를 맞고 보내는 심정  
맑은 유람 남은 자취 시 읊지 말라  
시 시름 백발이 돌아날까 해서이네



薔薇時小會

棲息青山遠市城  
良辰客到雨新晴  
薔薇深院餘春色  
楊柳微風又鳥聲  
難辨是非今世事  
可憐迎送故人情  
清遊留跡無過詠  
或恐詩愁白髮生

## 갈천葛川에서 봄놀이



물은 산을 감싸고 돌아 별유 세계  
 갈천의 신선이 혹 앞내를 지났는가  
 푸른 봄날 짝지어<sup>1</sup> 오늘 찾아왔지  
 흰머리에 한가한 시간 소년 배우리<sup>2</sup>  
 십 리 꽃다운 나무 숲속 피꼬리 울고  
 한 낚싯대 석양 앞에 고기는 뛰어오르지  
 술두루미 앞에 시가의 흥취 일어나니  
 좋은 시절 세상 밖 인연 꼭 알맞네

## 葛川春遊

水抱山廻別有天  
 葛仙倘或過前川  
 青春作伴來今日  
 白首偷閒學少年  
 十里鶯啼芳樹裡  
 一竿魚躍夕陽前  
 盃樽徐興歌詩樂  
 恰好良辰物外緣



1 푸른 봄날 짝지어 : 두보(杜甫)의 시에 “백발에 노래 부르면서 술이라도 마셔야지, 푸른 봄날 짝 지어서 고향에 돌아감 좋아라.(白首放歌須縱酒 青春作伴好還鄉)”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두소릉시집(杜少陵詩集)』 권11, 문관군수하남하북(關官軍收河南河北).

2 한가한... 배우리 : 정호(程顥)의 춘일(偶成) 시에, “구름 맑고 바람 가벼운 한낮 가까운 때, 꽃 겹으로 버들을 따라 앞 냇가에 이르렀네.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내 마음을 모르고, 한가함 흥친 배우는 소년이라 말하겠지.(雲淡風輕近午天 傍花隨柳過前川 時人不識余心樂 將謂偷閒學少年)” 한 데서 온 말이다. 『이정문집(二程文集)』 권1.

또 7언 율구



짧은 지팡이 어울린 푸른 버들 하늘  
 정오 가까워 닿은 풍광이 갈천일세  
 청산에 시 읊으며 진 빛이 너무 많고  
 백발의 술잔 앞엔 모두 나이 많구나  
 찢꼬리 소리 제비춤에 하늘도 개여  
 군극<sup>1</sup> 소요로 몇 번 내를 건넜는가  
 그대 주머니 속 황금 아끼지 말게나  
 좌중의 흰머리 모두 만년의 삶이구나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又 七絶

短筇相追綠楊天  
 近午風光是葛川  
 唵處青山多宿債  
 酒前白髮盡高年  
 鶯歌鶯舞又晴天  
 裙屐逍遙渡幾川  
 囊裡黃金君莫惜  
 座中鬢髮摠殘年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군극(裙屐): 육조 시대(六朝時代) 귀족 자제들의 복식을 뜻한다. 보통 귀한 사람의 복식으로 많이 쓰인다.

## 용인 친구 6명 내방

홍화산 윤순구도 참석



신령한 까치 잠깐 울어 기분 좋게 날고  
 하늘 갠 정오 무렵 누각소리 더디구나  
 흥이 나서 포곡<sup>1</sup>에 오니 봄 다 지나고  
 취미 죽림 같아 7명 나그네 돌아왔네<sup>2</sup>  
 사람 놀란 멋진 시구 인하탑<sup>3</sup>이라 하고  
 상현달처럼 그리운 회포 월생기<sup>4</sup>라 했다지  
 만년의 좋은 모임 마련하기 쉽지 않아  
 석양에 옷 잡히고<sup>5</sup> 술을 구입했다네

龍仁親友六人來訪 洪華山 尹順求亦參

靈鷲乍喧好鳥飛  
 天晴近午漏聲稀  
 興來蒲谷三春過  
 趣似竹林七客歸  
 佳句驚人下榻  
 懷思如月月生磯  
 暮年勝會非容易  
 沽酒斜陽故典衣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포곡(蒲谷) : 경기도 용인시(龍仁市) 처인구(處仁區)에 포곡(蒲谷)이 있다.

2 취미...돌아왔네 : 동진(東晉) 때 유명한 죽림칠현을 빗대어서 한 말이다.

3 인하탑(人下榻) : 진번(陳蕃)이 예장 태수(豫章太守)로 있을 적에 다른賓객은 맞지 않고 오직 서치만을 위해서 특별히 전용 길상 하나를 준비해 두고는, 서치가 와서 환담을 하고 떠나면 다시 위에 올려놓았다는 현담(懸榻)의 고사가 있다. 『후한서(後漢書)』 권53.

4 월생기(月生磯) : 달 떠오르는 낚시터란 말이다. 『시경』 소아(小雅) 천보(天保)에 “상현달처럼, 태양처럼, 변함없는 저 남산처럼, 이지러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리. (如月之恒 如日之升 如南山之壽 不騫不崩)”라는 말이 있다. ‘월생기’는 이 시에서 따온 말로 보인다.

5 옷 잡히고 : 두보(杜甫)의 시에, “조정에서 돌아오면 날마다 봄옷을 전당 잡혀, 매일 강 머리에서 실컷 취해 돌아오네. (朝回日日典春衣 每日江頭盡醉歸)” 한 데서 온 말이다. 『두소릉시집(杜少陵詩集)』 권6, 곡강(曲江).

# 기이한 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므로 장난 삼아 짓다

5언 율시



이름난 꽃과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들 서로 친해지고자 해  
코로 맡고 오래 안고 만져보고  
마음은 새로운 애련을 탐하지  
고운 얼굴은 담박해야 하고  
부성婦性은 진실이 귀중해  
젊은이들에게 말을 전하노니  
진중히 자신을 지켜야 하리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見奇花衆愛故戲題 五律

名花與美人  
人見欲相親  
鼻齟攀擡久  
心貪愛戀新  
葩容能淡泊  
婦性貴貞眞  
寄語紅顏輩  
珍重自守身

# 이성천이 해 넘긴 후 방문



비에 가벼운 먼지 젖은<sup>1</sup> 이곳 더욱 맑고  
회포 가객이 수성<sup>2</sup>에서 왔구려  
연하에 버릇 있어 의관은 옛날 그대로요  
풍월 즐긴 지 오래라 귀밑머리 희어졌네  
비속과 근심도 없으니 석가·노자와 같고  
웅장한 문장과 건필은 사람을 놀라게 해  
미망의 고해를 참으로 건너기 어렵나니  
같이 명산을 향해 이 심정을 즐기려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비에...젖은 : 당나라 왕유(王維)의 시에 “위성의 아침 비 가벼운 먼지 적시니, 객사에는 푸릇푸릇 비들 빛도 싱그럽네.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전당시(全唐詩)』 권27, 위성곡(渭城曲).

2 수성(隋城) : 수원의 옛 이름이다.

李星泉經年後見訪

雨澗輕塵境轉清  
所懷佳客自隋城  
烟霞一癖衣冠古  
風月多年鬢髮明  
不俗無憂同佛老  
雄詞健筆使人驚  
迷茫苦海誠難渡  
共向名山樂此情



효도와 절조가 있는 부인 박씨 찬양

충북 청원군 이원용 처



일찍 남편 여의고 죽기도 어려운데  
시부모 누가 봉양하리 마음 달래면서  
기거에도 법도 있고 더욱 근면하며  
평소처럼 담소하니 기뻐하지 않으랴  
후손 잇고 선조 받드는 사업 완성해  
품 팔아 곡식 짓고 재물 모아 가난 면해  
효도와 절개로 사람 도리 밝혔으니  
부럽구나! 방명이 세상의 으뜸일세

讚孝節婦朴氏 忠北 淸原郡 李源龍妻

早訣家君死亦難  
舅姑誰養自爲寬  
起居有度尤勤勉  
笑語如常不喜權  
求嗣奉先成事業  
雇舂取財免貧寒  
能兼孝節明人道  
可羨芳名此世冠

# 삼가 신고 최 군수 만사



청운에 뜻이 없어 일찍 산으로 돌아오니  
 어진 아들 손자들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 버리고 떠나니  
 천지에 인간보다 더 소중한 것 무엇인가  
 사귀이 늦었지만 망년지우<sup>1</sup>로 기뻐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세상 떠날 줄 알았으랴  
 석양 속에 눈물 줄줄 흘러내리는데  
 오열하는 매미 소리만 구천<sup>2</sup>에 가득하네

謹挽新高崔郡守

靑雲無意早還山  
 賢子仁孫喜滿顏  
 奄忽一朝皆捨去  
 有何天地勝人間  
 交雖晚也喜忘年  
 豈意今朝遽化仙  
 泫然涕淚斜陽裡  
 嗚咽蟬聲滿舊阡

1 망년지우(忘年之友) :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교제하는 벗을 뜻한다. 특히 연소자의 제덕을 인정하여 연장자가 하는 말이다.

2 구천(舊阡) : 옛 무덤을 의미한다.

## 추석 3~4일 전 우중에 우연히 읊다

7언 절구



부슬부슬 가을비에 문은 반이 닫혔고  
 소주 갖고 홍안紅顔을 빌리려 했네<sup>1</sup>  
 농가는 점점 추석이 가까워 오는데  
 우중에 기장 따서 저녁 빛 띠고 돌아오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秋夕三四日前 雨中偶吟 絕句

秋雨霏微半掩關  
 聊將白酒借朱顏  
 田家漸近嘉俳節  
 摘黍水中帶暎還

1 소주…했네 : 술기운 빌려 얼굴빛이 붉게 뽀를 말한다.

## 중추의 달을 읊다



연중 가절 달빛 속 누대에서  
 세상 밖 맑은 인연 유람 즐기네  
 만 리가 똑같이 맑은 오늘 밤 달빛  
 돈 한 푼 안 들이는 둥근 바퀴 달<sup>1</sup>  
 신선 음악 들 듯 자주 귀 기울이고  
 보배 궁궐 구경에 머리 치켜들었지  
 속된 생각 점점 사라지고 황홀해져  
 밤새도록 잠 못 들고 흥은 끝이 없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돈 한 푼…달 : 둥근 달 구경에 돈 한 푼 필요 없다는 말이다.

詠仲秋月

年中佳節月中樓  
物外清緣卽此遊  
萬里同晴今夜色  
一錢不費滿輪秋  
如聽仙樂頻傾耳  
可玩瓊宮更舉頭  
塵慮漸消新恍惚  
通宵無寐興悠悠



중양절(9월 9일)에



좋은 시절 손님 도착하니 배로 기뻐서  
단풍나무 숲 명월 속에 평상 설치하니  
술에 황국 있어 병골이 소생하는 듯  
사람은 왜 백발에 가는 세월 탄식하는가  
바람은 주렴 밖에서 벌레는 벽에서 울어  
서리 내린 강남에 기러기는 하늘 나르고  
청담 오래 끝다 보니 때는 한밤중인데  
먹 향기 차 연기 집을 둘러싸고 감도네

重陽

良辰客到倍欣然  
設榻楓林明月邊  
酒有黃花甦病骨  
人何白髮歎流年  
風鳴箔外蟲吟壁  
霜落江南雁起天  
清話遲遲時夜半  
書香繞屋又茶煙

# 납매臘梅<sup>1</sup>를 읊다



기이하고 예스런 산창에 한 그루 매화  
 온갖 꽃 중에서 가장 일찍 피었지  
 처음엔 운학이 처마 곁에서 잠자는 듯  
 옥인<sup>2</sup>이 장막 안으로 들어온 듯 했네  
 성긴 그림자 황혼에 누가 시 읊는가  
 고운 모습 잔설에 나그네 술잔 들고  
 그윽한 향기 솟아나니 시흥이 새로워  
 낭랑하게 읊는 소리에 온갖 시름 사라져

## 詠臘梅

奇古山窓一樹梅  
 百花頭上最先開  
 始疑雲鶴傍檐宿  
 宛似玉人入帳來  
 疎影黃昏誰咏月  
 淡粧殘雪客含盃  
 暗香挑出新詩興  
 浪讀聲聲萬慮灰

1 납매(臘梅) : 음력 선달에 꽃피는 매화를 뜻한다.  
 2 옥인(玉人) : 용모와 자태가 준수한 사람을 뜻한다. 진(晉)나라 위계(衛玠)가 총각 시절에 양거(羊車)를 타고 낙양(洛陽) 시가지에 들어서면 그의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다투어 나와 구경하면서 옥인(玉人)이라고 찬탄했다는 고사가 있다. 『세설신어(世說新語)』 용지(容止).



# 김성재<sup>1</sup> 망구 수연<sup>2</sup>에 주다



봉우리 더욱 기특하고 경지 더욱 맑아  
 평소 군평<sup>3</sup> 같은 명망 그대 부러워  
 시례 박통 많은 선비들에게 전해 주고  
 빈궁을 구휼하면서 일평생을 즐겼다오  
 장한 뜻 왕년에 화성 지역 유람하면서  
 풍류 있는 곳곳에 사람들 기쁘게 했고  
 나이 여든한 살 넘은 생일잔치에  
 우의는 참석했어야 하지만 눈 때문에 가지 못했네

## 贈金誠齋望九曄宴

峯壑幽奇境轉清  
 羨君雅望似君平  
 博通詩禮傳多士  
 能恤貧窮娛一生  
 壯志曾年遊華域  
 風流到處悅人情  
 壽高望九兼曄宴  
 誼固當參雪未晴



1 김성재 : 김학조(金學祖, 1875~1926)는 호가 성재(誠齋)로 동전 맹보순의 조카이다. 용인의 재력가로 '김 진사'로 불리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 망구(望九) 수연(曄宴) : 81세 생일잔치를 가리킨다.  
 3 군평(君平) : 촉(蜀)에 살던 엄군평(嚴君平)은 학식과 포부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지 아니하고 복서(卜筮)를 업으로 삼아 날마다 성도(成都)의 시장에서 가게를 열고 점을 보되, 대중을 구휼하면서 하루에 자기 하루 생활비인 백전(百錢)만 벌면 즉시 가게문을 닫고 주렴을 내리고서 생도들에게 『노자(老子)』를 가르쳤다. 양웅(揚雄)의 스승이기도 하다. 『전한서(前漢書)』 권72. 왕공량공포전(王貢兩龔鮑傳).

## 눈 가운데 만음<sup>1</sup> 7언 절구



천지에 흩날려 온통 옥을 이루고  
 원림에도 날아들어 꽃이 되었지  
 잠깐 사이 풍년의 해를 만난 듯  
 소봉<sup>2</sup> 창고가 집집마다 쌓였네



雪中漫吟 七絶  
 飛來天地渾成玉  
 飄入園林總是花  
 傾刻如逢豐樂歲  
 素封倉廩積家家

1 만음(漫吟): 글제가 없이 생각나는 대로 시 등 따위를 지어서 읊다는 뜻이다.  
 2 소봉(素封): 벼슬 없이도 그 부유하고 태평함이 공후에 봉해진 것과 같이 부유한 것을 말한다. 『사기(史記)』 권129 화식열전(貨殖列傳)에 “요즈음 관직의 녹봉도 없고 작읍의 수입도 없으면서 즐거움이 관직과 작읍이 있는 사람과 비등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명명하여 소봉이라 한다.(今有無秩祿之奉爵邑之入而樂與之比者 命曰素封)” 하였다.

## 또 5언 율시



지난 밤 눈바람이 심하더니만  
 아침에 보니 청산이 사라졌네  
 염호<sup>1</sup>가 석두산<sup>2</sup>에 웅크린 듯  
 옥룡<sup>3</sup>은 가지 위에서 한가롭네  
 파옹<sup>4</sup>은 시흥으로 떠나 버리고  
 섬객<sup>5</sup>은 뱃노래 부르며 돌아왔지  
 술 따뜻하고 매화 향 피어오르니  
 초각<sup>6</sup>의 얼굴이 배로 생각나네



1 염호(鹽虎): 호랑이 모양의 눈덩이를 말한다.  
 2 석두산: 강소성(江蘇省) 남경(南京) 남쪽에 있는 산이다. 여기서 단지 산 이름만 차용하였다. 제갈량(諸葛亮)이 오(吳)나라 도읍인 건강(健康)에 와서 산천의 형세를 살펴본 뒤에 “중산은 용이 서린 듯하고, 석두산은 범이 웅크린 듯하니, 이곳은 제왕이 거할 곳이다(鍾山龍盤 石頭虎踞 此帝王之宅)”라고 탄식한 고사가 전한다. 『고금사문유취(古今事文類聚)』續集 권1, 오도형세(吳都形勢).  
 3 옥룡(玉龍): 나무 가지에 서린 눈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4 파옹(灞翁): 성당(盛唐)의 시인 맹호연(孟浩然). 맹호연은 눈발이 휘날리는 파교(灞橋) 위를 나귀 타고 지나갈 때 가장 멋진 시상(詩想)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소식(蘇軾)의 시에 “그대는 또 못 보았는가 눈 속에 나귀 탄 맹호연을, 시 읊느라 찌푸린 눈썹 산처럼 솟은 두 어깨를.(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從山)”이라는 명구가 있다. 『소동파시집(蘇東坡詩集)』 권12, 증사진하충수재(贈寫眞何充秀才).  
 5 섬객(剡客):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를 가리킨다.  
 6 초각(草閣): 아버이를 모시는 초당(草堂)이다.

又 五律

夜來風雪惡  
朝看失青山  
鹽虎石頭踞  
玉龍枝上閒  
灞翁詩興去  
剡客棹歌還  
酒煖香梅發  
倍生草閣顏



## 상사<sup>1</sup> 김학조(호 성재) 만사



그대는 이미 애석하게도 자신을 잘 알고 있어  
연주가 아양에 이르자 거문고 파하러 했지<sup>2</sup>  
장중한 풍모는 어느 곳에서 찾아보리  
석양에 잔질 하니 눈물이 옷깃을 적시네

타고난 성품 관대하고 글 읽기 좋아해  
가난 구휼 선비사랑에 친소가 없었지  
성인 사모 간절하고 나라 걱정도 겸했으니  
늙어서도 충성심은 처음과 다르지 않았네

칠순으로 팔순 된 사람에게 곡하니  
금란<sup>3</sup>으로 맺은 옛 친구라 하지만  
서풍에 눈물 뿌리고 머리 돌려 섰으니  
갈친 고을에는 아무도 없는 듯하네

- 1 상사(上舍) : 진사(進士)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 2 연주가...파하러 했지 : 김학조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이다. 아양은 아양 곡으로 거문고의 명인 백아(伯牙)가 고산(高山)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그의 지음(知音)인 종자기(鍾子期)가 “종구나, 아아하여 태산과 같도다.(善哉 峩峩兮 若泰山)” 하였고, 유수(流水)에 뜻을 두고 연주하면 “종구나, 양양하여 강하와 같도다.(善哉 洋洋兮 若江河)” 라고 평했다. 지음인 종자기가 죽자 거문고를 파하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열자(列子)』 탕문(湯問).
- 3 금란(金蘭) : 금란지교(金蘭之交). 의기투합하는 우정을 말한다.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 상(上)의 “두 사람의 마음이 합치면 그 날카로움이 금도 자를 수 있고, 마음이 같은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란 말에서 나온 말이다.

輓金上舍學祖(号誠齋)

知君已舊惜君深  
彈到峨洋欲破琴  
儼健儀容何處見  
斜陽酌酒淚沾衿

天性寬仁好讀書  
恤貧愛士無親疎  
誠深慕聖兼憂國  
到老丹心不負初

七旬人哭八旬人  
人是金蘭舊契人  
西風回首立  
葛川洞裡若無人

## 김종식(호 충헌) 만사



동갑同甲 동지 두 서생으로  
병은 따라갈 수 없으니 괴롭고  
뜻하지 않게 그대 먼저 세상 떠나니  
망연자실 눈물이 사정없이 쏟아지네  
상제가 맞이하러 적선<sup>1</sup>을 보내  
구름타고 학 멩에로 유연히 떠나니  
청전구업<sup>2</sup>은 시가 천 권인데  
어진 자손에게 주었으니 대대로 전하리

1 적선(謫仙) : 하지장(賀知章)이 이백(李白)의 문장을 한 번 보고는 감탄한 나머지 '인간 세계에 귀양을 온 신선(謫仙)'이라고 극찬한 데에서 유래한 별칭이다.  
2 청전구업(靑靑舊業) : 청전은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가 밤에 서재에서 자다가 도둑이 들어 방 안의 물건을 다 훔쳐서 짐을 꾸리는 것을 보고 "푸른 모포(靑靑)는 우리 집의 오랜 물건이니 그것만은 놓아 두라."라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일반적으로 가업(家業)을 뜻한다. 『진서(晉書)』 권80, 왕희지열전(王羲之列傳).

輓金宗植(号 忠軒)

同庚同志兩書生  
病未相隨各惱情  
匪意忠翁先羽化  
惘然不覺淚縱橫  
上帝招邀謫降仙  
乘雲駕鶴去悠然  
青氈舊業詩千卷  
付與賢孫世世傳



## 병신년(1956년) 4월 용호에 놀면서



짧은 지팡이 약속에 날씨 해맑고  
특히 호수 하늘은 도심과 막혀 있지  
녹음방초 흐드러진 오늘 모임에  
백발에 향기로운 술 벗님네의 정일세  
비 지난 때 아는지며 삭은 많이 자라고  
산들 바람 정오에 돛배 그림자 생기지  
갈매기와 친한 듯 꺾꼬리는 벗을 부르고  
돌아갈 줄 잊고 산보하는데 석양이 밝네

## 丙申四月遊龍湖

短筇踐約際新晴  
別有湖天隔市城  
芳草綠陰今日會  
香醪白髮故人情  
知時雨過秧苗碩  
近午風輕帆影生  
鷗若相親鶯喚友  
忘歸散步夕陽明

정유년(1957년) 4월  
우연히 모란을 읊다 7언 절구



어여빠라 모란은 소대<sup>1</sup> 향해 피었는데  
누구 위해 떨어지고 누구 위해 피는가  
꽃의 정신 청한<sup>淸閑</sup>한 아취를 아는가  
시인은 웃음 띠우고 담담히 술잔 드네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丁酉四月偶吟牧丹 絕句

憐爾牧丹向小臺  
爲誰零落爲誰開  
花神尙識淸閑趣  
笑暎詩人淡淡盃

1 소대(小臺): 작은 누대를 뜻한다.

사석재 윤유병의 수연壽宴을 축하함



덕문<sup>德門</sup> 오래되어도 복은 새롭고  
평지<sup>平地</sup> 선령<sup>仙靈</sup>! 그대가 바로 진짜구먼  
일찍 공명을 초개보다 가볍게 여겨  
만년에는 자연에서 심신을 길렀네  
형제는 화목해 항상 즐거웠고  
향기 어우러진 정원에 봄은 영원했지  
정은 형제 같은데 몸이 따르지 못해  
시로 축수하는 것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1 평지(平地) 선령(仙靈): 뜻밖의 귀한 존재가 된 사람을 말함인 듯하다.

賀尹查釋齋(酉炳)壽席

德門雖舊福維新  
平地仙靈子是眞  
早謝功名輕草芥  
晚來泉石養心神  
和生棣院常湛樂  
香翁闌庭永葆春  
情若弟兄躬未進  
只將詩祝愧諸人



## 집 아우 간우 회갑을 축하 5언 고시



우리 집 선음<sup>1</sup>이 무거워  
형제는 세 사람 있는데  
세 사람 마음이 오직 하나  
서로 경계하니 불인에 빠지리  
부귀는 힘으로 이룰 수 없고  
충효는 성실과 진실에 있지  
흐르는 세월 사마<sup>2</sup>같이 빨라  
갑자기 몸만 늙어 가누나  
묘군<sup>3</sup>의 술잔 올리는 자리  
술 익고 국화꽃 필 때이네  
여경<sup>4</sup>을 사람들과 축하하니  
세세토록 이 잔치 새로워지리



1 선음(先蔭) : 조상의 은덕을 의미한다.  
2 사마(駟馬) :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이다.  
3 묘군(卯君) : 훌륭한 아우를 뜻하는 말이다. 토끼해에 태어난 사람으로 본디 소식(蘇軾)이 기묘년에 태어난 아우 소철(蘇轍)을 묘군이라 칭했던 데서 비롯된 말이다.  
4 여경(餘慶) : 적선여경(積善餘慶)의 준말이다. 『주역』 곤괘(坤卦) 문언(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경사가 있게 마련이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재앙이 돌아오게 마련이다.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라는 말이 나온다.

賀舍弟良愚華甲 五言古詩

吾家先蔭重  
兄弟有三人  
三人心惟一  
相戒陷不仁  
富貴非力致  
忠孝在誠真  
流光迅若駛  
遽作老大身  
卯君稱觴席  
酒熟黃花辰  
餘慶人同祝  
世世此筵新



# 집 아우 간우 만 칠순에 장난으로 쓰다

병신(1956년) 9월 보름날



대대로 영통에 살아 풍진을 멀리했고  
최선을 다하는 동생은 몸도 튼튼했지  
대지에 가득한 국화꽃 술도 곱하여  
서리 맞은 단풍나무 사람들 머물게 했네  
추억에 잠겨 아버지 생각 때때로 나고  
늙으면서 우애의 정 나날이 새로웠지  
어초의 만년 계획 마음 죽히 편안해  
한 폭의 명산이 부춘산<sup>1</sup> 같네

1 부춘산(富春山) : 부춘산이 유명한 것은 동한(東漢)의 은자(隱者)인 엄광(嚴光) 때문이다. 엄광은 소실 적에 광무제(光武帝)와 동문수학했던 인연으로 광무제 즉위 후 간의대부(諫議大夫)로 부름을 받았다가 응하지 않고 부춘산(富春山)에서 밭 갈고 낚시로 소일하며 여생을 마쳤던 인물이다. 『후한서(後漢書)』 권113, 고사전 하(高士傳 下)

舍弟良愚滿七旬戲題 丙申九月望日

世居靈里遠風塵  
最善卯君彊壯身  
滿地黃花兼有酒  
經霜紅葉更留人  
思親追感時時發  
到老友情日日新  
漁樵晚計安心足  
一幅明山等富春

SRI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두어 명과 함께 또 간우 집에서 읊다



중양의 날씨 완전히 맑다는 것 기쁘고  
사물 구경도 새롭고 감정도 되살아나  
술 익자 국화꽃 피어 나그네 꿈 설레고  
홍엽 단장한 산 위를 나르는 기러기 소리  
사람은 모름지기 평탄한 길로 가는데  
국운을 바라보니 황하가 한 번 맑으랴  
푸른 등불 백발에 명산은 저녁인데  
만사가 옛 친구의 정 같은 것 없으랴

1 황하가…맑으랴: 그 시기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좌전(左傳)』 양공(襄公) 8년에 “황하가 맑기를 기다리는데, 사람의 수명은 얼마인가(俟河之清 人壽幾何)”란 말이 있다.

與數又會吟良愚家

重陽天氣喜全晴  
玩物生新感亦生  
酒熟黃花惱客夢  
山粧紅葉度鴻聲  
人心須向路平坦  
國運將看河一清  
青燈白髮明山夕  
萬事无如故舊情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통곡의 만사

종손 직원(화영)공 영이靈輻<sup>1</sup>



형은 종손이요 나는 지파支派  
10년 한 술에 정의도 더욱 새로워  
산수에서 마음 즐기며 시간 보내며  
공명에 뜻 없이 젊은 날을 보냈네  
마음 의지해 바라보며 그리워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주 문의했는데  
뜻밖의 부음訃音에 책상에서 떨어져  
흐르는 눈물 정신 잃은 사람 같았네

1 영이(靈輻) : 관을 실은 수레를 의미하며 영가(靈駕)라고도 한다.

哭挽 宗孫直貞(和泳)公 靈輒

兄爲宗胄我支裔  
同鼎十年誼益新  
山水樂情消白日  
功名无意送青春  
心常依仰瞻懷久  
事若有難問議頻  
料外諱音來墜案  
淚橫完似喪魂人



또 7언 절구 2수



사랑은 친 아우와 같고 우정은 깊어  
한 달 한 계절 떠나니 이 마음 괴롭고  
종사에 사단이 많으니 누구에게 물으리  
석양 상여 줄에 눈물이 옷깃을 적시네  
온순한 심성이 옥인玉人 같았고  
80년 동안 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남들은 슬픈 말 나 홀로 축하하니  
구름 타고 학 몰아 신선을 배우는 사람 되리

又 七絶 二首

愛如親弟友情深  
時月相離惱此心  
宗事多端更誰問  
斜陽執紼淚沾襟  
溫良心性玉如人  
八十年來好德人  
人盡哀辭余獨賀  
乘雲駕鶴學仙人

# 신리에 사는 최사교의 수연을 축하

운문 2수



신이의 옛 집은 철화<sup>1</sup>鐵花가 새롭고  
 철화 아래 두 신선 늙은 몸이 아니네  
 의자 나란히 하고 훈지<sup>2</sup>와 채무<sup>3</sup>로  
 집안에 가득한 화기에 빈친<sup>4</sup>이 다 모였네  
 온갖 꽃 동시에 피어 채화<sup>5</sup>를 비추고  
 수주<sup>6</sup>는 항아리에 복은 집안에 가득해  
 비파가락 조율은 채무를 아롱지게 하니  
 구여<sup>7</sup>의 시송에 맑은 노래로 화답하네

賀莘里崔士教壽席 韻二首

莘蕘古宅鐵花新  
 花下雙仙未老身  
 聯榻塤篪兼彩舞  
 滿堂和氣會賓親  
 百花齊發咲棣花  
 壽酒盈樽福滿家  
 瑤瑟調音斑彩舞  
 九如詩頌和清歌



1 철화(鐵花) : 첫조각으로 이루어진 선으로 구성된 걸개그림을 의미하며 공예미술의 하나이다.  
 2 훈지(塤篪) : 형제 혹은 친구 사이의 화목과 조화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으로, "만형은 훈을 불고 둘째형은 지를 분다.(伯氏吹塤 仲氏吹篪)"는 말이 있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  
 3 채무(彩舞) : 노래자(老萊子)가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색동옷을 입고 재물을 부렸다고 한다.  
 4 빈친(賓親) : 빈객과 친족을 뜻한다.  
 5 채화(棣花) : 형제를 비유한다. 우애를 읊은 『시경』 「소아(小雅) 상채(常棣)」에 "아가위 꽃송이 활짝 피어 울긋불긋, 지금 어떤 사람들도 형제만 한 이는 없지.(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는 말이 나온다.  
 6 수주(壽酒) : 축수하는 술을 뜻한다.  
 7 구여(九如) : 아홉 가지의 예를 들어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이른바 '구여지축(九如之祝)'을 말한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천보(天保)에 나오는 여산(如山)·여부(如阜)·여강(如岡)·여릉(如陵)·여천방지(如川方至)·여월항(如月恒)·여일승(如日升)·여남산수(如南山壽)·여송백무(如松柏茂)를 가리킨다.

## 한죽사 ‘송인’ 시의 운을 빌려서



꽃구경 가는 곳에 한 향아리 맑은 술  
 굿든 맑든 길 멀든 가깝든 따지지 말라  
 나를 부르는 풍광이 비단 펼쳤으니  
 사람 놀라게 하는 시구 금성이 진동하네<sup>1</sup>  
 낮은 나비 따라 아득히 꿈속을 헤맨 듯<sup>2</sup>  
 마음은 흰 갈매기 짝하기를 맹세했지<sup>3</sup>  
 우스워라 덧없는 인생 이별로 늙었으니  
 모춘에 하물며 그대를 떠나보내는 심정

借韓竹沙送人韻

訪花到處一樽清  
 不較陰晴遠近程  
 召我風光開錦繡  
 驚人句語動金聲  
 魂隨蛺蝶迷成夢  
 心伴鷺鷥好作盟  
 堪笑浮生老於別  
 曠春况又送君情



1 사람…진동하네 : 아름다운 문장을 찬미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때 손작(孫綽)이 천태산부(天台山賦)를 지어 놓고 나서 자기 친구인 범영기(范榮期)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시험 삼아 이 부를 땅에 던져 보게나, 외당 금석 소리가 날 것일세.(卿試擲地, 當作金石聲)” 한 데서 온 말이다. 『진서(晉書)』 권56, 손작 열전(孫綽列傳).

2 낮은 나비…헤맨 듯 :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유명한 ‘호접몽(胡蝶夢)’의 이야기이다. 장자(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피어(彼我)의 구별을 잊고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이다.

3 흰 갈매기…맹세했지 : 자연에 은거하여 백구와 벗을 삼겠다는 맹세를 말한다. 송나라 육유(陸游)의 시 속흥(夙興)에 “학의 원망은 누굴 의지해 풀지, 백구와의 맹세 이미 싸늘할까 염려되네.(鶴怨憑誰解 鷓盟 恐已寒)”라 하였다. 『검남시고(劍南詩藁)』 권52.

## 몇 명의 벗과 같이 읊다



백 년 된 오랜 느티나무 깊은 산골짜기  
 모든 오가든 사람들 다 속으로 알지  
 천 칸을 감싸듯 많은 선비들 편안했고  
 삼복에도 폭염 없으니 녹음이 짙어서네  
 우뚝한 맑은 봉우리는 전체가 옥인 듯  
 때때로 날아오는 꾀꼬리는 온통 황금빛  
 이내 생애 가을 매미 죽음과 비슷하거늘  
 석양에 나그네 만나 고금을 이야기하네

### 與數友共吟

楓老百年一洞深  
 齊齊筇屐總知心  
 千間如庇安多士  
 三伏無炎漲綠陰  
 特立晴峯全面玉  
 時來黃鳥遍身金  
 此生擬與涼蟬化  
 對客斜陽話古今

## 최후 읊은 한구



화은공華隱公이 별세 전일에 친한 벗 죽사竹沙 한봉교韓鳳教가 문병했는 데, 한가로운 마음이 태연자약하였다. 이어서 자작시 한구를 읊기를 “꾀꼬리 옛 벗 찾아 깊은 정원으로 날아들고, 매미는 참신한 소리로 울며 딴 가지로 날아가네.”라 하였다. 이 시가 공의 최후작으로 신선으로 화해 가는 기미를 여기에서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最終有所吟一句

華隱公之別世前日 親朋韓竹沙(鳳教)問病 則閑意自若 仍吟自作一句曰“鶯尋舊友來深院 蟬曳新聲過別枝”云 此乃公之最後所作 而從知仙化之機 暗示於此也

## 영통노규기



화성 동쪽 십 리쯤에 청명산<sup>1</sup>이 있고 영통靈通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 안 언덕에 한 그루 느티나무가 우뚝하게 서 있어 옛날부터 마을을 수호하는 주인이 되었고, 한 고을의 풍치風致로서 온 마을의 귀엽고 예쁜 모습이 되기도 하였다. 그 시초를 묻는다면, 대략 200년 전에 이오명李五明 선생이 화은華隱 본가 동부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어린 동생이 늘 휘어잡고 오를 때마다 이 느티나무는 작은 서까래만하다고 하였다.

나무를 심은 주인공을 알지는 못하지만 심은 연대를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지역에 나무를 세운 것은 나<sup>2</sup>의 백종조伯從祖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종손 모씨가 어떤 채무로 벌채를 하고자 하자, 내가 이 채무를 변제한 다음 해에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축대를 쌓아 기반을 보호하게 하였다. 무더위가 올 때마다 동리의 노소들이 이곳에 오가고 남녀들이 같이 휴식을 취하였다. 기이한 새와 특이한 벌레들이 사철 서식하였으며, 시를 읊고 노래하며 자연을 노래할 때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함께 즐겼다.

그러나 사람이 늙으면 칠순 전후에 흰머리에 거북 등이 되고 나무가 오래되어 120년 정도 지나면 나무속이 상하고 중간이 비니, 사람과 나무를 살펴보건대 더디고 빠른 차이는 있지만 생장해서 쇠하고 병들어 한 원리

1 청명산(淸明山) : 경기도 수원시의 영통구 영통동과 용인시 기흥읍의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산 정상에 서면 탁 트여 있어 사방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 나 : 『화은시집(華隱詩集)』의 저자 오득영(吳得泳)을 말한다.

로 돌아가니 그 이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예로부터 전하는 말에 “사물이 오래되면 신과 같다.”고 하였는데, 헛되이 전한 것이 아니다. 과거 중일전쟁 수년 전 선달 저녁에 이 나무에서 은은하게 우는 소리와 돼지를 묶을 때와 같은 울부짖는 소리가 있었고, 또 항아리 속에서 나는 소리도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 모두가 놀라서 괴이하게 여긴 것은 2개월 동안 한 밤중이었기 때문이다. 이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이런 예가 있다고 한다. 수년이 지난 신미일에 …결락…

### 靈通老槻記

華城東十里許 山有淸明 里有靈通 此里中邱 有一槻木特立 自古管鎮作主 此乃一洞風致 全區眉目 問其生初則 略二百年前 五明李先生 卜居於華隱 本第東部地際其兄弟 每多攀登時 於此槻適如椽之小云 雖不知栽植主人 亦可測栽植年期也 此地段與立木 係於華隱伯從祖家有矣 宗孫某 時因其他債 將斫伐故 華隱公償債贖之 後年使隣居民 負石築臺 保護根基 每當炎暑 洞裡老少 來往男女 共作休憩 寄禽異蟲 棲遊四時 每奏絃 頌於自然 長使人物共樂矣

然人老則 七旬前後 鶴髮龜背 樹古則 一紀有餘 心傷中空 觀此人木 雖有遲速之差 生長衰病 同歸一轍 理所難免也 古云物舊則 神似非虛傳 往在中日 戰役之數年前臘夕 此樹隱隱有鳴聲 如縛豕之吼 又如囊中之音 洞人皆驚怪之者 兩月中夜矣 非但此樹 他洞亦有是例云 後數年 辛未日…

저자 오득영  
역주 진성규(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해제 진성규(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한동민(수원화성박물관 관장)

수원학자료총서 7

역주

# 화은시집

譯註 華隱詩集

발행일 2021년 10월 20일  
발행처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화성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수인로 126  
T. 031-220-8058 H. <http://www.suwon.re.kr>  
인쇄 경인M&B(031-231-5522~7)  
ISBN 979-11-6819-015-3 94910  
ISBN 979-11-6819-014-6 (세트)

